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3 호 2024년 11월

pISSN 3022-2435

eISSN 3022-3873

특집논문

장경호 |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유바다 |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김태웅 |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 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한동훈 |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권의석 |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일반논문

녹두팀·박정민 |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엄찬호 |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남경국 |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홍성덕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자료소개

이병규 | 이풍암공실행록(李豐菴公實行錄)

김희태 |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3 호

2024년 11월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2024년 11월

목 차

▣ 특집논문 ▣

장경호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3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유바다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31
김태웅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61
한동훈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115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권의석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151

▣ 일반논문 ▣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18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엄찬호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	225
남경국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257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홍성덕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279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3

2024. November

▣ 자료소개 ▣

이병규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	311
김희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375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 부 록 ▣

연구소 소식	399
위원회 명단	40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40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432
연구소 발간 자료	439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장경호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유바다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김태웅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한동훈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권의석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장경호**

〈목 차〉

머리말

I.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보도와 왜곡된 시선

II. 뉴욕 언론의 보도와 내용적 특질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뉴욕 언론지에서 보도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국 언론에서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미 국무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란, 폭동 정도로만 치부하였다. 하지만, 뉴욕 언론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총 24건을 보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언론보도를 한 뉴욕 언론지는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강원전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833년에 창간한 『The Sun』이었다. 제임스 크릴만과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폰-헤세를 제외하고는 작성자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로 동학에 대한 인식은 미국무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1904년 4월 10일 『The Sun』이 동학에 대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동학은 마을 사람들을 약탈하고, 일본인을 죽였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있었다.

청일전쟁과 관련된 기사는 21건 확인된다. 전쟁 이전에는 조미관계와 관련된 보도를 주로 하였으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전황을 보고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다. 대체로 요코하마발 기사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상해발 기사들은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기사들이 각각 보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반란, 폭동, 뉴욕 언론지, 『The Sun』

머리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조약체결의 제1항 거중조정(Good Offices)에는 “만약 다른 나라가 어떤 불공정하거나 경멸하는 일을 일으키면 통지를 거쳐 반드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치하여 우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는 “미국은 조선과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며, 조선에서 가장 늦게 떠날 나라가 될 것이다”¹⁾라고 하며 상호 국가 간의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거중조정과 미국 공사의 언급은 고종으로 하여금 미국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등 당시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자, 고종은 자신의 친족에 이어 본인까지도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을 시도할 정도로 미국에 의지했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개입을 꺼렸던 미국은 이를 우회적으로 거부

1) FRUS, Korea, No.231. Mr. Foote to Mr. Frelinghuysen, 1894.12.17., p.33.

하였다.

한편 미 국무부에서는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조선의 거중조정 요청을 거부하게 된 배경, 청일전쟁기의 대한정책을 분석한 연구들²⁾이 확인되어 주목을 요한다.

다만,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없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문서에 반란(in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몇 건 나오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한미국공사 쉘(John M. B. Sill)은 그레샴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문서에 “농민이 힘을 얻고 있고, 조선이 그것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으니, 미국의 이권과 조선에서 미국인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함대 파견이 시급하다”³⁾고 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청과 일본의 군사파견으로 인해 조선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⁴⁾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미국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단지 이로 인한 조선 정세의 변화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미청국공사 양유가 그레샴에게 청일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며, 동학농민혁명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레샴은 “반란(insurrection)이 이미 진압되었으니, 일본이 철병해야 한다”⁶⁾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단지 ‘반란’ 정도로만 인식

2) 김원모, 1974, 『美國의 對韓 居中調停(1882~1905)』, 『사학지』 8, 19~67쪽; 이민식, 1992, 「미국의 對朝鮮 親日政策의 출현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사총』 40·41합집, 79~110쪽; 이민식, 1994, 「19세기 말 한미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106쪽; 김현철, 2002, 「청일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분석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47, 149~179쪽.

3) FRUS, Chinese-Japanese war, Mr Sill to Mr. Gresham, 1894.6.1., pp.18~19.

4) FRUS, Chinese-Japanese war, Mr. Sill to Mr. Uhl 1894.6.24., p.22.

5) FRUS, China, Mr. Yang Yu to Mr. Gresham, 1894.9.22.

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3, (16)[朝鮮의 內政改革과 撤兵에 대한 美國政府의 勸告], 美合衆國 特命全權公 使→外務大臣 陸奧宗光 第52號, 1894년 7월 9일; 문일평, 2016,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268~269쪽.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 기자와 선교사들은 동학과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비온티노 유리안은 서양인 기자, 선교사, 학자, 외교관, 여행가들의 저서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학인식을 살펴보고,⁷⁾ 미국 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다양한 신문들을 통해 이 신문들이 청일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⁸⁾ 하지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동학 및 청일전쟁 인식을 바라보아 지방 언론의 인식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뉴욕 언론은 The NYS Historic Newspapers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욕 내 각 언론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보도한 뉴욕언론지는 『Buffalo Evening News』,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Oneonta Daily Star』, 『Plattsburgh Daily Press』, 『Utica Daily Press』, 『The Argus』,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Daily Palladium』, 『The Evening Journal』, 『The Evening World』,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Lockport Journal』,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The Ogdensburg Journal』, 『The Sun』, 『The Watertown Times』, 『The Utica Observer』 등 이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관련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된다. 1830년대부터 신문 연간 구독비가 점차 줄어들고, 발행 부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뉴욕은 대외 지식이 들어오는 중심지 였기 때문에, 뉴욕 언론

7)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483~533쪽.

8) 비온티노 유리안,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175~210쪽.

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인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해당 언론에 의한 연구는 주로 홍종규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오군란 및 신미양요에 대한 뉴욕 언론의 기사들의 수치적 분석과 기사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⁹⁾ 이 연구는 뉴욕 지역 언론의 한국 관련 인식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것으로 의의가 있지만, 청일전쟁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일전쟁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보도한 뉴욕 언론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 언론지가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I.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보도와 왜곡된 시선

1. 동학농민혁명을 보도한 뉴욕 언론

뉴욕 언론에서는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이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홍종규, 김남현, 2018, 「19세기(1810~1871) 미국 뉴욕 언론을 통해 본 조선의 이미지」, 『강원사학』 31, 137~163쪽; 홍종규, 2023, 「미국 신문의 조선에 대한 인식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임오군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159~183쪽.

〈표 1〉 뉴욕 언론의 동학 관련 기사 목록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	『Buffalo Evening News』	1894년 06월 07일	Insurrection in Corea
2	『The Utica Observer』	1894년 06월 07일	Insurrection in Corea
3	『The sun』	1894년 06월 07일	The Revolt in Korea
4	『The sun』	1894년 09월 09일	Corea's Military System
5	『Gouverneur Free Press』	1894년 09월 19일	Koreans repel Japan
6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10월 20일	Coreans Rebel
7	『The Argus』	1894년 10월 23일	Seoul's Red Spot
8	『The Sun』	1894년 11월 11일	A report that the Big Naval station has been captured
9	『The Evening Journal』	1894년 11월 28일	Japanese Defeats Tonghaks
10	『The Evening World』	1894년 11월 28일	A golden Harvest
11	『The Evening World』	1894년 12월 3일	Corea's King Talks The World Correspondent Asked to Send an Appeal.
12	『Plattsburgh Daily Press』	1894년 12월 26일	The Tonghak Rebellion
13	『Plattsburgh Daily Press』	1894년 12월 27일	The Tonghak Rebellion
14	『Utica Daily Press』	1894년 12월 28일	Adviser to China
15	『Oneonta Daily Star』	1895년 01월 09일	The King of Korea Declares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Three of the Leaders of the Tonghak Rebels Seized and Beheaded
16	『Utica Daily Press』	1895년 01월 14일	Desolation of War
17	『The Sun』	1896년 01월 26일	Some New Books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18	『The Sun』	1903년 12월 24일	Warships Ready to Start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9	『The Sun』	1904년 01월 22일	Japan to Issue A Loan
20	『The Ogdensburg Journal』	1904년 04월 08일	New Korean Minister to Japan
21	『The Sun』	1904년 04월 10일	The Tong Haks Corea
22	『Utica Daily Press』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23	『The Daily Palladium』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24	『The Lockport Journal』	1904년 05월 16일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는 총 24회가 확인되는데,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언론은 『The Sun』으로 총 7회였다. 그 밖에 2회 이상 보도가 된 언론은 『Utica Daily Press』 3회, 『The Evening World』, 『Plattsburgh Daily Press』 2회다.

이 중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한국 관련 기사를 다수 보도한 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Sun』은 1833년에 창간하여 1950년까지 존속한 언론지다. 삽화, 범죄보도로 주로 노동자 층이 많이 구독하였다. 해당 신문은 선정적인 기사를 양산해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전략을 가진 언론으로 동학농민혁명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도 다수 보도했던 언론이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Utica Daily Press』는 1882년에 창간하여 1969년까지 존속하였던 언론지다. 『The Evening World』는 1887년 창간되어 1931년까지 존속된 언론지다.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890년대 중반에는 34만 부가 발간되었다. 『Plattsburgh Daily Press』는 청일전쟁이 종전되던 1895년에 발간된 신문으로 1942년까지 존속하였다.

다음으로 『Buffalo Evening News』, 『The Utica Observer』,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The Argus』, 『The Evening Journal』, 『Oneonta Daily Star』, 『The Ogdensburg

Journal』, 『The Daily Palladium』, 『The Lockport Journal』 각 1회다.

뉴욕 언론지의 보도 양상을 살펴보면 조선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이나 청일전쟁과 같은 국제정세를 비중있게 다룬 언론도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왜곡 보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에 대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1894년 6월 『Buffalo Evening News』, 『The Utica Observer』 등인데, 샌프란시스코발 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보도하였다.

조선에 소식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군(The rebels)은 주로 Chinese doctrines를 고수하고 서양 사상과 교류를 반대하는 당이다. 반군의 지도자는 Sai Ji Kyo 한 명이며 그의 추종자 수는 6만 명이다. 관군을 무찌르고 여러 관리들을 죽인 반군(insurgents)은 많은 용기를 얻었고 큰 명성을 얻었다. 증기선 3척과 중국 군함 1척이 이미 한반도 남단에 있는 소요 현장으로 800명의 병력과 80만 발의 탄약을 수송했다.”¹⁰⁾

당시 청군이 출발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 기사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성 점령을 전후한 제1차 봉기의 시점에서 나온 기사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이 중국 사상(Chinese doctrines)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서양 교류를 반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Si Ji Kyo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The Sun』에서도 6월 7일 상기 두 언론과는 다른 제목(The Revolt in Korea)의 기사를 상하이발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10) “Insurrection in Corea” 『Buffalo Evening News』 7 June 1894; 『The Utica Observer』 7 June 1894.

그곳의 반란(rebellion)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텐진에서 외국 장교가 훈련하고 지휘하는 청군 2,000명이 파견되었다. 해밀턴 항에 있는 영국 함대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조선 반란군(Corean insurgents)은 전라 지역의 군대를 격파하고 외국인 추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란군(The Rebels)에게는 무기와 식량이 잘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공식 창고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역자 주: 관원)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지도자는 몇 년 전에 비슷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관군이 중국 군함 3척을 타고 문제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척은 중국 군함이다.¹¹⁾

『The Sun』은 상기한 두 언론과는 달리 청나라 측의 군대 파견과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규모에 대해 두 언론이 6만 명이라고 한 것에 비해, 5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청군이 파견되었다는 점, 동학농민군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도하였다.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10월 20일 『Lockport Daily Journal』은 다음과 같이 전황에 대해 보고했다.

조선인들(동학도)은 반란(rebel)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 아래서 불안해한다. 관군과 일본인(일본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런던 10월 20일, <더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는 코리아의 서남쪽 끝 전라도 지방에서 수백 명의 조선인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인과 일본군이 연합군을 파견했다는 요코하마발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조선인들은 일본군의 확고한 역할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¹²⁾

11) "The Revolt in Korea" 『The Sun』 7 June 1894.

12) "Coreans Rebel" 『Lockport Daily Journal』 20 October 1894.

요코하마발을 통해 전해진 해당 언론에서는 일본의 파병과 그 역할을 강조하였고, “조선인들(동학도)들이 일본군의 역할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였다.

『The Sun』에 기고한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Ernst Von Hesse Wartegg)¹³⁾의 글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고종이 자국의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청나라에 보호를 요청했는지 의아했다”고 하면서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 낙후되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이 파견되지 못하고 청군이 파견되었다는 점을 기고했다.¹⁴⁾

9~10월 기사는 위의 두 기사를 제외하고, 단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9월 『Gouverneur Free Press』에서는 “2,000명의 군인이 인근에 모여 있는 동학동민군의 무력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착했다”¹⁵⁾ 10월 『The Evening Star』에서는 청일전쟁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다수의 동학도들이 수도인 서울을 위협했다”¹⁶⁾ 『The Argus』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혁명군과 연루되었다”¹⁷⁾ 11월 『The Sun』에서는 “11월 9일 부산에서 보낸 전보에 따르면 일본이 동학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다”¹⁸⁾ 12월 『Utica Daily Press』는 “고베의 타임즈 특파원은 해병대를 거느린 츠쿠바(Tusubka Kane)가 동학농민군(rebels로 표현)을 해산시켰다”¹⁹⁾고 각각 보도했다.

13) 1854년 2월 21일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술가로 1894년 한국에 있으며 조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남겼고, 1895년에 독일에서 이를 출간하였다. 해당 기사에 기고한 한국 군대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지음, 정현규 옮김, 2012,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145~152쪽에도 보인다.

14) “Corea’s Military System” 『The Sun』 9 September 1894.

15) “Koreans repel Japan” 『Gouverneur Free Press』 19 September 1894.

16) “That Yalu Battle” 『The Evening World』 20 October 1894.

17) “Seoul’s Red Spot” 『The Argus』 23 October 1894

18) “A report that the Big Naval station has been captured” 『The Sun』 11 November 1894.

1894년 12월 26일에 가서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단독 기사가 보도되었다. 『Plattsburgh Daily Press』는 동학(TongHak)에 대해 한 단락으로 단독 보도했다. 이 언론은 요코하마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동학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동학(Tonghak)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학도들은 지방의 수도를 점령했다. 그들은 지방관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동학도 중 한 명을 임명했다. 조선 남부 지역 세 마을이 동학에 의해 불태워졌다. 호랑이 사냥꾼(역자 주: 포수)들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고 있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²⁰⁾

1894년 12월 이전까지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기사들은 Rebel, insurrection 등으로 보도한 반면, 『Plattsburgh Daily Press』에서는 동학(Tonghak)이라고 보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한 반란으로 치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관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동학도를 임명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가 확인된다.

『The Sun』은 새로 발간된 책 『청일전쟁』(『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을 소개하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청일전쟁』에서 동학에 대해 ‘로마 카톨릭 및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 반동주의’로 소개하고 있고, 1894년 5월 반란(insurrection)은 남부 3도에 널리 퍼져있었고, 한곳에서만 3만 명이 넘는 동학교도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을 밝혔다²¹⁾ 언급했다.

『The Evening Journal』은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재인용하여 “1894

19) “Adviser to China” 『Utica Daily Press』 28 December 1894.

20) “The Tonghak Rebellion” 『Plattsburgh Daily Press』 27 December 1894.

21) “Some New Books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The Sun』 26 Jan 1896.

년 11월 28일 동학교도들이 공주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은 동학군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동학군은 전적으로 학살당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중 두 명이 죽임을 당했다”²²⁾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기사는 뉴욕타임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²³⁾ 같은 날 『The Evening World』에는 미국 뉴욕 월드신문 특파통신원 제임스 크릴만(James Creelman)²⁴⁾ 작성한 글을 보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의 의견을 담고 있는데, “고종이 더 결연한 인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을테지만, 고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편, 이 나라에 동학(Tong hoks)이 그들의 평등 사상(doctrine of equality)을 전파하고, 정부를 해체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학사상이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임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²⁵⁾

한국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동학농민혁명을 언급한 것은 1894년 12월 3일 『The Evening World』에서 확인된다. 이 역시 제임스 크릴만(James Creelman)²⁶⁾이 작성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크릴만이 단독으로 보낸 기사다. 이 기사에는 ‘고

22) “Japanese Defeats Tonghaks” 『The Evening Journal』 5 December 1894.

23) 비온티노 유리안, 앞의 논문 참조.

24) 제임스 크릴만은 1859년 11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다. 청일전쟁 당시 기자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도 크릴만이 동경의 미국인 하우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일본 정부가 조선에 행하고 있는 것이 해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 기록』 권2, 機密送第78號, 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在朝鮮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141쪽).

25) “A golden Harvest” 『The Evening world』 28 Nov 1894.

26) 제임스 크릴만은 1859년 11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이다. 청일전쟁 당시 기자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도 크릴만이 동경의 미국인 하우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일본 정부가 조선에 행하고 있는 것이 해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 기록』 권2, 機密送第78號, 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在朝鮮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141쪽).

종이 세계 특파원과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당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 고종을 위협하는 요소로 흥선대원군의 존재를 들었고, “흥선대원군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고, 남접의 대동학 운동은 흥선대원군이 동학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었다”고 판단하면서 동학과 흥선대원군 간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²⁷⁾

1895년 1월 『Oneonta Daily Star』에서는 한국이 ancestral temple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지도자 3명을 체포하였다. 동학은 한국 군인에 의해 추격을 받았고, 그 결과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다.²⁸⁾ 또한 『Utica Daily Press』에서는 도쿄 중앙 뉴스 소식통을 인용하여 “츠크바의 보고에 의하면, 전라도 동학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체포된 첩자는 반란군 수괴와 40여 명을 참수함으로써 항복의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종과 조순은 분열이 일어났다고 선언한 동학 포로들을 조사하고, 일본 수병들과 한국 관군이 그들을 공격하여 완전히 겁에 질리게 했다”²⁹⁾라고 하면서 일본 측에 유리한 보도를 하였다.

1903년 『The sun』에서는 한국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하였다. 반란(Rebellion)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파견될 예정이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직후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반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³⁰⁾ 밝혔다.

1904년까지 동학 관련 보도는 이어졌다. 『The Lockport Journal』,

27) “Corea’s King Talks The World Correspondent Asked to Send an Appeal.” 『The Evening World』 3 December 1894.

28) “The King of Korea Declares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Three of the Leaders of the Tonghak Rebels Seized and Beheaded” 『Oneonta Daily Star』 9 January 1895.

29) “Desolation of War” 『Utica Daily Press』 14 January 1895.

30) “Warships Ready to Start” 『The Sun』 24 December 1903.

『The Daily Palladium』, 『Utica Daily Press』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4명이 전주에서 처형되었다고³¹⁾ 일제히 보도했다. 한편, 『The Sun』에서는 1월에 “다양한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은 혼란해지고 있다. 동학 봉기(Tonghak rising)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향한 것이다. 고종은 러시아에게 경호병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했고, “한국 남부의 반란이 심각하다. 이는 세금징수관들의 갈취에 기인한 것으로 현지 일본인들이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³²⁾ 이어 4월에는 『An Excellent Tale of Corea』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간단히 소개하였고,³³⁾ 『The Ogdensburg Journal』은 “평양 인근에서 해산한 동학군과 연계해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상습적인 소요에 불과하며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보고 있다”³⁴⁾고 한 바 있다. 4월 10일에는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The Sun』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동학이 러일전쟁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약탈, 교리 논쟁, 학살을 일삼으며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 온 단체라고 설명하였다.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동학에 있다는 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만주지역에 진출했기 때문에 러·일간 각축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이로 인한 러일전쟁 역시 동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 기사를 내보냈다.

동학은 현재 강렬한 애국심에 의한 유일한 단체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협적이고, 지금은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지고, 지금은 강탈과 약탈을 일삼고, 지금은 싸우고, 서구의 사상과 동기, 방법으로는 거의 특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신학적 논쟁에 몰두하지 않는 세력이다.

31) “Russian Prisoners sent to Japan” 『The Lockport Journal』 16 May 1904; 『The Daily Palladium』 16 May 1904; 『Utica Daily Press』 16 May 1904.

32) “Japan to Issue A Loan” 『The Sun』 22 January 1904.

33) 『The Sun』 23 April 1904.

34) “New Korean Minister to Japan” 『The Ogdensburg Journal』 8 April 1904.

동학은 종교의 성격, 형이상학적 논의, 학살, 그리고 공적 갈취(역자 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애국적 저항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³⁵⁾

이어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된 배경, 동학의 원리, 동학의 예배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일전쟁으로 이어진 사건은 반란이었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수년 동안 하부 지방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행진하며 관아, 총, 탄약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창과 낫을 들고 다녔다. 그들은 약탈하고 구타하기 전에 행군 도중 자주 멈춰 마을 주민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다.

조선인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몰려들었다. 더 이상 질병도, 빛도, 총알도 물에 녹아 없어지고 농작물도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조선왕조의 500년이 곧 끝나고, 혁명의 때가 왔다는 예언에 더욱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서울로 진격하던 동학농민군은 소수의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고, 동학농민군은 물에 녹지 않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를 본 관군은 도망쳤다. 마침내 반란군 몇 명이 붙잡혀 처형되었고 동학은 다시 사라지는 듯했다.³⁶⁾

또한 최제우의 죽음에 대한 교조신원운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어 “마을의 가옥 400채가 불에 탔고 지방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살인과 약탈의 길로 나섰다. 일본인들은 발견되

35) “The Tong Haks Corea” 『The Sun』 10 April 1904.

36) “The Tong Haks Corea” 『The Sun』 10 April 1904.

는 곳마다 공격당하고 살해당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발되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뉴욕 언론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 중에 가장 자세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제우가 천주교 신자라서 처형당했다는 등 잘못된 정보와 동학농민군을 학살자로 묘사하고, 일본인이 학살당했다는 등의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시선은 일본발 기사에 영향을 받아 작성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1894년부터 1904년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청일전쟁기 전쟁의 발발을 제공한 Rebellion, insurrection 등으로 묘사되었을 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계층과 이들이 가진 이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도는 이노우에를 인터뷰한 크릴만의 기사에서 동학이 ‘평등을 지향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만 있었고, 심층적 분석은 1904년에 가서야 있었는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괄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II. 뉴욕 언론의 보도와 내용적 특질

1. 청일전쟁을 보도한 뉴욕 언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뉴욕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뉴욕 언론의 청일전쟁 한국 관련 기사 목록

	언론	날짜	기사 제목
1	『The Sun』	1894년 6월 29일	Japan's Occupation of Corea
2	『The Sun』	1894년 07월 19일	Gresham's Intervention
3	『The Argus』	1894년 07월 22일	The War is On
4	『The Brooklyn Daily Eagle』	1894년 07월 22일	Japan and China May Fight

	언론	날짜	기사 제목
5	『The Daily Cataract』	1894년 07월 23일	War is Inevitable
6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1894년 07월 23일	War is Inevitable
7	『The Sun』	1894년 07월 24일	The War Could In Corea
8	『The Evening Post』	1894년 07월 27일	The Contest Over Corea
9	『The Evening World』	1894년 7월 27일	China Means To Win
10	『The Watertown Times』	1894년 07월 28일	China And Japan At War
11	『The Morning Post』	1894년 08월 01일	War Declared by Japan
12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08월 18일	The War
13	『The Daily Cataract』	1894년 08월 18일	The Oriental War
14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05일	The Oriental War
15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12일	Corean-Japanese Treaty
16	『Lockport Daily Journal』	1894년 09월 20일	How Was It?
17	『The Mechanicville Mercury』	1894년 09월 21일	Great Battle
18	『The Daily Cataract』	1894년 09월 24일	Our Foreign Cables
19	『The Evening World』	1894년 11월 28일	England's Uneasiness
20	『The Sun』	1895년 09월 15일	Japan and China
21	『The Ocean Herald』	1897년 12월 27일	Japan favors China

위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Watertown Times』,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등이다. 『The Brooklyn Daily Eagle』은 1841년 발간되어 1955년 까지 존속한 언론지였고, 일간 발행부수가 가장 많았던 석간지이기도 했다.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은 1890년에 발간되어 1912년까지 존속했다. 그중 청일전쟁 전개 과정 속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지로는 『The Sun』(4회), 『The Daily Cataract』(4회)가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과 마찬가지로 청일전쟁과 조선의 상황을 보도한 뉴욕 언론들도 개별 언론마다 논조의 차이가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청일전쟁 관련 보도의 내용

청일전쟁 이전 뉴욕 언론들은 주로 조미 관계에 대해 보도하였다. 1894년 6월 29일 『The Sun』은 경복궁점령사건을 보도하고 한국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선의 군사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도하였고, 고종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현 국왕이 본능적으로 미국을 친구로 삼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³⁷⁾ 7월 19일 미국무부장관 ‘그레샴의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하였는데, 2주 전에 조선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국회에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다. 기사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보호국화(a protectorate for corea)에 관한 중재자(arbitrator)가 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보도하였고, 미국무부 그레샴이 『The Sun』의 대체적인 보도에 대해 가짜(a fake)라고 했다는 점과 미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혼란한 서울의 상황과 미국 함대 불티모어 호의 제물포 정박과 동향에 대해 보도하였다.³⁸⁾ 23일 상하이 기사를 통해 청일전쟁의 전황을, 베를린 기사를 통해 유럽의 동향을, 런던 기사를 통해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응(김벌리 국무장관의 청나라 및 일본 공사와의 회담 등)을 보도하였다.³⁹⁾

본격적으로 전쟁 관련 보도는 『The Argus』에서 시작했다. 이 언론은 ‘청나라와 일본이 국경선에 맞닿았고, 북쪽이 폐쇄되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전쟁의 상황과 청나라 관내의 상황을 상하이 기사를 통해 보고

37) “Japan’s Occupation of Corea” 『The Sun』 29 June 1894.

38) “Gresham’s Intervention” 『The Sun』 19 July 1894.

39) “The War Could In Corea” 『The Evening Post』 27 July 1894.

했고, 요코하마 기사와 런던에서 작성된 기사를 인용하며 ‘조선이 일본의 개혁에 동의’했고, 미국과 영국의 해병대가 한국 내 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도착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⁴⁰⁾

7월 23일 『The Daily Cataract』는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제목 아래에 두 개의 부제로 청은 조선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위해 싸울 것이고, 일본은 한국의 개혁을 주장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7월 23일 상하이 통신을 통하여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할 준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현재까지 유지해온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청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 런던발 기사를 통해서도 청과 일본이 전쟁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고, 일본이 영국 공사의 중재를 거부했다는 내용과 요코하마발을 통해서도 “제안한 개혁을 받아들인 조선이 ‘일본이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조선이 이 조건을 내세운 것은 청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즉, 갑오개혁을 일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⁴¹⁾

『The Johnstown Daily Republican』에서도 상하이발 기사를 내보냈는데, 『The Daily Cataract』의 기사와 내용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며, 여기에 고종의 이미지를 넣은 것이 특징적이다.⁴²⁾ 『The Brooklyn Daily Eagle』은 “전쟁이 임박했고, 천황이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은 개혁에 동의했다”는 부제로 런던, 상하이, 요코하마, 워싱턴발 기사들을 보도했다. 워싱턴 주미한국공사관에서 영어를 못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주일미국공사 던도 공식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여 청일전쟁과 관련된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천황에 대한 직접적 사실을 보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하였고, 청나라와 일본 양국 간

40) “War is On” 『The Argus』 July 22 1894.

41) “War is Inevitable” 『The Daily Cataract』 23 July 1894.

42) “War is Inevitable” 『The Johnstown Daily Republican』 23 July 1894.

병력과 경제력의 수치를 비교했다.⁴³⁾

『The Evening Post』에서는 7월 27일 상하이 기사를 통하여 청일 전쟁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고, ‘한국과 관련된 청나라와 일본간의 다툼은 상당한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영국과 미국 전투함대의 각국 서울주재공사관 보호를 위하여 파견될 가능성, 서울에서의 혼란한 상황 등을 보도하였고, 청나라 함대와 일본 함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무장한 함대는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보도하였다.⁴⁴⁾ 이어 런던, 요코하마, 상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4개 국가의 소식을 보도했다. 먼저, 8월 1일 런던 발 소식을 통해 청일전쟁의 개전 직후의 상황과 고승호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 상하이 언론을 통해서서는 Von Hannekin 대령이 고승호에 있다가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요코하마 언론을 통해서서는 “일본해군에 의해 진원(鎭遠, Chen Yuen) 혹은 고승호가 침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전갈이 도착했다. 1,500명 병력을 태운 수송선이 침몰했고, 청 함대가 나포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을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은 청군이 한국에 파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일본 관원들 사이의 메시지가 차단되었다”고 보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발을 통해서서는, ‘러시아 언론이 청일전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조선 영토의 축소나 독립 소외를 용납하지 않을 것’ “러시아 정부가 태평양과 러시아-조선 국경에서 러시아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산된 군사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이는 러시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기사 보도했다.⁴⁵⁾

43) “Japan and China May Fight” 『The Brooklyn Daily Eagle』 22 July 1984.

44) “The Contest Over Corea” 『The Evening Post』 27 July 1894.

45) “War Declared by Japan” 『The Evening Post』 8 August 1894.

『The Watertown Times』에서도 ‘루머가 확정되었다’, ‘두 국가는 서둘러 준비, 런던은 청나라 승리 예상, 프랑스-독일은 평화 유지’라는 부제로 런던 발 기사를 인용하여 이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의견을 전했다. 상하이 7월 28일자 발을 통해서 전쟁 준비 상황과 청나라 관원들의 입장을 살폈고, 청나라 내에 유럽인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⁴⁶⁾

『LockPort Daily Journal』과 『The Daily Cataract』에서는 ‘일본이 육지와 바다에서 공격적’이라는 부제 하에 빅토리아 B.C발을 통해서 초기 전황을 보고하였다.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7월 27일 갑신정변 관련 5명의 주요 인물을 사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통해 한국이 청나라와 연결된 모든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8월 18일 런던발을 통해 상하이에서 고승호가 가라앉은 사건을 조사한다는 점, 일본이 항구를 보호하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나, 청나라는 전투를 피하고, 북서쪽 즈푸(Che Foo: 현 연태)항으로 갔으며, 일본은 제푸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⁴⁷⁾ 9월 5일 자 『The Daily Cataract』에는 조선 내에서 일어난 경복궁점령사건과 갑오개혁에 대해 보도하였고,⁴⁸⁾ 일주일 후에는 워싱턴발 기사를 통하여 일본 공사관으로 받은 기록을 그대로 적시하였는데, 1894년 8월에 체결된 「조일동맹조약」에 관한 것이었다.⁴⁹⁾ 그리고 일본 내 청나라 사람들의 지위와 관련한 글을

46) “China And Japan At War” 『Watertown Times』 28 July 1894.

47) “The War” 『LockPort Daily Journal』 18 August 1894; “The Oriental War” 『The Daily Cataract』 August 18 1894.

48) “The Oriental War”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5 1894.

49) 1. 청나라 군사를 조선 국경 밖으로 철퇴시키고 조선국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를 공고히 하며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누릴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2. 일본국이 청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 전쟁을 담당할 것을 승인했으므로, 군량을 미리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돕고 편의를 제공하기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이 동맹 조약은 청나라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날에 가서 폐기한다 (김현철, 2015,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4-2, 100쪽; 『고종실

보도하였다.⁵⁰⁾ 같은 날 『LockPort Daily Journal』에서는 9월 20일 런던발 소식통을 인용, 뤼순항에 12척의 중국함대가 도착했다는 점, 압록강 입구에 6,000명을 실은 16척의 함대가 도착했다는 점과 일본 함대 10척이 압록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이와 함께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 『Part mall Gazette』, 『St. James』 등의 언론에서 코멘트를 보도했다.⁵¹⁾ 『The Mechanicville Mercury』에서는 평양 전투에서의 전황을 전했다.⁵²⁾

『The Daily Cataract』는 청일전쟁이 발발한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조선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보도하였으며, 조선이 ‘긴 머리를 자르라는(단발령)’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서도 보이듯 일본에 적대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긴 머리를 자르라는 것’이 (일본에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하며 왜곡 보도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의 일본 내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아오키 일본 공사는 이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서태후가 자신 생일 축하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기부하였다는 점, 타임즈 보도를 인용하여 압록강 남쪽에서 중국 두 군함이 일본 함선의 공격에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함대가 집결하여 항시 준비중이라는 점⁵³⁾ 등을 보도하였다.

11월 28일 크릴만은 이노우에의 기사를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내용에는 미국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실질적 한국 독립의 책임자이며, 일본과 깎 수 없는 친구라고 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⁵⁴⁾ 청일전쟁 관련 대대적 보도는 1895

록』 고종 31년 7월 20일; 22일).

50) “Corean-Japanese Treaty”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5 1894.

51) “How Was It?” 『Lockport Daily Journal』 September 20 1894.

52) “Great Battle” 『The Mechanicville Mercury』 September 21 1894.

53) “Our Foreign Cables” 『The Daily Cataract』 September 24 1894.

년 9월 15일 『The Sun』에서의 보도였다. 여기에서는 커존(Curzon)의 “동아시아의 문제”와 주키치 이노우에의 “청일전쟁에 대한 간략사” 등을 통해 청일전쟁의 배경과 전개 등에 대해 광범위한 글을 실었다.⁵⁵⁾

1897년 5월에 보이는 청일전쟁 관련 보도는 배상금 문제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청나라 군대의 훈련을 돕고 전쟁 배상금 지불 연기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전달했다.⁵⁶⁾

요컨대, 전쟁 발발 직전에는 청일 양국의 상황에 대한 보도를 상해와 요코하마로부터 각각 전달받아 기사를 게재하였고,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도하였다. 한국과 관련된 보도로는 초기 경복궁점령사건과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식의 단순 보도가 많아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청일전쟁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맺음말

뉴욕 언론에서는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해 여러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관련 기사를 내보냈던 뉴욕 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을 가장 많이 보도한 『The Sun』을 포함한 뉴욕 언론들은 한국 혹은 동아시아와 관련된 특별한 언론보도의 특징점은 찾기 어려웠다.

54) “England’s Uneasiness” 『The Evening world』 28 Nov 1894.

55) “The cause of the War between Them” 『The Sun』 15 Sep 1895.

56) “Japan favors China” 『The Ocean Herald』 27 Dec 1897.

둘째,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봤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사들은 청일전쟁기와 러일전쟁기에 각각 보도되었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반란, 폭동 등의 단어로 묘사되었다. 청일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하였던 반면,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1904년 4월에 가서야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소개와 전개과정을 보도하였는데, 이 역시도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선으로 기사가 보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일전쟁 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봤다. 청일전쟁 관련 기사는 동학농민혁명에 비해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을 소개하며 군대도 미약하고, 해군도 없는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고,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전황을 살펴보는 기사들이 주로 소개되었다. 기사의 작성 주로 상해와 요코하마발 기사들을 인용하였지만, 크릴만, 해세-바르텍 등 한국에서 직접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의 상황을 지켜보고 직접 기사를 작성한 이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에서는 크릴만 등 일부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청일전쟁기 뉴욕 언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있지 않았으며, 이를 반란 정도로 치부하였으며 긴 기사에서 보면, 학살, 약탈, 일본군 학살 등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은 “동학이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 한 건을 내보냈을 뿐이었다. 관련 기사들은 모두 일본(요코하마) 청나라(상해) 통신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왜곡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투고일 : 2024. 9. 26.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11. 18.

참고문헌

<자료>

『Buffalo Evening News』, 『Gouverneur Free Press』, 『Lockport Daily Journal』, 『Oneonta Daily Star』, 『Plattsburgh Daily Press』, 『Utica Daily Press』, 『The Argus』, 『The Brooklyn Daily Eagle』, 『The Daily Palladium』, 『The Evening Journal』, 『The Evening World』, 『The Johns Town Daily Republic』, 『The Lockport Journal』, 『The Mechanicville Mercury』, 『The Ocean Herald』, 『The Ogdensburg Journal』, 『The Sun』, 『The Watertown Times』, 『The Utica Observer』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지음, 정현규 옮김, 2012,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단행본>

문일평, 2016, 『한미오십년사』, 탐구당.

이민식, 1994, 「19세기 말 한미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논문>

김원모, 1974, 「美國의 對韓 居中調停(1882~1905)」, 『사학지』 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67쪽.

김현철, 2002, 「청일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분석 -공사관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9~179쪽.

_____, 2015,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제2차 김홍집·박영효 내각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4-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91~132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483~533쪽.

_____,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175~210쪽.

이민식, 1992, 「미국의 對朝鮮 親日政策의 출현 -청일전쟁기를 중심으로」, 『사총』 40·41합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9~110쪽.

홍종규, 2023, 「미국 신문의 조선에 대한 인식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임오군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3쪽.

_____, 김남현, 2018, 「19세기(1810~1871) 미국 뉴욕 언론을 통해 본 조선의 이미지」, 『강원사학』 31, 강원사학회, 137~163쪽.

〈Abstract〉

Observations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in the U.S.

- Focusing on the New York Press's Coverage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

Chang, Kyoung Ho*

This paper examines the New York newspapers' coverage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to see how the two events were viewed by the American Newspapers. At the time, the U.S. State Department did not have much awareness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only considered it a rebellion or riot. However, New York newspapers reported a total of 24 stories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 The Sun, which was founded in 1833, reporting the most. With the exception of James Crillman and Ernst von Hesse of Austria, the authors are unknown, but in general, the Sun's perception of Donghak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State Department. The Sun's April 10, 1904, report on Donghak stated, "Donghak looted the villagers and killed the Japanese," a distorted perception.

21 articles related to the Sino-Japanese War are identified. Prior to the war, the newspapers mostly reported on diplomatic relations, but when the war began, there were many articles reporting on the battlefield. In general, the articles from Yokohama were positive about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Japan, while the articles from Shanghai were positive about the Qing Dynasty.

Key word: Donghak Revolution, Sino-Japanese War, Rebellion, Riot, New York Press, The Sun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유바다**

〈목 차〉

머리말

I.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인식

II.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에 대한 인식

III.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대한 인식

맺음말

〈국문초록〉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東學”을 음가로는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o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東學”으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다.

1894년 4월 25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는 사이에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이 “폭동(Unruhen)” 내지 “동학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란(Tonghak-Unruhen)”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은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는 개념이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크리엔은 김개남이 전라도 남원에서 開南王(Furst von Kainam)을 자칭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때 개남왕 김개남은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onig)”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8일 순창 피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반란군 지도자(Rebellenfuhrer), 즉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저 멀리 독일제국의 수도 베를린에까지 전해졌다.

주제어 : 독일제국, 동학, 폭동, 김개남, 전봉준

머리말

동학교도들은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었다. 따라서 이미 조선과의 각종 조약 체결을 통해 서울에 들어와 있었던 각국 공사관원 및 거류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프랑스 선교사 뮈텔(Gustave-Charles-Marie Mutel) 주교가 『일기』를 남겨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남긴 자료 중 동학농민군에 대한 부분은 『東學文書』로 따로 정리되어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의 구호가 수록된 『동학문서』를 활용하거나,¹⁾ 뮈텔 주교의 정국 인식을 다룬 연구²⁾ 정도가 눈에 띈다. 프랑스 외교문서는 과

1) 배항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 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97~133쪽.

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하고,³⁾ 최근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에서 정리⁴⁾한 바 있으나 역시 프랑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없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당시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하여 핵심 당사자로 서울에 공사관을 세웠던 영국, 미국의 외교문서를 활용한 연구, 영국,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관여하고 있었던 독일, 러시아 외교문서를 활용한 연구 또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자체적으로 입수한 독일외교문서를 활용한 이영관의 연구⁵⁾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독일총영사 크리엔이 동학농민군의 정황을 탐지한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에서 『독일의 교문서 한국편』⁶⁾을 펴내어 주목된다. 이 자료집을 통하여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총영사관 외교관을 중심으로 그와 문서를 주고받던 독일제국 당국자 및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6권에는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부터 1895년 4월 전봉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군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동학농민군은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은 만큼 이들에 대하여 “洋”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적대적인 타자의 눈을 통하여 그들을 들여다볼 경우, 오히려 그동안 국내 자료에 드러나

2) 김태웅, 2011, 「조선말-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政局 認識과 對政治圈 活動」, 『教會史研究』 37, 95~123쪽.

3) 국사편찬위원회, 2002~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1~9.

4) 이지순 외 역, 2018, 『근대 한불 외교자료』 1~3, 선인.

5) 이영관, 2002, 『조선과 독일』, 국학자료원.

6)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2019~2021,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15, 보고서.

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에 대한 새로운 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편찬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을 통하여 독일제국 당국자, 그 중에서도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독일총영사관 및 그와 관계된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이후 서구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독일제국은 총리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국력을 바탕으로 1848년 혁명 이후 무너진 유럽 협조체제를 복구하고 이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였다.⁷⁾ 이러한 가운데 독일제국은 1882~1883년에 걸쳐 미국, 영국에 이어 조선과 세 번째로 조약을 체결한 국가였다. 독일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도 요구되는 시점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만큼 이제 독일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도 조선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1880년대 중반 독일제국 관료들의 조선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⁸⁾에 따르면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조러밀약설에 이르기까지 독일제국 관료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만큼 독일제국이 조선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890년 비스마르크 실각 이후 독일제국은 유럽협조체제에서 빌헬름 2세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책(Weltpolitik)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⁹⁾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1894년은 과도기에 있었던 만큼 이때 독일제국만의 독자적인 조선 정책 또는 동학농민군 대응책을 찾기는 어렵다.

7) 김용구, 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 정상수, 2023, 「개항 이후 독일 관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적 상황 1884/86년」, 『西江人文論叢』, 67, 251~284쪽.

9) 정상수, 1996, 「빌헬름시대 독일의 세계정책 (Weltpolitik) 1895/97 - 1901/07」, 『西洋史論』, 51, 69~10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제국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자 러시아, 프랑스와 합세하여 이를 저지하는 삼국간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⁰⁾ 이는 기존 영국 및 프랑스가 주도하였던 제국주의 경쟁에 독일제국도 가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일제국은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독일제국은 1898년 동아시아 세계에서 膠州灣을租借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1900년 청국의 민중운동이었던 의화단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및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활동도 당연히 이들의 시야에 들어온 상태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당시 독일제국 관료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 또한 어느 정도의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I.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대한 인식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비교적 일찍부터 동학교도들의 교조신원운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4월 18일(음력 3월 3일)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Ferdinand Krien)은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Georg Leo Graf von Caprivi)에게 “20여 년 전에 창시된 종교인 ‘동학’이 특히 조선의 남부 지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교세를 크게 떨치고 이들이 일본인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조선 정부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다.¹¹⁾

10) 이선희, 2022, 「독일의 삼국간섭 참여와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租借)-독일의 제국주의적 야망-」, 『역사와 세계』, 62, 175~206쪽.

1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서,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여기서 “동학”은 음가 그대로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ö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동학”으로 번역되어 전달되었다. 동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출된 청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1892년 12월 20일(음력 11월 2일) 삼례집회를 포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례집회 당시 제출한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중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今 西夷의 學과 倭醜의 毒이 다시 外鎮에 放肆하여 그 極할데가 없고 凶逆의 化단이 임금수레 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生等の 切齒腐心하는 것이오¹²⁾

서양 오랑캐의 학문과 왜놈의 독이 가득하다는 언급을 미루어 볼 때 삼례집회 당시 동학교도가 斥倭斥洋을 부르짖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크리엔의 보고대로 “일본인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크리엔은 동학교도들이 서양인 및 일본인에 대한 강한 배척 의식을 지닌 것은 분명히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크리엔이 언급한대로 이 청원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관측에 따르면 바로 지난달(1894년 3월; 음력 2월) 말 동학교도 대표 50여 명이 조선 국왕에게 진정서를 올리기 위해 서울에 나타났다. 진정서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허가해줄 것을 조선 국왕에게 간청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몇 년 전 전라도 관찰사의 명령으로 부당하게 처형된 동학 교주에 대해 뒤늦게나마 유감을 표시해주고 일본인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하려 했다고 하였다.¹³⁾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2) 李離和 解題, 1985,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驪江出版社,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完營」, 72~73쪽.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는 대구 감영에서 1864년 처형되었으므로 앞의 관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서는 1893년 3월(음력 2월) 동학교도들이 광화문 앞에서 올린 복합상소를 지칭하는데, 막상 당시 상소에서 “일본인들과 다른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는 다분히 서울 주재 독일총영사관원들의 공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공포심 발동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 대표단이 철수한 직후 미국 선교사들이 거처하는 집의 대문에 이들 22일까지 조선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그와 동시에 약 4,000명의 무장한 동학교도들이 남부지방에서 서울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서울 시내에 나돌았다. 그 결과 미국 선교사들은 동요하였다.¹⁴⁾ 실제로 4월 4일(음력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 “儒學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며, 4월 22일(음력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무장하여 공격하겠다”는 방문이 붙었다.¹⁵⁾

이와 같은 사항은 청국 북경에 주재한 주청독일공사관에도 전달되었다. 1894년 4월 23일(음력 3월 8일) 주청독일공사 슈테른부르크(Hermann Speck von Sternburg)는 카프리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선의 위기 상황을 보고하였다.

조선 국민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곳에서는 그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그런데도 조선의 오지에서, 특히 경찰과 군대가 거의

13)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1~43, 393~395쪽.

15) 배항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110쪽.

힘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과격한 남자들 무리가 많은 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소식에 의하면, 국민들을 수탈한 조선 관리들이 습격받는 일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국왕이 국가적인 반란을 두려워해 겁에 질렸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현재의 조선 왕조는 오백 년으로 수명이 다할 것이고 그 후에는 公忠道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로부터 조선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만일 동학교도들이 충분한 조직만 갖추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파국을 막는 것은 일차적으로 청국의 의무일 것입니다.¹⁶⁾

멀리 떨어진 북경에서도 제법 정확하게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 수령의 탐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심지어 『鄭鑑錄』과 연계하여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여기에 청국이 개입할 것이라며 1년 뒤에 일어날 청일전쟁을 예견하였다.

슈테른베르크는 뒤이어 4월 28일(음력 13일) 동학교도들이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전문을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일본인들과 외국인 폭도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우리의 수도는 일본인들과 외국인들로 우글거린다. 무질서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순결과 조국애, 예의범절과 지혜, 신의와 믿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군주와 국민들 간의 사랑-모든 것이 사라졌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저주하며, 우리와 우리나라를 산산조각 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금은 전례없이 위험한 상황이다. …… 우리는 수백만 명

16) 『독일의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08. 서울 시내 소요에 대한 소문」, 48~50, 399~401쪽.

에 달하며, 우리 조국의 안녕을 위해 이 땅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을 몰아 낼 것을 생사를 걸고 맹세했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우국지사들이 우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¹⁷⁾

이 성명서는 「東學黨與完伯書」와 일치한다. 일치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倭洋의 적이 腹心에까지 침입하여 큰 혼란이 지극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國都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삼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수치를 생각하면 어찌 차마 말을 할 수 있으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역이 모두 禽獸의 숲속이 되었고 500년 종묘사직이 장차 망하여 黍稷이 생기는 땅이 될 지경이니, 仁義禮智와 孝悌忠信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왜적이 다시 한스럽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 환란의 조짐을 품고서 그 해독을 방자하게 부려 위급함이 조석 간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으니 진실로 평안하다고 여겨서입니까? 바야흐로 오늘날 세상은 불타는 쉼나무 앞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저희들 수백만 명이 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왜양을 쓸어버려 감히 大報의 의리를 바치려고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쳐 충효가 있는 선비와 관리를 선발하여 함께 국가를 보호하기를 도모하소서.¹⁸⁾

17)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3.1.12.~1893.12.31, 14. 조선에서의 불안」, 56~59, 407~411쪽.

18) 『羅巖隨錄』, 「東學黨與完伯書」, “今倭洋之賊, 入於腹心, 大亂極矣. 試觀今日之國都, 竟是夷賊之窩穴. 竊惟壬辰之差丙子之恥, 寧忍說乎, 寧忍忘之. 今我東方三千里疆域, 盡爲禽獸之藪, 五百年宗社將爲黍稷之地, 仁義禮智孝悌忠信, 而今安在哉. 況乃倭賊更有悔恨之心, 包藏禍胎, 方肆厥毒, 危在朝夕, 視若恬然, 固謂之安乎. 方今之世, 何以異於薪火上哉. …… 生等數百萬, 同心輕死, 掃破倭洋, 敢效大報之義. 伏願閣下, 同志協力, 謀選有忠孝之士吏, 同保國家.”;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史芸研究所, 369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392~394쪽.

보은집회 내지 삼례집회에서 내건 동학교도들의 방문이 주한독일총영사관 및 주청독일공사관을 거쳐 독일제국 총리에게까지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달된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교도들의 책왜양 구호는 멀리 독일 베를린에까지 전달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에 대한 인식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음력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기 직전인 5월 8일(음력 4월 4일)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이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에게 조선의 남서쪽 지방 전라도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알렸다.¹⁹⁾ 여기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폭동(Unruhen)”으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사회, 정치적인 불안(unrest)을 의미한다. “Unruhen”이 독일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연구 모델이 되는 독일농민전쟁의 예비단계로 여겨지는 개념²⁰⁾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보병과 구식 화포로 이루어진 800여 명의

-
- 19)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 7.14, 20. 조선 남부지방에서의 폭동」, 130~131, 489~490쪽.
- 20) Gerd Schwerhoff, 2024, *Auf dem Weg zum Bauernkrieg: Unruhen und Revolten am Beginn des 16. Jahrhunderts*(Konflikte und Kultur-Historische Perspektiven), UVK, Tübingen. 이 책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농민전쟁으로 가는 길: 16세기 초의 폭동과 반란(충돌 및 문화-역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이 “농민전쟁(Bauernkrieg)”로 여겨진 만큼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폭동(Unruhen)”으로 읽은 역사적 의미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력이 며칠 전 서울에서 제물포로 출발하였다. 그 구식 화포는 李鴻章 總督이 1년 전 “동학란(Tonghak-Unruhen)”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 정부에 선물한 것이라고 하였다. 洪啓薰이 지휘하는 兩湖招討營 병력을 지칭한다.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초기부터 “동학란”으로 지칭된 점 또한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크리엔은 5월 22일(음력 4월 18일) 재차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카프 리비에게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전라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Aufständischen)이 조선 정부군 250명을 물리치고 그 지휘관을 죽였음을 삼가 각하께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부군은 그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차출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현재 반란자들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도시 12개와 더불어 그 지방의 약 1/4을 점령했습니다.²¹⁾

여기서도 동학농민군은 반란군(Aufständischen)으로 지칭되었다. 그 지방에 주둔하는 부대에서 차출된 병사들로 구성된 정부군이 패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정부군은 전라감영군이고 그 전투는 바로 5월 11일(음력 4월 7일) 벌어진 황토현전투이다. 이 시점에 이미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지역의 1/4을 점령하기에 이른 사실도 알 수 있다. 반면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서 출동한 군대, 즉 양호초토영 병력은 전라도의 중심도시 전주 바깥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의 관리들 상당수가 가족들을 남겨둔 채 서울로 도피하였다. 전라도 북쪽에 이웃한 충청도 지방에서도 폭동(Unruhen)이 일어난 점이 관측되었다. 심지어 북서쪽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소요가 일어난 사실도 보고되었다. 다만 수도 서울이 위치한 경기도는 아주 평온한 분위기였다.

21) 『독일의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 7.14, 39.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72~174, 528~530쪽.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반란(Bewegung)은 외국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 관리들의 횡포에 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반란군(Rebellen)에 가담했으며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 아래서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는 모두들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란이 일어난 지역은 지금 모를 심을 때인데 모내기가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이달 16일 조선 국왕은 반란군(Aufständischen)이 자진 해산해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정당한 불만을 시정하고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는 응징하고 국민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²²⁾

결국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조선후기 부세체제의 모순이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탐관오리를 “habgierigen und verrotteten(탐욕 및 부패)”로 지칭한 점도 흥미롭다.

동학농민군은 결국 5월 31일(음력 4월 27일) 전라도의 수부인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 직후인 6월 2일(음력 4월 29일) 단 한줄의 電文을 독일제국 외무부에 발송하였다.

반란자들(Empörer)이 조선 남서쪽 지방의 중심도시를 점령하다.²³⁾

여기서 동학농민군은 “폭도(Empörer)”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반역자(rebel)”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는 다시 반란(rebellion)으로 지칭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적어도 와트 타일러의 난(Rebels led by Wat

22)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 7.14. 39.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72~174, 528~530쪽.

23)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 7.14. 07.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106~108, 460~462쪽.

Tyler, 1381), 세르비아 봉기(Serb rebels, 1804), 벨기에 봉기(Belgian rebels, 1830), 헤르체고비나 봉기(Herzegovinian rebellion, 1875)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의화단의 난도 “拳匪의 난(Boxer Rebellion)”으로 통용되었다. 전보에 곁들인 라쉬단(Raschdan)의 보고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정확히 반란(Rebellion)으로 지칭되었다. 그는 조선의 반란(Aufstand)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ufstand 또한 영어로 revolt, rebellion, uprising, rising을 지칭한다.

뒤 이은 문건에서도 이 소요가 확산되어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경우에는, 북쪽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일제국 총리도 서울 주재 독일 영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선의 서울로 떠날 수 있도록 청국 해안에 주둔하는 군함 1척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이 주조선독일총영사관의 철수가 예상될 만큼 매우 커다란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6월 2일(음력 4월 29일) 크리엔은 보다 자세한 정황을 카프리비에게 보고하였다. 그 정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란군(Aufständischen)이 그저께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를 점령하였습니다. 점령은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전임 관찰사는 이웃한 충청도 감영이 있는 공주로 피신하였습니다. 얼마 전 외아문 협판 김학진이 후임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전저 남서쪽 영광 해안지역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전신망이 끊겼고, 현재 전라도 대부분 지역이 반란군(Rebellen)에 장악되었습니다.²⁴⁾

2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 전라감사 김학진의 부임 등이 거의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대부분 지역이 반란군에 장악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그만큼 등등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음의 보고를 보자.

그로 인해 조선 정부는 커다란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군대라는 평을 받은 평양 주둔 병사 500명이 오늘 레밍턴총으로 무장하고 제물포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물포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남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전보로 추가 병력 500명을 평양에서 서울로 보내라는 훈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정부군은 무능하고 비겁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왕이 청국 황제에게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²⁵⁾

이를 통해 조선 국왕 고종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은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기포하면서 내건 「茂長布告文」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보고된 점이다. 크리엔은 반란군의 성명서(Proklamation der Aufständischen) 사본을 번역하여 제출하면서 “반란군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오만한 관리들의 폭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무기를 들었을 뿐, 그들은 왕의 충실한 신하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roklamation”라고 하였으니 말 그대로 “포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번역은 부영사 라인스도르프(Felix Reinsdorf)가 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귀중한 자산은 사회적 질서이다. 사회적 질서 가운데에서도 군신관계와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임금이

2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덕이 있고 신하가 그에 복종하면, 또한 부친이 자애롭고 자식이 효심이 지극하면 그 가장과 나라는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계속 복을 누리게 된다. …… 백성은 나라의 뿌리이다. 뿌리가 뽑히면 나라는 망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관리들은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지방에 제가 살 집을 짓고 직위와 녹봉만 생각하니 어찌 나라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비록 촌부에 지나지 않지만 임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이 내려주신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 온 나라의 백성이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이제 ㉡나라의 보호 및 백성의 행복을 위해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²⁶⁾

「무장포고문」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무장포고문」 본문의 해당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그런데도 ㉢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옹골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협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輔國安民으로써 죽고살기를 맹세하였다.²⁷⁾

26)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8.12, 03. 조선 남부지방의 폭동에 관하여」, 206~209, 561~563쪽.

모두에 君臣, 父子의 人倫을 강조하면서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다치게 하는 고로 輔國安民을 위하여 기포한 동학농민군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輔國安民은 두 번 나오는데(㉠, ㉡) 먼저 전자는 독일어로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Erhaltung des Staates oder an das Wohl des Volkes)”(㉠)것으로 표현되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보존과 백성의 행복”을 의미한다. 뒤에서 언급되는 “나라의 보호 및 백성의 행복(Schutze des Staats und zum Wohl des Volkes)”(㉡)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독일제국 또한 동학농민군의 목표가 “보국안민”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정황이 보고되었다. 전주화약 직후인 6월 14일(음력 5월 11일) 크리엔이 카프리비에게 올린 보고를 보자.

더 나아가 그에게 조선 외아문 독판이 외국 대표들에게 전날 정부군이 전주에서 폭도들(Empörern)을 몰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보도에 따르면 반란군들(Aufständischen)은 이미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고부군수는 넓적다리에 30대의 곤장을 맞고, 멀리 떨어진 어느 황량한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전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의 경우, 감찰관은 먼저 그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의정부를 통해 왕에게 “공공 여론을 만족시키고 군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그의 죄를 물어 처형하라는 상신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왕은 이를 거절하고 김문현을 전라도에 있는 거제도도 귀양보냈습니다.²⁸⁾

27) 『隨錄』, 「茂長縣臚上東學人布告文」, “人之於世最貴者, 以其人倫也。君臣父子、人倫之大者。君仁臣直、父慈子孝、然後乃成家國、能速無彊之福。…… 民爲國本、本削則國殘。不念輔國安民之方策、外設鄉第、惟謀獨全之方、徒竊祿位、豈可理哉。吾徒雖草野遺民、食君土、服君衣、不可坐視國家之危亡。八路同心、億兆詢議、以輔國安民爲死生之誓。”;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157~158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3~4쪽.

28) 『독일의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부 군수 조병갑, 전라감사 김문현의 유배도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인 1894년 6월 23일(음력 5월 20일)에도 베를린 외무부에 반란(Rebellion)의 정황이 보고되었다.²⁹⁾ 물론 서울 주재 독일제국 영사가 전보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반란(Rebellion)이 진압되었다는 공식 보도가 있었는데도 일본군이 서울의 외국인 거주지를 점령하였다. 물론 동학농민군이 진압된 것은 아니다. 전주성에서 물러나 제1차 봉기를 마무리지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함께 조선에서의 청국군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었다.

독일 외무부 관원이었던 키털렌(Alfred von Kiderlen-Waechter)에게 들어간 보고에서도 “조선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폭동(Aufbruhrs) 때문에 질서회복을 명분으로 청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고,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가 유사한 폭동(Aufstände)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개혁조치들을 도입하기 전에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 두 열강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게 되었으며, 현재는 일본이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반면 청국은 수도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정황이 보고되었다.³⁰⁾ 이러한 가운데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8.12, 34. 조선 남부의 반란, 청국의 지원 병력 도착, 일본 군대 서울 진입, 270~272, 626~629쪽.

29)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1.1.~1894. 7.14, 21. 일본군 제물포 각국조계지에서 철수」, 132~134, 491~493쪽.

3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7.15.~1894. 8.12, 01. 조선」, 201~203, 557~559쪽.

Ⅲ.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대한 인식

1894년 10월(음력 9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이러한 정황은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도 파악하고 있었다. 크리엔은 10월 27일(음력 9월 29일) 독일제국 총리 카프리비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삼남지방 외에 강원도와 황해도의 같은 여러 지방에서 반란자(Rebellen)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들이 주요 거점 도시를 다시 점령했고,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정부군과 200여 명의 일본군이 이곳에서 파병된 후, 반란군들은 경기도에서 퇴각했습니다. 경상도의 주요 도시인 대구에서는 27명의 일본군이 경비대로 파견되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6,000여 명의 동학 반란군(Tonghak-Rebellen)을 진압하고, 2,000여 명의 화승총을 노획했습니다.³¹⁾

위의 보고에 따르면 강원도 및 황해도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한 것이 눈에 띈다. 동학농민군의 탄탄한 지배력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竹山府使 이두황이 순무영 예하의 壯衛營 領官으로 임명되어 竹山·安城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좌선봉으로는 安城郡守이자 經理廳 領官 成夏泳이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남진하는 정황이 파악되었다. 보고에서 언급한 1,000여 명의 정부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200여 명의 일본군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의 지휘 하의 병력을 가리킨다. 대구에서의 전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동학

3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보고서,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4.8.26~1894.12.31, 24. 조선의 개혁 및 동학농민군 진압에 관한 건」, 93, 477쪽.

반란군(Tonghak-Rebellen)으로 지칭한 점이 주목된다.

크리엔의 보고는 11월 30일(음력 11월 4일)에도 이어졌다.

반란(Aufbruch)은 최근에 다시 확산되어 황해도까지 번졌습니다. 황해도 도청소재지 해주가 반란군에게 점령되었으며, 해주 판관이 반란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대립왕(GegenKönig)까지 등장하여 스스로를 開南(개척된 남부지방, dem erschlossenen Süden)의 王(Fürst von Kainam)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비단옷을 입었으며, 비단으로 만든 붉은 파라솔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조선의 상황은 수년 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³²⁾

황해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해주 점령은 유명한 일이다. 이때 팔봉접주 김창수(훗날의 김구)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김개남의 전라도 남원에서 開南王 자칭이 포착된 점이다. 실제로 崔鳳吉의 『歲藏年錄』에 따르면 김개남은 다음과같이 개남왕을 자칭하였다.

金琦範이란 자가 開南王이라며 僭稱하고 南原府를 분할하여 점거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두 陳勝·吳廣의 부류이니, 어찌 깊이 근심할 것이겠는가.³³⁾

여기서 開南王은 김개남 자신의 이름에 王을 덧붙인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金箕範이었던 김개남이 “南朝鮮을 연다”는 뜻을 따서 “開南”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비기에 남조선왕국설이 기재된 것을 빌어와 왕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크리엔이 파악한대로 개남의 개남이 “개

32)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2. 조선의 정세에 관하여」, 106~109, 491~493쪽.

33) 『歲藏年錄』, 「甲午十二月」, “金琦範云者、僭稱開南王、割據南原府云。此皆勝廣之類、何足深憂。”;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263~264쪽; 『동학농민혁명명국역총서』 6, 381쪽.

척된 남부지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남왕을 자칭한 김개남을 두고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önig)”으로 지칭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서 대립왕이란 서구 세계에서 한번 이루어진 왕위 계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왕위에 오른 자를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 루트비히 4세(Ludwig IV)에 대하여 1346년 11월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의 지원으로 트리어 대주교의 주도로 열린 선제후회의에서 대립왕으로 선출된 카를 4세(Karl IV)를 들 수 있다. 1347년 10월 루트비히 4세가 죽고 카를 4세는 1349년 7월 아헨에서 다시 독일왕으로 등극하였고 1355년 11월 로마에서 대관식을 통하여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됨으로써 대립왕 지위를 청산하였다.³⁴⁾ 이를 통해 보면 크리엔은 김개남을 조선 국왕 고종에 대항하여 새롭게 등극한 대립왕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크리엔은 개남왕 김개남이 “왕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비단 옷을 입었으며, 비단으로 만든 붉은 파라솔을 앞에 내세웠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와 같은 남원에서의 김개남의 기세가 서울에 있던 독일총영사관에도 강렬하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8일(음력 12월 2일)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후의 정황을 크리엔은 1895년 3월 12일(음력 2월 16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일본군 사령관은 이노우에에게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 전봉준(Chong Pung Shun)을 넘겼습니다. 원래는 전봉준의 부하가 그를 조선군에게 인도하였으나 조선군은 전봉준을 다시 놓아줄 우려가 있다 하여 일본

34) 김장수, 2016, 「룩셈부르크(Lucemburská) 가의 카렐 4세(Karel IV)-왕권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38, 6~7쪽.

군에게 넘겨졌던 것입니다. 일본 공사는 전봉준을 조선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영사관 번역관의 보고에 의하면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는 처형되지 않고 단지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개혁(Reformen)과 조선 독립(Unabhängigkeit)이라는 축복 받을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³⁵⁾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주도 하에 갑오개혁(Reformen)이 진행되고 조선이 명목상의 독립(Unabhängigkeit)을 얻은 정황을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에게 기회로 작용하였음을 당시 일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고 청국의 종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었다. 후대 연구자들 사이에 동학농민혁명의 청일전쟁 촉발 원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이 동학농민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크리엔은 전봉준의 정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고부군수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이노우에는,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이 반란군 지도자(Rebellenführer)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³⁶⁾

3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정세」, 126~129, 514~517쪽.

36)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정세」, 126~129, 514~517쪽.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매질하여 죽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봉준공초』에서도 드러나듯이 전봉준의 기개는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최시형의 행방 및 전봉준 처형에 대한 전망이 이어졌다.

또한 일본공사는 충청도 지방에 은신하고 있는 동학의 “예언자(Prophet)”가 체포되지 않는 한 반란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란과 흉작으로 인해, 또한 거의 도적이 되어버린 조선 관군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전라도 지방이 어느 정도 평온을 회복하고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전봉준은 처형될 것이라고 합니다.³⁷⁾

최시형을 “예언자(Prophet)”로 지칭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Prophet”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선지자 내지 예언자를 일컫는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 또한 예언자다. 최시형이 이들과 같은 반역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일본이 조선에 목적을 이루었고, 전봉준이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전봉준이 처형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봉준이 일본을 대상으로 봉기한 점에서 일본으로서도 그를 살려 두기는 어려웠다.

크리엔은 1895년 4월 29일(음력 4월 5일) 전봉준의 처형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반란군 수괴(Rebellenführer) 전봉준(Chong-Pung-Shun)과 그의 동지 2명이 얼마 전 교수형(Erhängen)으로 처형(hingerichtet)되었습니다.³⁸⁾

37)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07. 조선의 정세」, 126~129, 514~517쪽.

주지하듯이 전봉준은 1895년 4월 24일(음력 3월 30일)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도입된 새로운 사법 체제 하에서 최초로 교수형을 당했다. 이로써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의 시각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은 모두 종결되었다.

맺음말

동학교도들이 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면서 “斥倭洋倡義”를 부르짖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洋”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적대적인 타자의 눈을 통하여 그들을 들여다볼 경우, 오히려 그동안 국내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던 동학농민군에 대한 새로운 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독일총영사관에 있었던 외교관들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최근 정리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 자료는 한국을 중심으로 정리된 외교문서이기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망해야 할 삼국간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보다는 청국, 일본, 러시아 관련 외교문서를 통하여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독일 외교부 산하 정치문서보관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 Berlin)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삼국간섭에 이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은 되도록

38)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외무부 정치 문서고 조선 관계 문서 1895.1.19.~1895.10.18. 13. 대원군 손자의 체포, 조선 주둔 일본군, 일본에서의 조선 청년들의 교육, 반란군 지도자들의 처형」, 144~146, 531~532쪽.

록 피하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에 집중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독일제국 당국은 1893년 4월 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때 주조선독일총영사 크리엔은 “동학”을 음가 그대로 “Tonghak”, 그리고 뜻으로는 “östliche lehre”, 역시 말 그대로 “동학”으로 번역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청독일공사 슈테른베르크는 당장 조직적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 수령의 탐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동학교도들이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東學黨與完伯書」 전문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1894년 4월 25일(음력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起包한 동학농민군이 5월 11일(음력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는 사이에 크리엔은 동학농민군이 “폭동(Unruhen)” 내지 “동학란(Tonghak-Unruhen)”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폭동(Unruhen)”은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예비 단계로 여겨지는 개념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엔은 삼정의 문란을 비롯한 조선후기 부세체제의 모순이 심화된 가운데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 탐욕 및 부패)”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한편 동학농민군은 “폭도(Empörer)”로 지칭되었다. 영어의 “반역자(rebel)”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는 다시 반란(rebellion)으로 지칭할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적어도 와트 타일러의 난(Rebels led by Wat Tyler, 1381), 세르비아 봉기(Serb rebels, 1804), 벨기에 봉기(Belgian rebels, 1830), 헤르체고비나 봉기(Herzegovinian rebellion, 1875)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에 곁들인 라쉬단(Raschdan)의 보고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정확히 반란(Rebellion)으로 지칭되었다.

다음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은 1894년 4월 25일 동학농민군이 기포하

면서 내건 「무장포고문」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보고된 점이다. 크리엔은 반란군의 성명서(Proklamation der Aufständischen) 사본을 번역하여 제출하면서 “반란군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오만한 관리들의 폭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무기를 들었을 뿐, 그들은 왕의 충실한 신하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roklamation”라고 하였으니 말 그대로 “포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2차로 기포했다. 크리엔은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나름의 정부(Regierung)를 수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김개남의 전라도 남원에서의 關南王 자칭이 포착된 점이다. 여기서 關南王은 김개남 자신의 이름에 王을 덧붙인 것이다. 크리엔이 파악한대로 개남의 개남이 “개척된 남부지방(dem erschlossenen Süden)”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남왕을 자칭한 김개남을 두고 서구식의 표현인 “대립왕(GegenKönig)”으로 지칭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실패하였다. 전봉준도 1894년 12월 2일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크리엔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인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주도 하에 갑오개혁(Reformen)이 진행되고 조선이 명목상의 독립(Unabhängigkeit)을 얻은 정황을 일본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눈에도 관료 계급의 비열한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던 반란군 지도자, 즉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인식되기도 하였다. 물론 전봉준이 일본을 대상으로 봉기한 점에서 처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독일제국 당국은 동학농민혁명을 서구 세계에서 혁명 전 단계의 “반란(Rebellion)”으로 파악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탐관오리(habgierigen und verrotteten, 탐욕 및 부패)”로 정확히 파악하였다. 「東學黨與完伯書」 및 「무장포고문」의 독일어 번역문 전문이 실린 것은 주목할만 하다. 김개남이 “개척된 남부지방(dem erschlossenen

Süden)”의 “대립왕(GegenKönig)”이 된 사실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당당하고 품위있는 태도는 저 멀리 독일 제국의 수도 베를린에까지 전해진 점을 알려두고자 한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5, 보고서.
_____, 2020,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6,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2~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1~9.
東學農民戰爭百周年紀念事業推進委員會 編,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史芸研究所
_____,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5, 史芸研究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_____,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李離和 解題, 1985,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驪江出版社.
이지순 외 역, 2018, 『근대 한불 외교자료』 1~3, 선인.

<단행본>

- 김용구, 2012,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영관, 2002, 『조선과 독일』, 국학자료원.
Gerd Schwerhoff, 2024, *Auf dem Weg zum Bauernkrieg: Unruhen und Revolten am Beginn des 16. Jahrhunderts*(Konflikte und Kultur-Historische Perspektiven), UVK, Tübingen.

<논문>

- 김장수, 2016, 「룩셈부르크(Lucemburská) 가의 카렐 4세(Karel IV)-왕권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8, 한국세계문화사학회, 1~26쪽.
김태웅, 2011, 「조선말·대한제국기 뮌헨 주교의 政局 認識과 對政治圈 活動」, 『教會史研究』 37, 한국교회사연구소, 95~123쪽.
배항섭, 2002, 「1893년 동학교도와 大院君의 擧兵 企圖」, 『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 97~133쪽.
이선희, 2022, 「독일의 삼국간섭 참여와 자오저우만(膠州灣) 조차(租借)-독일의 제국주의적 야망-」, 『역사와 세계』 62, 효원사학회, 175~206쪽.
정상수, 1996, 「빌헬름시대 독일의 세계정책(Weltpolitik) 1895/97 - 1901/07」, 『西洋史論』 51, 한국서양사학회, 69~102쪽.
_____, 2023, 「개항 이후 독일 관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적 상황 1884/86년」, 『西江人文論叢』 6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1~284쪽.

〈Abstract〉

German Diplomat's Perception for the Donghak Peasant Army

Yoo Bada*

The German Empire were also aware of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oples' Movement in April 1893. At this time, Krien, Consul General of Germany in Korea, translated "Donghak" into "Tonghak" in phonetic value, "ostliche lehre" in meaning.

While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rose up in Mujang, Jeolla Province on Apr. 25, 1894, defeated the Jeolla Province Army in Hwangtohyeon on May 11, Krien reported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caused "Unruhen" or "Tonghak-Unruhen". In Germany, "Unruhen" is a concept considered to be a preliminary stage of the German Peasant War in the 16th century.

In October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secondarily rose up. Krien found that Kim Gae Nam self-proclaimed "Furst von Kainam" in Namwon, Jeolla Province. At this time, King Gae Nam Kim was also expressed as "Gegen Konig".

The seco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failed. "Chong Pung Shun" was also arrested in Sunchang Pirori on Dec. 28, 1894 and sent to Seoul. According to Krien's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nfident and dignified attitude of the rebel leader, Jeon Bong Jun, who was in stark contrast to the vile attitude of the bureaucrac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and this reached Berlin, the capital of the German Empire.

Key word : German Empire, Ostliche Lehre, Unruhen, Furst von Kainam,
Chong Pung Shun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김태웅**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전야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의 東學 인식

II.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대응과 조치
맺음말

〈국문초록〉

프랑스는 한국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조선 정부의 천주교 금압과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선교가 1866년 병인양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한 뒤, 프랑스 외교관은 조선 정부의 균세외교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천주교 선교를 지원하고 신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양자의 이러한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체제 모순 및 서양 침략과 천주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동학이 민중들의 지지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하고 1894년 농민혁명의 주체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농민혁명을 전후로 하여 동학이 반체제와 반천주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학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에 이어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중립적인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선교사 구출과 신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나아가 조선 천주교를 관할하는 뫼텔 주교는 천주교 신부의 사망을 명분으로 삼아 조선정부에 압박을 가하였다.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동학농민군의 행태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1894년 이전과 달리 실제로는 반일 반봉건을 지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학을 비롯한 반정부운동을 鄭鑑錄에 의거한 폭도들의 반천주교 운동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선교 정책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제어 : 정감록, 뫼텔, 균세외교정책, 교안, 반일 반봉건

머리말

1894년 2월(양력)에 발발하여 1895년 3월에 종료된 동학농민혁명은 국내 정국과 사회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선교 활동을 본격화하고자 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다.¹⁾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이해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자국 선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했던 프랑스 외교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이들 나라의 동향과 조치가 가장 주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청일전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일자는 외교관의 보고와 선교사들의 각종 자료가 양력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양력을 따랐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삼국간섭,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조선정부의 均勢外交 政策이 제한된 범위이지만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양 열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서구 열강의 인식과 대응은 이후 서구 열강의 한반도 정책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한제국 정부의 산업화 추진과 프랑스의 동아시아 영향력 강화 시도 및 선교 확대라는 두 요인이 결합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이 공격적인 선교로 전환하고 향촌사회의 반발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동학 인식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응은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이후에 발발한 1901년 濟州 教案을 비롯한 각종 교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한 가늠자를 제공한다.³⁾

또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던 프랑스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천주교 선교사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뿐더러 제3자의 눈을 통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鳥瞰하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양자의 이러한 상호 인식과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시기 이른바 상호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⁴⁾

-
- 2) 全旌海, 1999, 「광무년간의 산업화 정책과 프랑스 자본인력의 활용」, 『국사관논총』 84; 김태웅, 2002, 「정부의 프랑스 정책과 천주교-왕실과 뫼텔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김태웅, 2011, 「조선 말, 대한제국기 뫼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 3) 李元淳, 1973, 「朝鮮末期 社會의 「教案」 研究」, 『歷史教育』 15(『韓國天主教史研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수록); 金洋植, 1989,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道研究』 6; 朴贊植, 1995,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社會-「教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張東河, 2000, 「韓末 教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 4)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프랑스외무부문서 중 조선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번역한 『프랑스외무부문서』와 함께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번역한 『뫼텔주교일기』에 주로

I. 동학농민혁명 전야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의 東學 인식

1. 외교관의 조선 정국 인식과 파리의방전교회의 선교 강화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과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이하 프랑스 선교사로 줄임)들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선정부의 천주교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⁵⁾ 왜냐하면 1866년 병인사옥과 이후 가혹한 금압에 따른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1886년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조선 정부의 선교사 보호가 따랐지만 유생들의 배척과 관료들의 탄압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은 일찍부터 선교 문제에 개입하였다. 그들이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1870년 6월에 일어난 ‘天津虐殺’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였다.⁶⁾

의존한 까닭에 프랑스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파리의방전교회의 동아시아 선교 방침을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인식과 활동을 분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차후 이 주제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차원에서 심층 연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근대사 연구자, 중국근대사 연구자들과의 학제 작업이 필요하다.

- 5) 동학농민혁명 전후에 부임한 프랑스 외교관은 정부위원 플랑시(1888.6~1891.6), 대리공사 로셰(1891.6~1892.3), 프랑탱(1892.4~1894.2), 르페브르(1894.3~1896.4)였다. 이에 관해서는 현광호, 2011, 『서구 열강과 조선』, 채륜, 12~13쪽 참조.
- 6)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 보고(1888.6.23.).

1869년 프랑스 천주교에서 운영하였던 자선 기관이 자선이란 명목으로 많은 유아를 수용하였다. 이때 중국인들 사이에서 천주교 교회가 유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이 유아를 유괴했다는 유언비어가 광범하게 퍼졌다. 그러나 프랑스 영사 퐁타니에가 중국 인민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뒤 귀환 도중에 군중을 향해 발포했고 이로 인해 격분한 군중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 밖에 영사 수행원 3명과 프랑스 선교사, 수녀 12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윤세철, 1982, 「天津教案과 청조 외교의 변용」, 『역사교육』 30·31, 191~201쪽; 신의식, 2002,

따라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천주교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정부의 동향과 정국 변동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가 1881년에 파리 본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현재 조선에는 새로운 두 개의 사상이 대립되고 있다. 조선 정부와 국민은 신앙의 자유에 관용을 베풀자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으며, 은근히 서양과 접촉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반면 조선 유학자들과 유력한 관장들은 지금까지 조선 백성들이 다른 외국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해 왔을 뿐 아니라 위험한 이웃나라들의 야심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정치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들의 정책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피로 이 땅을 물들이게 했던 것이다.⁷⁾

프랑스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 조야를 천주교 관용파와 배척파로 구분하면서 후자의 행동을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이 이후 접촉을 피한 중점 대상은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조선 정부 역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이 매우 위험함을 감지하고 외교의 다변화와 균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특히 청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외교 사안에 깊이 관여하면서 고종으로서는 이러한 난국에서 탈출하고자 하였다.⁸⁾ 그것은 고종 스스로 프랑스 정부에 대리 공사나 공사

「曾國藩의 西教 인식 -태평천국과 楊洲·天津教案 처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8, 191~195쪽 참조.

7) 최석우, 1983, 「COMPTE RENDU de la Societe des M.E.P. - 파리외방傳教會年報(1878~1894)」, 『교회사연구』 4, 174~175쪽.

8) 고종의 자주화 정책은 박정양의 주미공사 파견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청은 고종의 이러한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속국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를 서울에 파견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⁹⁾ 이어서 1888년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정부위원으로서 영국과 달리 서울에 부임하자 조선 정부는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였다.¹⁰⁾ 프랑스 선교사들도 본국 정부의 관리 파견이 자신들의 선교 확대에 도움을 주었음을 인정했다. 단적인 예로 1886년 6월 4일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교사들은 護照[여권]만 가지면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하면서 ‘敎誨’ 즉 선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낸 점이다.¹¹⁾ 특히 제4관 6항 “호조 없이 상기한 경계 이외로 여행하든지, 혹은 내지에서 어떤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프랑스인을 체포하면 가장 가까운 프랑스 영사에게 인도하여 처벌케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治外法權을 보장받은 셈이다.¹²⁾ 선교사들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서울에 외교사절을 임명한 것이 비록 우리에게 조약에 명기되지 않은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안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¹³⁾ 물론 이러한 선교의 자유가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자유는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였다. 반대로 천주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교조 최제우가 처형을 당하고 정부

이에 관해서는 김형중, 2024,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 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01~716쪽 참조.

- 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3】 조선정부의 환영, 알현 등 플랑시의 서울 도착 직후의 상황보고(1888.6.13.). 이와 관련하여 최석우, 1982,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원순, 1992,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조선시대사논집』, 너티나무, 205쪽 참조.
- 10) 현광호, 2019, 『프랑스가 본 한국근대사』, 선인, 32쪽.
-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서울교구연보(I) 1878~1903』, 천주교명동교회, 103쪽.
- 12) 이원순, 앞의 논문, 206쪽; 장동하, 2016, 「한불조약과 종교 문제」,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64~267쪽.
- 1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17쪽.

의 邪教 禁壓에 따라 신앙의 자유는 물론 선교의 자유마저 억압받던 東學으로서의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수긍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동학이 사상적으로는 반천주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와의 관계 역시 매우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892년 전라도 삼례집회에서 천주교에 대한 적대감과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¹⁴⁾

물론 조선정부와 프랑스 선교사의 관계도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조선인들은 반상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비롯한 서양 종교와 문화의 전파를 우려하였으므로 향촌 사회에서는 소요가 자주 일어났다. 심지어 서양인들이 인육을 먹고 산다는 풍문이 돌자 배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이럴 때마다 프랑스, 미국, 러시아 군함의 함장이 서울에 해병대를 파견하곤 하였다. 1888년 6월 플랑시는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에서 “우선 우리는 여기서 퍼진 소문과 최근에 천진과 북경에서 발생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민심 동요의 유사성에 놀랐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¹⁵⁾ 프랑스는 조선에서 일어난 일련의 배외 사태를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教案에 견주었던 셈이다.

이때 조선주재 외교관들은 이러한 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조선 정부에 요청하여 포고문 초안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유괴범과 유언비어 유포자는 물론 외국인 공격자를 즉결방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정부도 이런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¹⁶⁾ 이어서

14) 박맹수, 2007, 「教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11~12쪽.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이와 관련하여 박한민, 2018,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이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438~442쪽 참조.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조선정부는 외교관들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아주 사소한 박해도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통지했다.¹⁷⁾ 특히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방전교회 선교를 뒷받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우선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에 파리와방전교회의 선교 상황과 신부들의 활동, 천주교 신도 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선교사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다. 특히 “이 교회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조선에서도, 프랑스 국가와 교회의 공동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리 정책의 보조자가 되어 주기를 바램”을 언급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천주교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¹⁸⁾ “종교적인 이해 관계는 분명 프랑스의 이해 관계와 조금도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불수호통상조약이 발효되어 치외법권을 인정받기 직전까지는 파리와방전교회의 공격적인 선교를 자제하여 “반그리스도교적인 걱정이 잡잡해지도록 내버려주는 것이 매우 좋”다는 서한을 보냈다.¹⁹⁾ 또한 프랑스 정부는 청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에 조선 정부의 주권 국가 외교 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자주 강조하였다.²⁰⁾

그리하여 프랑스정부는 외교적으로는 청불 관계를 위주로 조선정부를 상대하되 파리와방전교회의 조선 선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견지했다. 그 결과 청국 편향의 외교를 견지했거니와 선교의 경우, 청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리와방전교회의 학교 건립과 병원

1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6】 외국인들의 어린이 유괴 소문에 대한 상황보고(1888.6.23.).

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 【40】 조선 내의 카톨릭 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1886.6.5.).

1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 【40】 조선 내의 카톨릭 교회 상황에 대한 보고(1886.6.5.).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 【1】 조선주재 프랑스 정부위원으로 부임하는 플랑시에게 내린 훈령(1888.4.6.).

설립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였다.²¹⁾ 그 결과 치외법권은 물론이고 천주교 신자 보호, 교회재산권을 둘러싼 논란, 향촌 사회 세력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었다.²²⁾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펼쳐 나아갈 조선의 정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한해와 홍수 등의 자연재난, 매관매직, 관리들의 불법수탈, 국가재정의 위기 등이었다.²³⁾ 또한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동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원군을 경계하는 고종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대원군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외교관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딜레마였다.²⁴⁾ 특히 대원군이 다시 집권할 경우, 기존의 수호통상조약이 파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익을 제고시키거나 선교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초청 관계라든가 조일 관계의 빈틈을 노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초청 관계의 위기를 이용하여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예컨대 청국 침입설과 고종폐위설로 인해 조선 정계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자 프랑스 정부는 청의 조선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의 조선 인식을 다음과 같이 본국

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10】 가톨릭에 관해 프랑스 공사와 조병식과 갖은 대담 내용(1888.7.6.).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39】 선교단이 매입한 토지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보고(1888.11.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 II·1889』【35】 김창여의 인계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전말을 보고(1889.6.27.).

2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1888』【40】 기근과 홍수 및 함경도에서의 반란에 대한 보고(1888.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 III·1890』【86】 조선인들의 러시아령 이민(1890.9.11.).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 II·1889』【11】 대원군의 현 처지와 그와의 접견에 대한 보고(1889.2.8.).

에 보고하였다.

이홍장이 한 유명한 문서에서 언급하기를, “조선은 요녕[遼寧], 길림[吉林]과 아무르의 세 동쪽지역을 보호하는 벽이다. 그 나라와 우리는 입술과 이빨과 같은 것이고, 그 나라에 불행한 것은 청국에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²⁵⁾

이홍장의 이러한 언설은 청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설로 프랑스는 이러한 언설을 근거로 청국의 조선 정부 개입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서 조선 정부는 1889년 2월 19일과 21일, 23일 고위 관료 민영환, 이종건, 한규설을 프랑스 공사관에 보내 프랑스 정부의 협력을 구하고자 하였다.²⁶⁾ 이에 프랑스는 조약 규정의 한계 내에서 프랑스 정부는 제공하기로 한 도의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다시 민영환은 벨기에와 스위스의 경우를 들어 중립국 방안을 언급했고 프랑스는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인 이들 나라와 청국과 맞대고 있는 조선과는 상이하다고 대답하였다. 사실상 직접적 개입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민영환은 프랑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때 민영환은 청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영국과 독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발언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귀국 정부가 우리를 지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귀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라는 발언까지 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 정부가 조선 정부와의 외교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위를 선점했음을 의미하였다. 이때 프랑스는 민영환에게 노골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

2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12】 주미 조선 공사 박정양의 귀국문제와 청국 군대의 조선 개입 소문 보고(1889.2.10.).

2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16】 청국 개입에 대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민영환과의 회답 내용 보고(1889.2.23.).

을 털어놓았다.

우리 협력의 대가는 아마도 기독교인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어쩌면 영토의 양도였을 것입니다. 저는 민 장군께서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을 예상하고 상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적어도 포기하기에 충분한 논리를 필요하면 계속 펼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위치를 고수할 것입니다.²⁷⁾

프랑스 공사관측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관계는 이후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강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조선 정부의 원세개 소환 요청에 이어²⁸⁾ 1889년 2월 원세개 정변설이 퍼졌으며²⁹⁾ 1890년 서울 상인들의 철시 투쟁, 국가재정의 위기, 신정왕후 조대비의 사망 등으로 조선 정국이 동요하자 미국 정부는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급파한 뒤 수병을 상경시켰다.³⁰⁾ 이때 조선주재 독일 공사관은 프랑스 공사관측의 청국침입설과 상이한 견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³¹⁾ 1890년 6월 7일 보고에 따르면 왕실이 국장에 따른 경비를 상인들과 농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야기되는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 수병의 상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열강들의 이러한 대응은 조선 정부를 외교상

2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 【16】 청국 개입에 대해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한 민영환과의 회담 내용 보고(1889.2.23.)

28) 구선희, 2009,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중국인, 위안스카이」, 『역사비평』 86, 357~358쪽.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 【20】 광서 황제 결혼을 계기로 원세개가 개최한 파티 및 정감록에 관한 보고(1889.2.28.).

3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Ⅲ·1890』 【65】 제물포 정박 스와타 라호 미 해병대 50명의 서울 파견(1890.6.7.)

31)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19, 『독일어외교문서 한국편』, 「24. 조선의 대왕대비 서거와 미 해병대의 서울 도착」(1890.6.7.), 보고서 참조.

수세에 물리는 형국으로 몰아넣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조선 정부의 이런 위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에 파리외방전교회 서울 교구를 맡고 있는 뮈텔 주교는 1891년 파리 본부에 보고하길 “선교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널리 활용”할 것이라 하였다.³²⁾ 천주교의 공격적인 선교가 다시 힘을 받아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은 치외법권과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소송을 벌이거나 천주교 신자들을 옹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물론 선교 확대가 순풍만 타지 않고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1891년 1월 프랑스 선교사가 전라도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³³⁾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였다. 예컨대 1891년 대구에서 추방당한 로베르 신부 사건의 경우, 뮈텔 주교의 중재로 프랑스 대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다.³⁴⁾ 이러한 조기 해결은 3월 21일, 때마침 프랑스 砲艦 아스픽 호의 급작스런 출현이 플랑시의 표현대로 “분쟁의 해결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정부는 포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타협으로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뮈텔은 대구에서 축출된 로베르 신부가 신임 감사 이현영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으며 대구로 돌아간 일을 두고 천주교의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³⁵⁾ 그리하여 1891년 2월 23일 플랑시는 서울에 부임한

3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55쪽.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2】 전라도에서 발생한 프랑스 선교사 폭행 사건(1891.1.19.).

3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18】 대구에서 추방당한 로베르 신부 사건과 관련하여 뮈텔 주교의 중재로 프랑스 대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간 협상(1891.4.2.). 이와 관련하여 양인성, 2014,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35)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1995,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

뫼텔이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조선 개항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조선정부의 관용으로 천주교도들의 신앙 생활 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을 하는 자들도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신임 주교는 천주교로 개종한 조선인들이 주교를 만나보기 위해 공공연히 열성을 드러내는 것과 선교회가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규모가 큰 건물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³⁶⁾

플랑시 역시 뫼텔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신앙 자유의 확대와 함께 선교의 확산이 본격화되었음을 실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선교 박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플랑시는 본국에 군함을 요청하였다.³⁷⁾ 심지어는 전라감사의 면직을 요청하였다.³⁸⁾ 우선 이 과정에서 플랑시는 감사의 공식적인 처벌과 감봉을 요구하였고 이 고위 관리의 친척인 왕비가 강경히 반대하고 나서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은 강경한 플랑시 씨의 태도와 왕실 사이에서 난처해졌다. 이어서 아스픽 호가 제물포에 닻을 내리던 날 독판은 주교 뫼텔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화해를 하게 될 경우 조선의 천주교도들이 누리게 될 이익을 강조했다. 조선의 관리가 주교를 방문한 것 자체가 큰 양보로 여겨졌다.³⁹⁾

베르)신부 서한집-1』, 128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9】 조선교구 뫼텔 신임 주교의 서울 도착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1891.3.7.).

3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10】 조선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프랑스 선교사 박해 보고와 프랑스 군함 파견 요청(1891.3.1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24】 전라도 선교사 문제 해결로 제물포에 파견되었던 아스픽 호(1891.4.24.).

3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 【11】 프랑스 외무부의 선교사 박해 처리에 대한 지시(1891.3.11.).

이어서 프랑스 외무부는 1891년 9월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관에 조선 천주교 신자 보호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귀하는 요즘 청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로 보아 심각해 보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조선 정부에 납득시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 열강 대국들이 충분히 일치할 본 우리의 눈에 기독교 전례와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의 재산에 안전을 보장할 조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여러 번 제게 알린 소요들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을 귀하의 강력한 향의로 조선 정부를 이해시켰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⁴⁰⁾

프랑스 정부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안을 염두에 두고 조선에서도 천주교 신자 보호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 선교사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조선인 천주교 신자까지 보호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전라도 일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학대를 당하자 프랑스 공사관은 적극 개입하였다.⁴¹⁾ 장성 고을 향촌 양반들이 신부와 접촉하는 조선인들을 헐박하자 프랑스 공사관이 조선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프랑스 공사관이 장성 교안에서 향촌민들이 자국 선교사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불수호통상조약 위반을 근거로 적극 개입하였던 것이다. 특히 프랑스 공사관과 뮌헨은

3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 【32】 제물포 파견 프랑스 포함 아스픽 호의 임무 완수(1891.5.28.).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 【45】 프랑스 외무부의 조선 가톨릭 교도 보호 지시(1891.9.12.).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 【49】 전라도 장성 지방에서 일어났던 가톨릭 교도 학대 문제의 해결(1891.10.10.). 이와 관련하여 조광,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67~75쪽 참조.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문제에 민감한 터였다.⁴²⁾ 이후 조선 정부가 천주교 신자를 학대한 향촌 양반은 처벌하였고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⁴³⁾

전라도 지방의 이러한 교안은 당시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전라도 동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1893년 3월 3일(음력 2월 14일) 밤 서울 길포드 학당의 문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방문을 붙였는데 여기에 “지금은 異道가 횡행하여 백성을 誣惑하니 이것이 一亂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심지어 ‘서학의 무리들’ 즉 천주교 신자들이 동학교도를 해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아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었다.⁴⁵⁾ 그리고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동학과 달리 천주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중앙 정부의 이중 정책에 불만이 커져 갔을 것이다. 나아가 교조신원을 통해 동학의 공인과 종교 자유의 확보를 급선무로 여겼을 것이다.

2. 외교관과 선교사의 동학 인식과 대응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프랑스 국익과 선교 확대에 힘을 기울이면서 일찍부터 자신들의 이러한 방침을 방해하거나 도전할 세력으로 東學을 지목하였다. 특히 동학이 조선 왕조를 전복할 세력으로 등장하여 반역을 획책하였다는 첩보는 큰 충격이었다. 1889년 12월 플랑시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42) 『위텔주교일기』 I, 1891년 12월 19일.

4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Ⅳ·1891~92』【102】 프랑스 외무부에서 가톨릭 신자 체포와 관련한 주한 프랑스 대표의 강력한 조치에 만족 표명(1892.11.8.).

44) 『구한국외교문서』 10(美案 1), 고종 30년 2월 18일. 이와 관련하여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163~164쪽 참조.

45) 한국학문헌연구소,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1, 아세아문화사, 1979, 445쪽. 이와 관련하여 배항섭, 위의 책, 149쪽 참조.

서울에서는 왕이 희생자가 될 뻔했던 습격이 화제입니다. 이[李]라는 이름의 한 내시가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체포가 진짜 음모를 알아내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1월 25일 밤에, 음모자들은 왕궁에 침범하기로 결정하고, 세자가 거주하는 별채를 날릴 수 있는 많은 양의 화약을 넣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의해 발생될 혼란을 이용하여, 군주를 붙잡아서 왕권이 박탈되었음을 선언하려고 하였답니다.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마침 와서, 그 계획의 실시를 연기하였고, 12월 7일에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시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의 공범자들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당하였고, 그들은 즉시 수배되어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지키고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사건의 원인과 실시의 시작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왕실 규방의 몇몇 호위병들을 제외하고, 관리들이나 서울의 거주자들은 수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동학(東洋 敎理)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비밀 결사의 구성원들 중에서, 집권하는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유파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그 목적이나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교리의 신봉자들은 초자연적인 특권을 누린다고 - 이 말은 여기서 신임을 얻습니다 -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을 수 있고, 뚜렷한 고통없이 가장 심한 체형을 견디고, 그들을 때린다 해도 그들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당한 체형을 견디는 방법은 그 이야기를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⁴⁶⁾

이에 따르면 이씨 성을 가진 내시가 동학 조직의 지령을 받고 고종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떤 연대기 자료나 형사 사건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

4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75】 반역음모와 이로 인한 왕실의 충격에 대한 보고(1889.12.15.).

는 첩보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 공사관측에서는 동학을 매우 위험한 조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동학 조직을 초자연적인 특권을 믿는 신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천주교측도 동학에 대한 정보를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⁴⁷⁾

1891년 말경에는 우리 교우들이 꽤 불안을 겪었습니다. 여러 도의 여러 郡에서 발표한 문서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문서에는 이장들에게 소위 邪敎를 따르는 자들을 조사해서 고을 원에게 고발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동네의 집들은 서로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나온 이 명령은 道 감사에 의해 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박해 중의 가장 좋지 못했던 시절의 행동 방식과 무기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교라는 단어가 모호했고, 또 비록 예전에는 이 말이 항상 천주교를 가리키는데 쓰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원한을 품고 하는 일인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⁴⁸⁾

여기서 나오는 여러 도의 여러 고을에서 발표한 문서는 1891년 10월(음력) 조병식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래 발표한 동학 금압령을 비롯한 여러 금압 조치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사교 금압령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불뚱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당시 천주교가 동학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동학이 천주교에 반대하는 종교라는 점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동학 금압이 사교 금압과 연결되어 천주교 선교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47) 뫼텔의 파리 본부 보고서는 당시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내려간 여러 신부들의 보고서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당시 뫼텔에게 보고된 문서 현황에 관해서는 이원순, 1969, 「미공개사로 Mutel 문서」, 『한국사연구』 3; 조광, 1985, 「동학농민혁명 관계사로 拾遺-Mutel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충』 29 참조.

4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1892년 보고서, 266쪽.

이어서 이 보고서는 동학의 발생과 교리, 주장, 분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이교적인 교파가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파의 추종자들은, 특히 전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서가 특히 발표된 것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학군들을 탄압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기회에 우리 신입 교우 여럿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경상도 고을의 한 外敎人이 고을에서 나온 공식문서를 보고 아마 그것이 그리 분명치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서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상부관청에서 받은 명령을 상기시키고나서 동향인들에게 두려움도 조심성도 가지지 말고 천주교인들과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기소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관인이 찍혀 있는데 그것이 원의 관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조(Jozeau) 신부가 다행히도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뒤 신부가 찾아가 항의하자 관장은 도장이 가짜라고 어렵지 않게 언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조한 자를 처벌하기를 요구하자 관장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공모했었다는 증거 일까요? 어쨌든 프랑스 공사가 우리를 후원해 주었고, 죄인은 가벼운 귀양살이 선고를 받았습시다. 이것으로 그 근방의 외교인들에게서 다시 모험을 시도할 생각을 송두리채 뽑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쨌든 의정부의 의도로는 이 박해의 조치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무슨 동기로 그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⁴⁹⁾

천주교측은 정부의 동학 탄압으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프랑스 공사관의 지원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겨우 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4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1892년 보고서, 266쪽.

관원들이 동학 탄압과 연계하여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탄압의 배후에는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학을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고 판단하여 그들과 연대할 생각은 조금도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동학을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이교적인 교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공사관은 이에 앞서 동학보다는 鄭鑑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정감록에 조선왕조가 1892년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랑시가 1889년 2월 본국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정감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파티(광서제 결혼 축하를 빙자한 원세개에 의한 정변, 필자 주)가 무사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위험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많은 유복한 가족들은 피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요는 특히 모든 사회계층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예언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정감이라는 작가가 쓴 책(鄭鑑錄) 한 권은, 조선인들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실현되었다는 반도의 운명에 대한 예측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정확하였기 때문에 해석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섭정공(대원군, 필자 주)이 - 약 20여 년 전에 - 이 책을 베끼는 것과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금지된 책들은 그 사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조차 가장 중한 벌에 처해졌고, 신고된 모든 책은 압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판을 발간하였는데 그 문장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던지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본이 금지를 피하였고, 이것이 새롭게 널리 퍼졌고, 오늘날 그 옛날의 원문에서 점술 애호가들이 미래를 탐색합니다. 그들이 알아내기로는 현재 정권을 쥔(1392년에 출현한) 이씨 왕조는 500년만 지속될 것인데, 1892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3년 전(1889)에, 한 청국인 장군이 조선에 군대를 끌고 들어와 진인(眞人)이라는 이름의 그 동포 중에 한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공에 뒤따르는 학살 장면들, 濟州道로의 왕실 가족 추방, 이 모든 일들은 이 아시아의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의 예언 따위 속

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신비한 책은 이곳 사람들이 순진하며 무식하며 미신적이기에 이곳에서 더욱 신뢰받게 됩니다.⁵⁰⁾

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사관측은 정감록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유포된 가운데 청국침공설과 결합되어 증폭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1892년 조선멸망설이다. 비록 『정감록』을 14세기에 정감이 지었다는 오류가 보이지만 圖讖書로서 진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을 인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책을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견줄 정도였다.

프랑스 외교관의 이러한 관심은 뫼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⁵¹⁾ 그는 전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조 신부를 통해 동학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1892년 8월에 동학도들이 비결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도 고창 선운사 도솔암을 습격하여 마애불을 조사한 일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⁵²⁾ 나아가 그는 이 사건을 왕조의 전복과 새로운 국가의 설립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서명도 「東學徒開國陰謀件」이다.⁵³⁾ 특히 뫼텔이 주목했던 점은 군대 동원과 함께 “서양인과 서양종교를 물리치자(斥滅洋人洋教)”는 구호였다. 뫼텔로서는 가장 우려할 만한 사안이었다. 또한 “남조선 정씨가 늘 천명이 우리도[동학]에 부여되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동학과 정감록과 연결되는

5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3 조선Ⅱ·1889』【20】 광서 황제 결혼을 계기로 원세개가 개최한 파티 및 정감록에 관한 보고(1889.2.28.).

51)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꿈꾸다』, 모시는 사람들, 303쪽; 이영호, 2016, 「선운사 석불비결사건과 정감록」, 『동학학보』 40; 한승훈, 2021, 「선운사 석불비결사건에 대한 종교사적 검토」, 『전북학연구』 3.

52) 『동학사』를 집필한 오지영은 자신이 마애불 비결 탈취 사건에 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오지영, 1940, 『동학사』, 영창서관, 87~92쪽 참조.

53) 「東學徒開國陰謀件」는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뫼텔문서』에 들어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발간하고 이는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5, 동학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 밖의 개별 문서들도 『동학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⁵⁴⁾ 즉 서양인 배척이 조선멸망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학은 프랑스 외교관이나 선교사들에게 일종의 정감록으로 비쳤다. 그렇다면 천주교측도 동학도의 움직임을 서양 배척과 연계하여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었다. 동학도의 이러한 시도는 천주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 외교관과 천주교측은 1892년 조선멸망설을 불신하였다. 1891년 11월 프랑스 공사관은 이 시기 조선 정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미국 공사와 러시아 공사를 위시한 본인의 동료들 가운데 몇몇의 견해는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에는 불만 세력의 수가 많고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반란이 항상 봄에 발생하는데 이는 겨울이 길고 혹독하여 땅이 3개월 이상 얼어 있어서 일자리가 모자라고 창고가 바닷나 봄이 되면 백성들의 대부분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부랑자가 늘어나며 거리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도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뫼텔 각하가 선교사를 통해 내륙지방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방에서 판치는 수많은 도적 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라고 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소문들이 떠돌고 사람들이 불만을 크게 외치고 일부 걱정 많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긴장된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봄까지 혹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구. E. 로세 파리의 외무부 장관 리보 각하께, 등등⁵⁵⁾

54)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 민중신앙과 이단 사상에 관해서는 조광, 1994, 「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동학농민전쟁」, 『백제문화』 23, 백제문화연구소; 장영민, 1998, 『동학사상과 민중신앙』, 『동학연구』 2; 배항섭, 앞의 책, 55~60쪽 참조.

5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 【55】 조선의 물가 급

이에 따르면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은 당장 혁명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소요가 일어날 상황임은 부인하고 있지 못하였다.

나아가 조선정부의 동학 탄압과 함께 지방관 및 향촌사회의 천주교 배척도 자주 언급하였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프랑스 공사관의 개입과 천주교측의 노력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피해를 보상받곤 하였다.⁵⁶⁾ 그러나 동학도들의 활동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으로 파악했다. 특히 1892년 3월 9일(음력 2월 11일) 광화문 伏閣上疏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1893년 10월 뫼텔은 파리 본부에 동학의 연원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東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생겨나서 그 전파로 정부를 불안케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교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했습니다. 올해도 과연 서울과 8도가 이 空論家들의 음모로 불안에 싸였었는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大衆의 叛徒들입니다. 오래 전부터 전국에 돌아 다니는 소위 예언이라는 것들이 현 王朝가 500년이라는 숙명적인 날짜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1892년으로 기한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언의 실현을 재촉하기 위해 운명의 수레바퀴를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불만을 다시 일으키는 불평분자들과 새 왕조의 출현을 예측해서 미리 기대를 하는 관직없는 양반들과 끝으로 혼란을 틈타 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런 사람의 수가 조선에는 너무나 많습니다)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요술에 걸린 것처럼 모였고, 또 여기서는 반란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위험하므로 자기들의 정체를 더 쉽게 감추기 위

등과 정치 상황(1891.11.20.)

5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5 조선IV·1891~92』【64】 전라도에서 피해 입은 가톨릭 신자 문제 해결(1892.2.20.).

해 어떤 敎義의 간판을 내걸었습니다.57)

이에 따르면 천주교측은 동학을 정감록과 결부지어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양반 가운데 불평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감록이라는 도참서를 이용하는 종교집단이 동학인 것이다. 동학을 정감록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막상 뮌헨이 『동경대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정감록 사상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교파의 敎義에 대한 개념을 믿기는 꽤 어려운 일이며, 이 교파에서 발행한 책을 내가 장만할 수 있었으나 아주 모호합니다. 이 교파의 두목 중 한 사람은 예전에 천주교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 책들 중 하나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1861년에 천주교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신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의 소원을 칭찬하면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천주교는 취하지 말고 자기가 진리를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서 전파할 책임을 진 교리는 ‘동학’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합니다. 거기에 환상가의 공상 아닌 다른 것이 들어 있다 해도, 이 예언자에게 말한 천사가 빛의 천사가 아님은 아주 명백합니다. 천주라는 이름과 천주교에서 빌어간 몇 가지 단편적인 진리에, 대개는 易經에서 끌어온,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상과 이 책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술의 축문과 몇 가지 짧은 기도문도 들어 있습니다. 하기는 동학을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리를 절대로 모르고, 다만 그 이름만이 그들의 가담의 표가 됩니다.58)

5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5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뫼텔은 『동경대전』을 분석한 결과 교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제우가 천주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⁵⁹⁾ 그러면서도 뫼텔은 최제우의 득도 시기를 1861년으로 잘못 파악했지만 동학이 서학의 대척점에 서서 창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동학이 지칭하는 천주가 천주교의 ‘天主’에서 온 게 아니라 유교 경전인 『易經』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동학의 교리를 모른 채 동학 그 자체 이름을 듣고 따르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뫼텔 역시 동학이 천주교에 반대하여 일어났으며 동학도 역시 천주교에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뫼텔은 1893년 3월 24일(음력 2월 7일) 일기에서 동학도가 상경한다는 소식을 적으면서 이들이 외국인들을 축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덧붙였다.⁶⁰⁾

그러나 1893년 보고에서는 동학도의 이러한 활동이 정부의 거부로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2년 12월에 그들 수천 명이 남쪽 도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공공연한 계획은 대저 서울로 올라와서 모든 외국인을 쫓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모자들은 확실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들의 집합에 대한 소문뿐이었습니다. 단호한 수단을 쓴 다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직업과 발일을 버린 어중이떠중이가 많습니다. 시골에서는 공포가 심했고 특히 우리 교우들 사이에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파발꾼들이 내게 와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우리의 파멸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과장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⁶¹⁾

59) 뫼텔의 정보 입수는 전라도 김제에서 선교하던 조조(Jozeau) 신부와 전라도 고산의 비에모(Villemot, Marie Pierre Paul, 1869~1950) 신부의 노력이 힘입은 바가 크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순, 조광, 앞의 논문 참조.

60)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3월 24일.

6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이에 따르면 뮌텔이 1892년 12월(양력) 전주 삼례역에 모인 동학도의 교조신원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동학 주모자들은 정부 전복을 통한 권력 장악이 목표였고 추종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러는 ‘어중이떠중이’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천주교 축출 선언을 호언장담으로 여겼다.⁶²⁾ 따라서 뮌텔은 그들이 장담한 1893년 3월 정부 전복 시도 즉 광화문 복합상소는 한낱 허세에 불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⁶³⁾

그러나 멀리서는 모든 것을 兵火의 유희의 도가니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동학군들이 서울에 도착하면서는 진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내쫓아줍시다 하는 상소를 임금님께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대궐 앞에 먼지에 이마를 박고 엎디어 있는 것을 여러 날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임금님이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므로 주모자들을 찾으려 관헌이 출동했고, 얼마 안 있어 서울에서는 동학군들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俗離山이라는 높은 산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산에서 몰아내려고 서울에서 군사들을 보냈으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⁶⁴⁾

복합상소 기간에 벌어진 상황을 전하면서 척왜양을 요구한 복합상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고종의 윤음이 내려졌고 동학도들은 충청도 보은으로 옮겨가 집회를 이어갔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

62) 당시 삼례 집회에서 동학농민들은 동학과 서학의 관계를 ‘氷炭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삼례 집회와 관련하여 박맹수, 2007, 「教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11~12쪽. 이경원, 2013, 「삼례취회시기 전라도 동학교도의 봉기계획 구상과 신원운동의 변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2~73쪽 참조.

63)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6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도들의 이러한 척왜양 움직임으로 천주교 세례자가 예전에 비해 감소했음을 덧붙였다.⁶⁵⁾

반면에 프랑스 공사관은 천주교측과 달리 동학의 교리와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프랑스 공사관이 1893년 3월에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관님, 몇 달 전부터 서울에서는 동학(동쪽의 종교?)[東學]교도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1만, 2만, 3만 명이나 되는 교도들이 서울로 몰려와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기독교도들을 학살하고, 선한 정치로 나라를 쇄신하려 한답니다. 이들은 우선 3월 8일을 택하여 궁궐 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이교는 분명 존재합니다. 동학교도 대다수는 정부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선비들입니다. 최제우[崔濟愚]란 선비가 동학(Tong-Hak)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주는 영광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동학교도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끈게 하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안위를 보장한다. 사흘 전 동학교도 21명이 궁궐 문 앞에 모여 엎드려 절하고 상소를 올렸으나 국왕은 상소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교도들은 전 교주의 사후 복권 및 정부가 동학을 인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회 전하가 들어줄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교도들은 오늘 개신교 선교사들의 집 담에 격문을 부쳤습니다. 경구 . H. 프랑명 파리의 외무부 장관 리보 각하께, 등등⁶⁶⁾

이에 따르면 동학도의 복합상소가 폭력적인 소요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동학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정감록에 연결시키기 보다는 교리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즉 동학의 핵심

6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277~279쪽.

6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16】 동학 교도들의 광화문 복합 상소(1893.3.31.).

교리인 敬天, 修心正氣, 輔國安民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복합상소의 목표가 敎祖伸冤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 동학도의 활동이 외국인 축출, 기독교도 학살, 정치 권력 장악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어서 1893년 4월 25일(음력 3월 10일) 프랑스공사관은 본국에 이러한 사태를 보고하면서 동학도들이 살포한 격문을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⁶⁷⁾ 이에 따르면 복합상소가 반종교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천주교 선교사보다는 대일 곡물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일 곡물 수출이 조선인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복합상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리하여 동학도들은 일본 영사관에 榜文을 붙였고 일본 거류민이 중요하고 있음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사관이 우려했던 反天主教 저항이라 할 교안으로 확산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방문 부차자들이 천주교 지도자들을 향해 신부들의 선교 행위를 조물수호 통상조약에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반 유생들과 마찬가지로 不孝와 서양의 혼인 풍속 등을 비판한 뒤 천주교의 조선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⁶⁸⁾ 이어서 뫼텔은 고종이 청국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청국이 거절했다는 소문을 일기에 적었다.⁶⁹⁾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정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원병 요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대일 곡물 수출로 야기된 쌀값 폭등으로 지방에서 피란한다는 소문이 서울에도 들려왔다.⁷⁰⁾ 이에 프랑스 공사관

6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9】 동학교도들의 궤서와 일본 영사관측의 반응(1893.4.25.).

6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9】 동학교도들의 궤서와 일본 영사관측의 반응(1893.4.25.).

69)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5월 6일.

70)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5월 13일; 5월 14일.

은 “조선은 피를 부르는 혁명 전야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였다.⁷¹⁾ 당시 고종이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속사기관총, 속사 소총을 궁궐에 들여왔으며 외국인을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에서 위기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심지어 뫼텔은 보은 집회에 맞서 청국의 전차에 대포와 군수품을 싣고 온다는 소문도 일기에 적었다.⁷²⁾

II.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대응과 조치

1.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 입수

1894년 정초는 프랑스 공사관이나 뫼텔에게는 결코 잇을 수 없는 한 해였다. 그는 1894년 5월 6일 일기(음력 4월 2일)에서 다음과 같이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적고 있다.

또 다시 東學徒가 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전라도 감사가 전보를 보내왔다. 수많은 동학도가 집결하여 벽보를 붙이고, 양반과 부자들을 습격하고 있는데, 감사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으니 서울에서 병사들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였다. 따라서 수백명의 병사들이 배편으로 전라도 감사에게 파견되었다. 동학도들은 특히 泰仁에서 많이 숙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⁷³⁾

7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26】 조선 국왕 및 궁궐의 상황에 대한 보고(1893.5.22.).

72) 『뫼텔주교일기』 I, 1893년 5월 14일.

73)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6일.

이에 따르면 천주교측은 고부 봉기 소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가 5월에 들어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전해 들은 것이다. 이어서 조선정부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서울로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⁷⁴⁾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은 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동학도가 선교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에 뫼텔은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조선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뫼텔의 1894년 5월 9일 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동학도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되는 병사 800명이 어젠가 그저께에 漢陽號, 蒼龍號 등 2척의 증기선에 나눠 타고 군창(Koun-tchang 군산창, 필자 주)을 향해 제물포를 출발했다. 역시 병사들을 태운 청국 군함 한 척이 두 증기선과 함께 떠났다. 소문에 의하면 충청도에서도 1,200명의 병사가 파견되었다고 한다.⁷⁵⁾

또한 프랑스 공사관도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자국 선교사의 안전 문제에 촉각을 세웠다. 조선정부의 외국인 철수 요청도 있거니와 프랑스 공사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뫼텔에게 선교사 철수를 요청했다.⁷⁶⁾ 그러나 뫼텔은 공사관의 상황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신부들의 철수 과정에서 일어날 문제를 우려하여 현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반박하였다. 프랑스 공사관은 나중에 조선 정부에 항의할 근거가 없어짐을 강조하였지만 결국 현지 사정에 발은 뫼텔의 판단에 따랐다.

그러나 뫼텔 역시 그의 촉각은 전라도 일대에 가 있었다. 5월 19일 일기에는 동학도들이 소금에 대한 세금의 폐지와 장시세 폐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었다.⁷⁷⁾ 그리고 이때서야 동학도의 첫 봉기 지역이 고부

74)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7일.

75)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9일.

7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5】 삼남 지방 등의 소요로 인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1894.5.15.).

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뮌텔은 6월 3일(음력 4월 30일) 일기에 동학도 즉 ‘暴徒’, ‘叛徒’들이 전라감영 소재지 전주로 들어갔으며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전신주를 파괴했으며 전화기까지 철거했다는 소문을 적었다.⁷⁸⁾ 심지어 파괴된 전임감사가 서울 감옥에 구금되었다는 풍문을 적었다. 뮌텔로서는 신부의 안전에 촉각을 세우면서 전라도 수령들의 탈출 사태를 적었다. 다만 천주교 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반면에 뮌텔은 6월 4일(음력 5월 1일) 일기에서 고종이 전라도 동학난에 노심초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들과 춤, 노래로 매일 보내고 있다는 소문을 적었다.

그러나 그의 우려대로 전라도 고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모 신부의 소식을 들었고 5월 31일(음력 4월 27일) 전주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⁷⁹⁾ 그것은 조조 신부를 비롯하여 천주교 신자들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조 신부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파악했다. 이에 뮌텔은 이 소식을 듣고 제물포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해군 함장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 뮌텔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 어디서 찾았을까? 그의 일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후일 파리 본부에 보내는 1894년 보고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 무서운 시련을 가져다 준 사실들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라도의 여섯 고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의 착취에 진저리가 난 백성들이 동학도의 충동에 귀를 기울여 일제히 반란

77)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5월 19일.

78)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3일.

79) 『뮌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6일.

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도들을 진압하라고 서울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반도들은 5월 31일 전주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 주거를 정하고 있는 보두네(Baudounet) 신부는 늦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제관은 부분적으로 약탈을 당했고 거기 있던 신학생 중의 한 사람은 동학군이 쏜 총탄으로 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⁸⁰⁾

그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서 찾고 있다. 또한 6개 고을에서 고립분산적으로 일어났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전의 농민봉기에서 드러나는 고립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민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 지도자의 주도 아래 농민이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신학생 한 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큰 피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 공사관 역시 뒤통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측의 견해와 유사했다. 1894년 5월 25일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소요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이 전해 온 신뢰할 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소요가 외국인들이나 천주교도들을 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를 일으킨 자들은 합의에 의해 혹은 강제로 이회 전하로부터 일부 조세의 감면과 부패한 관리들을 소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⁸¹⁾

이러한 보고에서 유의할 점은 동학도들이 외국인과 천주교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에는 일본인은 제외되어 있다. 백산 집

80)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310쪽.

8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7】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 원인과 경과(1894.5.25.).

회에서 제시한 4대 강령 가운데 세 번째 “일본 오랑캐[倭夷]를 쫓아내고 성도를 맑게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양인과 천주교 신자는 제외되어 있다.⁸²⁾ 이후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남부 지방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무리가 처음으로 출몰한 것은 3월로 주로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무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했으나 4월 말경부터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반란군들은 정부의 무기고를 약탈하고 관리들 몇 명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과 강화도에 주둔하는 군인 1,200명에서 1,500명을 파견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은 군인이 오히려 폭도들에게 가담했으며 나머지는 여러 차례 패배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2만 명에 달하는 폭도들은 전라도의 도움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남부에서 발발한 소요가 현재까지는 서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이곳은 매우 평온합니다. 프랑스 전함이 현재 제물포에 정박 중이며 만일의 경우 프랑스 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부대를 서울에 파견할 것입니다.⁸³⁾

프랑스 공사관 역시 뒤통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불법 수탈에서 혁명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제1차 기포 역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경군의 파견 사실과 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직전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 공사관 역시 프랑스 군함이 제물포에 정박 중이며 해군을 공관 보호를 위해 파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군함은 외국 군함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의 소요와

82) 鄭喬, 『大韓季年史』 2, 甲午條.

8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7】 남부 지방 소요의 발생 원인과 경과(1894.5.25.).

관련하여 5월 9일 입항한 이래 조선정세의 추이를 주시하며 계속하여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뮌헨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6월 7일 일기에 미국 순양함, 청국 장갑함, 일본 군함이 정박하고 있으며 곧 러시아와 영국의 장갑함도 곧 도착할 것임을 적고 있다.⁸⁴⁾

이러한 정보 보고가 뮌헨과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뮌헨 역시 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본다. 훗날 뮌헨은 파리 본부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일반적인 반란 이상으로 판단하여 청국에 원군을 요청했고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했음을 덧붙였다.⁸⁵⁾ 또한 청국의 원군은 자신의 종주권과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 정부의 이런 원군 요청이 농민군 진압에 유효할지 몰라도 일본을 자극하여 조선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⁸⁶⁾

2.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 대응

복합상소 이후 동학농민군 세력이 斥倭을 표방하자 신속히 군함을 파견하였던 열강은 1894년 5월 21일(음력 4월 27일) 농민군의 전주점령과 조선정부의 청국군 파병 요청이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조선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은 농민군이 삼남 지방을 비롯하여 강원도를 장악하였고 서울에서 100킬로미터까지 진출했다고 인식하였다.⁸⁷⁾ 본국 외무부에서 사태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프랑스 공사관 역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

84) 『뮌헨주교일기』 I, 1894년 6월 7일.

8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8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9】 남부 지방 소요 진압을 위한 청국군 지원 요청(1894.6.6.).

8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69】 남부 지방 소요 진압을 위한 청국군 지원 요청(1894.6.6.).

작했다.⁸⁸⁾ 조치의 중점은 프랑스 선교사의 안전에 모아졌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불길한 조짐을 보여주었다. 우선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는 보두네 신부집이 도난을 당했으며 동학도들이 부자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⁸⁹⁾ 동학도의 이러한 행동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6월 31일(음력 5월 8일) 전주성을 빠져나간 농민군의 행동을 지목한 것이다. 뫼텔은 7월 6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동학도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저녁 때 전주에서 전보가 도착. “신자들에게 위협에 임박해 있음. 조조. 보두네”(CHRISTIANI IN PERICULO IMMINENT. JOZEAU.BAUDOUNET). 어디서 위협이 오는 것일까? 분명히 수고스럽게 전주를 빠져나가지 않고 노략질을 시작한 동학의 무리들로부터 오는 것일 게다.⁹⁰⁾

심지어 7월 10일 일기에서는 전라도 지역 거주 신부들의 편지에 입각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리들은 “바로 동학도”라고 단정하였다.⁹¹⁾ 그 이유로 천주교 신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동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⁹²⁾

드디어 프랑스 공사관 및 천주교측의 바람과 달리 신부가 피살되었다. 신부의 이름은 조조였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동향을 뫼텔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신부가 청군에 의해 공주 부근에서 피살되었던 것이다.⁹³⁾ 천주교 신자가 보낸 소식에 따르

8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0】 소요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문의(1894.6.8.).

89)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2일.

90)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6일.

91)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10일.

9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부, 앞의 글, 312쪽.

면 조조 신부가 전라도 현지 사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7월 24일 서울로 오는 길목인 공주에서 8월 2일 하인과 함께 청군에게 참수당한 것이다. 이들 청군은 일본군과 성환 전투에서 패한 뒤 도망가던 중 우연히 조조 신부를 만나 심문한 끝에 살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청군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측에서는 신부가 청군 상급 지휘를 받아 살해당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뫼텔 역시 사건을 조사하고 공사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조 신부의 유해를 찾는 데 힘을 기울였다.⁹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조조 신부가 동학농민군에게 체포되었지만 곧 방면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농민군이 서양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동학의 대책점에서 있던 천주교 신부에 대한 이러한 처리 방식은 이 시기 농민군의 지향이 삼례 취회·광화문 복합상소에서 표방했던 反外勢 反封建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反倭 反封建에 있음을 보여준다.⁹⁵⁾ 농민군 자신이 정작 프랑스 신부를 접하고서는 기존의 적대의식을 폭력으로 해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공사관의 판단은 조선 정부와 달랐다. 조선 정부가 6월 11일(음력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 청일 양군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조기에 군대를 상경시킴으로써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위협에 빠뜨렸다고 판단하였다.⁹⁶⁾ 심지어 농민군의 집강소 행정을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조조 신부의 죽음도 이런 무정부

9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7】 공주 인근에서 조조 신부가 청국군에게 피살(1894.8.16.).

94)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8월 3일.

95) 배항섭은 동학농민군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을 살해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여 동학농민군이 반일 반봉건에 주안을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배항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35~238쪽 참조.

9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0】 전라도에서 위기에 처한 두 선교사(1894.8.30.).

상태에 불안을 느껴 상경하는 과정에서 청군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농민군의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위협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학 반도들은 활동 초기에 정부를 겨냥하고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들을 공격했으나 6월 중순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일반인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들은 특히 천주교도들을 적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7월 초, 본인은 모두네 신부와 조조 신부로부터 염려스러운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천주교도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을 떠나 산으로 피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필요한 보호를 요청했으나 관찰사는 서신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라도 관찰사의 재판 거부에 분노한 정부위원님께서 관찰사가 서신을 수령하고 선교사 및 천주교도들을 보호할 것을 전보 공문을 통해 지시하도록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관찰사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된 양도 똑같이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찰사는 두 신부를 불러들여 요청 내용을 듣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에서인지, 아니면 무능력해서인지, 여전히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중 조조 신부는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여러 번 그의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반도들이 그를 세 번이나 총으로 겨누었으나 매번 신부는 가슴을 들이밀며 썩볼 테면 썩보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이런 침착한 태도 덕분에 반도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은 계속되었고 조조 신부도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7월 16일 신부가 유서 앞 구절에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혼란 속에서 몇 몇 야만인들의 타격에 쓰러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천주교도들의 학살을 막으려면 아마도 나의 피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내 피를 흘리리라.”⁹⁷⁾

9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Ⅵ·1893~1894』【96】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프랑스 공사관은 조조신부 피살의 책임을 청국은 물론 조선 정부에 묻기 위해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농민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후 농민군에 대한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의 부정적 인식은 대한제국기 의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⁹⁸⁾

그런 점에서 천주교 신부들의 안전 문제는 조조 신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모두네 신부와 빌모(Villemot) 신부의 상황이 불리하자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금강 하구까지 ‘앵콩스탕’호를 급파했다. 그러나 신부 일행을 만나지 못해 제물포로 귀향한 가운데 전라관찰사의 도움으로 금강 하구까지 호위를 받아 도착했다.⁹⁹⁾ 이어서 ‘앵콩스탕’호가 금강 하구 마량에 도착하여 이들 신부를 탑승시켜 서울로 귀환시켰다.¹⁰⁰⁾ 이즈음 동학농민군도 더 이상 선교사들은 물론 천주교 신자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뫼텔의 귀에 들려왔다.¹⁰¹⁾ 동학농민군으로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듣고 천주교 문제보다는 공격 지점을 대일 투쟁으로 옮긴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는 주재 공사관과 뫼텔 교주의 보고에 입각하여 조조 신부의 피살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청국 정부에 살해자 청군 처벌과 보상금을 요구했다.¹⁰²⁾ 또한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협조 문제를

98)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의 의병 인식에 관해서는 여진천, 2014, 「한말 천주교 성직자들의 의병관」,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참조.

9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0】 전라도에서 위기에 처한 두 선교사(1894.8.30.).

100)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2】 빌모와 모두네 두 선교사의 서울 귀환(1894.9.10.).

101)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8월 21일.

102)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91】 파리의 서울발 공문 수령 확인 및 조조 신부 피살사건 상세 보고 지시(1894.8.31.).

부각시키고자 하였다.¹⁰³⁾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농민군이 왕실 반대에서 왕실 수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군에 패한 청군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논지이다. 아울러 뫼텔의 상세한 조사에 입각하여 살해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청군 섭지초 장군의 조카를 지목하였다.¹⁰⁴⁾ 이에 패배한 청군을 구호한 프랑스 측의 은혜를 저버리고 조조 신부를 살해한 청군의 만행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살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그리하여 프랑스 공사관은 조조 신부가 1894년 7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경에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신부를 수행하던 하인 역시 동학도의 선동으로 청군에게 피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조 신부가 살해당하자 동학도가 나머지 신부를 추적하였고 천주교 신자들을 위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정부는 조선 정부에 신부 2명의 서울 귀환에 감사하다는 공문을 보냈다.¹⁰⁵⁾ 심지어 두 신부를 금강 하구까지 안전하게 호위한 전주 관리에게 포상금을 몰래 지급하였다. 대신에 청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요청하여 받아냈다.¹⁰⁶⁾ 이 배상금은 조조 신부의 유가족과 조선 주재 선교회가 배분받기를 위한 뫼텔의 요구 때문이었다. 뫼텔은 배상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이렇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프랑스와 프랑스 외교관들의 위신

1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6】 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10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6】 조조 신부 사망 관련 문서의 송부(1894.10.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8】 조조 신부 살해 사건 관련 보고서 발송(1894.10.25.);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5일.

10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06】 전라도 선교사들의 무사 귀환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감사 표시(1894.12.5.).

10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5】 조선 선교회가 피살된 조조 신부의 청국 배상금 배분을 요청(1895.2.8.(음)).

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청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 당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선교사들도 조선 내에서의 안전 문제에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¹⁰⁷⁾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의 오랜 소망이었던 法語學校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¹⁰⁸⁾ 그러한 조치는 프랑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선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했다. 또한 조선정부는 전라도에서 선교하던 보두네 신부의 자택이 동학도에 의해 파괴되었음에 천주교측에 보상금을 지불하였다.¹⁰⁹⁾

한편, 뫼텔은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된다는 소식을 접해 안심하면서도 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이 내통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면서 이후 추이를 지켜보았다.¹¹⁰⁾ 대원군이 반일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대원군과 농민군의 연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하야하였음도 일기에 적었다.¹¹¹⁾ 이어서 뫼텔은 1894년 12월 31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면서 불안을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천주교 입교를 기원하는 마음을 일기에 적었다.

저녁 식사 중에 서로에게 복된 새해를 기원. 하느님, 새해에는 바야흐로 저물어가는 해보다 더 평온하고 덜 소란스럽게 해 주시기를. 벌써부터 사건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보다 밝은 희망을 품게 된다. 모든 고을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현재 전라도에서는 맹렬하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10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5】 조선 선교회가 피살된 조조 신부의 청국 배상금 배분을 요청(1895.2.8.(음)).

10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18】 조선 정부가 서울에 프랑스어 학교 개교 예정(1895.7.20.).

10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20】 조선 정부가 자택 손상을 입은 보두네 신부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1895.8.22.).

110)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5일.

111)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1월 27일.

관보는 거의 매일 동학도들의 우두머리 몇 명을 생포했다든지 사형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방의 신부들도 외교인 주민들이 그들에게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동정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동학도들이 만연시킨 공포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에서 서양 사람을 보아도 마음을 놓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이 복음으로 향한 마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다 넓게 열어 주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Adveniat Regnum tuum!)¹¹²⁾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는 순간 뫼텔은 천주교 교세의 확산을 기원하면서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월 3일 “새 왕국(nouveauroyaume)의 왕” 金開南이 체포되었음을 적었다.¹¹³⁾ 이날 일기에는 김개남의 체포에 앞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귀환한 보두네와 빌모 두 신부의 전라도 파견을 반가운 소식이라고 적었다. 1월 7일에는 전봉준이 생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있는 소식을 일기에 적었다.¹¹⁴⁾ 그러면서도 뫼텔을 방문한 신부들이 신임 전라감사가 동학들에 대해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¹¹⁵⁾ 뫼텔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기에 적은 것으로 보아 동조했으리라 보인다. 그것은 2월 17일 일기에서 동학도들이 선교사의 충고와 지원을 받은 주민들과 관장들에 의해 격퇴된 사건을 두고 “우리 천주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썩 잘된 일이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¹¹⁶⁾

112)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2월 31일.

113)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월 3일. 김개남의 원래 본명은 永疇, 이명은 琪範인데 꿈에 신령이 나타나 손바닥에 ‘開南’ 두 자를 써주었다고 말하면서 개남으로 호를 삼았다고 한다. 개남은 남쪽으로 나라를 연다는 뜻이다(황현, 김충익 옮김, 2017,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302쪽). 김개남의 호에 대한 이런 소문은 뫼텔의 귀에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4)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월 7일.

115)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월 12일.

드디어 뫼텔 주교는 1895년 4월 24일 고종과 명성왕후의 측근 흥계훈을 만난 데¹¹⁷⁾ 이어 8월 28일 프랑스 공사관의 주선으로 고종을 만났다. 뫼텔의 유창한 조선어에 고종은 매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나아갔다.¹¹⁸⁾ 고종은 이 자리에서 “천주교는 내가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소”라고 하면서 천주교 보호 정책을 피력했다.¹¹⁹⁾ 이어서 뫼텔에게 프랑스 본국에서 전권공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프랑스 공사관의 예측대로 조선 당국이 천주교 선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약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프랑스 정부의 발언권을 제고시키고 선교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에서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선교 문제를 1858년에 체결된 청불조약(천진조약)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¹²⁰⁾ 심지어 조선 궁내부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측은 재산권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¹²¹⁾

3. 청일전쟁 관찰과 대응

프랑스 공사관과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청국과 일본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할지 주목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가 청국에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116)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2월 17일.

117)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4월 24일.

11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22】 국왕의 서을 주재 가톨릭 주교 뫼텔 최초 접견(1895.9.10.);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8월 28일.

119)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8월 28일.

120) 최병욱, 2020, 『중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119~123쪽.

121)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7 조선 VI·1895~1896』 【132】 조선 가톨릭 선교회 소유 재산 처리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동의와 후속 보고 지시(1896.12.30.).

두고 우려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드디어 일본군은 6월 9일(음력 5월 6일) 인천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들어왔다.¹²²⁾ 프랑스 공사관은 다음과 같이 본국에 보고하였다.

조선 정부는 우리에게 소요가 종료되었다고 통보. 1,000명의 일본군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 제 의견으로는 일본군의 존재는 필요 없음. 이곳은 모든 것이 평온함. 프랑스 전함의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제물포에 정박함.¹²³⁾

프랑스 정부 역시 조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주화약을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 전함이 제물포에 정박할 필요성을 덧붙였다. 물론 프랑스 역시 일본군이 제물포 조계지를 점령한 것에 항의하였다.¹²⁴⁾

뤼텔도 1894년 6월 13일 일본군의 서울 진입을 목격하였다.¹²⁵⁾ 이들 일본군은 오후 5시경 남대문, 구리개, 명동, 진고개를 거쳐 일본공사관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일본군의 서울 진입은 화교들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화교들이 귀국 준비에 나섰음을 전하고 있다.¹²⁶⁾ 이때 고종은 서구 열강들에게 양국의 철수를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¹²⁷⁾

122)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近代史料編纂室 編, 1974,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5(統署日記 3권), 1894년 5월 1일(음력), 5월 6일, 5월 7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日案, 문서번호 2835(1894.5.6)~2841(1894.5.7)번.

123)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2】 소요 종료와 일본군의 도착(1894.6.13.).

12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6】 일본군의 제물포 외국 조계지 점령에 대해 외국 대표들이 항의(1894.6.25.).

125) 『뤼텔주교일기』 I, 1894년 6월 13일.

12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4】 청국 군대와 일본 군대의 도착(1894.6.20.).

12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77】 국왕이 일본군과 청국군의 철수를 위해 열강 대표들에게 알선을 요청(1894.7.3.).

그러나 프랑스 서리 공사 르페브르는 조선 정부가 이런 절차를 밟아도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단지 프랑스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청국과 일본 정부에게 조선 정부의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 역시 수수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사관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조선 내정 개혁 요구라든가 조선 정부의 자주적 개혁 의지를 논평없이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¹²⁸⁾

그러면서도 프랑스 공사관은 일본군의 7월 23일 경복궁 점령을 본국에 상세하게 보고하였다.¹²⁹⁾ 이때 짧은 교전이 발생하였음을 덧붙였다. 물론 조선군이 먼저 일본군에게 사격했다는 일본측의 해명을 불신하였다. 프랑스 공사관이 파악한 정보와 상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프랑스 공사관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곧이어 발생한 청일전쟁의 신호탄으로 여겼다. 뫼텔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실을 전해 들었다.¹³⁰⁾ 이어서 이들 일본군이 수원을 향해 떠났으며 곧 아산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¹³¹⁾ 뫼텔 역시 청일전쟁을 예감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7월 31일 청군이 이미 일본군에게 항복했다는 소문도 들었다.¹³²⁾ 성환전투와 아산만 해전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월 1일자 전보를 통해 일본이 7월 31일 선전포고한 사실을 들었다.¹³³⁾ 이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조조 신부가 청군에게 살해당했다는

1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1】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 요구(1894.7.17.).

12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4】 일본군의 궁궐 점령(1894.7.28.).

130)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23일.

131)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26일.

132)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7월 31일.

133)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8월 6일.

소식을 들은 지 4일 뒤였다.

이어서 프랑스 공사관은 아산만 전투와 성환에서 벌어진 청일 양군의 전투를 본국에 보고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일본군 장교에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다.¹³⁴⁾ 일본군측의 대외 선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청국과 맺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비롯한 각종 협정이 파기되었음을 보고하였다¹³⁵⁾. 사실상 프랑스는 일본군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이어서 조선정부가 군국기무처의 주도 아래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했다.¹³⁶⁾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지방의 소요, 개혁에 대한 적대적인 민심, 특히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을 덧붙였다.

이후 프랑스 공사관은 청일전쟁 전황을 지속적으로 본국에 보고하였지만 어떤 논평도, 어떤 대응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평양전투를 비롯하여 각종 전황을 보고하고 보고받는 데 그쳤다. 결국 1894년 9월 25일 보고에서 청군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일본군에게 완패했음을 판정하는 문서를 본국에 송부했다.¹³⁷⁾ 프랑스 공사관의 주된 관심은 자국 신부의 안전과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뮌헨로 대표되는 선교사들이 청일전쟁의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뮌헨의 8월과 9월 일기는 청일전쟁 전황으로 도배되었다. 예컨대 9월 21일 일기에서는 평양전투 전황을 상세하게 적었다.

134)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6】 청국군과 일본군의 성환 교전(1894.8.7.).

135)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89】 조선 정부가 일본의 요구로 청국과의 모든 협정 파기(1894.8.25.).

136)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103】 조선 정부의 개혁(1894.11.20.).

137)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5】 일본군의 평양 점령(1894.9.25.).

최근에 일본인들이 발표한 전보 내용들. 9월 15일, 그들의 군대가 4면에서 일시에 平壤을 공격하여 평양을 장악하였으며, 청군 20,000명을 사살하였다고 한다. 제물포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의주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100,000명이 넘는 청군들이 있었다고 한다. 17일에 도착한 뒤 테르트르, 르 장드르 신부들은 일본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적어도 르 장드르 신부는 평양에 30,000명 정도의 청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¹³⁸⁾

일기의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 공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9월 25일보다 나흘이나 빠른 내용이다.¹³⁹⁾ 천주교가 각 지방 조직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였다. 심지어 프랑스 공사관을 통해 일본군이 식량조달 문제로 만주 봉천을 공격하기보다는 뤼순에 대한 해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전해들었다.¹⁴⁰⁾ 그리고 11월 26일 일기에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했으며 전사자는 200명인 데 반해 청국인들은 사상자가 2만 명이었음을 적고 있다.¹⁴¹⁾ 이어서 1895년 3월 22일 청국과 일본이 체결할 강화 조약 소식을 전한 뒤¹⁴²⁾ 4월 9일에는 3월 31일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일기에 적었다.¹⁴³⁾ 곧바로 조약 내용을 입수한 뒤 4월 19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조선의 독립을 인정
1. 일본에게 타이완(臺灣)을 양도
1. 봉천(奉天, Moukden) 지방의 남부 지역의 양도

138)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9월 21일.

139) 국사편찬위원회 편, 『프랑스외무부문서 6 조선VI·1893~1894』 【95】 일본군의 평양 점령(1894.9.25.).

140)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0월 16일.

141) 『뫼텔주교일기』 I, 1894년 11월 24일.

142)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3월 22일.

143)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9일.

1. 전쟁 배상금(金 三億兩)

1. 일본인들에게 보다 큰 편의와 이익이 돌아가도록 통상 조약을 개정
1. 3주 후 지푸(芝罘)에서 이 조약을 비준¹⁴⁴⁾

뫼텔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뒤 일기에 적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영국이 청의 타이완 할양에 어떻게 나올지, 러시아는 남만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대리인 흥계훈을 만나 시모노세키 조약을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것임을 알려주었다.¹⁴⁵⁾ 그는 전권공사가 여전히 부재한 프랑스 공사관을 대신하여 조선 정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동학을 반도, 폭도로 인식하였고 선교사 보호에 힘을 기울였던 뫼텔이 향후 조불 관계를 주도하면서 교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뫼텔의 정보력과 인적 관계에 밀린 프랑스 공사관은 뫼텔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은 프랑스 공사관이나 뫼텔에게는 선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맺음말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선정부의 천주교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1866년 병인사옥과 이후 가혹한 금압에 따른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이다. 조불수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정부의 용인이 따랐지만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은 유생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관료들의 탄압을 초

144)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19일.

145) 『뫼텔주교일기』 I, 1895년 4월 25일.

래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사관이 일찍부터 선교 문제에 개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천주교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정부의 동향과 정국 변동을 정시든 수시든 각각 본국 외무부와 파리 본부에 보고하였다. 조선정부 역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청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 전략이 매우 위험함을 감지하고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均勢外交戰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이러한 방침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종 스스로 프랑스 정부에 대리 공사나 전권공사를 서울에 파견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은 조선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고무되어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서서 조선인 천주교 신자까지 보호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공격적 선교와 프랑스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敎案들은 평소 천주교에 반감을 가졌던 동학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학과 마찬가지로 邪敎로 규정한 천주교의 선교를 용인하는 정부의 이중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다. 따라서 동학 교단과 신도들은 교조신원을 통해 관리들의 수탈을 면할뿐더러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학 公認과 종교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뮌헨도 천주교에 반대하는 동학의 동향을 주목하였다. 동학도의 조선 왕조 전복 시도는 천주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학을 “이상한 교리와 행동을 가진 異敎的인 교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공사관은 동학 자체보다는 鄭鑑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정감록에 조선왕조가 1892년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94년 2월(양력)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프랑스 공사관도 동학농민혁명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 선교사 안전 문제에 촉각을 세웠다. 조선정부의 외국인 철수 요청도 있거니와 공사관 역시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뫼텔에게 선교사 철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희망과 달리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조 신부가 청군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프랑스 공사관과 뫼텔은 조조 신부의 피살 원인과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청국 정부에 살해자 청군 처벌과 배상금을 요구했다. 또한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청군과 동학농민군의 연대 문제를 부각시켰다. 심지어 프랑스 공사관은 이를 빌미로 조선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프랑스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동학농민군의 행태와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 동학농민군이 1894년 이전과 달리 실제로는 반일 반봉건을 지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학을 비롯한 반정부운동을 鄭鑑錄에 의거한 폭도들의 반천주교 운동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선교 정책을 정당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편, 2019, 『독일어외교문서 한국편』.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엮음, 2004, 『프랑스외무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1995,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신부 서한집-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엮음, 2009,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5, 동학문서』.
뫼텔, 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2009, 『뫼텔주교일기』 I, 한국교회사연구소.
오지영, 1940, 『동학사』, 영창서관.
鄭喬, 변주승 외 옮김, 2004, 『大韓季年史』, 소명출판사.
최석우, 1983, 「COMPTE RENDU de la Societe des M.E.P. -파리외邦傳教會 年報(1878~1894)」, 『교회사연구』 4, 한국교회사연구소, 155~157쪽.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서울교구연보(I) 1878~1903』, 천주교명동교회.
황현, 김종익 옮김, 2017,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단행본>

- 김형중, 2024, 『19세기 후반 한중관계사론: 천조상국과 속국자주의 딜레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맹수, 2011,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꿈꾸다』, 모시는 사람들.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최병욱, 2020, 『중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 1979, 『東學思想資料集』, 아세아문화사.
현광호, 2011, 『서구 열강과 조선』, 채륜.
_____, 2019, 『프랑스가 본 한국근대사』, 선인.

<논문>

- 구선희, 2009, 「조선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중국인, 위안스카이」,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340~364쪽.
金洋植, 1989,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道研究』 6, 제주학회, 125~165쪽.

- 김태웅, 2002, 「정부의 프랑스 정책과 천주교-왕실과 뫼텔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177~196쪽.
- _____, 2011, 「조선 말, 대한제국기 뫼텔 주교의 정국 인식과 대정치권 활동」, 『교회사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95~123쪽.
- 박맹수, 2007, 「敎祖伸冤運動期 參禮集會에 대한 再檢討」,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3쪽.
- 朴贊植, 1995, 「韓末 天主敎會와 鄉村社會 -'敎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한민, 2018,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이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409~452쪽.
- 배향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15~251쪽.
- 신의식, 2002, 「曾國藩의 西敎 인식 -태평천국과 楊洲·天津敎案 처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181~201쪽.
- 양인성, 2014,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 여진천, 2014, 「한말 천주교 성직자들의 의병관」, 『한국 천주교사 연구의 성찰과 전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 윤세철, 1982, 「天津敎案과 청조 외교의 변용」,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83~211쪽.
- 이경원, 2013, 「삼례취회시기 전라도 동학교도의 봉기계획 구상과 신원운동의 변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이영호, 2016, 「선운사 석불비결사건과 정감록」, 『동학학보』 40, 한국동학학회, 277~312쪽.
- 이원순, 1969, 「미공개사료 Mutel 문서」, 『한국사연구』 3, 한국사연구회, 161~178쪽.
- 李元淳, 1973, 「朝鮮末期 社會의 「敎案」 研究」, 『歷史敎育』 15, 역사교육연구회, 71~139쪽.
- 이원순, 1992, 「한불조약과 종교자유의 문제」, 『조선시대사논집』, 느티나무.
- 張東河, 2000, 「韓末 敎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 장영민, 1998, 「동학사상과 민중신앙」, 『동학연구』 2, 한국동학학회, 101~128쪽.
- 奎旌海, 1999, 「광무년간의 산업화 정책과 프랑스 자본·인력의 활용」, 『국사관논총』 84, 국사편찬위원회.
- 조광, 1985, 「동학농민혁명 관계사료 拾遺-Mutel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총』 29, 고대사학회, 205~222쪽.
- _____, 1994,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동학농민전쟁」, 『백제문화』 23,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연구소, 15~20쪽.

____,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51~83쪽.

최석우, 1982,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한승훈, 2021, 「선운사 석불비결사건에 대한 종교사적 검토」,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73~102쪽.

〈Abstract〉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in Chosŏ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Kim, Tae Woong*

France is a country that should be noted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is because the Chosŏn government's suppression of Catholicism and the French government's active missionary work caused the 'Byeonginyangyo'(French Invasion of Korea in 1866). However, after Chosŏn and Franc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886, French diplomats sought to strengthen their influence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osŏn government's balanced forien policy. Above all, he wanted to support Catholic missions and protect believers.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never smooth. This is because Donghak, which grew on the basis of the contradictions of the Chosŏn Dynasty's system, the Western invasion, and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Catholicism, grew rapidly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emerged as the subject of the Peasant Revolution in 1894. Before and after the Peasant Revolution,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confirmed that Donghak was aiming for dissident system and anti-Catholicism, and they closely watched Donghak's activities. In addition, when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follow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y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tained a neutral attitude while making every effort to rescue missionaries and protect believers. Furthermore, Bishop Mutel, who is in charge of Chosŏn Catholicism, put pressure on the Chosŏn government using the death of a Catholic priest as an excuse.

On the other hand,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observed the behavio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Sino-Japanese War, confirming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unlike before 1894, was actually aimed at anti-Japanese and anti-feudalism. Nevertheless, they tried to justify their missionary policies and strengthen their influence by driving the Donghak and other anti-government movements to the mob's anti-Catholic movement based on the 'Chŏnggamnok'.

Key word : Chŏnggamnok, Mutel, Balanced Forien Policy, Gyoan(Roman Catholic Trouble), Anti-Japanese and Anti-Feudalism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한동훈**

〈목 차〉

머리말

I. 조선의 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조선정책 수립

II. 청일전쟁 이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동학 정보 수집과 인식

III. 러시아의 개입과 삼국간섭 주도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조선정책 변화상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9세기 후반 정치·사회적 모순과 개항 이후 가속된 외세의 경제적 침탈 속에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군은 ‘반봉건·반외세’의 가치를 내걸고 조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선 정부에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당대 대내외의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국과 일본의 군사 개입과 관련하여 주변 열강 세력은 새로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의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의 동향 역시 주목해야 한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청일전쟁의 기폭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삼국간섭과 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반봉건·반외세'의 대상인 서구 열강, 특히 삼국간섭을 주도했던 러시아의 동학농민운동 인식과 조선정책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1860년 조선과 국경 인접 이후 러시아는 새롭게 획득한 연해주 지역의 열악한 경제·군사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1884), 조리밀약,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이러한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드미트롭스키, 일본 주재 무관 보가크, 중국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 등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을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했다. 이들은 동학농민 봉기의 발생 원인이 조선 사회 내부의 모순에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동학농민 봉기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본국 정부에 피력했다.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조선의 정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 문제를 놓고 청·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러시아는 철병 문제를 주도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영향력과 발언력을 높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청국과 전쟁을 시작하자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조정자로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이 배상금, 요동 반도 할양 등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고 조선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자 러시아는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게 되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청·일의 대립에서 러·일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주제어 : 동학, 현상유지, 드미트롭스키, 보가크, 삼국간섭

머리말

19세기 후반 조선은 정치·사회적 모순과 개항 이후 가속된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대내외 위기에 직면했다.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통상이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미곡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개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세목의 신설, 세액 증대는 민중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또한 부정부패, 매관매직, 그리고 외국과의 통상을 이용한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1월 고부 봉기를 시작으로 4월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에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등 당시 대내외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고종은 청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 역시 천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농민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청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주변 열강 세력은 새로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동학농민운동의 정치·사상·사회경제적 배경, 농민항쟁의 성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¹⁾ 이들 선행연구를 통

1)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안병욱, 1988, 「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 『한국근현대연구입문』, 역사비평사; 鄭昌烈, 1991,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991~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 역사비평사; 김명섭, 1994,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단국대학교

하여 근대이행기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인식과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의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서구 열강의 동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청일전쟁의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 내 일본의 영향력 확대, 삼국간섭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이라는 동아시아 판도를 바꾼 결말을 불러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이 러시아의 대조선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동학농민운동이 봉기했던 시기 조선과 러시아에 관한 연구는 동학농민운동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거중조정 요청, 러시아의 중재외교 등 청일전쟁을 둘러싼 정치·외교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시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의 성격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운동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청·일 삼국에 파견되었던 러시아 외교관들이 동학농민운동을 단순한 민란이나 폭동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파악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반봉건·반외세’의 대상인 서구 열

석사학위논문: 조경달, 박명수 옮김, 2008,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신영우, 2009,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등.
2) 대표적인 조러관계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韓國史研究協議會 編, 1984, 『韓露關係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최문형, 200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_____, 2004,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_____,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역, 201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한길사;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강, 특히 삼국간섭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주도했던 러시아는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또한 자국의 대조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했다.

주지하듯이 개항 이후 조선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는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랐다. 동아시아 조약체제를 통한 상업적 이익 수호를 목표로 한 영국·독일, 조선과 국경을 접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러시아는 조선의 정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연해주 지역의 군사·경제적 조건의 취약성 때문에 월경민, 육로무역 등 국경 지역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다. 그러나 병인·신미양요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 아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평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항 이후 조선이 적극적으로 서구 열강과 조약체결을 모색하던 시기에 청국의 공리인식 확대와 정치·외교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정치적 기대감의 교집합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열강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조러밀약과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조선에서 우월한 영향력 확대가 힘들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선 내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조선의 영토불가침을 보장받는 현상유지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동학농민운동이 초래할 조선의 정세 변화에 대한 견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들이 예견한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에서 비롯된 청·일 양군의 파병과 철군문제, 청일전쟁 발발 등은 러시아가 종래 현상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의 국내외 정세변동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동학 인식과 동아시아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조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장은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인한 조선의 국내외 정세 변화와 이에 대한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청일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정책 전환과 삼국간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 조선의 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조선정책 수립

1860년 북경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연해주를 확보한 러시아에게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식량 사정 개선과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등 연해주 지역의 안정화였다. 특히 새롭게 획득한 연해주 지역을 완전한 자국의 영토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국 군대 배치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구성원 확보를 통한 지역 자체의 러시아화가 필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바로 접경 이후 대량으로 발생했던 조선 월경민이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조·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일대가 개발되고 강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함경도 북부 지역과 연해주 일대 변경민들 사이에는 물자 교류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러 접경 이후부터 이러한 관계는 단순 물자 교류가 아닌 집단으로 이주 정착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접경 이후 월경민의 급증한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경작지 부족 현상, 계속된 재해와 흉년 등 조선의 내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때문이었다. 당초 러시아는 1861년 4월 27일 「동시베리아 아무르주 및 연해주의 러시아인 및

외국인 정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본토 농민을 비롯한 카자크인들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다.³⁾ 그러나 열악한 교통망과 먼 거리로 인한 이주민의 도중 이탈·정착, 사고로 인한 높은 사망률 등의 이유로 이주 정책은 실패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의 월경·이주는 연해주의 안정화를 꾀했던 러시아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로 월경·이주한 조선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상술한 규정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⁵⁾ 계속된 가뭄과 빈궁한 생활을 하던 함경도 북부지역의 조선인들은 러시아의 지원정책을 알게 된 이후부터 대규모로 월경이주하였다.

연해주 지역의 불안정한 입지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목표는 조선, 청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조선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월경이주가 청국의 영토를 경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북방 변경 지역의 안보와 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청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공식 외교관계 수립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

3) 해당 규정은 가구당 최대 100데샤티나(1데샤티나=1.092헥타르) 규모의 주인 없는 국유지에 대한 일시적 소유 및 완전 소유 선택 권리, 20년 간 토지사용세, 10년 간 징집 면제, 인두세 영구 감면 등의 특혜를 주었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56~57쪽).

4)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史叢』 87, 297~298쪽.

5) 러시아 정부는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식량 생산 및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조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가구 당 15데샤티나, 약 50,000평(약 250마지기)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다(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исправляющего должность инспектора линейных батальоно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ковника Ольденбурга[연해주에 배치된 동시베리아 국경경비대대 검열관의 보고서], 1864.9.25,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 러시아 국립 역사 문서보관소, 이하 'РГИА ДВ'), Ф.87, оп.1, д.278, л.9~10об).

은 지방관 차원에서 접촉만 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만 반복하였다.⁶⁾

조선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계기는 1882년 조미조약 체결이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독일까지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시도하자 국경 지역의 현안 해결이 급선무였던 러시아 역시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임오군란의 여파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영국·독일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조약개정 협정을 통한 특권들을 균점하려고 하였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조약체결에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영국과 독일의 조약개정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정책을 고수하였다.⁷⁾ 다만 당시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능동적인 조선과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전제했다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공고하지 않은 당시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에 기인한 기회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즉, 연해주 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제반 조건들이 안정화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관망정책’이었다.

한편,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조선 내 공리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우호적인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⁸⁾ 양국의 조약체결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게다가 조선의 외교·

6)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66~94쪽.

7) 당시 외무상 기르스는 조선의 국제적 지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르스는 조선에 대해 ‘관망정책(wait and see)’을 고수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외무장관 기르스가 차르에게 상주한 상주문, 1883.10.11,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이하 ‘АВПРИ’), ф.Китайский Стол, д.1, л.104~106).

8) ‘조선책략’의 유입으로 조선 내 공리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조선책략’ 유입 이후 러시아를 경계해야 한다는 청국의 주장에 대하여 고종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종은 직접 사람을 직접 연해주로 파견하여 러시아의 정황을 탐문하는가 하면, 1882년 8월 수신사 파견 시 박영효, 김옥균 등을 일행으로 함께 보내 일본주재 러시아공사와 직접 접촉하여 조려 조약 체결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141~148쪽).

통상 업무, 해관 설치 및 근대화 사업을 위해 조선에 부임한 뮐렌도르프의 적극적인 친러정책은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외교 관계가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뮐렌도르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청, 일본의 조선중립화를 구상할 만큼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우호적 인식과 뮐렌도르프의 친러정책은 갑신정변 이후 추진된 조러밀약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갑신정변 사후처리를 놓고 청·일 양국의 개전위기가 고조되자 고종은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고자 했다.

고종의 보호 요청을 받은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사태를 무관심하게 관망만 할 수는 없었다.⁹⁾ 러시아 외무장 기르스는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주재 러시아공사관 서기 슈페이에르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에 도착한 슈페이에르는 고종, 뮐렌도르프와 면담하여 갑신정변에 대한 정보와 조선 정부의 보호국 요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였다.¹⁰⁾

슈페이에르의 보고에도 러시아 정부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면 청과 일본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군사·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조선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조선의 보호국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희망’, 즉 희망 고문을 심어주는 것이었다.¹¹⁾

9) [외무장관 기르스가 해군장관 웨스타코프에게 보낸 보고], 1884.12.5,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이하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99~102об.

10)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민경현 옮김, 앞의 책, 291~292쪽.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영·러 간의 대립 결과로 발생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러시아의 조선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를 외교대표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베르는 하코다테 주재 부영사 겸 서기관(1871~1873), 요코하마 주재 부영사, 텐진 주재 영사(1876~884) 등을 역임한 동아시아 전문가였다. 특히 텐진은 사실상 청의 실세이자 조선 정책을 관할하는 이홍장의 거처가 있던 곳으로 조선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베베르는 이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입지에 관한 식견을 넓히는 한편, 러시아의 조선 정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베베르를 직접 조선에 주재시키면서부터 조선의 현지 사정을 직접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나 국왕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침 1886년 러·청 양국 간에 조선의 현상상태 보장과 조선 영토 불가침을 합의한 ‘리-라디젠스키 구두협정’이 체결되자 거문도 점령 사건을 둘러싼 영·러 간의 경색 국면도 해소되었다. 베베르는 조선에 부임한 이후부터 육로통상장정 체결, 조선 내 러시아의 이익 보호 등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1880년대 후반부터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선 문제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조선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1888년 5월 8일에 개최된 특별회의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노선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²⁾ 특별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상 기르스, 외무성 아시아국장 지

11) [차르 알렉산드르 3세가 재가한 5등관 베베르에게 하달된 비밀훈령 사본], 1885. 4.25,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л.214, л.27~52об.

12) 1888년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Первые шаги рус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на

노비예프, 프리아무르 총독 코르프 등은 ①러시아의 조선 병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 확인 ②일본의 조선정책 지지 ③조선에 대한 청의 종속관계 강화 시도 차단을 논의하였다. 요컨대 특별위원회는 조선 문제에 대하여 ‘리-라디젠스키 구두협정’을 준수하여 조선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만약 청이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점령한다면,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분명 기존 ‘관망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건, 즉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888년 8월 7일자 특별훈령으로 다음과 같이 베베르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로서는 조선을 획득하거나 조선을 우리의 단독 보호 하에 두기를 바랄 이유가 전혀 없다. 태평양 연안의 우리 군의 현재 위상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고 광대한 해안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청국과의 현재 관계를 침해하면서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반드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중략)…… 조선을 둘러싸고 청국과 충돌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한국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베이징에 부리를 두고 악의를 품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근거 없는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 방침은 1886년 북경 대리공사 라디젠스키와 이홍장 사이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확고히 고수하겠다는 확신을 청 정부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와 청국이 한반도 불가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³⁾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Красный архив Т.3(52)[이하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1936, с.54~61에 수록.

13) Копия с весьма секретной депеш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и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в Сеуле[외무장관이 서울총

러시아 정부는 베베르에게 淸 정부와의 관계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 권고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불쾌한 돌발 사건으로부터 조선이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확신을 조선 정부에 심어주는 한편, “이러한 사건을 제거하기 위해 북경에서 항상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즉,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은 대청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사회적 이익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뒤따르는 모든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는 점을 베베르에게 훈령으로 강조하였다.

베베르는 러시아 정부의 훈령대로 조선 내 정치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조선 속방화 정책을 강화하려던 청을 견제하였다. 그는 청국의 강요에 다른 열강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조선이 청국에 흡수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평형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도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안일한 보고서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러시아 외무성 내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러시아의 조선정책은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경제적·군사적 상황과 청국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러 조약 체결 이후 조러밀약과 거문도 점령 사건을 경험한 러시아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선 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타국의 영향력 침투를 견제하고자 했다. 즉, 러시아는 조선의 자주성과 기타 열강의 조

영사에게 보낸 비밀문서 사본, 1888. 7. 26,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1888-1891гг, д.2, л.93~97об; Шифрованная инструкция статс-секретаря Гирса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Веберу от 25 июня 1888г. №.96, [외무장관 기르스가 서울대리공사 베베르에게 보낸 암호 훈령], 1888. 7.7, АВПРИ, ф.Миссия в Сеуле, оп.768, 1884-1908гг, д.6, л.44~47об.

선 불가침을 항상 보장받고 유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삼국에 파견되었던 러시아 외교관들은 이에 대한 소식과 정보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II. 청일전쟁 이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동학 정보 수집과 인식

1888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의 조선 정책은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를 비롯한 청·일 간의 대립과 같은 극동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발생한 청·일 간의 군사 충돌은 러시아의 조선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건이었던 만큼 동아시아 국가에 파견된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일찍부터 조선의 농민 봉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베베르는 조선에 부임할 때부터 조선의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베베르는 아시아국장 지노비에프에게 보낸 1890년 1월 5일자 보고¹⁴⁾를 통해 ‘고종의 생명을 상대로 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학에 대한 내용도 보고하였다. 베베르는 소문의 발생 원인이 수원에서 발생한 소요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일부 왕족들에게 격분한 백성들이 그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심지어 ‘동학’이라고 불리는 비밀 종파를 전파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베베르는 동학이라는 종파를 “러시

14) Донесение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Корее К. И. Вебера директору Азиат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И. А. Зиновьеву. Сеул, 24 декабря 1889 г. №.84, 1889.1.5,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д.2, л.280~285.

아의 강신술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표식과 상형문자를 연구하고 반복하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멀리 떨어진 모든 장소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최면의 꿈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이나 사고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했다.

동학에 대한 베베르의 미흡한 인식은 그가 동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문제로 자신을 방문한 민영식에게 문의하자 조선 정부조차도 동학과 그것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베베르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소요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사회적 폭발의 주된 원인이 권력을 가진 양반들의 부정부패였음을 지적했다.

베베르의 지적대로 1890년대 전후 조선의 국내 정세는 농민 봉기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1891년 8월 휴가를 받은 베베르를 대신하여 러시아 공사로 부임한 드미트렙스키(Павел Андреевич Дмитриевский)¹⁵⁾ 역시 조선의 국내 정세를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조선 내 청·일의 대립뿐만 아니라 조선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 즉 내분 발생 시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조선 부임 이후 드미트렙스키는 다른 열강의 공사들과 조선 관료들을 만나 조선의 정치적 사건, 열강의 조선 인식과 외교정책, 각종 소문 등을 수집했다.¹⁶⁾ 드미트렙스키가 공사로 재직하던 1891~1893년 시기는 조선 속방화정책의 강화를 통한 청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차관·재정·무역 등 비군사적 방법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15) 『구한국외교문서』 제17권 아안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86~187쪽.

16) 드미트렙스키는 부임 기간 동안 입수한 소문, 정보 등을 일기로 남겼다. 드미트렙스키 일기는 박재만, 2013,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선인, 148~28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골화되던 시기였다.

드미트렙스키는 ‘인접국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혁명들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며, 인접국들에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선의 국경 안정, 정치적 상호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 무역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드미트렙스키는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조선 내 청국과 일본의 미묘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드미트렙스키는 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도 주목하였다. 당시에는 밀과 쌀의 수출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백성들의 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동학농민운동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당시 조선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1892년 1월 9일 자 드미트렙스키 일기에는 시내와 대로에서 대놓고 강도짓을 하는 군인들을 조선 정부가 처벌하지 못한 사건이 등장한다.¹⁷⁾ 당시 조선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우려 때문이었다. 만약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 대상은 서양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시 군인들이 모든 물건의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에 들어온 외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드미트렙스키가 “아주 위험한 시기다”라고 일기에 쓸 만큼 당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892년부터 드미트렙스키 일기에는 동학 세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동학이나 농민 폭동 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지만, 단편적인 내용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1892년 7월 25일 조선 주재 프랑스 영사였던 이 폴리트 프랑텐이 선교사들로부터 외국인 전체, 특히 청국인과 일본인을 규탄하는 궤서(掛書)를 받았는데, 외국인들을 ‘바다의 도둑’으로 불렀다고 한다.¹⁸⁾ 1893년 4월 1일에는 미국 공사 허드의 집 대문과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 대문에 격문이 붙기도 했다.¹⁹⁾

17)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181~182쪽.

18)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199쪽.

또한 1893년 4월 4일 동학당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서울의 유생들은 고종에게 동학 대표들의 사형을 요구하였으며, 4월 6일에는 동학교도들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닭고기와 개고기로 동학교도를 고문하는데 참석하라는 호남 지방 선비들의 호남장보(湖南章甫)라는 격문을 소개하기도 했다.²⁰⁾ 그 외에도 유생들의 동학도 조사 및 처벌 상소문 제출, 선무사 파견, 평안도 지역 함중민란²¹⁾ 상황 등 파편적인 내용들도 언급되었다.²²⁾ 특히 드미트렙스키 일기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 체류하였던 외국인들이 동학농민 봉기 및 민란과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미트렙스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여 1893년 4월 6일 러시아 외무성의 시시킨 외무상 대리에게 발송하였다.²³⁾ 그는 서울로 상경한 동학 대표들의 목적이 최제우의 신원 회복이었으며, 이에 대한 고종의 반응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고종은 동학 농민 봉기의 원인을 백성들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감독 소홀로 보았으며, 이 교에 경도된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 유교 원리를 보급시키기 위한 학문지침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미트렙스키는 앞서 서양인들에게 배포되었던 선교사들을 비난하는 격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이 격문이 동학교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²⁴⁾ 오히려 선교사를 반대하는 전통적 유교

19)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2쪽.

20)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3쪽.

21) 학술회의 발표 당시 해당 민란을 ‘동학교도 봉기’로 서술했으나, 토론을 통해 이를 ‘함중민란’으로 바로 잡아준 조재곤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22)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4~218쪽.

23)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75~178쪽.

24) 격문의 작성자가 동학도가 아니라고 해서 드미트렙스키가 동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같은 보고서에서 ‘동학은 스스로 종파임을 표명하며, 매우 조잡하지만 자신들의 신앙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교도들은 닭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않고, 병과 불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적을 태워 그

지상주의자들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드미트렙스키는 당시 동학 농민 봉기 문제가 유교와 기독교 간의 대립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한편, 드미트렙스키 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학 농민 봉기와 관련하여 원세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다. 4월 22일 자 일기 내용을 보면, 당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원세개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할 것이며, 소문이 무성하더라도 아무런 위협은 없다’고 확인했다.²⁵⁾ 5월 15일 원세개와의 만남에서도 원세개는 500명의 군인을 충청도로 파견하였으며, 동학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일이 없다고 장담하였다.²⁶⁾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의 고관들조차 폭동의 공포 때문에 가족을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²⁷⁾

5월 18일 드미트렙스키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접했던 조선의 정세를 시시킨에게 보고하였다.²⁸⁾ 그는 동학에 대한 서울 내의 소문과 백성들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5월 5일 원세개와 나눈 대화에서 드미트렙스키는 동학과 관련하여 현재 권력을 장악한 당파에 반대하는 서울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동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⁹⁾ 실제로 원세개가 동학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미국 공사 허드의 귀뜸도 있다.³⁰⁾

5월 15일 드미트렙스키를 다시 만난 원세개는 동학도들의 활동이 실제로 서울 내 유력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내 정간섭의 구실을 찾고 있는 일본의 계획에 동조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재를 물과 함께 마십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77쪽).

25)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7쪽.

26)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7쪽.

27)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3쪽.

28)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4~189쪽.

29)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6쪽.

30)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6쪽.

소행이며, 일본은 그를 조선에서 외국인을 추방하고 권력을 주겠다고 희망으로 유혹했다'고 하였다. 원세개의 대답을 들은 드미트렙스키는 동학과 결탁한 인물을 대원군으로 짐작하였다.³¹⁾

이처럼 드미트렙스키는 높은 물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동학 농민 봉기 상황 등 당시 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는 그가 청일전쟁 이전 청·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이 아닌 일본과 청국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 농민 운동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전술했듯이 1890년대 초반부터 농민 봉기를 비롯한 조선 내 정치적 변란 상황에 대한 소식을 러시아 정부는 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3년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인물은 일본주재 무관 콘스탄틴 보가크 중령이었다. 보가크는 극동의 군사 정세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가 정보 수집을 위해 파견했던 무관으로 청국의 천진(1892)을 거쳐 일본(1893)에 부임한 인물이다. 보가크는 1895년 이전까지 극동에 부임한 유일한 주재 무관이었던 만큼 그의 보고 내용과 정보는 군사 부분과 관련된 러시아의 극동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정부가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의 움직임, 즉 동학 농민에 관한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한 것은 1893년 5월 28일 보가크의 보고를 통해서였다.³²⁾ 약 10여 쪽에 이르는 그의 보고서는 1893년 당시 동학 농민들의 동향,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탈,

31)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7~188쪽.

32)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LX(아시아의 지리적 지형과 통계자료 수집, 제60편, 이하 'СИТСМА'), С.-ПЕТЕРБУРГ, 1895, С.1~10.

방곡령사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조·일 간의 갈등 등 조선 정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동학 농민들의 동향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 받은 첫 소식에 따르면, 이 운동은 주로 선교사들, 특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한국 문제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제의 소요는 이미 올해 초 서울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동학당이라는 결사를 선두로 여러 비밀결사의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불과 40~5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이미 회원 수가 최대 200,000명에 달하는 이 단체는 대부분 열렬한 광신자이며, 종교적, 정치적 목표를 모두 추구합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불교, 유교, 다신교가 혼합된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을 모든 외국인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은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언문과 인쇄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들은 벽에 붙여져 사람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문헌의 내용은 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위협과 이들을 즉각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비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외무역 착취자로 알려진 일본인도 추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선전은 현 왕조에 있어서 위협적입니다. 사실 조선의 매우 일반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 왕조의 통치 기간(500년)이 올해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왕조를 새로운 왕조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포고문이 발표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불안은 조선의 평화 유지에 관심이 있는 청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주재 외국대표들의 요청으로 영국, 미국, 일본, 청국의 군함들이 제물포로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비밀결사들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집회(을 3월)[보은집회: 필자]에서는 조선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 동학당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존중(?)[물음표는 원문 그대로 인용]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
- 2) 과도한 착취로 백성을 핍박한 관료를 처벌할 것
- 3)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기 전까지 집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지방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회의 요구에 공감한 지방 당국은 첫 번째 사항은 즉각 이행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중앙 정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동학당은 자체적으로 24명(다른 출처에 따르면 30명)을 선발하였으며, 3월 31일 제출했던 요구사항의 지지를 위해 그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이들의 대표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10,000명이 넘는 교도가 수도로 향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왕정을 전복시키고 외국인들을 무력으로 추방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동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들이 체포되고 외국 군함이 제물포에 도착하면서 대부분의 반군은 수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개월 이내에 외국인이 조선에서 추방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불안과 죽음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상대적 평온은 회복되었지만, 매일 다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밀결사들은 꽤 강력하지만 정부는 극도로 약하며, 그 일부는 비밀리에 혁명가들이 시작한 운동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밀줄 : 필자).

보가크는 1893년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 정부에까지 전달된 동학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사건의 추이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물론 일부 부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반대로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할

당시 조선 내에 유포되던 다양한 소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왕조의 통치 기간과 결부하여 왕조 교체의 주기성을 언급한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를 통해 동학 농민 봉기를 왕조 교체의 전조를 위한 당위적 행동으로 여기는 당대 분위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학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동학농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한 유일한 일이 원세개를 통해 청국에 군대 파병 요청을 호소하는 것뿐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내부 불안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이를 진압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³³⁾

특히 그는 조선 정부가 너무 사소하면서도 사적인 이익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이 본질적으로 약간의 복잡함을 안고 조선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종류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⁴⁾ 즉,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망했던 것이다.

보가크의 이러한 전망은 곧 현실이 되었다. 1894년 2월 21일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는 고부 봉기 발생 이후 베베르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여름, 아무리 늦어도 가을이 지나기 전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할 것이며, 음모의 공모자들이 일본과 청국에서 무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배후는 대원군이다’라고 알렸다.³⁵⁾

33)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а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ГТСМА, с.6~7.

34)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а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ГТСМА, с.10.

35) Отношение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на имя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Корее К.И. Вебера[조선주재 대리공사 베베르에 대한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

히트로보가 알려진 정보대로 1894년 1월 고부 봉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농민군은 5월 31일 전주성까지 함락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농민 봉기와 관련하여 조선의 불안정한 정세 소식을 입수한 중국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는 ‘모든 징후로 보아 조선 백성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음’을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동학 농민 봉기가 조선의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실로 이어질 것’을 청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홍장은 “조선에서 일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일본 정부가 ‘사건의 방관자’로 과연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³⁶⁾

이어서 카시니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정부가 조선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는 무관심했던 조선 전체가 언젠가는 공공연한 무질서로 빠져들어 불가피하게 청그리고 어떠한 일본의 간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동의 외교대표와 아무르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이웃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고, 사건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밑줄 : 필자).³⁷⁾

의 입장], 21(9) февраля 1894., № 50. Из эпохи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Красный архив//Красный архив Т.1-2 (50-51)[이하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1932. с.4~5.

36) Восстание в Корее и реакция на восст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Японии и западных держав[조선의 봉기와 이에 대한 중국, 일본, 서구 열강의 반응], 1894. 2.26,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5~6.

37) 위의 자료.

이처럼 카시니는 동학 농민 봉기 자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동학 농민 봉기가 청국과 일본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카시니의 이러한 견해는 동학 농민 봉기가 불러올 결말, 다시 말해서 조선의 현상유지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동학 농민 봉기에 대한 동아시아 주재 외교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작 러시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894년 당시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인 베베르의 보고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정확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베베르가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893년 11월 초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복귀한 베베르는 곧바로 카시니의 휴가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북경 주재 임시 대리공사직을 수행하다가 1894년 2월 3일 다시 서울로 복귀하였다. 즉, 동학 농민 봉기가 본격화되던 시기를 전후로 베베르는 조선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보고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서울 복귀 이후 베베르는 적극적으로 조선 내부 정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약 3개월 간의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베베르는 1894년 5월 15일 동학 농민 봉기의 원인과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조치 등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을 외무상 기르스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베베르는 고종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만약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 봉기를 진압하더라도 근본적인 불만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폭동은 더욱 크게 재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⁸⁾

결국 조선의 상황은 베베르, 카시니, 히트로보 등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더욱 심각해졌다. 1894년 5월 31일 동학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자 베베르는 6월 1일 청의 개입 가능성을

38) 벨라 보리소브나 박 지음, 최덕규·김종현 옮김, 2020,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151~152쪽;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69~270쪽.

언급하면서 군함 파견을 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조정자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Ⅲ. 러시아의 개입과 삼국간섭 주도

동학 농민 봉기 이후 조선의 국내외 정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원세개는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측의 출병 규모가 보병 1개 중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일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홍장에게 출병을 의뢰했다. 이홍장은 섭사성, 섭지초 등 약 2,800명의 북양 육군을 파병하여 아산에 주둔시켰으며, 거류민 보호 및 육군 수송선 호위를 위해 순양함 제원과 양위 2척을 정여창 제독과 함께 인천으로 파견하였다.

청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 역시 천진조약의 공동 출병 조항을 이용하여 혼성 제9여단 약 8,000명 규모의 군대 파병을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일본의 대규모 파병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오토리(大鳥圭介) 공사에게 철병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인 보호를 핑계로 오토리는 대답을 회피했다. 오토리는 서울 도착 이후 원세개와 협의하여 양국이 공동철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였다.³⁹⁾

그러나 조선 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전주화약을 체결하자 오토리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병을 거부했다. 일본군이 공동철병을 거부하자 이홍장은 6월 22일 북경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홍장은 영국의 중재 자청에도 불구하고 ‘리-라디첸스키’ 협약에 따라 러시아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청일 간 문제에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로 개입하

39)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1~272쪽.

면 극동지역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카시니는 이를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⁴⁰⁾

카시니의 보고를 접한 러시아 외무상 기르스는 알렉산드르 3세에게 러시아가 청일 양국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상신했다.⁴¹⁾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에 영국의 개입을 상당히 의식하였던 기르스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영국의 개입 방지라는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가 청일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과 러시아 간에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부터 동학 농민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전주화약 체결로 동학 농민군이 해산하고 폐정개혁에 착수하는 등 조선의 지방 치안과 행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학 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일 양군의 충돌과 열강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조선의 현상유지를 지키기 위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 역시 공동철병을 위한 서구 열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6월 24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은 영·러·프·독 등 서울 주재 5개국 공사들에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종식되었으며,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일 양국이 합의하여 공동철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각국 정부에 보고해

40) 이홍장은 카시니에게 영국의 중재 자청에도 불구하고 '리-라디첸스키' 구두협약에 따라 러시아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영국의 제안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министру ин. дел[북경러시아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전보]. 22(10)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6~17.

41)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 дел[외무성에서 차르에게 올린 상주문], 22(10)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5~16.

줄 것을 요청했다.⁴²⁾

조선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러시아 정부⁴³⁾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공동철병할 것을 압박했다. 6월 28일 기르스는 일본 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에게 ‘일본 정부에게 만약 청과 공동으로 조선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별도의 훈령을 보냈고⁴⁴⁾ 히트로보는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영국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시도는 실패하였다.⁴⁵⁾

결국 일본군은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어서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 양국의 함대전을 시작으로 1894년 8월 1일 일본이 청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⁴⁶⁾

러시아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사태로 판단하여 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러시아 외무성은 베베르와 히트로보에게 ‘러시아는 군사행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점령 이후 조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상은 단지 일시적이며, 따라서 조선이 열강과 체결한 조약에 배치될 경우 조선이 일본인들에게 부여한 모든 양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조선과 일본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경주재 러시아공사에게는 淸 정부와 러시아

42)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3~274쪽.

43) Телеграмма секретаря миссии в Сеуле[서울공사관의 전보], 25(13)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9.

44)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 дел[외무성에서 차르에게 올린 상주문], 28(16)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9.

45)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영국 역시 7월에 미·프·독·러 등 열강의 공동개입을 제의했지만, 미국의 불개입 입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영·러 간의 이해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영국의 시도는 좌절되었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4~275쪽).

46)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풍도 해전 등 청일전쟁 전개 과정은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참고.

는 조선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진정시키는 것, 러시아 고유의 이익 보호를 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⁷⁾ 즉, 러시아가 당장 전쟁에 개입하지 않지만, 조선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조건을 조선에 강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 초기 러시아 정부는 현재 전황에서 누가 유리하며, 누가 승전국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평양 진출과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이해관계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⁴⁸⁾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894년 8월 21일에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외무상 기르스, 육군장관 시종무관장 반놉스키, 해군장관 시종무관장 치하체프, 재무상 비테, 외무차관 시시킨 등은 ‘교전국 중 한 나라가 승리하여 조선의 영토적 불가침성을 위반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그 결과 ① 청일 양국의 적대행위 중단 설득을 위한 열강과의 외교적 협력 유지 ②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청일 양국 설득 ③ 조선의 현상유지 강조 ④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조선 국경 인근 지역 군대 강화 필요성 합의 등 결론을 내렸다.⁴⁹⁾

러시아의 현상유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선의 국내 정세는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1월 27일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의

47) 박 보리스, 앞의 책, 394~395쪽.

48) 1894년 8월 7일 기르스는 ①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조선 북부지역에서 군사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가시케비치만(웅기만)과 라자레프항(원산)이 위치한 함경도 내 군사행동 금지 ③러시아의 영토와 인접한 곳에서 해군 거점을 점령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淸과 일본 모두로부터 확보할 것 등 러시아의 정책 수정에 대한 상주문을 알렉산드르 3세에게 올렸다(박 보리스, 위의 책, 395쪽;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31쪽).

49)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66~67,

적극적인 조선의 내정개혁 상황과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본군·조선군의 출동 사실을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했다.⁵⁰⁾ 베베르는 동학농민군이 산속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전투를 했으며, 이런 쫓고 쫓기는 전투를 몇 차례 치른 뒤 산속으로 숨어버렸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산지 국가라는 조선의 지리적 특성에 유리한 전술을 동학농민군이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베르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내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진압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대외적으로도 청일전쟁의 승패가 일본 측에 기울어졌던 1895년 1월에 이르자 러시아 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모색해야 했다. 2월1일 개최된 2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일본의 요구가 러시아의 극동 이익을 침해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책이었다. 일본의 조선 점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조선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서구 열강과 함께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그 결과 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불개입 입장을 유지하되 일본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조선의 내정개혁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청일전쟁 이후 청국과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은 극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위협적이었다.⁵²⁾

50)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204~207쪽.

51)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73~74.

52) 일본은 淸에게 강화교섭의 조건으로 ①조선은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의 나라임을 확인 ②요동반도를 포함한 남만주, 대만 및 澎湖 제도의 할양 ③3억 냥의 배상금 지불 ④청·일 신조약 체결 ⑤3개월 후 철병 ⑥배상금 지불 종료 시까지 奉天府와 威海衛의 점령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요구 가운데 요동반도 할양 조건은 시

1895년 4월 11일 러시아 정부는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을 비롯하여 육군상 반놉스키, 총참모본부장 오브루체프, 해군상 치하체프, 재무상 비테, 임시 외무상 시시킨이 참석한 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를 모색했던 반면, 일본의 남만주 점령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던 반놉스키는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무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³⁾

재무상 비테는 일본의 청일전쟁 발발 이유를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일본의 남만주 지역 점령을 계기로 향후 조선 전체의 일본 병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대러 적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⁵⁴⁾

결국 3차 특별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여 요동반도 반환 등 러시아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청 제국 북부는 현상유지하며,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일본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극동의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만주 남부의 점령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 일본이 단호하게 우리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일본 정부에 선언한다.
2. 공식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점령의 의도는 없으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만주 남부 점령 포기를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통보한다.⁵⁵⁾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 지역 진출과 한반도의 병합을 저지하기 위해

베리아 철도를 부설 중이던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53)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0~81,

54)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1,

55)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4.

프랑스·독일을 설득하여 삼국간섭을 주도했다. 1895년 4월 23일 러시아·프랑스·독일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5월 4일 삼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요동반도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삼국 대표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5월 5일 즈푸(之罘)에서 비준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국을 대신하여 조선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순과 요동반도를 포기한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약소국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내정과 군사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저지했지만, 일본의 조선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철도의 완공까지 러시아는 만주 지역의 안정과 조선의 현상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에도 시베리아 철도 완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만주 지역과 조선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본과 본격적인 충돌은 피하는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⁵⁶⁾

맺음말

이상에서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개입 과정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수집한 동학 농민 운동 정보와 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60년 이래로 조선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56)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82~283쪽.

위해 조선과의 우호적 관계 수립이 필수였다. 조선과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러시아는 자국을 견제하는 다른 국가들, 즉 청국, 영국, 일본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확대해야 했다.

당시 극동지역의 군사력과 물자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다. 조선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던 시기 다른 열강의 조약체결과 개정을 관망하면서 조약의 혜택을 균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거문도 사건 이후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취약한 안보와 전력을 절감하게 되면서 종래 관망정책이 조선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 즉 조선에 대한 청국의 우월한 입지를 인정하여 다른 열강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1888년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이 채택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가 구상한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동아시아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하였다. 동아시아 삼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전술한 드미트렙스키, 보가크, 카시니의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이 청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의 군함이나 군대 파병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러시아 외교관들의 예견대로 조선에서 청·일 양국의 군대 충돌, 즉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학농민운동은 더 이상 러시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내부 반란, 봉기 수준으로 조선이 청국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국내문제였다. 반면, 청일 양국 군대의 충돌은 다른 열강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철병 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했다. 특히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배상금과 영토 할양 등 청국으로부터 막대한 전리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하여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수 없었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에 둘러싼 국제정세는 청·일의 대립에서 러·일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투고일 : 2024. 9. 29.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김종현, 2011,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선인.

박재만, 2013,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선인.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АВПР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РГАВМФ').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 러시아 국립 역사 문서보관소, 'РГИА ДВ')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52.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LX(아시아의 지리적 유형과 통계자료 수집, 제60편, 이하 'СГТСМА'), С.-ПЕТЕРБУРГ, 1895.

<단행본>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벨라 보리소브나 박 지음, 최덕규·김종현 옮김, 2020,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와다 하루키, 201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한길사.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991~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 역사비평사.

<논문>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史叢』 8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77~316쪽.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Russia'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Triple Intervention

Han do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ussia's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an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Russia's Joseon policy that followe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a large-scale popular uprising that occurred in the late 19th century amid political and social contradictions and the accelerated economic invasion of foreign powers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The Donghak Peasant Army raised the banner of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s" and proposed a reform plan for the Joseon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central government office, thereby attempting to resolv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adictions of the time on their own.

However, in relation to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China and Japa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began to respond quickly and closely to the new developments. Therefore, in order to structurally understan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e must not only study the Donghak Peasant Army itself, but also pay attention to the trends of the Western powers. The Donghak Peasant Army's occupation of Jeonju Castle was not only the trigger for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Military Branch, Senior Researcher

the Sino-Japanese War, but also the starting poin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such as the Triple Interven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by the Western powers, the target of the Donghak Peasant Army's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s," especially Russia, which led the Triple Intervention, and its influence on Joseon policies.

After Russia established a border with Joseon in 1860, it had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Joseon in order to resolve the poor economic and military situation in the newly acquired Maritime Province. After experiencing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with Joseon (1884), the Secret Treaty of Joseon and Russia, and the British occupation of Geomundo Island, Russia aimed to maintain Joseon's "status quo" policy until the vulnerable conditions of the Maritime Province were me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was an event that threatened this Russian policy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Russian diplomats stationed i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Russian Minister to Joseon Dmitrevski, the Russian Military Attache to Japan Vogak, and the Russian Minister to China Cassini, gathered information on the causes and progres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reported it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pointed out that the caus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the contradictions within Joseon society, and expressed their view to their home governments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ould have an impact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Russian diplomats stationed in East Asia had anticipated, the situation in Joseon had become more serious. The conflict between Qing and Japan had intensified over the withdrawal of the Qing and Japanese troops that had entered Joseo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Russia had sought to increase its influence and voice in Joseon by taking the lead in the withdrawal issue. However, when Japan refused and

started a war with China, Russia could no longer remain a passive mediator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Joseon.

After Japan'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Japan took enormous spoils of war, including reparations and the cession of the Liaodong Peninsula,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Joseon, Russia now needed to actively intervene to check Japan. In the end, Russia, along with France and Germany, attempted to pressure Japan through the Triple Interven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Joseon. In other words,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led to a new phas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Joseon,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Qing and Japan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Key word : Donghak, status quo, Dmitrevski, Vogak, Triple Intervention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권의석**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

II.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영국의 동학 인식

III. 동학농민운동 발발 당시 영국의 인식

IV.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의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청일전쟁 이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전통적 한반도 정책은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조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청·일 군대의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변화는 영국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초기에는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며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영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하였다.

영국은 1893년부터 동학의 반외세성과 잠재적 혁명 가능성 때문에 이를 주시해왔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당시에는 동학군이 민간인을 괴롭히지 않고 부패한 관아를 지목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드러내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국이 조선의 근대화를 통한 독립 유지보다는 일본을 러시아 견제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영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한영관계, 청일전쟁, 갑오개혁, 영국 대외관계

머리말

1894년 2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오와 횡포에 동학도와 농민군이 저항하며 봉기하면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민씨 세력이 득세하고 있던 조선 조정과 지방의 부패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외세의 접근으로 불안정해진 당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조정의 개혁을 압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인 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일으켜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동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요 열강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19세기 초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일련의 전쟁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불평등조약을 맺고 청의 해안 도시를 개항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경쟁하던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남하를 막기

위해 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 역시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한국 방문기인 『조선과 그 이웃 나라(Korea and Her Neighbours)』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언급과 인식을 다루거나,¹⁾ 동학농민운동보다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정책을 다룬 기존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²⁾ 또한 넓은 의미에서 지식인, 선교사 등 서양인 체류자가 당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본 시각을 다룬 연구,³⁾ 동학에 대한 서양의 보도 내용을 다룬 연구가 있다.⁴⁾ 이들 연구는 영국인이 동학농민혁명의 근본 원인을 조선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지목한 점 등 전반적인 동학농민혁명 인식을 밝혀냈지만, 이에 비해 한국 주재 영국 외교관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아쉽게도 없는 편이다.

본 논문은 영국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초기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인

-
- 1) 金喜永, 2007,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 농민 봉기」, 『동학연구』 23, 1~23쪽.
 - 2)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영국의 대조선정책과 관련해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63~97쪽.
 - 3) 金喜永, 2011,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 인식」, 『동학연구』 30, 51-69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습격자”인가 “개혁자”인가?」, 『동학학보』 28, 483~533쪽;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5~38쪽; 임희국, 2009, 「1890년대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이해」, 『선교와 신학』 23, 181~212쪽.
 - 4) 김소영, 2018,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언론의 한국 ‘형상화’와 제국주의적 여론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47, 87~121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175~210쪽.

식하였는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영국의 대응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I.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영국 측의 간헐적인 접촉 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있었지만, 조선과 영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3년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시작이었다. 조선은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열강과의 조약을 맺으며 조선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타국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경우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여 부동항(不凍港)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 역시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조선 내 침투를 우려한 청이 조선과 해외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한편, 동아시아 내 전통적인 세계질서로 자리매김했던 조공-책봉 관계를 근대적인 종주국-속국 관계로 전환하여 서양 열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역시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약이 체결된 1883년부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1895년에 이르는 시기, 영국의 대조선 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1) 영국의 경제적·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2) 타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며, 3) 이를 위해 조선 주재 외교관을 북경 주재 영국 공사의 지휘를 받는 총영사로 임명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조·영간 무역과 조선 주재 영국인의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영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1885년 4월에 발생한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남하를 통해 식민지를 확장하고 해상으로의 접근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철저히 저지하고 세계 식민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던 영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영국 식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령 인도의 외곽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극에 달하였는데, 1885년 3월 30일, 아프가니스탄 펜제(Panjdeh)에서 영국군이 훈련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 군대의 공격에 패하는, 이른바 ‘펜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펜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세계 각지에서 고조되었는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획득한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항을 건설하여 요새화하고 함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완전한 부동항은 아니었기에 한반도 내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 조선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다른 외세의 침략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다. 영국 역시 연해주에 주둔하는 러시아 함대가 남하하여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와 이권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으로 향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문도를 영국 해군이 점령하여 무력시위를 행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1885년 4월 16일, 조선 조정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었다.

영국의 거문도 무단 점령을 확인한 조선 조정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철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거문도 점령이 단순히 영국의 단독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조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열강 역시 유사한 군사 행동을 통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조선의 항의를 무시하면서 점령을 유지하는 한편,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정식으로 조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항의가 계속되고 영국과 러시아가 1885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 점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약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은 자국 군대가 거문도에서 철수하면 러시아 군대가 진주하여 조선의 영토를 점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기에,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뒤에 철군하길 원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은 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청이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중주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고 영국 역시 주청 영국공사가 조선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기에 조선의 주권과 영토 문제를 러시아와 논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청의 북양대신인 이홍장(李鴻章)이 북경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인 니콜라이 라디젠스키(Nikolai Ladyzhenskii)와 거문도 및 조선 영토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후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1887년 2월, 거문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군시키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영국의 거문도 점령 역시 막이 내리게 되었다.

1887년 거문도에서 해군이 철수한 이후, 영국은 조선에 대한 청의 명목상 중주권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열강이 조선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조선 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청의 경우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를 빌미로 조선 내에서 타국을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세개(遠世凱)가 ‘총리 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을 달고 타국 외교관보다 상석에 앉을 것을 고집하거나 미국 주재 조선공사가 청공사와 반드시 동행하고, 청공사가 상석에 앉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청공사에게 반드시 지령을 받도록 하는 ‘영약삼단(另約三端)’의 경우처럼 영국을 비롯한 타국 외교관의 조선 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⁵⁾

하지만 영국은 청의 조선 내 우월적인 지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조선이 당시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대화 역시 미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1890년대 초반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방문한 뒤 이에 대한 견문록인 『극동의 문제(The Problems of the Far East)』를 출간한 영국인 외교관 조지 커즌(George Curzon)은, 조선이 “품 안의 아이와 다를 바 없는” 허약한 국가이며, 조선 정부는 늘 “빛에 허덕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⁶⁾ 이처럼 허약한 조선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국력을 갖고 있는 청이 조선을 도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청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을 견제하는 것이 영국 정부와 외교관들의 입장이었지만, 한반도로 남하하는 러시아를 저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일본 역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국인 외교관 역시 늘어났다. 1892년 일본에 부임한 세실 스프링-라이스(Cecil Spring-Rice)의 경우, 일본이 조선에

5) 커크 W. 라슨 저, 양휘웅 역, 2021, 『전통, 조약, 장사: 청 제국주의와 조선, 1850-1910』, 모노그래프, 301~303쪽.

6) George Nathaniel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Longmans, 1894). p.174, p.231.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중국, 조선과 영국이 함께 행동을 취한다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만약 양국이 조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조선 내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단숨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았다.⁷⁾ 또한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가 진행되던 1894년 1월, 영국 외무성의 차관보인 프란시스 버티(Francis Bertie)는 일본 측의 요구를 묵살하게 될 경우 일본 내 반영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버금가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 방어망 역시 구축된 상황이며, “무장과 훈련 상태가 훌륭한 7만 명 규모의 육군”을 확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방을 근대화하는 데에 성공한 “일본과 중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면 러시아를 조선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영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영국의 이해관계와 동아시아 전략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이처럼 조선 내 영향력을 두고 청과 일본이 충돌하기 전까지, 영국은 청이 조선에 일정 수준의 정치력을 행사하도록 묵인하는 한편,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 가능성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II.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영국의 동학 인식

영국은 청이 조선을 장악하고, 일본이 이를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한

7) Stephen Gwynn(ed.), *The Letters and Friendships of Sir Cecil Spring-Rice: a Record*, Vol. 1 (Houghton Mifflin Co, 1929), 137.

8) Memorandum by Bertie with Minutes, FO, 13 Jan 1894, FO 46/445.

반도 위협 가능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길 기대하였지만, 조선 내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 천주교 및 개신교를 비롯한 서양 종교의 도래로 인한 사상적 혼란, 정부와 관료의 부패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을 거치며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었다. 특히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청이 개입하여 조선 조정이 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외세를 척결하고 부패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동학이 농민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특히 1864년 처형당한 동학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흑세무민(感世誣民)의 명목으로 처형당한 뒤 최제우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기 위해 박광호(朴光浩)가 이끄는 동학교도 40여 명이 1893년 3월 28일 (음력 2월 11일) 경북궁 광화문 앞에서 교조의 신원(伸冤)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 외국인 자택, 공사관 등에 괘서(掛書)를 붙여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주조선 영국총영사인 윌리엄 힐리어(William Hillier)는 동학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주중영국공사 겸 주조선 영국공사였던 니콜라스 오코너(Nicholar O'coner)에게 보냈다. 이 보고서에서 힐리어는 동학이 “유사 종교 단체”로서 하층민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약 25년 전에 광신자(religious fanatic, 최제우를 지칭)가 수개월에 거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고 창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충청도 공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⁹⁾ 남부지방과 서울에 많은 동학 신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학이 “순수한 종교 공동체로 출발하였으나 정치단체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을 조직하여 지방 관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

9) 제2차 교조신원운동 당시인 1892년 10월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 대한 신원 요구를 위해 공주에 교도가 집결했던 것 때문에 공주를 동학의 본거지로 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 조정, 특히 고종이 동학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전하는데, 고종은 동학 교도들이 외국인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비록 당장 외국인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주의를 사전에 기울일 것을 힐리어에게 조언하였다. 고종의 측근이었던 장위사(壯衛使) 한규설(韓圭謫) 또한 힐리어에게 교조 신원 운동을 위해 올라온 동학 신도들이 1) 교조 최제우의 신원, 2) 외국인, 특히 일본인의 추방, 3) 행정 내 다양한 악습 제거를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요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¹¹⁾ 고종과 한규설 모두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이 주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만약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켜 동학의 종교 활동을 합법화하게 된다면 성리학(性理學) 이외의 다른 사상과 종교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비난하는 사대부가 분노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현재 동학의 교세가 강력한 상황에서, 조정이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경우 혁명으로 발전하여 정부와 외국인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다.¹²⁾ 한규설이 이에 대한 힐리어의 의견을 묻자, 힐리어는 강한 대응을 가능한 피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시한 불만 사항에 대한 수사를 각 지방 관아에 의뢰하여 분노를 잠재울 것을 권하였다. 한편 외국인 추방에 관한 요구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한규설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¹³⁾

이처럼 고종과 조선 조정은 동학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지만, 힐리어는 고종이 동학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가 당시 퍼져 있던

10) Hillier to O'Conor, 31 March 1893, No.22, FO 228/1128.

11) *ibid.*

12) *ibid.*

13) *ibid.*

“조선 왕조가 500년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에 관한 소문이 동학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학교도들이 취하는 태도를 근거로 할 때 동학교도가 대규모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힐리어는 판단하였다. 특히 서울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수가 1880년대 초,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교할 때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한국인 군중의 폭력을 저지하면서 제물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성공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학교도의 봉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았다.¹⁵⁾

힐리어가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지방은 이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민중을 지나치게 수탈하다가 살해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지방 관리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서울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힐리어는 군대나 경찰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다면 봉기에 국가가 전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힐리어는 흥미롭게도 당시 한국 남성들이 즐겨 하던 석전(石戰)을 통해 잠재적인 혁명 가능성을 아래처럼 언급하였다.

매년 이 시기 도시 성곽 밖에서 며칠에 걸쳐 열리는 석전을 본 사람은 누구든 한국인이 타고난 싸움꾼임을 인정할 것이다. 석전은 싸움을 위한 순수한 사랑을 갖고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방망이와 돌로 상대를 공격하고, 양측에 수백 명이 집결하며, 매번 충돌할 때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매년 10여 명은 꼭 사망하였다. 이 싸움은 시골 마을 어디서든 벌어지며, 마치 잉글랜드의 축구선수가 강한 충돌 자국을 자랑하는 것처럼 한국인 역시 머리에 찢어진 흉터를 갖고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만약 지도자가 제대로 이들을 이끈다면, 한국인은 그들이 공감하는 가치를 위해 동물적인 용기를 갖고 싸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¹⁶⁾

14) ibid.

15) ibid.

또한 광화문 앞에서 벌어진 교조신원운동과 함께 미국인 선교사 자택의 정문에 붙은 궤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힐리어는 해당 궤서의 문장이 독설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하늘의 가르침을 이미 습득하고 통달하였음에도 선교사들이 공허한 학문을 들고 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동학이 갖고 있는 선교사와 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적대감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궤서의 번역문을 함께 주중영국공사에게 보고하였다.¹⁷⁾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인의 자택과 일본공사관에 붙은 궤서 역시 번역하여 주중영국공사에게 제공하면서 동학교도가 일본인에게 더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동학교도 다수가 서울을 방문한 1893년 3월 말의 제3차 교조신원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동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이 종교적 단체로서 출발했지만 그 세를 불러가면서 점차 정치적인 요구를 통해 지방 관아를 압박하는 정치단체로 성장하였음에 주목하면서,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동학이 당장은 평화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Ⅲ. 동학농민운동 발발 당시 영국의 인식

1893년부터 동학운동의 반외세적 성격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온 영국 측은, 189년 2월 고부에서의 봉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빠르게

16) *ibid.*

17) Hillier to O'Conor, 3 April 1893, No.24, FO 228/1128.

18) Hillier to O'Conor, 10 April 1893, No.26, FO 228/1128; Hillier to O'Conor, 19 April 1893, No.27, FO 228/1128.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5월 11일 주조선 총영사인 크리스토퍼 가드너(Christopher Thomas Gardner)가 주중 영국공사인 니콜라스 오코너에게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군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이 처음 봉기한 고부에서 태인(泰仁)으로 이동하였으며 동학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조정은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에 임명하여 토벌을 명하였으며, 서울에서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⁹⁾ 5월 15일에는 황토현 전투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부안 관아를 습격하고 무장한 동학군이 이들을 진압하러 온 관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파악한 뒤 공격을 가해 이들을 격퇴하였고, 관군과 민간인을 동원해 동학군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오히려 동학군 측에 투항하는 이가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⁰⁾ 또한 이 보고서에는 부안, 고부, 태인 등 봉기와 관련된 주요 지역을 표기한 한반도 지도와 함께, 당시 인천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보(朝鮮新報)》 1894년 5월 12일자 기사 내용을 첨부하여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뒤 동학군이 흥덕(興德), 나주(羅州), 태인, 고창(高敞), 부안 등지를 장악하였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²¹⁾

주조선 총영사관은 동학군이 관군에 대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와 민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역시 언급하였다. 5월 21일에는 동학군이 장악한 전라도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발발이 전라도 지역에 불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동학군 지도자들이 군대를 잘 통제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주민이 없으며, 동학군은 주로 관아를 습격하여 창고나 무기고를 털고 지역 관리를 포획하여 인질로 삼고자 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동학군이 민간인을 적대시하거나 공격

19) Gardner to O’Conor, 11 May 1894, No.28, FO 228/1168.

20) Gardner to O’Conor, 15 May 1894, No.32, FO 228/1168.

21) *ibid.*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²⁾ 또한 동학군은 각 관아에 궤서를 붙이면서 선하고 어진 군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폭정을 일삼는 지방 관리를 규탄하였는데, 이 궤서의 번역문을 첨부하면서 동학군이 사용하던 슬로건인 “보국안민대창의(輔國安民大倡義)”를 그대로 한자로 남겨 전달하기도 하는 등 동학군을 단순히 폭도로만 묘사하지 않았다.²³⁾

영국 측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 군대가 조선에 진입할 경우,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유사시 상대국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1885년의 텐진조약을 위반하게 되어 조선 내 영향력을 두고 대립하는 양국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조선 남부 지역인 전라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민전쟁이 북부 지방으로 확대되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²⁴⁾ 그리고 오키너 주청공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부패한 관료들과 후진적인 체제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주조선 영국 총영사관인 가드너를 통해 고종이 조선 내정을 개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⁵⁾

하지만 영국의 예측보다 빠르게 동학농민군이 전주를 함락하고 조선 조정이 수세에 몰리자 영국 역시 이에 따른 대응을 취해야 했는데, 특히 동학군의 전주성 함락 이후 이에 대한 기사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영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 했다. 1894년 6월 4일, 《더 가디언(The Guardian)》을 비롯한 영국 언론이 미국 워싱턴발 기사에서 주미한국공사관이 농민군이 전라도를 장악한 상태이고, 현재 모든 외국인

22) Gardner to O’Conor, 21 May 1894, No.35, FO 228/1168.

23) *ibid.*

24)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72~73쪽.

25) 위의 논문, 73쪽.

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제물포에 최대한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종의 지령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미 한국공사관 측이 미국 국무부 장관인 월터 그리섬(Walter Q. Gresham)에게 동학농민혁명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학운동의 반외세적 성격에 우려를 표하던 영국 정치인을 다시 한번 자극하였다.²⁶⁾

영국 매체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영국 리버풀(Liverpool)의 커크데일(Kirkdale)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보수당 출신 하원 의원인 조지 바덴-포웰(George Baden-Powell)은 다음날인 6월 5일 외무부 차관인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에게 “현재 보도된 조선 내 봉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특히 “해당 봉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루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영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국 군함이 조선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그레이 차관은 “현재 영국 정부가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영국 해군이 북중국에 6척의 군함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군함이 조선으로 파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음을 인정하였다.²⁷⁾

또한 1894년 6월 초에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응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고, 일본 측 역시 청이 파병을 결정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하기로 하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조선의 자체적인 내정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여전히 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충돌과 이를 이용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길 원한 영국은,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중재 요청을 수락하여 6월 13일 영국 외무부 장관인 킴벌리 백작(John Wodehouse, 1st

26) *The Rising in Corea: Foreigners in Danger*, Monday, 4 June 1894, *The Guardian*, p.8.

27) *Corea*, Volumn 25: Debated on Tuesday 5 June 1894, Hansard.

Earl of Kimberley)을 통해 주영일본공사인 아오키 슈조(青木周蔵)와 회담을 하면서 청일간의 충돌이 결국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측이 이를 피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다.²⁸⁾

하지만 일본은 청이 조선에 파병할 때 일본 역시 조선에 대해 파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1885년 텐진조약을 기반으로 일본이 청과의 ‘평행적 관계’를 바탕으로 청과 동일한 영향력을 조선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²⁹⁾ 또한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임기응변일 뿐, 장기적으로 조선이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평화적으로 발전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까지는 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 팽배하였다.³⁰⁾ 반면 청 입장에서는 1885년의 텐진조약은 조선 내 청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현상 유지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본과 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자국의 조선 내 영향력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 청이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처럼 이미 청의 거부로 결렬된 공동위원회 안을 영국이 제안하고 이를 일본이 수용하길 거부하자, 영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조선 조정이 주요 열강에 청과 일본의 동시 철병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를 수용하여, 6월 24일 고종이 조선 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화약(和約)이 체결되어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면서 영국 총영사, 미국공사, 프랑스공사, 러시아공사, 독일영사에게 서구 열강의

28)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74~75쪽.

29) 위의 논문, 76~77쪽.

30) 위의 논문, 78쪽.

중재 요청을 하였고,³¹⁾ 6월 26일에는 서울 주재 해외 외교관 역시 이에 호응하여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³²⁾

영국이 청일을 단독으로 중재하려다 실패하자, 조선 조정과의 협력을 통해 서구 열강 공동의 지지를 끌어내면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고 철병을 유도하고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가 단독으로 청일 간의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자, 영국 측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 이외에 한국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두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³³⁾ 이러한 판단에 따라 러시아가 6월 30일에 일본 측에 조선 조정의 철병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로부터 일본군이 철병할 것을 주문하자, 이미 일본은 7월 2일에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³⁴⁾ 영국이 러시아가 단독으로 일본과의 철군 교섭을 진행한다는 소문을 접한 시점은 7월 6일로 이미 일본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러시아가 단독으로 중재할 때 서구 5개 열강이 동시에 하는 간섭에 비해 덜 압박을 느껴 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³⁵⁾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공동 중재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4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중재안을 추진하여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인 압박을 유지하여 청일의 동시 철군을 성사하고 조선이 자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31) 『구한국외교문서』 13권 영안 1, 「中日軍의 撤收에 關한 調停 依頼事」, 1894년 6월 21일.

32) Gardner to O'Connor, 21 May 1893, No.35, FO 228/1168.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권, 「對韓政策에 關한 意見 上申의 件」, 1894년 6월 26일.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권, 「朝鮮事件 1」, 1894년 7월 4일.

35)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85쪽.

하지만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청 역시 일본이 제안한 양국 주도의 조선 내정 개혁안을 거부하며 철군을 거부하면서 유럽 열강의 공동 중재안을 거부하자, 영국은 차선책으로 청이 서울과 제물포 이북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은 서울과 제물포 이남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조선을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하여 공동으로 점령·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³⁶⁾ 해당 공동 점령안은 청일이 합의를 끌어내는 동안 청일이 조선의 안전을 관리하고 담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 내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고 조선 내정 개혁을 위한 공동위원을 임명하며, 청일 양국이 조선과의 통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청의 속방론을 인정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³⁷⁾ 청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 공동 중재에 참여하는 열강들 역시 영국이 제안한 공동 점령안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냈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일본군이 단독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국의 함대를 공격하면서 결국엔 무산이 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과 청군과의 교전 상황, 조선 조정에 대한 개혁 압박 등 영국 정부와 주청 영국공사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보고는 줄어들게 되고, 주요 영국 언론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간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더 가디언》은 청일전쟁 개전 직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의 왕이 사실상 인질 상태에 있으며,³⁸⁾ 1894년 9월 7일 조선의 개혁에 관한 주요

36) 위의 논문, 87~88쪽.

37) 오비나타 스미오, 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종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156~157쪽.

38) China, Japan, and Korea: Rumoured Declaration of War, Landings of British and American Marines, Monday, 23 July 1894, *The Guardian*, p.5; The Quarrel between Japan and China: Reported Attack on a Chinese Fleet, the King of Corea a Prisoner, American Marines Landed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 조정이 일본과 협력하면서 약속했던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단교를 통한 청의 종주권 부정, 종교적 자유의 보장, 외교 전담 부서의 신설, 노예제 폐지, 연좌제 금지, 과부의 재혼 허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³⁹⁾

하지만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갑오개혁(甲午改革) 등으로 인해 민중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채 재결집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발생하자 영국 언론 역시 이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London Evening Standard》는 1894년 9월 14일 기사에서 《로이터 Reuter》발 보도를 인용하며 한반도 남부 지방 전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봉기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2천 명이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다가 이들 반군과의 충돌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결국 8백 명에 불과한 병력만 부산으로 복귀하여 일본군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공격과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다.⁴⁰⁾ 《더 가디언》의 1894년 10월 23일 기사 역시 ‘동학(The Tonghaks)’라는 명칭을 언급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서울 이남에 대거 결집해 있으며,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북쪽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 기사는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동학과 연대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때문에 4백 명의 일본군이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로 인해 촉발된 혼란에 대해 묘사하였다.⁴¹⁾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로 인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영국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at Seoul, Saturday, 28 July 1894, *The Guardian*, p.8.

39) The War in the East, Friday 7 September 1894, *The Guardian*, p.8.

40) The War in the East, Friday 14 September 1894, *London Evening Standard*, p.5.

41) The War in the East, Tuesday, 23 October 1894, *The Guardian*, p.8.

성격보다는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화 개혁에 반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94년 10월 24일의 《더 가디언》 보도에는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 남부 지방은 ‘동학’이라고 하는 광신도들의 반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들은 서구적 가치의 도입을 증오하며, 이런 일을 벌인 가장 큰 책임자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모두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싸움을 담고 있는데, 양측간의 대립은 이제 게릴라 전쟁 단계로 접어들었다.[...]42)

영국 언론들은 동학농민군을 ‘광신도’로, 혹은 ‘도적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1894년 11월 13일 기사에서는 경상도 지역 내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다루면서 농민군을 ‘동학 도적떼 (Tonghak robbers)’로 언급하였는데, 일본군과의 교전 이후 이들 가운데 6명이 사살되고 29명이 포로로 잡혔음을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충돌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른바 반군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도적(Banditti)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동학농민군을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화 개혁에 반대하는 반동적인 광신도, 도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43)

이렇게 영국 언론은 동학농민군을 도적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을 점령한 상태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여 조선 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는 일본군의 활약상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부 지방에서의 동학군 반란과 일본군의 진압을 다룬 《더 가디언》의 1894년 11월 17일 기사는, 스즈키Suzuki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활약상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42) Our London Correspondence, Wednesday 24 October 1894, *The Guardian*, p.5.

43) *The War in the East*, Tuesday 13 November 1894, London Evening Standard, p.5.

오늘 부산에서 파견된 분견대 측에 따르면 남부 지방의 반군 및 도적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동학혁명의 재발로 인해, 능력 있는 장교로 잘 알려진 스키 대위는 질서를 회복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분견대를 이끌고 진신(Chinshin)으로 진입하여, 여러 차례 영리한 매복 작전을 실행하였다. 11월 17일의 전투에서 군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적의 규모가 스키 대위의 부대에 비해 훨씬 컸고, 반군도 잘 싸웠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패주하였고, 현장에서 186명이 사살당하였다. 부상자들은 운송되었기에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다. 스키 대위는 이외에도 다수의 탄약과 무기를 압수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단 세 명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⁴⁴⁾

또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조선의 운영 및 관리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더 가디언》의 1894년 12월 5일 기사는 우금치 전투에 대해 다루었는데, 일본군과 조선군이 충청도 아산에 상륙한 뒤 공주로 이동하여 수천 명의 동학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들이 패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동시에 전쟁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1894년 11월 중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부 상품을 해군 선박으로 운송한 점이 주효했음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각시켰다.⁴⁵⁾ 영국 언론은 이미 조선인이 일본의 행정 관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황해도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주도의 서구화 작업에 반하는 반동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다.⁴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청일전쟁 발발 전후의 동학농민혁

44) The War in the East, Saturday 17 November 1894, *The Guardian*, p.7.

45) The War in the East, Wednesday 5 December 1894, *The Guardian*, p.8.

46) The War in the East, Thursday 27 December 1894, *The Guardian*, p.8.

명을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라보았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고 동학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자 동학군의 반정부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조선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과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자, 무력 충돌로 가는 상황만은 피하고자 영국은 단독 중재, 그리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유럽 열강의 공동 중재를 제안하며 일본을 압박하였지만, 결국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청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영국의 중재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영국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심은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적 개혁을 거부하는 ‘도적 집단’, ‘광신도 집단’으로 보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동학농민군을 반동적인 존재로, 일본을 근대적인 역량을 갖춘 국가로 이해하게 했다.

IV.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의 변화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며 일본의 승리로 끝난 청일전쟁은 영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이 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1894년 이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영국이 막대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하여 영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일을 차단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고, 이는 영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기존 1887년 거문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이 러시아와 이룬 합의, 즉 청이 러시아의 남하로부터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합의 자체가 청의 허약한 국력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⁴⁷⁾ 이 때문에 일본은 영국의 단독 중재안, 서양 열강의 공동 중재안, 영국의 조선 공동 점령

안 모두 일본이 거부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영국 역시 일본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⁴⁸⁾

또한 영국 역시 청일전쟁 발발 전부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영국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894년 7월 16일 체결된 영일통상항해조약이었다. 1858년의 영일수호통상조약은 영사재판권과 같은 독소조항을 품은 불평등조약이었고, 일본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서구 ‘문명국’과 같은 수준의 헌법, 의회와 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매진하였다. 1899년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1890년 제국의회를 설립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출범시킨 일본은 근대화된 입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영국과 조약 개정에 나서게 되었고, 영사재판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일본의 ‘비문명적’인 사법체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약 개정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영국 역시 조약 개정에 동의하고 영사재판권과 일방적 최혜국대우를 포기한 새로운 조약을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16일에 체결하면서, 영국은 일본이 더 이상 ‘비문명국가’가 아닌 서구적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갖춘 ‘문명국’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에 영국의 계속되는 청일 간의 중재 시도가 좌절되면서, 영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22일, 일본과 청 간의 전쟁이 발발할 때 상해를 포함한 양자강 유역이 영국 이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교전은 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틀 뒤인 7월 24일 일본 측이 상해 일대에서의 교전을 피해달라는 영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⁴⁹⁾ 영국이 청일전쟁

47)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78~79쪽.

48) 위의 논문, 90~91쪽.

발발 직전 상해 지역의 이권 보장 문제를 두고 일본과 타협을 한 점 역시 영국의 동아시아 내 지도력이 더 이상 압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의 중국 내 이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일본이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점 또한 일본이 청을 충분히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영국이 사실상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평양 전투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승기를 잡은 1894년 10월 초부터 영국은 주일영국공사를 통해 일본 측에 전쟁 승리 시의 강화 조건이 ‘조선의 독립 보장’과 ‘청국의 전쟁 비용 배상’인지 확인하면서 일본 측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면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압박하였다.⁵⁰⁾ 하지만 일본 측은 조선의 독립 보장 문제, 청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여순(旅順), 대련(大連)이 있는 요동반도가 차후 청과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요동반도의 점령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⁵¹⁾ 일본 측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요동반도에 대한 항구적인 점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를 시모노세키 조약에 명문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⁵²⁾

하지만 일본 역시 청의 영토 일부를 할양하는 문제에 대해 청 내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열강이 공동으로 간섭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영국과 러시아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이 청의 개항장 내에 불법으로 형성된 100여 개의 외국인 소유 공장 가운데 63개가 영국 자본에 의한 공장일

49) 金志煥, 2005,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125~126쪽.

50) 조명철, 2010,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267~268쪽.

51) 위의 논문, 269쪽.

52) 위의 논문, 270쪽.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시모노세키 조약 6조 4항에 ‘개항장 내 열강의 설창권(設廠權)’ 부여를 명문화하고 영국을 포함한 조약국이 최혜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영국에 경제적 실익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이를 해결하였다.⁵³⁾

일본은 또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합병하면 가장 큰 우려를 하게 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 내 이익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자 하였다.⁵⁴⁾ 하지만 러시아가 청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 및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지 1주일 만인 4월 23일에 주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공사가 일본 정부에 요동반도의 할양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면서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개입 역시 고려하겠다고 위협하였고, 3국 열강이 강화조약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간섭하면 이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하여 요동반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으로부터의 추가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이 완전히 독립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여 청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기존 영국의 한반도 정책은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895년 10월 25일, 영국 총리인 로버트 세실 솔즈베리 경(Lord Robert Cecil Salisbury)은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주영일본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조선이 자원을 개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영국의 조선 독립지지 입장을 확인하였고, 조선의

53) 金志煥, 「清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128쪽.

54) 위의 논문, 129쪽.

독립은 조선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 일본, 러시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⁵⁾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의 성공적인 내정 개혁이었다. 이미 영국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할 당시부터 이러한 봉기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조선 조정의 부패와 무능을 지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도 조선이 자력으로 내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독립을 유지할 역량을 갖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았다. 1895년 10월 9일, 주일영국공사였던 어니스트 사토우(Ernest M. Satow)는 프레데릭 디킨스(Frederick V. Dickins)에게 쓴 편지에서 조선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조선은 또 다른 모로코가 될 것이다. 누군가 이를 탐내서 싸우다가 가져 가게 되는 게 아니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썩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하는 과일이 될 것이다.⁵⁶⁾

조선의 내정 개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것은 사토우 주일공사뿐만이 아니었다.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영국총영사이자 한국공사로 복무한 존 조던(John Jordan)의 경우, 그의 임기 중에 벌어졌던 독립협회의 개혁 시도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가 대한제국 황실과 정부의 개입으로 개혁이 좌절된 데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1902년 고종이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고종이 통치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고 국가 통치에는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⁵⁷⁾

55) Salisbury to Satow, 25 October 1895, No. 22, FO 405/65.

56) Ian C. Ruxton,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p.218.

이처럼 조선의 자립 노력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영국이 주목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미 1895년 8월, 사토우는 영국이 조선에 대한 상업적 이익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 합병”을 저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⁷⁾ 영국은 청의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조선에서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세력으로 일본을 지목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 측은 일본이 조선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영향력이 조선 내 질서를 유지하고 조선 조정의 근대화를 자극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청의 영향력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저지한다는 영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이 임박해지자, 영국은 조선의 영토 보전을 청에 맡긴다는 기존 제안까지 뒤집고 일본에 조선 공동 점령안을 제안하며 러시아 저지라는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영국의 동아시아 이익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역시 기존의 청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정책을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조선의 자립을 통한 러시아 남하 저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영국이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던 조선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근대화를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과연 조선이 단독으로 성공적인 내정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영국 외교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

57) 朴枝香, 2001, 「이미지와 국가 이익 : 영국의 對日, 對韓 인식과 대외정책 결정 1860~1920」, 『역사학보』 169, 221~222쪽.

58) Ian C. Ruxton,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pp.201-202.

었다. 이 때문에 조선 내 러시아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면서, 이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조선 내 영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결국 1902년 영일동맹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이익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촉발된 청일전쟁 이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은 조공-책봉 관계에 입각한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 환경 역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단기간 내에 성장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영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1894년 초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여 동학군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대응에 실패한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청이 파병하고 일본 역시 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영국은 청일 간의 무력 분쟁이 러시아에게 조선 문제에 개입할 기회를 줄 것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은 처음엔 단독으로, 이후에는 다른 열강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여 조선에 파견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청일의 조선 공동 점령안까지 제시하며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서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일본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이 빠르게 조선을 장악한 뒤에는, 영국은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진압하는 일본군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적 성격은 무시하는

피상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의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 역시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영국의 청 내 이권을 보장하는 한편,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굴복하여 요동반도 할양을 포기하게 되면서, 영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내 러시아 남하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변화하여, 조선이 내정 개혁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여 독립 유지를 위한 국력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영국 외교관들은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일본을 주목하게 되고, 이는 1902년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내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인식이었다. 영국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여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게 되자, 근본적인 문제로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하였고, 이는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학이 가지고 있는 반외세적, 반봉건적 성격의 외적인 면에만 주목하여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거나, 일본군과 조선 관군을 습격하는 도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한계 역시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의 남하라는 영국의 세계전략을 우선으로 한 한반도 문제 접근 방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 : 2024. 10. 1.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9.

참고문헌

<자료>

『구한국의외교문서』

『駐韓日本公使館記錄』

FO 228/1128

FO 228/1168

《London Evening Standard》

《The Guardian》

<단행본>

커크 W. 라슨 저, 양휘웅 역, 2021, 『전통, 조약, 장사: 청 제국주의와 조선, 1850-1910』, 모노그래프.

Ruxton, Ian C.,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논문>

김소영, 2018,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언론의 한국 ‘형상화’와 제국주의적 여론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4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87~121쪽.

金志煥, 2005,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103~134쪽.

金喜永, 2007,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 농민 봉기」, 『동학연구』 23, 한국동학학회, 1~23쪽.

_____, 2011,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 인식」, 『동학연구』 30, 한국동학학회, 51~69쪽.

朴枝香, 2001, 「이미지와 국가 이익: 영국의 對日, 對韓 인식과 대외정책 결정 1860~1920」,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9~243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483~533쪽.

_____,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175~210쪽.

오비나타 스미오, 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 종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한국기독교와

-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5~38쪽.
- 임희국, 2009, 「1890년대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이해」, 『선교와 신학』 2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181~212쪽.
- 조명철, 2010,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63~289쪽.
-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영국의 대조선정책과 관련해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63~97쪽.

〈Abstract〉

British Perce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hange of Anglo-Japanese Relations

Kwon Euy Suk*

This study analyses Britain's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hanges in British strategy in East Asia after the Sino-Japanese War. Britain's traditional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focused on recognising Qing suzerainty, minimising interference in Korea, and deterring Russian expansion southwards. However, the outbreak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deployment of Qing-Japanese troops amplified Britain's concerns and led to initially unsuccessful attempts at mediation by demanding th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After the Sino-Japanese War ended in Japanese victory, Britain revised its East Asian policy to work with Japan to contain Russia.

The British had been monitoring the Donghak movement since 1893 for its anti-foreign nature and potential revolutionary potential, and wh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roke out in 1894, the British portrayed it positively, noting that the Donghak army did not harass civilians and targeted the corrupt offices. Howe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posed the corruption and incompet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internal political reform. This led to a shift in British policy towards recognising Japan as a key partner in countering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onkwang University

Russia, rather than maintaining independence through modernis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in British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Korean-British Relations, Qing-Japanese War, Gabo Reform, Britain's Foreign Policy

▣ 일반논문 ▣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녹두팀 · 박정민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엄찬호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남경국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홍성덕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녹두팀** · 박정민***

〈목 차〉

머리말

I. 분석 방법

II.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 분석

III. 새로운 연구 동향과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년간 축적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 이 논문은 2024년 6월 27~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2024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당일 발표와 심사 과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녹두팀(송지영, 노유진, 유연서, 이혜린)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경향성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에 구축된 논문 서지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1955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서술하였다. 2장과 3장에서는 수집된 2,133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 발행 정보와 연구 주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0년 단위로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1994년의 100주년과 2014년 두갑자를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초기의 거시적 담론에서 점차 미시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연구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개념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특정 지역이나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주요 변곡점을 탐색하였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 디지털역사학, 연구 동향 분석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동학교도와 민중들을 기반으로 봉건 체제를 개혁하고, 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사건이다.¹⁾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은 당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그간 역사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를 참조하여 기재하였다.([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참여자_등의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연구사 정리'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맹수는 기왕의 연구를 시기별로 분할하여 사학사적인 흐름을 살폈다. 『천도교회월보』와 『신인간』 등의 천도교 기관지에 수록된 학술저작과 신소설의 주제 등의 다양한 저작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해방 이후 근대성 강조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대별 연구 경향과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의 쟁점을 항목화하고 유관 연구를 소개하며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학제간 연구 활성화나 미시사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의 확장과 사료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²⁾

이현희 역시 기존 연구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피고 접근 방식에 따라 연구 주제를 구분하여 그에 상응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용어 정립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94년 농민운동과 유관 사건들이 동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교리와 사상적 접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³⁾

2010년대 이후 연구사 정리로는 배항섭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⁴⁾ 그는 서구 및 근대 중심주의에 기반한 종래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며, 이른바 '새로운 민중사'와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18~19세기 동학농민혁명 및 관련 역사적 흐름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⁵⁾ 가장 최근의 검

2) 박맹수, 1991,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박성수교수 화갑기념논총』,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3) 이현희, 2006, 「대한민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현황과 특성」,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4) 이와 관련된 배항섭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배항섭, 2013,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45, 수선사학회; 2015,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 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한국사연구』 170, 한국사연구회; 2015,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토로 김헌주의 연구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근대 사회운동사 연구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특히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도 일부 지적인 과학적인 한국 역사의 발전상과 그에 따른 근대성 논쟁, ‘새로운 민중사’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근대사의 방법론적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⁶⁾

그 밖에도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며⁷⁾,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부 분야와 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룬 저작들이 발간되었다.⁸⁾

그동안 진행되어온 동학농민혁명 연구사 정리는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해당 주제는 시대구분론이나 정치,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가 아닌 매우 특정한 사건을 다루지만, 수십 년간 학계 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무려 670건의 학술논문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수십 년의 연구사와 최근 발행된 수백 건의 연구 흐름을 집대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⁹⁾ 또한, 근래의

-
- 5) 배향섭, 위의 논문, 150쪽. 한편 배향섭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서구 역사에서 일어난 ‘혁명’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학농민전쟁(Donghak Peasant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6) 김헌주, 2022,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제언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사총』 10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7)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배향섭, 2007, 「최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효숙, 2014,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한일 학계의 연구동향 -훗카이도 대학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개골 발견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유바다, 2019, 「최근 북한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현황」, 『역사연구』 36, 역사학연구소; 한편 『동학학보』 13호에는 각국의 연구 동향을 주제로 특집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8)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왕현중, 2013, 「1893년 보은집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주도층과 이념의 이중 교차」,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등)
 - 9) 관련 내용은 III장 1절에 상술하였다.

근대사 연구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존 방식으로 거대한 담론을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사 정리에 수학적·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수치화된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한 정량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방대해질수록 양적 경향성은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질적 분석이 주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등에서 양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데이터로 간주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접목하고자 한다.¹¹⁾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국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과 국내 학계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그리고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00건 이상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 김보광은 2019~2020년의 고려시대사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서 2년간 발행된 약 720편의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및 전망 파악에 ‘키워드 빈도수 분석’ 및 ‘시각화’ 등 디지털인문학 기법을 시론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김보광, 2021, 「고려 고려시대 연구의 2019~2020년 동향과 특징 -양적 분석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11) 역사학계에서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을 들 수 있다.(허수,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1, 역사문제연구소)

I.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사료(史料)아카이브’(이하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저목록’을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였다.¹²⁾ ‘서지정보 내보내기’ 및 ‘원문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RISS나 KCI 등의 논문 DB를 활용하는 것도 데이터 수집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관 키워드를 선정하고 검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와 같이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것이 수집 데이터의 엄밀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저 목록 중 연구 동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활용하였다. 사료 아카이브 접속일을 기준으로, 사료 아카이브 연구논저 목록에는 5,093건의 연구논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¹³⁾ ‘파이썬(Python)’의 라이브러리 ‘Beautifulsoup’으로 사료 아카이브 홈페이지의 연구논저 목록에 있는 HTML¹⁴⁾ 요소 중 필요한 데이터를 파싱하고 수집과정을 자동화하였

12) 사료 아카이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만든 종합지식정보시스템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문헌자료와 국역총서, 연표 및 일지 등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e-donghak.or.kr/archive/>), 2024. 4. 7.

13)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022년 이후 발행된 논문 중 누락 자료를 일부 발견하여 정확도 확보 차원에서 2021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4) HTML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웹사이트의 구조와 내용을 정의하는 마크업 언어다. 예를 들면, 네이버 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네이버 마크나 검색 입력창, 검색 버튼 등 모든 웹 공간의 ‘요소’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두피디아, 「HTML」, https://www.doopedia.co.kr/mo/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2&MAS_IDX=101013000712545, 2024. 6. 7.)

다. 이 과정을 통해 단행본, 학위논문, 외국논문을 제외하고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서지정보 데이터 3,536건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어 일반논문 중에서도 국내 학계에 발표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제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한국사론』이나 『신편한국사』와 같은 전집 혹은 단행본, 연구총서에 수록되었으나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였다.¹⁵⁾ 또한,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학위논문과 발표문, 토론문을 제거하였다. 국내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한 학계의 논문도 제외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사료 탁본이나 주석 등 부록 자료나 서평도 제거하였다.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 중, 과거 연구 윤리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동일 저자가 유사한 제목과 목차로 게재한 중복 논문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내 학술논문 2,133건의 서지정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이후, 서지정보를 국문으로 통일하였다. 이는 과거 발간된 논문이 한자로 작성된 경우가 있어, 형태소 분석 및 빈도 분석 과정에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글 변환에는 한자-한글 변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였다.¹⁶⁾ 검수 과정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복수의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 중 잘못 인식한 경우를 직접 찾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로 통일된 제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여 명사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문장이나 어절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여 단어의 빈도수나 인접 단어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데이터 정제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8, 『한국사론』 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신편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16) https://github.com/masoris/hanja_hangul

과정에서 사용된다. 형태소 분석기는 학습 데이터나 품사 태깅 정보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속도 면에서 우수하며, ‘사용자 사전 추가’¹⁷⁾가 가능한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¹⁸⁾

1차 형태소 분석 결과, ‘동학농민혁명’이나 ‘갑오동란’과 같은 용어가 각각 ‘동학’, ‘농민’, ‘혁명’ 혹은 ‘갑오’, ‘동란’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이나 역사 용어 중 인식되지 않은 단어들을 조사하여 사용자 사전에 등록하였다. 또한, ‘최해월’이나 ‘해월’처럼 성과 호로 사용되어 ‘인명(person)’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였다.¹⁹⁾

그러나 등록된 단어 수가 120개를 초과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사용자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인명, 동학농민혁명 관련 용어, 기타 역사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자 사전에 등록한 후 형태소 분석을 재실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전수 검토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 제목 키워드 데이터의 전처리를 최종 완료하였다.

17) ‘사용자 사전’에 단어를 입력하는 것은 형태소 분석기의 학습 데이터와 실제 입력 텍스트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확도 문제를 보완해준다.

18) <https://github.com/hephaex/mecab-ko>. 한편 ‘mecab-ko’에서 일부 지원하지 않는 개체명 인식도 전처리에 활용하여 ‘인명(person)’과 ‘지역(place)’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활용하였다.

19) 그 밖에도 ‘해월 최시형’과 ‘최시형’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전자의 경우 ‘해월’과 ‘최시형’으로 빈도수가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키워드 태깅 시 ‘이름’으로 일괄 통일하여 기재하였다. 갑오개혁과 같은 사건 명칭을 제외하고 갑오년이나 1894년과 같은 다양한 시간 표현도 숫자로 통일하였다. 청일전쟁과 청·일전쟁과 같이 동일한 의미이지만, 기호나 표현 방식에 따라 별개의 용어로 집계되는 사례는 ‘한글’로 통일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반대 사례로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개념을 지닌 용어들은 그대로 두었다.

- | | |
|-------------|---------------|
| 1. 번호 | 2. 저자 |
| 3. 발행연도 | 4. 논저제목 |
| 5. 게재지 | 5. 게재지(숫자제외) |
| 6. 게재학회 | 7. 주제(상위분류) |
| 8. 주제(하위분류) | 9. 제목 키워드 데이터 |

〈그림 1〉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 서지정보 분석 데이터 양식

한편, 제목 데이터에서 인물 대상 연구와 지역 사례 연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명(person)’과 ‘장소(place)’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앞서 사용자 사전에 인명을 등록하여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인명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분리되지 않은 단어들을 추가로 기재하여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후 『해월신사법설』이나 『의암성사법설』, ‘예수바우골’처럼 서적명이나 지명을 인명으로 잘못 인식한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186건의 인물 대상 연구를 확인하였다. 장소(지역)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하여 총 313건의 연구 대상 지역 데이터를 확인하였다.²⁰⁾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하였다.²¹⁾

2. 연구 동향 분석 방법

기존 역사학계에서 ‘연구사 정리’는 연구논저의 발행 횟수를 주제 및 분야별로 양적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논문의 실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론,

20) 해당 데이터는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을 거쳐 별도의 CSV 파일로 제작하였다. 해당 파일은 주 21의 링크에 분석별로 별도의 폴더로 정리하여 업로드하였다.

21) 이 글은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Jupyter Notebook’과 협업에 최적화된 Google Colaboratory를 활용하였으며, 시각화를 위하여 ‘Wordcloud’ 라이브러리와 ‘Plotl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코드와 데이터, 시각화 파일은 다음의 링크에 첨부하였다.(<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usjHPayXj6XCwNnLjKszZ0m-WGqijFg?usp=sharing>)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련 분야의 논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소개하여, 독자가 직접 논저를 읽지 않더라도 연구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 정리’ 방식은 연구자의 역량과는 별개로, 연구 대상과 범위 설정에 있어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술자의 권위에 의해 텍스트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한계도 내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지학 연구와 디지털인문학에서 활용되는 계량정보학(Informetrics)을 적용하였다. 계량정보학은 수학적,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문헌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과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동향 분석’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²²⁾

이 글은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²³⁾ 먼저, 연도별 논문 발간 횟수를 살펴보며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와 그 배경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것이다. 수집된 논문 제목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명사 키워드의

22) 인문학 분야에서 계량정보학을 통해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병준·천정환, 2020,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남재우·장인철, 2024, 「최근 10년간(2014~2023) 《영어학》 연구 동향 분석: 계량정보학적 접근」, 『영어학』 24, 한국영어학회)

23)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는 사료 아카이브에서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로 분류한 연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에는 동학농민혁명 연구라고 분류하기에는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당수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가 다른 모든 주제 연구 건수의 총합과 거의 동등한 수치라는 점에서 데이터 왜곡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인 점은 사료 아카이브에서 분류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사상·종교적 배경’ 연구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동학사상의 논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발행 추이, 주제별 발행 횟수 분석 외의 세부 경향 파악에는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 데이터를 배제하였다.

추출과 시기별 주요 연구주제 분석을 통하여 빈도수를 분석하며,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연구 현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사례 연구와 인물 연구의 연구 주제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연구 동향 분석 논문과 달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토픽모델링은 단어 간 연결 및 동시 출현을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나 특성을 공유하는 어휘 군집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주제 군집과 키워드를 파악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경향성을 추론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문목록 데이터에는 이미 ‘세부분류’ 항목으로 연구 주제가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문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구축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⁴⁾

II.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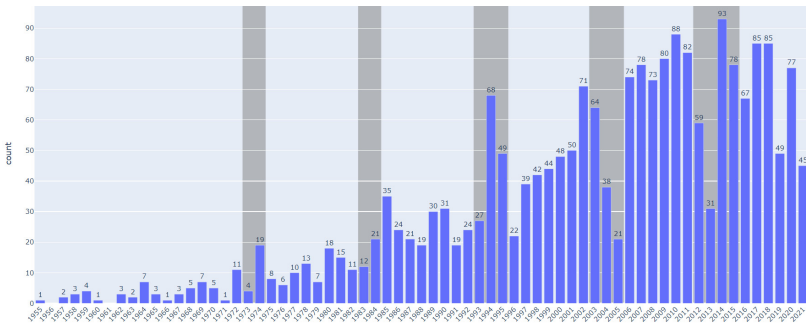
1. 발행 정보 추이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에 등록된 연구논저 목록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은 1955년 김용섭의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²⁵⁾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2,133건이 발행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24) 토픽모델링을 연구 동향 분석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김병준·천정환, 2020, 앞의 논문; 정유경, 2020,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국내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25) 김용섭, 1955,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 『사충』 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가 결성되었고, 정부 주도로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 건립이 추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주체적인 민족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동학을 선양하였다. 특히 천도교는 분단 이후 남한에서 교세가 위축되면서 동학의 역사성을 이용하여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입지를 살리려고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²⁶⁾ 이 시기에 논문 발행도 본격화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확산되었다. 유신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근대화 및 근대성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변혁의 결정적 동인으로 주목받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에 전봉준 고택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유적들이 정비된 점도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²⁷⁾



〈그림 2〉 논문 발행 추이(단위 : 논문 발행 횟수)

이후 논문 발행 추이는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일부 등락을 반복하였

26) 최광승, 2024,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한국학』 47-1, 한국학중앙연구원.
 27) 이진영, 2001,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84쪽.

으나,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1998년 ‘동학학회’가 창립되었고,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0년대 초반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별법 제정 직후 2년 동안 논문 발간 횟수는 급감하였지만, 평균적으로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였다.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12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연간 약 8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 10년을 주기로 연구 활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논문 발행이 급감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는 2002년과 2003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많이 개최되어 논문 투고가 증가했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 학술대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면서 논문 발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6년에는 다시 본래의 상승 추세를 회복하였다.²⁸⁾

한편, 2004년 특별법 제정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설립, 2006년 동학농민혁명사 논저목록 정리를 통해 연구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연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²⁹⁾ 하지만 상승 추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2019년과 2021년에 논문 발행 수가 감소한 점은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70건 이상의 논문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개항기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

28) 이러한 점은 1990년~2012년까지 신문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박정민, 2024,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 만석보 활용 방안」, 『국학연구』 54, 한국국학진흥원, 365쪽)

29) 동학농민혁명연구사논저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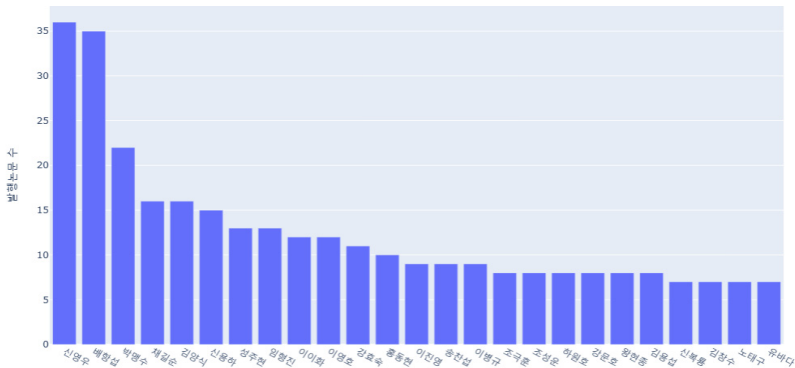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rem)

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2024년을 전후하여 논문 발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2. 주요 연구자 및 게재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과 흐름, 학문적 영향력과 지역 및 시대적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게재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논문 저자를 살펴보았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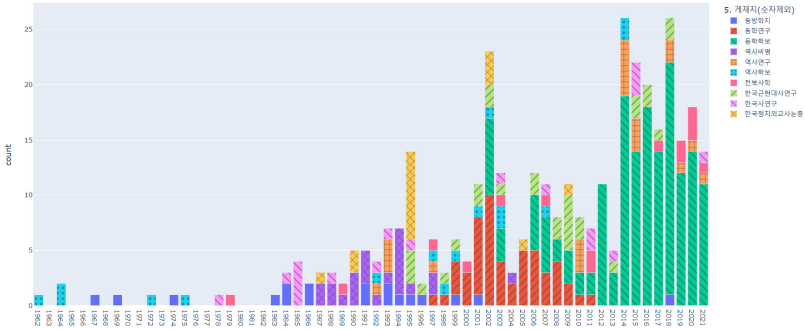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개별 연구자는 신영우(36건), 배항섭(35건), 박맹수(22건), 김양식, 채길순(이상 16건), 신용하(15건), 성주현, 임형진(이상 13건), 이영호, 이이화(이상 12건), 강효숙(11건), 홍동현(10건), 송찬섭, 이병규, 이진영(이상 9건), 강문호, 김용섭, 왕현중, 조극훈, 조성운, 하원호(이상 8건), 김창수, 노태구, 신복룡, 유바다(이상 7건) 등이다.³¹⁾



〈그림 3〉 연구자 상위 25명 그래프

30)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31) 1차적으로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동수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다.



〈그림 4〉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상위 10종

〈표 1〉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상위 10종
(단위 : 논문 발행 횟수)

순위	학술지명	창간연도	연구분야	발행논문 수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
1	동학학보	2000	역사학	515	166
2	동학연구	1996	기타인문학	119	52
3	한국근현대사연구	1959	역사학	679	30
4	역사비평	1986	역사학	1,123	23
5	역사연구	1992	역사학	258	21
6	한국사연구	1968	역사학	755	19
7	동방학지	1954	기타인문학	762	18
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985	정치외교학	373	16
8	역사학보	1952	역사학	1,027	16
10	전북사학	1977	역사학	370	15

다음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았다.³²⁾ 관련 연구 게재지는 총 390건으로, 그중 상위 10종에서 게재된 추이를 살펴보았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동학학보』

32)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166건)로 나타났다. 1998년 동학학회가 창립된 이후 2000년도부터 『동학학보』를 발간하며 동학농민혁명 연구 논문 발간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동학연구』(52건)로, 한국동학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이다. 한국동학학회는 1996년에 창설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중요한 연구 성과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각각 『한국근현대사연구』(30건)와 『역사비평』(23건)이다. 동학농민혁명이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만큼, 근현대사 연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비평』은 창간 초기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꾸준히 다루었으며,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역사연구』(21건)로, 1992년에 시작된 이 학술지는 2010년대에 들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논문을 자주 게재하였다.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특집 논문으로 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사연구』(19건), 『동방학지』(18건)가 상위에 나타났다. 『동방학지』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많은 논문이 투고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논문 발행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외교학 분야의 학술지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16건)은 1987년에 창간되어 1995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정치사적 시각에서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논문이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그 외에 『역사학보』(16건)와 전북 지역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사학』(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종의 학술지 중 최근까지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학술지는 『동학학보』, 『한국근현대사연구』, 『역사연구』, 『전북사학』이다. 이러한 학술지들은 동학이나 동학농민혁명 그 자

체를 다루거나, 특정 시대와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꾸준한 투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학술지들은 넓은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발간 수를 보인다.

3. 주제 및 시기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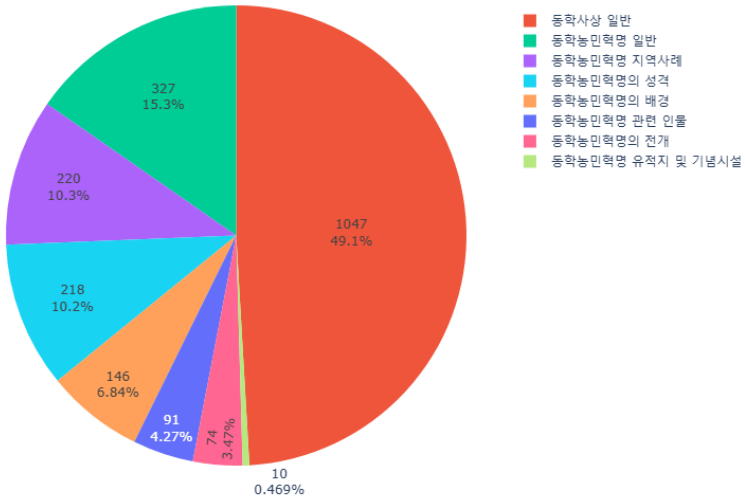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관련 논문의 제목에 사용된 모든 명사 키워드를 빈도수로 분석하고 상위 30건을 <표 2>에 기재하였다.³³⁾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를 표현하는 ‘워드클라우드<그림 5>’로 시각화하였다. 글자 크기가 클수록 논문 제목에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표 2> 논저제목 키워드 빈도수 상위 30건(단위 : 출현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동학농민혁명	124	16	역사	40
2	지역	117	16	인식	40
3	동학	111	18	동학혁명	37
4	갑오개혁	94	19	성격	35
4	동학농민전쟁	94	20	19세기	33
6	청일전쟁	83	20	사회	33
7	일본	67	22	변화	32
8	사상	64	22	전봉준	32
9	1894년	61	24	운동	31
9	동학농민군	61	25	동학농민운동	28
11	한국	56	26	개혁	25
12	조선	53	26	교과서	25
13	활동	52	28	구한말	22
14	근대	49	28	민중	22
15	갑오농민전쟁	46	28	일본군	22

33)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의 서술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갑오개혁 시기에 제작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일본군’(22회)은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경복궁 점령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일본의 조선 간섭을 일본 사료를 통해 연구한 논문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림 6〉 주제별 논문 발행 원그래프

다음으로 연구 주제별로 논문 발행 횟수를 분석하였다.³⁵⁾ 2,133건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동학사상과 관련된 연구’(동학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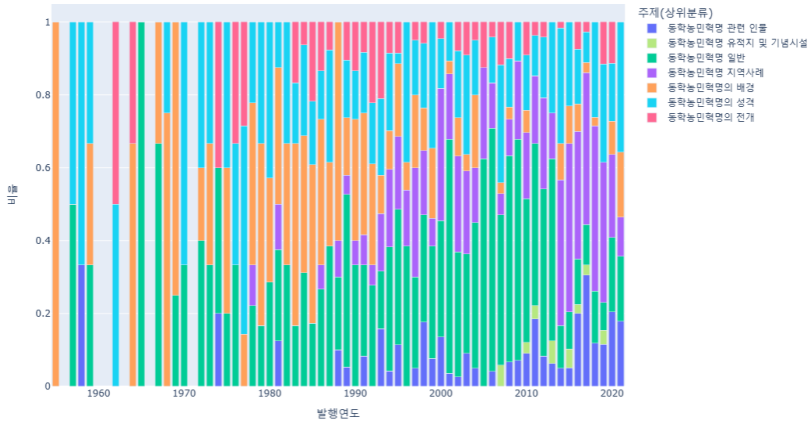
34) 논문 데이터 2,133건 중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다.(박승배, 2011, 「갑오개혁기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학적 이념 연구: “소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저자가 활용한 문헌 고증」, 『교육과정연구』 30-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편찬자가 활용한 문헌고증 2: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1-3, 한국교육과정학회)

35) 주제 분류에는 ‘사료 아카이브’의 ‘세부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일반)였다. 총 1,047건의 논문이 발행되었으며, 전체 논문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동학사상 일반 연구는 ‘동학종교(천도교)’(1,021건), ‘동학조직’(14건), ‘교조신원운동’(12건)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동학사상과 관련된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배경과 관련된 연구의 하위 분류로 종교나 사상적 배경으로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사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반적인 연구 주제(동학농민혁명 일반, 327건)였다. 그 뒤를 이은 연구 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 사례 연구(220건)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관한 연구(218건),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관한 연구(146건), 동학농민혁명 관련 인물 연구(91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74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에 관한 연구(10건)가 뒤를 이었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두 번째로 많이 발행된 동학농민혁명 일반 연구(327건)에서는 ‘청일전쟁’(121건), ‘갑오개혁’(117건), ‘동학농민혁명 전반’(89건)을 주제로 한 논문이 주로 발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관한 연구(146건)는 사상·종교적 배경(59건), 사회·경제적 배경(50건), 농민항쟁 연구(36건)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사상·종교적 배경 연구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와 최시형,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사상 간의 관련성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의 사회 상황과 문학 등을 통해 나타난 동학사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74건)는 2차 동학농민혁명(33건), 집강소(22건), 1차 동학농민혁명(12건), 고부농민봉기(7건)와 같은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림 7〉 시기별 연구 주제 발행 비중 막대 그래프(사상 연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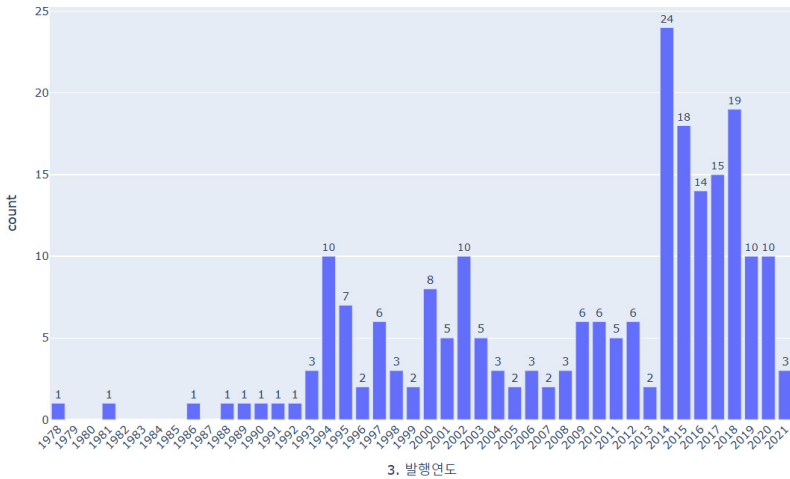
연구 주제의 시기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양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전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으로, 두갑자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전국 각지와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역대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갑오개혁’, ‘동학농민혁명 전반’이 속한 ‘동학농민혁명 일반’ 주제 연구의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반 주제 연구의 발행 횟수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계속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새로운 연구 동향과 변화

1. 지역 사례 연구의 증가

II장을 통해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1990년

대에 연구가 크게 증가한 이후, 연구 주제의 다변화 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지역과 인물 대상 연구 빈도의 구체적인 추이와 기타 연구 양상을 정리하고 동학농민혁명 연구 주제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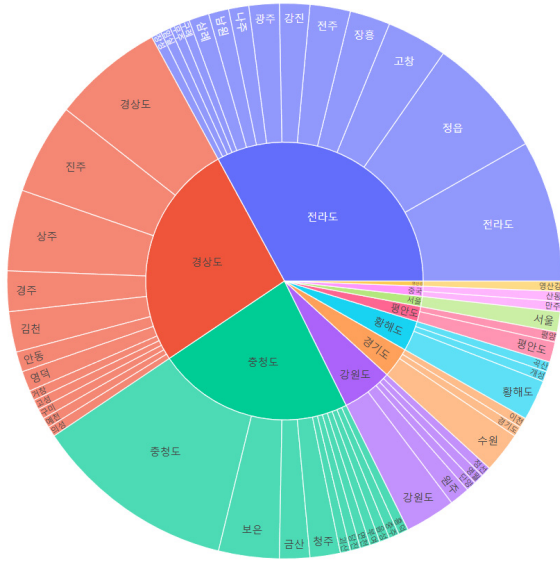


〈그림 8〉 지역 사례 연구 빈도 그래프(단위 : 논문 발행 횟수)

먼저 ‘동학농민혁명 지역 사례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사상 연구를 제외하고,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지역 사례 연구의 가치는 단순히 연구의 시선과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1894년에 발생한 사건들의 무대를 설정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역 사례 연구는 주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다뤄진 313건의 지역 데이터 중 전라도가 1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도 68건, 경상도 74건 순으로 나타났다.³⁶⁾

초기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주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성격, 일반적 주제에 집중되었고, 동학의 발상지인 경상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이후 경상도 영해(현재 경상북도 영덕)에서 1871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와 『학초전』, 『김산소모사실』, 『창계실기』 등의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었다.³⁷⁾ 이 역시 경상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2014년 이전 지역 사례 연구 대상 지역 원그래프

36) 해당 수치는 사료아카이브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1장 1절에 상술한 대로 논문 제목에서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추출한 데이터이다.

37) 신진희, 2014, 앞의 논문.

전라도는 정읍(고부, 황토현, 태인), 고창(무장), 전주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로서 고부민란, 황토현 전투, 우금치 전투³⁸⁾ 등의 사건과 전봉준, 김개남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지자체의 학술대회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남원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³⁹⁾, 전주에서는 ‘전주지역 정체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⁴⁰⁾ 두 지역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두갑자를 기념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며, 지자체에서 꾸준히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 남원과 전주 지역에 대한 연구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전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모습을 탐구하는 연구가 다수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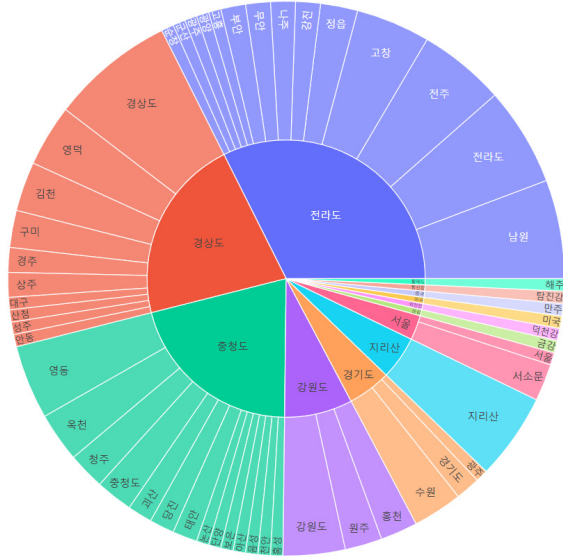
충청도는 2014년 이전까지 보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충청 중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 봉기 시기에도 홍성, 당진, 태안 등 내포 지역에서 농민군이 활동했던 사실이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하면 2014년 이후 충청도 지역 사례 연구가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의 동학농민혁명 사례 연구가 적지 않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38) 우금치는 충청도 공주에 있으나 주력부대가 전라도 농민임을 감안하여 전라도에 넣었다.

39) 전라일보, 「[남원]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전라일보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439496>), 2024.11.18.

40) 연합뉴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RPR20141215010300353>), 2024.11.18.

였던 전라도와 인접 지역인 충청 서남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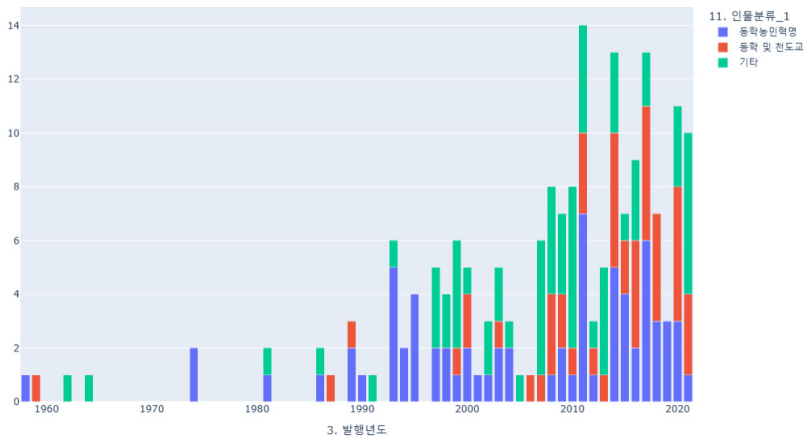
〈그림 10〉 2014년 이후 지역 사례 연구 대상 지역 원그래프

그 밖에 강원도(21건), 경기도(12건) 등 다양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원도에서는 2015년에 동학학회 주관으로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Glocalization):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⁴¹⁾ 2016년에는 경기도 지역을 다룬 동학농민혁명 사료인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연구 지역이 확대되었다.

41) 기획감사실, 「홍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 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홍천군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NewsView.do?pageUnit=10&pageIndex=1079&searchCnd=all&key=283&news_epct_no=5157&ofr_pageSize=10), 2024.06.08.

2.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확산

연구 주제의 변화는 지역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물을 다룬 연구(이하 인물 연구)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⁴²⁾ 인물 연구는 1958년 김용섭의 『전봉준 공초의 분석-동학란의 성격 일반』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86건이 진행되었다.⁴³⁾ 시기별 발행 추이를 고려하면, 1960~1970년대에는 인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인물 연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시기부터 인물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인물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이후 2014년과 2019년에 일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분류별 인물 연구 빈도수 그래프

- 42) 해당 분석은 동학사상 일반 관련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 43) 단, 인물 연구 현황 분석 시 활용한 186건은 사료 아카이브 분류 기준이 아니라 제목에서 인명이 있는 논문을 추출하여 찾은 데이터다. 발행 건수를 제목에 기재된 인명의 수로 파악하였다.

인물 연구는 성격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인물, 동학 및 천도교 인물, 기타 인물로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동학농민혁명 인물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뒤를 기타 인물, 동학 및 천도교 인물이 이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인물은 전봉준(29건), 최시형(14건), 최계우(12건), 손병희(8건), 김개남(7건)으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1960~1980년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주로 사건의 배경이나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이후 김개남, 서장옥, 이헌표 등 이전에 다뤄지지 않은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 인물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의 관심이 지역 사례와 주변 인물들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인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는 2011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관군이나 일본군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동학 및 천도교 인물은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사상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타 인물에는 주로 소설가, 철학자, 정치가 등이 포함되며, 상당수가 해외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은 개별 인물로 연구되기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인물과 연관하여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관한 논의 역시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고, 용어의 명명에 관한 주요 연구로 다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전망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시작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감소한 경향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전개, 목표, 역사적 배경 등 사건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 경향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심의 감소라기보다는 근대사 연구 기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전통적인 개항기 연구는 근대화의 토대와 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혁과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⁴⁾ 이러한 기조는 한국역사학계의 질적 성장에 따라 기존 한국 개항기의 과학적인 역사상이 과연 역사적 실체 복원에 합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경 관련 연구’ 비중의 변화는 학계 기조의 전환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각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배경 관련 연구(<그림 7> 주황색 막대)’⁴⁵⁾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당 비중의 변화는 ‘지역 사례 연구(<그림 7> 보라색 막대)’과 ‘관련 인물 연구(<그림 7> 파란색 막대)’ 비중의 확대와 교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농민 인물, 지역, 사건 등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근대사의 상을 재구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 경향은 보다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⁴⁶⁾

44) 노관범, 2022, 「한국 근대 I ‘조선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과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 『역사학보』 255, 역사학회, 20쪽.

45) 사료 아카이브의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으로 분류된 연구를 지칭한다.

46) 민회수, 2018, 「근대 I ‘익숙함’에 대한 색다른,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 『역사학보』 239, 역사학회.

또한 지역학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의 지원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학이 과거를 정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정체성과 특수성을 부여하고, 지역 현안을 돌파하는 학술작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각 지자체의 지역학 정립에 적절한 학술적 과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관심은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증가로 이어졌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유관단체, 동학학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1차 봉기의 주요 지역이었던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는 개념을 지역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전주, 남원, 경주, 홍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관심이 연구 논저의 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2014년 이후 비중이 급증한 ‘지역 사례 연구(〈그림 7〉 보라색 막대)’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현재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역학’의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인다.

지역 사례 연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전라도는 주로 전라북도에, 경상도는 상주, 김천, 경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의 사상과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한 ‘혁명’이었다면, 연구의 지리적 범위가 보다 넓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47) 아시아경제, 「민선 5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성과 거뒀」,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1413533974006>), 2024.06.07.

다행스럽게도 2014년 이후 남원, 당진, 태안, 대구, 구미, 덕천강, 탐진강 등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비록 이러한 연구의 수는 아직 적고, 연속적인 논의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연구 지역의 확장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역 사례 연구’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연구 지역의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지난 70년간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를 계량정보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변곡점을 탐색하고, 연구사적 동향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0년 주기의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4년 100주년과 2014년 두갑자를 기점으로 연구의 흐름에 변화가 있었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0편의 논문이 발간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여전히 중요한 학술 주제임을 보여주지만, 향후 그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연 1회 개최하는 ‘신진연구자워크숍’과 같이 새로운 연구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학술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연구 주제의 변화는 한국 개항기 연구의 경향성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초기 연구는 사회 변동과 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근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재평가되었다. 한국사에 구조적인 역사상을 상정하

는 경향이 과연 실제도 그러한가라는 의문 속에서 지역 및 미시적 접근으로 전환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지역 사례 연구’ 논문 발행이 확산되는 점은 경향성 전환의 실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다룬 연구의 비중은 두갑자였던 2014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커졌으며,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전라북도와 경상도(상주, 김천, 경주 등) 지역이 연구되었으나, 지역학의 수요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과 향후 사료 발굴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지역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다양한 지역적 맥락과 역동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중심의 미시적 연구는 거시적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역사적 요소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연구의 파편화와 담론 부재의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연구 과정에서는 거시적 맥락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기반의 연구 동향 분석은 기존의 질적 분석 방식과 비교했을 때, 연구자가 느끼는 현장감과 언어·사고적 공유 내용을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의 도입은 한국사 연구의 외연 확장과 연구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이 역사 서술의 단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 방식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찾아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료 아카이브’를 활용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카이브의 연구논저 항목에서 논문 목록을 ‘날짜순’, ‘등록순’, ‘정확도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한자 사료를 한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東鶴思想’이라는 제목의 논저가 있을 때, 현 시스템에서는 ‘동학사상’을 검색창에 입력해도 해당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RIS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서는 한글로 제목을 입력해도 한자 제목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셋째,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일 기재가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활용하며 2022년까지의 연구논저가 데이터로 수집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동년 자료를 발견하여 분석 대상을 2021년까지 발행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사료 아카이브 자료 공유 방식의 확장을 제안한다. RISS에서 소장 자료의 서지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서비스(서지정보 내보내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웹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제공하는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CSV나 XML 형식의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⁴⁸⁾ 더 나아가 사료 아카이브에 소장된 대량의 역사 자료를 데이터로 전처리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인포그래픽 파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3.1운동 아카이브⁴⁹⁾나 ‘지암일기’ 아카이브⁵⁰⁾, 대항해시대 노예무역 DB(SlaveVoyageDB)⁵¹⁾와 같이 데이터나 시각화 자료를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아카이빙의 활용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 축적된 대규모 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불가피하지만, 재

48)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대부분 ‘조선왕조실록DB 홈페이지(<https://sillok.history.go.kr/>)’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활용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CSV나 XML 형식의 데이터로도 접근 가능하다.

49)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50) 지암일기 홈페이지(<https://jiamdiary.info>)

51) SlaveVoyages 홈페이지(<https://www.slavevoyages.org/>)

단 측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료 아카이브를 더욱 보편화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전자자료〉

- 기획감사실, 「홍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 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홍천군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NewsView.do?pageUnit=10&pageIndex=1079&searchCnd=all&key=283&news_epct_no=5157&ofr_pageSize=10), 2024.06.08.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_참여자_등의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
- 두피디아, 「HTML」, (https://www.doopedia.co.kr/mo/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2&MAS_IDX=101013000712545), 2024.6.7.
- 아시아경제, 「민선 5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성과 거뒀」,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1413533974006>), 2024.06.07.
- 연합뉴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141215010300353>), 2024.11.18.
- 전라일보, 「[남원]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전라일보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496>), 2024.11.18.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8, 『한국사론』 5,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신편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논문〉

- 강효숙, 2014,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한일 학계의 연구동향 -훗카이도 대학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개골 발견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301~325쪽.
- 김현주, 2022,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제언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사충』 10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51~86쪽.
- 김병준·천정환, 2020,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443~517쪽.

- 김보광, 2021, 「고려 고려시대 연구의 2019~2020년 동향과 특징 -양적 분석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55~95쪽.
- 김용섭, 1955,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 『사충』 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8~88쪽.
- 남재우·장인철, 2024, 「최근 10년간(2014~2023) 《영어학》 연구 동향 분석: 계량정보학적 접근」, 『영어학』 24, 한국영어학회, 348~374쪽.
- 노관범, 2022, 「한국 근대 I '조선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과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 『역사학보』 255, 역사학회, 19~46쪽.
- 박문현, 2008, 「동학의 생명사상」, 『민족사상』 2-2, 한국민족사상학회, 25~54쪽.
- 박승배, 2011, 「갑오개혁기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학적 이념 연구: “소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3, 한국교육과정학회, 1~22쪽.
- 박정민, 2024,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 만석보 활용 방안」, 『국학연구』 54, 한국국학진흥원, 351~389쪽.
- 배항섭, 2007, 「최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57~289쪽.
- _____, 2013,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45, 수선사학회, 141~182쪽.
- _____, 2015,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한국사연구』 170, 한국사연구회, 61~95쪽.
- _____, 2015,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138~172쪽.
-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131~148쪽.
- 이진영, 2001,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73~99쪽.
- 이현희, 2006, 「대한민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현황과 특성」,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73~300쪽.
- 유바다, 2019, 「최근 북한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현황」, 『역사연구』 36, 역사학연구소, 295~320쪽.
- 왕현중, 2013, 「1893년 보은집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주도층과 이념의 이중 교차」,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59~90쪽.
- 정유경, 2020,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311~331쪽.
- 최광승, 2024,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한국학』 47-1, 한국학중앙연구원, 175~211쪽.

- 최민자, 2009,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 『동학학보』 18, 동학학회, 7~49쪽.
- 허 수,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53~390쪽.
- _____,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1, 역사문제연구소, 133~193쪽.

〈기타〉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s://www.1894.or.kr/main/>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 동학농민혁명연구사논저목록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rem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 조선왕조실록DB <https://silok.history.go.kr/>
- 지암일기 홈페이지 <https://jiamdiary.info>
- 한국 근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modern/>
- SlaveVoyagesDB <https://www.slavevoyages.org/>

〈Abstract〉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Data

- Focusing on the Paper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rchive* -

Team Nok-du* · Park, Jung Min**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trend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umulated over multiple years, by utilizing informetric methodologies. To this end, bibliographic data from papers archiv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 establish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was used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1955 to 2021. Chapter 1 outlines the data processing procedures and the specific research methodology used for trend analysis. Chapters 2 and 3 analyze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hanges in research topics based on the 2,133 data entries collected.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been activated in cycles of ten years, with significant changes observed around the 100th anniversary in 1994 and the 120th anniversary in 2014.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focus of research has gradually shifted from macrohistorical to microhistorical

* Team Nok-du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mber(Song Chi Young, Noh Yu Jin, Yu Yeon Seo, Lee Hye Rin)

**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pproaches. While early studies centered on the historical concep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ent research has increasingly focused on specific case studies targeting particular regions, individuals, and events. Through this process, a time-serie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conducted, and key turning points were identified.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 Digital History, Research Trend Analysis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엄찬호**

〈목 차〉

- 머리말
I. 동경대전 간행터의 비정
II. 동경대전 간행터 정비 현황
III. 동경대전 간행터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선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8월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인재군이 공동 주최한 2024 인재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강원대학교 강사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과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적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동경대전』 간행터의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간행터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콘텐츠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동학유적지 정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 동학, 동경대전, 최시형, 인제군, 갑둔리

머리말

동학은 조선말 근대 이행기에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기치로 내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로 ‘동학’이란 교조 최제우가 서학(西學)의 전래에 대항하여 동방인 우리나라의 학문을 전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는 천지인 합일 사상과 인간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부패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곧 동학의 사상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는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는 존재로 사람은 모두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의 개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요소인 민족의 의미를 서구와 일본에 대한 적대감 표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제우는 보국안민을 통해 무극대도의 후천개벽 세상으로의 이행을

추구함으로써 근대 사회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¹⁾

그러므로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선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학은 최제우의 순도 이후 관의 탄압을 피해 강원도로 숨어들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1880년 경전의 간행은 동학이 종교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동학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전 간행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게 됨으로써 동학은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더욱 분명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학교도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동학 교리의 체계화를 촉진한 계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동학의 저력은 『동경대전』 간행을 기반으로 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과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제군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2016년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인제지역은 최시행의 주요 피신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약 1년간 피신하였던 성황거리, 느릅정이,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피신하였다가 양양관군에게 체포되었던 기린면 귀둔리 등 천도교의 성지이며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동학의 사적

1) 박세준, 2018,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73, 103쪽.

지가 분포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인제지역에서 동학관련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작업은 동학의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과거 속에 고정하고 삶과 분리된 활용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를 한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해석과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공유란 물리적 상호 교류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억과 정신, 분위기 등 추상적인 형태의 감정 속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진다. 문화유산이 삶과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가까운 대상으로서 인식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장소의 공유뿐만 아니라 생생한 감정적 공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I. 동경대전 간행터의 비정

인제에서는 모두 세 번에 걸쳐 경전의 간행이 있었다. 그 첫번째가 1880년 김현수가(金顯洙家)에서 간행된 초간본인 경진초판이고, 두 번째는 1888년 김병내(金秉孺)가에서 간행된 무자계춘판, 세 번째가 1890년 이명수가(李明秀家)에서 간행된 경인판 『성경대전(聖經大全)』이다.²⁾

이중 1880년에 간행된 경진판 『동경대전』은 최초의 동학 경전으로 동학이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하여 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산간 지역에서 숨어 지내야

2) 裴賢淑, 2024,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의 特徵 -『東經大全』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94, 290쪽.

하는 고초속에서도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전을 간행하였다.³⁾

최시형이 고난 속에서도 경전 간행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최제우 사후 최제우에게서 직접 도(道)를 전수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스스로를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데서 연유한 바가 있다. 곧 스스로 수제자라고 거짓 칭하는 자들과 최시형이 정통으로 도통을 이었다고 여기는 세력이 대립함에 따라 동학의 정통성을 재확립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최시형은 동학의 정통성을 바로잡을 정경(正經)의 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학의 내부적인 필요가 극심한 관의 탄압 속에서도 경전을 발간하여 정경을 확립하고자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최시형은 자칭 수제자라 칭하는 자들이 동학의 도를 왜곡하고 와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전을 간행하여 교단의 권위와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⁴⁾

최시형은 최제우의 저작을 간행하기 위하여 1879년 11월 정선 방시학(房時學)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하고 도포덕주(道布德主)를 비롯한 담당 실무자를 나누어 정하였다. 이때 경전의 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유사로 수정유사(修正有司)·교정유사(校正有司)·서유사(書有司)·필유사(筆有司)·지유사(紙有司)·책자유사(冊字有司)를 정하였다.⁵⁾ 미리 수단소를 마련한 것은 최제우가 남긴 시문을 모으고 행적을 정리하여 간행을 위한 정고본을 만들고 교정하는 과정이었다.⁶⁾ 초간본 『동경대전』은 최시형을 비롯한 최제우의 여러 제자들이 필사하여 지니고 있던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논의와 교감을 거쳐 간행한 경전이였다.

3)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3쪽.

4) 尹錫山, 1996, 『東經大全』, 동학사, 323쪽; 이호영, 2007,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 비평, 『동학학보』 11-1, 211~212쪽.

5)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亞細亞文化社, 1979), 275~276쪽.

6) 염정섭, 2019, 「1880년 인쇄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202~203쪽.

최시형은 『동경대전』을 이미 1879년부터 침해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접과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 판각소(板刻所)를 1880년 5월 초9일 각 판소를 인제 갑둔리의 김현수가에 설치하고, 인제·정선·청송·상주에서 보내 온 비용으로 11일 개간을 시작하여 6월 14일 『동경대전』 100부를 간행하였다.⁷⁾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장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원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해(鎔梓)를 경영한 지 한 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지금 경진년(庚辰年)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및 여러 사람들이 장차 간판(刊版)을 경영하려고 발론(發論)을 하니 각 집중(接中)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각소(刻所)를 인제(麟蹄) 갑둔리(甲遁里)에 정하게 되었다.⁸⁾”

이처럼 『동경대전』 간행장소는 인제 갑둔리 김현수가로 알려져 각종 동학 관련 기록과 증언 내용을 토대로 『동경대전』 간행의 업무를 보았던 각판소를 설치한 곳은 현 갑둔리 375번지에 있던 김현수 집터이고, 경전 간행작업을 한 공방장소로는 현 갑둔리 351번지 김현수의 사촌들이 살고 있던 집터로 비정하였다.

각판소터에 대한 증언은 갑둔리에 살던 김종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갑둔리를 떠나기전 김현수 일명 김현규가 살던 집에 살았었는데, 그곳이 갑둔리 375번지로 현재 각판소터로 비정되어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대일항쟁기 지적도를 통해 볼 때 소유주가 김정권(金正權)으로 되어있는데, 김정권은 김현수의 아들인 김영배(金榮培)의 자(字)이다. 지적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대정(大正)’ 연간인 것을 감안하면 김현수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사하고 그의 아들 김영배가 모두

7)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亞細亞文化社, 1979), 277~280쪽.

8) 상동

물려받아 그의 소유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 김현수가 살았던 것은 틀림없으므로 『동경대전』의 간행소를 김현수의 집에 설치하였다고 한 곳이 이곳이다.

II. 동경대전 간행터 정비 현황

1. 강원도기념물 지정

1) 역사문화적 성격

『동경대전』의 간행장소를 인제 갑둔리로 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제우의 교난 이후 『동경대전』 간행 시기까지 동학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강원지역의 포교활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영월·정선 지역에서 시작된 강원지역 동학 포교는 이후 양양·홍천·인제로 이어지며 교세를 확장하고 교단 의식의 체계를 잡는 등 동학 교단이 조직화 된 곳이 강원지역이었던 것이다. 강원지역은 1970년대 동학이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충청과 호남지역으로 포교가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⁹⁾

특히 인제는 『해월선생문집』에 따르면 최시형이 1880년 2월 하순부터 머물러 있던 곳으로 그때 김연석(金演錫)의 집에서 강시원(姜時元), 김연국(金演局)과 더불어 치성식(致誠式)을 행하였다. 이어 6월에 이르러서 최시형은 강시원, 전시봉(全時鳳), 김시명(金時明)과 더불어 김현수의 집에서 『동경대전』 100여 권을 인간하여 각처에 반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은 1880년 이전 강원 지역에서 동학의 교리를 정비하고 교단의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던 것이다.¹⁰⁾

9) 성주현, 2015, 「강원도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 교육』 20, 254쪽.

10) 염정섭, 2019,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최제우가 설법할 당시에 그는 그의 저술들을 제자들에게 공부하게 하여 도의 깨우침을 얻게 하였다. 따라서 최제우 순도 이후 최시형 역시 도를 전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여러곳에서 도가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동학의 치제 형식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행하기 위해서도 경전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곧 1880년 『동경대전』 간행을 통하여 동학의 종교적 교리가 점차 완성되어갔다는 점에서 인제 『동경대전』 간행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최제우의 가르침이 ‘경전’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조 사회를 유지해 왔던 유학, 또는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오고 있던 서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동학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이 이곳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 변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한 사건이었다.

이렇듯 이곳 인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동학의 교단은 이후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여 마침내는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즉 강원도 인제는 어느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을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동경대전』 간행이 이루어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의 각판소는 바로 동학의 교리 정리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역사문화적 의의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인제 『동경대전』 각판소터를 2016년 9월 1일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심의 가결하고, 같은 해 12월 2일 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고시하였다. 곧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갑둔리 351·375번지 926㎡는 문화유산보호법 제70조, 강원도

문화유산조례 제15·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지정구역 외곽경계 300m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보호법 제13조 및 강원도문화유산 보호조례 제28조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었다.

2) 지리적 특성

『동경대전』이 간행된 인제 갑둔리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 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所峙里), 김부동(金富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현재 갑둔리는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 완공,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조성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이주 해체되어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는다.

이곳 갑둔리에는 1890년 7월 최시형이 양구·간성 등을 순회하고 인제에 이르러 약 1년간 머물렀던 이명수(李明秀)의 집이 있는 성황거리(城隍巨里)가 있고, 고려시대의 석탑인 갑둔리 삼층석탑과 갑둔리오층석탑,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왕각이 있다.

갑둔리삼층석탑은 갑둔리오층석탑과 함께 1993년 강원도문화유산자료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으로 갑둔초등학교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자리에 일부 남아있던 기단과 갑둔초등학교에서 보관하던 탑신부로 1988년 새로이 복원해 놓았는데, 돌의 재질·양식·크기가 달라 각기 다른 석탑의 부재로 보인다. 현재 탑신부는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이 없어진 상태이다. 각 층의 몸돌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다. 지붕돌은 두툼한 처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힘껏 치켜 올라갔고,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일부 탑재를 잃어버렸지만, 지붕돌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세운 탑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있는 탑의 총 높이는 214cm이다.

갑둔리오층석탑 역시 고려시대에 건립된 탑으로 ‘김부탑’이라고도 한다. 이 탑은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는데, 탑신의 1·2·3층 몸돌과 5층 지붕돌은 탑을 복원할 때 새로 만들어 끼워 넣은 것이다. 아래층 기단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고 위층 기단에는 기둥모양과 글을 새겨 놓았다. 탑신의 각 층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라갔으며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위층 기단에 고려 정종 2년(1036)이란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 석탑 및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김부대왕각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이 이 비각을 ‘김부대왕각(金傅大王閣)’이라 부르며 해마다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비각 내부에는 ‘신라경순왕태자김공일지신(新羅敬順王太子金公鎰之神)’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동경대전』 간행터 인근에는 동학 관련 사적으로 느릅정과 귀둔리(貴屯里)가 있고 홍천군 서석면에는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릅정은 최시형이 동학농민혁명 이후 1895년 1월 홍천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1년간 피신해 있던 최영서(崔永瑞)의 집이 있던 곳이다. 최시형은 이해 12월까지 느릅정에 있다가 원주 치악산 기슭인 수레촌으로 이주하였는데, 느릅정은 현재 국도 44호선 변에 있는 인제 신남휴게소 부근이다.

귀둔리는 최제우의 큰아들 세정(世貞)이 은신해 지내다가 체포된 곳으로 『도원기서』에는 ‘세정이 기린(麒麟) 장춘보(張春甫)의 집에 있다가 뜻하지 않게 장졸(將卒)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최세정은 인제 옥에 갇혀있다가 양양 관아로 옮겨져 1872년 장살 당하였다.

인제 갑둔리는 『동경대전』 간행터로서의 역사문화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곳이지만 이외에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장자 마의태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며, 고려시대의 석탑2기가 역사의 의미를 더해 주는 곳이다. 또한 인제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홍천군 서석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이 건립

되어 있어 동학의 사상과 혁명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곳이다.

2. 간행터 정비 현황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이다.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위치한 지역은 원갑둔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44번 국도에서 남면~상남간 446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여야 한다. 다물리 마을 동쪽으로 고개를 지나면 원갑둔리에 이르며, 원갑둔리 마을의 북서방향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하천 좌우측으로 약 350m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각판소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6번 지방도인 김부대왕로 우측 편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는 446번 지방도 변에 설치된 군사구역 출입구 차단봉을 통과한 후 좌측으로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자리하고 있다.

공방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번 지방도 좌측 편 소하천 건너편에 위치하며, 현재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군사용 도로와 연결해 있고, 군사용 도로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두 곳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한 업무 장소로 각판소를 설치하였던 김현수가 곧 갑둔리 375번지와, 경전 간행을 위한 공방 장소로 사용하던 갑둔리 351번지로 ‘각판소터’와 ‘공방터’란 명칭으로 정비하였다.

두 곳은 모두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부지로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주 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풀과 나무가 우거진 상태였다. 그리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잡목을 제거하고 관람로 확보 및 정비, 수로 및 배수로 정비, 가시성 있는 도로 표지판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동경대전』 간행터에 대한 정비는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인바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르면 1단계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 공방터 부근 파손 건축물 철거, 공방터 복토 및 평탄 작업, 각판소터 평탄 작업, 각판소터 전면부 수목제거, 배수로 정비, 유적지 및 진입로 목재 펜스 설치, 진입로 및 바닥면 부직포 설치, 임시주차장(가변주차장과 각판소터 앞 버스주차장) 설치, 주차장 부근 간이 편의시설 설치, 도로 안내판 설치이다.

2단계의 주요 작업은 각판소터와 공방터 앞 소하천 석축 실시, 임시주차장 정비, 도로 안내판 설치(44번 국도, 446번 지방도 진입부, 유적지 부근 3곳), 각판소터-공방터-주차장 조성지 까지 관람객 동선에 목재 데크 설치(목재 교각 2개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3단계의 주요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도로에서 조망권 확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최종 정비, 각판소터와 공방터 유적지 내 기념 조형물 설치, 각판소와 공방터 안내설명판 최종 설치, 주차장 부지내에 종합 안내판 설치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각판소터 271㎡에는 진입로 주변과 각판소터 주변의 수목을 제거한 뒤 목재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에 자연석 바닥돌을 깔아 정비하였다. 그리고 각판소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각판소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도로에서 각판소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동경대전 간행터 「각판소터」’라는 기둥 안내표지와 ‘각판소터’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공방터 655㎡에는 주변 수목 제거 후 평탄화 작업을 거쳐 건물터를 조성하고 목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공방터 전면 좌측의 수로는 석축을 쌓아 정비하였고, 진입로 끝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공방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공방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진입로 끝 부분 공방터 직전에 ‘동경대전 간행터 「공방터」’라는 기둥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서 공방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안내표지판과,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종합안내’ 표지판이 설치되

어 있어 동경대전 간행 공방터, 동경대전 간행 각판소터, 갑둔리 보호수(소나무), 최시형 피신처(성황거리)를 안내하고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현재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훈련장 부지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관람은 인제군에 요청하여 국방부의 협조하에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Ⅲ. 동경대전 간행터 활용 및 활성화 방안

1. 간행터 활용방안

1)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

(1) 천도교 성지

동학은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처형된 후 도통이 손병희에게 전수되었다. 손병희는 초기에 정치와 종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일제에 의해 역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새로운 교리와 체제를 확립하였다.¹¹⁾

곧 동학은 지금의 천도교로 이어져 천도교에서는 동학유적지인 수운대신사 최제우 유적지, 해월신사 최시형 유적지, 의암성사 손병희 유적지, 춘암상사 박인호 유적지, 동학혁명유적지, 3.1운동유적지를 성지로 지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은 해월신사 유적지로 영월 직동, 영월 소밀원, 단양 장현곡(현 영월 김삿갓면 와석리), 인제 귀둔리와 양양관아, 정선 미천리, 정선 적조암, 정선 무은담, 인제 갑둔리, 고성 왕곡마을, 인제

11) 엄찬호, 2011,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江原史學』 제24·25합집, 337~338쪽.

성황거리, 인제 느릅정, 치악산 수레촌, 원주 송골을 성지로 소개하고, 동학혁명유적지로 흥천 동학혁명위령탑을 성지로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유적지는 1곳뿐이지만 최시형 유적지는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교계의 주요 행사나 교인 행사에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인제 갑둔리는 천도교 경전의 첫 간행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러므로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흥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문화 관광 답사지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은 그 참여의 폭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이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잉여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문화를 누리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광객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정년 이후의 여가 활용방안으로 관광이 많은 사람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는 관광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형태에서 다양한 체험 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심지어 다크투어리즘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은 지금과 다른 시대의 체험이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제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백담사 등의 역사문화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현재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이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제 관광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관광, 내린천을 중심으로 한 레프팅, 오토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레저스포츠가 인제 관광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빙어축제, 황태축제, 합강문화제, 만해축전 등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활동 등이 인제의 매력을 더욱 풍성히 만들고 있다.¹²⁾

여기에 한국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와 신라말 비운의 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왕각, 갑둔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은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의 훈련시설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육시설로서의 활용

(1) 각급 학교 한국근현대사 및 지역사 교육

각 지역의 역사는 발생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보이게 되어있으며, 이를 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 날 수도 있다. 지역사 정리의 노력은 바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 주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사 교육’이다. 물론 교과부에서도 이점에 착안하여 ‘지역화 교육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를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이 현장의 자율성·창의성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강조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의 제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권한을 교과부가

12) 인제군, 2018, 『동경대전 간행터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9쪽.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역사’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 여건상 자율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아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농현상에 따라 도·농간에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향토애는 날로 약화하여 가고 있으며, 보편화와 세계화의 구호속에 지역고유의 풍습과 전통적인 지역 문화는 무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역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화로 재구성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의식을 가진 동질성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역화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지역화 학습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적 기억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역사지식의 가르침이다. 둘째는 역사 속으로의 여행 체험이다. 역사문화유산 내의 모든 흔적은 과거의 기억들을 담고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학습은 잊혀졌던 사실들을 생생한 현재로 전환한다. 셋째는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변화된 공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³⁾

(2) 지역민의 지역사 학습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 장기간의 군부독재정권에 따른 파행적 정치운영,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지역의식의 심화, 지역 간 갈등, 지역패권주의 등은 지역 문제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근래에 지역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 문제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섭이 점차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지역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삶의 터전인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더해지면서 지역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그 영역에의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지역의식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지역 이데올로기화하는 예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반드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지니기도 한다.

지역사는 지역민들의 삶의 결과물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은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인 것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지역민들의 공동참여의식에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들

13) 최호근, 2013,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 『역사와 담론』 66, 413~419쪽.

의 관심을 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은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함께 느끼고 누렸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체성은 상당 부분 지역에 남겨진 역사 사적지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축제는 문화공동체로서의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축제는 역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되어 오랜 전통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과정 속에서 변천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올바른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지역홍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관광자원화 문제 등이 복합·추가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증폭시키고 적극적으로 재결집시키는 요소를 지녀야 한다. 예컨대 지역 정서가 담겨있어야 하고, 지역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의 역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된 축제여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그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정체성을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여 소속감을 확인하고 신명을 되찾을 수 있을 때만 지역축제는 비소로 과거·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제지역의 축제에 지역민이 축제의 주체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지역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인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를 통해서도 간행터가 인제에 있는 의미를 주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의 변혁을 이끌었던 핵심사상의 출발점이 이곳이라는 점을 부각해 지역민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콘텐츠의 기본자료가 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소재로 하여 지역브랜드화함으로써 21세기적 지역 문화로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동경대전』 간행터와 관련해서도 인제에 동학이 전해지는 과정, 최시형의 피난 생활, 최세정의 피체 사건, 『동경대전』 간행 과정, 간행된 초간본 『동경대전』 그 자체도 문화콘텐츠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한 방송콘텐츠나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원형을 이용한 콘텐츠, 뮤지컬·오페라·연극 등의 공연콘텐츠, 전시기획, 테마파크, 축제 등의 공간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제나 강원도로 확대하여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구전 설화의 수집, 동학 관련 지명 정리, 동학농민혁명 참여 후손 구술 채록, 대일항쟁기 인제지역에서 활동했던 천도교청우당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인제의 동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

2.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

1)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

유적지의 홍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유적지의 의미가 있고 잘 조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지명도를 고양하고 차별성을 널리 알리며, 방문객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관심을 고하고 외지인에게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는 군이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다. 인제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만 국가유산 포털을 링크하여 알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가유산 포털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역의 관련 이야기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금의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여행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질 때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유산 포털은 지정국가유산만 소개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인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여타의 볼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 등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다 나은 자료를 보여주나 문화유산 부분은 소략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으로 지리적 한계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온라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가보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의 유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의 소지가 있지만,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또 오프라인상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온라인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이동전화 시대이다. 문화유산도 모바일 앱을 통해 홍보하면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

지역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수업과 중앙 중심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역사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즉, 학생이 주변의 친숙한 역사적 소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지역사 교육은 자기 고장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지역사 교육에서는 사료학습, 현장체험학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¹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지역성을 강조'한 제5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 교육과정은 모든 목표와 내용의 지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많은 도와 시·군이 교육부가 편찬한 교과서 외에 인정교과서로서 지역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또한 4학년의 경우 1학기의 한 단원을 '우리 시·도의 생활'로 설정하여 『사회』 및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별로 다르게 편찬하였다.

그러나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궤를 같이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14)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173쪽.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편성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3단계로 위계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일반적·공통적·기본적인 교육과정이 각 지역, 각 학교에서 구체화·다양화되도록 지역 학교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 1학기의 『도·광역시 생활』은 각 도·광역시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만들고 3학년의 『시·군 생활』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3·4학년의 사회과목의 경우 전국 공용의 『사회』 교과서와 각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회과 탐구』(지역교과서)를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육성의 자율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¹⁵⁾ 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사 교육도 초·중·고교에서 학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를 발행하여 두 활동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나의 고장(군·구) 수준의 『사회과 탐구』(3) → 시·도 수준의 『사회과 탐구』(4) → 국가의 자연지리·인문지리·환경·경제·문화를 서술한 『사회과 탐구』(5) → 한국의 역사와 정치, 세계와의 관계 등을 탐구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사회과 탐구』(6)가 부교재로 편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기 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부교재가

15) 교육부, 2001, 『교육과정자료 29-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17쪽.

3·4학년의 『사회과 탐구』다. 그래서 이들 교과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5·6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수업 교재가 발행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국사』 교과서의 제10단원 마지막에서 ‘단원 종합 수행 과제’의 목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알아보기’가 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을 ‘신설’했음에도 교과서의 편집은 거의 요식행위와 같이 이루어졌다. 인생을 좌우하는 입시가 걸려 있는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발행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휴머니스트, 2002)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국가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거의 끼워넣기식으로 지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양과 질은 사실상 교사의 관심과 수업준비정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⁶⁾

따라서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역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역사교사·향토사학자와의 연대와 공동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역사 교재는 문화유산 중심의 서술, 향토지와 같은 사실 나열의 서술이나 향토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술은 지양하고, 그 지역민을 주체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교재가 만들어지고, 역사 서술도 이제는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청각교재, 답사 심지어는 지역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는 역사에서 벗어나 느끼고 참여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16)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174쪽.

3)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을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념사업은 『동경대전』 간행의 의미를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사업이다. 기념사업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학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이해하는 장이 필요하다.

우선 인제지역 동학유적지와 홍천의 동학농민혁명 위령탑, 고성 왕곡 마을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유산 답사는 계획된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생소한 유적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 쉽다. 유적지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방치되어 시설이 쇠락해져 더욱 발길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자주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그 외 『동경대전』을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 편찬한 소책자의 발행도 필요하고, 『동경대전』 간행을 알리기 위한 주기적인 학술대회도 필요해 보인다. 또 『동경대전』 간행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념시설물 설치와 기념품 개발, 체험행사 개발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4) 동학유적지 정비

유적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조물이나 무덤, 또는 역

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의미 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적 문화적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유적은 유적의 역사적 의미나 규모, 공간구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적지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에서 이용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적지도 관람 답사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수요와 필요에 근거하여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적지는 방문자가 역사적 현장과 만남을 통해 상상과 경이감을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체험과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유적지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¹⁷⁾

현재 강원도 내에서 동학 관련 사적지 중 기념시설로 지정된 곳은 극히 소수이다. 물론 천도교의 성지로 알려진 곳은 해월 최시형 관련 유적지가 14곳,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가 1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2곳뿐이다. 동학에서 강원도의 위상으로 볼 때 강원도의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유적지 전반에 대해 정밀한 조사작업을 하고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요즘은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여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도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을 따라 방문하는 관광객도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이든 비지정 문화유산이든 모두 안내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은 자연경관이나 특정 먹거리보다 지역의 뿌리를 알려주는 문화유산

17) 장소연, 2007,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95쪽.

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지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일은 이러한 문화유산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동경대전』 간행터 일원은 궁극적으로는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동경대전』 기념관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지만 여타의 동학 관련 기념관은 수운 최제우를 조명한 경주의 동학기념관이 유일하다. 차제에 한국의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동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맺음말

이상에서 1880년 최초로 인제 갑둔리에서 간행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터 기념시설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행터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유산 탐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흥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로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 간행터는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전 간행터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콘텐츠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

사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음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교재에 『동경대전』 간행터를 포함한 지역 역사문화유산이 소개되어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간행터가 널리알려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넷째, 동학유적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전 간행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학유적지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화유산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4. 10. 1.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 『東經大全』
『崔先生文集道源記書』

<단행본>

- 尹錫山, 1996, 『東經大全』, 동학사.

<논문>

- 김정수, 20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6-1, 한국문화관광학회, 75~96쪽.
- 박맹수, 1988, 「『東經大全』에 대한 基礎的 研究-『東經大全』研究成果를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37~257쪽.
- 박세준, 2018,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7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3~128쪽.
- 박인규, 2021, 「규장각 소장본 『東學書』 분석 -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해-」, 『奎章閣』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7~286쪽.
- 裴賢淑, 2024,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의 特徵 -『東經大全』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9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75~313쪽.
- 성주현, 2015,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교육』 20,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53~274쪽.
- 손계영, 2022, 「1880년대 간행 『東經大全』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91, 한국서지학회, 171~202쪽.
- 신주백, 2004, 「지방사 연구방법, 실제, 역사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사학회, 143~180쪽.
- 안창범, 2001, 「『동경대전』의 역사적 연구」, 『동학학보』 2, 동학학회, 7~32쪽.
- 엄찬호, 2011,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江原史學』 제24·25 합집, 강원사학회, 319~342쪽.
- 염정섭, 2019,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75~228쪽.
- 원도연, 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역사문화학회, 261~288쪽.
-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동학학회,

201~230쪽.

이호영, 2007,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비평」, 『동학학보』 13, 동학학회, 209~226쪽.

임호민, 2017, 「崔時亨의 동학재건 활동과 교권장악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193~213쪽.

정재호, 2001,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연구」, 『東學研究』 8, 한국동학학회, 19~75쪽.

韓勝奉, 2011,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Memorial Facilities in the Place of Publication of DongKyoungDaeJeon

Eom Chanho^{*}

Donghak is the spirit of our people, which is a turning point in modern Korean history. We must constantly think about how to implement and inherit this spirit today, and successfully complete the Shenyang project containing these concer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develop related historical sites so that the spirit is not damaged.

The historical fact of publishing DongKyeongDaejeon in Gapdun-ri, Inje-gun, Gangwon-do laid the foundation for Donghak to be established as a church at the time. In addition, it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a part of Korean modern history. 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a way to utilize th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meaningful and important DongKyeongDaejeon publication.

As a way to utilize the publication site, first, it can be used as a facility for expl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Second, it could be used as an educational facility. Third, it can be used as local cultural content. Next, as a way to revitalize the memorial facilities of the place of publi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lace of publication of the scriptu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teachi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materials for students. Third, the promotion of a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publication of DongKyeongDaejeon should be promoted. Fourth, the Donghak site needs to be renovated.

Key word : Donghak, DongKyeongDaejeon, Choi Sihyoung, Inje-gun, Gabdun-ri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남경국**

〈목 차〉

머리말

I.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관하여

II.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에 관하여

III.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관한 우리 역사학계의 논의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 이 논문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2024.8.13. 화 14시)”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광운대 초빙교수

규정(제1조와 제2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적용 대상자로서의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시간·장소·공적·서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년 11월 현재까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시간적 요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과 1895년 을미의병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동일함에도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 살펴보았을 때, 서훈과 관련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평등권 심사 척도 중, 자의금지 원칙 심사(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하게 된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면 그 차별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항일무장투쟁·독립운동은 우리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한다. 그렇다면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막혀 서훈이 배제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입법 및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1894년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명예회복법, 헌법상 평등권, 합리적 이유, 서훈의 필요성

머리말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¹⁾ 이 법은

1) 법률 제7177호, 2004.3.5. 제정, 시행 2004.9.6.

‘1894년 제1차 봉기와 제2차 봉기한 농민 중심의 혁명’을 대상으로 한다.2) 종교로서의 동학이나 사상으로서의 동학은 배제하였다.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을 지정하였다.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3)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정 이후에도 줄곧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과 그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1894년 9월(양력 10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4) 1894년 11월(양력 12월) 공주의 우금치(우금티)에서 일본군과 맞서 치른 전투에서만 몇만 명의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있었다.5) 한편, 과거 정부들의 국가보훈처와 현 정부의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을 국권침탈의 기점으로 삼아 1894년 동학농민혁

2) ‘동학농민혁명’은 역사학계에서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농민전쟁’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2004년 특별법 제정 상의 명칭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3)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 등에 대해서는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6), 122~132쪽 참조.

4) 2021년 4월 말 기준,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12,071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2020), 153쪽 참조.

5) 동학농민혁명사 일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207쪽 이하 참조;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2022), 161면에 따르면, 우금치 전투의 참상에 대해서 전봉준은 “2차 접전 후 1만여명의 군병을 점고하니 남은 자가 불과 3천명이었고, 그 뒤에 다시 2차 접전하고 점고하니 5백여명에 불과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우선,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I), 다음으로 현행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에우법)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II),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심사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고(III), 마지막으로 법정책적 제안과 함께 서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제안, 그리고 헌법정신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맺음말).

I.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관하여

1. 1894년 제1차 봉기 이유: 봉건제도 개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제대로 담기에 제1차 봉기 이유로 ‘봉건제도 개혁’이라는 추상적·일반적 용어의 규정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1차 봉기는 조선 말기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도 하에서 지방관들의 농민수탈과 부정부패 그리고 학정 등 불의에 항거하고 폐정개혁을 요구했다.⁶⁾ 그렇다면 제1조(목적) 규정상의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부분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정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6) 신순철·이진영, 2022,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58쪽 이하 참조.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1차 봉기 + 2차 봉기?

제2조(정의) 제1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위와 같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정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 위 정의 규정에 따를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①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②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③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이다. 즉, ①+②+③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해당한다.

1차 봉기에는 참여했지만 2차 봉기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 참여자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말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2차 봉기에는 참여했지만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못한 농민 참여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될 수 없다.

입법 과정상의 실수라고 판단된다. 2004년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일부 법률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이다. 다행히 실무상으로는 법문에도 불구하고 1차 봉기에만 참여한 자 또는 2차 봉기에만 참여한 자 그리고 1차와 2차 봉기에 다 참여한 자 모두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문의 자구수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 중, “1차로 봉기하고”를 “1차로 봉기하거나”로 자구 수정이 요구된다.

3. 동학농민명예회복법상의 태음력 표기에 대하여

제2조(정의) 제1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이 법은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를 1894년 3월로,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를 1894년 9월로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에 전라도 무장에서 기포(起包)한 것을 말한다.⁷⁾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894년 9월 10일경(양력 10월 8일) 전봉준이 삼례에 도착하여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을 집결시킨 것을 말한다.⁸⁾

그렇다면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상 1차 봉기와 2차 봉기는 음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태양력이 도입된 것은 1895년 고종 때부터이다. 입법·행정·사법 기관 모두 태양력을 쓰고 있다. 현행 법률 중에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제외하고 태음력 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굳이 음력으로 표기한 특별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와 2차 봉기 날짜는 태양력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당 규정 부분은 “1894년 4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거나, 같은 해 10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7) 「동학농민혁명사 일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41쪽 참조.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내용을 음력과 양력을 함께 명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양. 4월 25일) 무장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였다(...)”.

8) 위의 책(각주 7), 138쪽 참조.

9) 현행 해당 법률 규정에서 음력 표기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1894년 3월(양력 4월)에”와 같이 병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I.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에 관하여

1.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예우의 적용 대상자로서의 독립유공자

이 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이 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적용 대상자로서의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에 해당해야 한다.

‘순국선열 독립유공자’는 (1) ①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시간적 요건), ②국내외에서(장소적 요건), ③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고 그 반대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공적 요건), ④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서훈 요건) [①+②+③+④: 시간·장소·공적·서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독립유공자]이거나, (2) ①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시간적 요건), ②국내외에서(장소적 요건), ⑤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공적 요건), ④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서훈 요건)[①+②+⑤+④: 시간·장소·공적·서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따라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예우의 적용 대상자로서의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규정상의 위

네 가지 조건 즉, 시간·장소·공적·서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4년 11월 현재까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독립유공자에우법상의 예우의 시간적 요건(“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가보훈부의 입장에 관하여

독립유공자에우법상의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해당 조건 중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시간적 요건) 규정과 달리, 2024년 11월 현재, 국가보훈부 누리집은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의 해당 조건 중 시간적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 국가보훈부 누리집 순국선열의 정의 요건 중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일제의 국권침탈(1895)”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5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이에 대해서 역사학계는 국가보훈부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의 경복궁 무렵 점령 및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국권침탈 기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¹¹⁾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국권

10) 그러나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일제의 국권침탈(1895)” 표시 즉, “(1895)” 삽입 그 자체는 법적 관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1) 박용규, “한국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2024.8.13.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42쪽 이하 참조.

침탈(1895년) 판단이 어떠한 이유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대상 여부의 여러 요건 중에서 시간적 요건에서 이미 배제되고 있다.

3. 국가보훈부의 해명의 필요성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우법상의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유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단순히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유공자에우법상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의 공적 요건인 위의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및 이후 내정간섭’과 ‘1895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및 이후 내정간섭’을 비교했을 때 ‘1895년 경복궁 점령’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이르렀다고 본 것인지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Ⅲ.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내지 국가보훈부는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 내지 보류 결정을 하였다.¹²⁾ 반면에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서훈

12) 2023년 국가보훈부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등의 서훈 신청(신청인 이운영)에 관하여,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¹³⁾ 이에 대해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과 1895년 을미의병은 '항일무장 투쟁'으로 동일함에도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에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항일무장투쟁) 참여자의 서훈 보류·거부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다만, 법규정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우선, 헌법상 평등권 심사 방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심사방법에 따라 해당 사안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헌법상 평등권 심사 방법

1) 자의금지

우선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교 대상인 상황이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¹⁵⁾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

립니다. 관리번호: 961774 성명: 전봉준 포상되지 못한 사유: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13) 을미의병 시기 일본군과 전투에서 사망한 의병의 수는 23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용규, 앞의 발제문(각주 11), 55쪽 참조.

14) 유바다,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관한 법률적 검토"(한국역사연구회 주최 2021년 5월 20일(목) 개최 학술대회 "동학농민전쟁의 운동사적 성격 검토") 106쪽 참조; 박용규, 앞의 발제문(각주 11), 55쪽 참조.

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자의금지 심사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¹⁶⁾

2)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 심사에 그치지 않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차별취급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심사한다.¹⁷⁾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⁸⁾ 즉 평등권 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심사는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¹⁹⁾, 또

15) 전광석, 2021, 『한국헌법론』, 집현재, 313쪽 참조.

16) 전광석, 앞의 책(각주 15), 313쪽 참조.

17) 전광석, 앞의 책(각주 15), 314쪽 이하 참조.

18)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결정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였다.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원입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설령 국회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재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헌재는 평등권심사 척도 중 엄격심사인 비례 원칙 심사에 따라 재차 위헌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들 전체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군인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올바른 보상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②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²⁰⁾에 하게 된다.

2.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유공자 서훈 배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다른 국가작용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어야 한다(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²¹⁾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 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배제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²²⁾

2) 평등권 심사

우선, 1895년 을미의병은 비교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20)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1) 전광석, 앞의 책(각주 15), 864쪽 이하 참조.

22)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관련 결정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9.7.30. 2008헌마367, 판례집 21-2상, 398). 그러나, 위 헌재결정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지침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서훈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차단되므로 이 사건 지침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고, 추천대상자 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의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895년 을미의병의 항일무장투쟁과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항일무장투쟁은 “본질적으로” 같은지 먼저 밝혀야 한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²³⁾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인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게 된다. 서훈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²⁴⁾ 현행 헌법도 ‘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훈장 등 서훈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80조(“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 제89조 제8호(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영전수여),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헌법에서 훈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훈장 등 서훈과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권 심사에서 엄격심사인 비례성 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서훈과 관련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평등권 심사척도 중, 자의금지 원칙 심사 즉 차별의 합리적 이유 여부 심사를 하게 된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면 그 차별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²⁵⁾ 심사대상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자가 된다.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해서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1905년)뿐만 아니라

23) 역사학계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헌재 2009.7.30. 2008헌마367, 판례집 21-2상, 398.

25)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에서 2019년 6월 27일 공개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에 따르면, 심사대상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다. 유바다, 앞의 발제문(각주 14), 102 쪽 참조.

한일병합(1910년)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국가보훈처와 현재 국가보훈부는 내규를 통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로 보아 을미의병 참여자를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의 독립운동 공적 정도와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항일무장투쟁) 참여자의 독립운동 공적 정도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겠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법상의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에 해당 여부는 각각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 공적의 입증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1894년 9월(양력 10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적 심사 기준은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의 독립운동 인정 정도의 공적 심사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맺음말

1. 법정책적 제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제1조 입법목적 규정 중 “봉건제도 개혁” 부분은 1894년 1차 봉기 정신(부정부패와 불의 타파의 폐정개혁 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의 개정이다. 둘째,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정의 규정은 본문 중 “1차로 봉기하고” 부분을 “1차로 봉기하거나” 등 표현으로 수정이다. 셋째, 제2조 규정상 ‘음력’으로 규정된 부분을 ‘양력’으로 수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가 현행 독립유공자법상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규정에 대해서, “일제의 국권침탈전후” 규정을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재 한 바, 독립유공자법상 해당 규정

의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헌상 1895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뿐만 아니라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도 ‘일제의 국권침탈 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국가보훈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을 1895년으로 확정해 버린 형국이다.²⁶⁾ 독립유공자법의 개정을 통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²⁷⁾

2. 서훈 신청 대상자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서훈 신청은 전봉준(1855~1895)²⁸⁾, 손화중(1861~1895)²⁹⁾, 김개남((1853~1895)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적 기록 등을 통해 그들의 공적이 많이 밝혀진 점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2004년 제정되고 2017년 일부 개정된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줄곧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훈 신청 대상의 1순위는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농민’으로 참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서훈 신청은 항일 독립운동 등 공적이 확인된 일반 농민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6) 1962년 공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가 정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바다, 앞의 발제문(각주 14), 95쪽 이하 참조.

27) 2024년 7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법 제1조의 2(정의) 규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독립유공자법 제4조 규정 중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란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

28) 전봉준에 대해서는 김양식, “녹두장군 전봉준, 고창 당촌에서 혁명을 꿈꾸다”(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역사공간, 2011), 87~120쪽 참조.

29) 손화중에 대해서는 배항섭, “손화중, 석불비결을 탈취하여 혁명의 길을 열다”(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역사공간, 2011), 123~163쪽 참조.

3. 현행 헌법전문과 헌법정신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돌아보며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룬다.³⁰⁾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다.³¹⁾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전문과 개별규정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는 내용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사회적 폐습 타파”, “침략적 전쟁 부인” 등 반침략·반식민·반일제국주의 헌법정신과 부정부패 등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등의 헌법정신이다.

물론 유신헌법인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시 제헌헌법부터 유지되어 오던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규정이 삭제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에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규정이 복귀·신설되었다.

헌법전문도 헌법상 개별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적효력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³²⁾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³³⁾

30) 헌재 1995.12.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31) 헌재 1995.12.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32) 헌재 2001.3.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33) 헌재 2008.11.27. 2008헌마517, 판례집 20-2하, 509(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각하]).

그러나 모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헌법전문을 따라야 한다. 국가기관인 정부가 나서서 헌법전문에 반하는 건국일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인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함에도 그 부분에 있어 여전히 소극적이다.³⁴⁾

그래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 등에 대해서 소극적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에 친화적인 판결보다 정부와 국가 공권력에 친화적인 판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34) 남경국, 헌법참견(2019), 385쪽 이하; 남경국, 헌법과 이성(2020), 67쪽 이하 참조;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경향신문 2018년 8월 18일자 23면〉 참조; 1919년 4월11일 임시정부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이름 그리고 군주제와 단절하고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일본 식민지 해방 후 제헌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를 따랐다.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의 ‘헌법전문’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헌법들의 헌법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의미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우리의 현행 헌법은 상해임시정부가 국가의 3요소(국민, 영토, 주권)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1919년 임시정부에 ‘법적 정통성’이 있음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1919년 건국일’의 헌법적 근거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는 ‘1948년 건국일 주장’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우리 헌법전문과 개별규정들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본보기가 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적은 헌법과 상훈법상 서훈의 대상이 되기도 남음직하다. 그렇다면, 행정과 사법의 소극적 판단에 막혀 서훈이 배제된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입법 및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주제는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항일무장투쟁) 참여자의 서훈의 정당성·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과 헌법정신을 고려했을 때, 우리 헌법정신의 역사적 원천의 하나임이 분명한, 130년 전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부정부패 타파와 폐정개혁을 외친 1894년 1차 농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공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서훈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2024년임에 틀림없다. 부정부패와 무능한 정부에 맞서고, 제국주의 일본에 맞선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르침이 더욱 가슴을 때리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다시 보국안민(輔國安民)이다!

투고일 : 2024. 10. 7.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단행본>

- 강효숙·배항섭·신영우·왕현중, 2006,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동학농민혁명명칭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
- 남경국, 2020, 『헌법과 이성』, 헌법과공감.
- _____, 2019, 『헌법참견』, 헌법과공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2021,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2011,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역사공간.
- 신순철·이진영, 2022,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신영우·조재곤·방광석·배항섭·김항기·김양식·허수·유바다·한철호, 2020,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이승렬, 2021,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그물.
- 전광석, 2021, 『한국헌법론』, 집현재.
- 한수용, 2021, 『헌법학』, 법문사.
- 허영, 2021, 『한국헌법론』, 박영사.

<논문>

- 박준성, 2017,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민주주의의 전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2017년 9월 18일(월) 개최 정기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현대사”』, 102~115쪽.
- 배항섭, 2021,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반일항쟁적 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2021년 7월 21일(수) 개최 정기학술대회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 67~93쪽.
- 신영우, 2021,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2021년 7월 21일(수) 개최 정기학술대회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 9~27쪽.
- 유바다, 2017,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2017년 9월 18일(월) 개최 정기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현대사”』, 48~72쪽.
- _____, 2021,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과 예우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한국역사연구회 주최 2021년 5월 20일(목) 개최 학술대회 “동학농민전쟁의 운동사적 성격 검토”』 93~108쪽.

〈Abstract〉

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Recognition for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Nam Kyoung-kook*

This study examines scholarly discourse within Korean historical academia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recognition of participants in 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itially, it critically analyzes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for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advocates for amendments to Articles 1 and 2 of the aforementioned legislation.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 under the Act on the Honor and Treatment of Independence Fighters, participants in the 1894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required to fulfill four criteria: time, place, merits, and honors. However, as of November 2024, participants of the 1894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still failed to meet the temporal requirements of the Independence Fighters Act, which stipulates that independence fighters must have participated in struggles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 Director, Nam Kyoung-kook Constitutional Law Research Institute / Invited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Meanwhil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cognized the participants of the 1895 Eulmi Righteous Army as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Historical scholars and civic organizations contend that both the 1894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1895 Eulmi Righteous Army uprising constitut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and the exclusion of the former from official honors raises questions of equit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clusion of participants of the 1894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mer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This analysis is predicat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which evaluates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such differential treatment. If a reasonable cause of discrimination is established, it is deemed constitutionally justified.

Given that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of the 1894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aligns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excluding these participants from honors—due to the passive judgments of the executive and judiciary—could potentially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action. This study posits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people, could address this issue by amending relevant legislation.

Key word :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Honor Restoration Act,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Reasonable Justification, Necessity of Honor Award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홍성덕**

〈목 차〉

머리말

- I. 주요기관 누리집 외국어 구축 내용 분석
- II. 온라인 백과사전 내 동학농민혁명 기술 현황
- I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전략

맺음말

〈국문초록〉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과 달리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산 자체의 홍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도서나 누리집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 본 논문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2024.9.11~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발표한 PPT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계획 수립이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사이트 내 정보구축이다. 도서나 웹사이트 구축과 달리 위키는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며, 번역을 통해 다국어 버전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의 내용과 대상, 주제별로 세계화를 위한 정보의 구축, 외국인과 재외한국인, 한국학 연구자에게 정보의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의 사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 위키피디아, 세계화

머리말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록물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평가로 국내는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의미한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것이 곧 국제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인류 유산으로 평가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만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달리 등재된 사실만으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 등재된 국가들은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해당 유산의 보존 관리에 집중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 연결되기에 용이하다. 반면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옛 기록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된 공간(박물관 등)에서 일부만 공개될 수밖에 없고 해

당 국가의 문자로 작성되어 그 의미를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을 알리는 작업은 기록의 대상이 된 역사적 사건과 유적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내용과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世界化)는 상호 교류를 통한 보편적 차이의 공유나 통합을 의미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류는 서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공유’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공통된 언어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언어화는 곧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기록유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학문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주요 온라인 웹사이트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소개 현황과 방향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뒤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주요기관 누리집 외국어 구축 내용 분석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영문명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다. 한자문화권 내의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東學農民革命’을 자국의 한자(东学农民革命, 東學農民革命)로 표기한다. 동학의 경우 초기 ‘Tonghak’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Donghak’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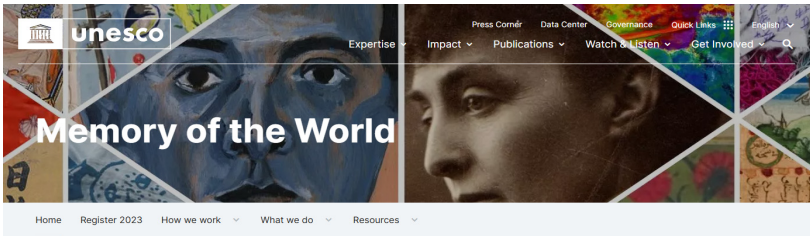
웹 사이트 내 주요기관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현황과 구글 사이트¹⁾ 내 검색 결과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

1) 세계에서 사용되는 검색엔진은 20개 이상이다. statcounter.com에 의하면 2024년 2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검색엔진은 구글(Goole)로 91.47%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2위는 Bing으로 3.42%이며, 3위 Yandex(1.78%), 4위 Yahoo(1.1%)

브리태니카(Britannica) 내 소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www.unesco.org)²⁾

유네스코 누리집 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World) 누리집은 기본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서비스 중이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기본 소개 영역은 번역되어 있으나, 기록물별 세부 소개 항목은 영어뿐이다. 세계기록유산 메인 구성은 Home, Register 2023, How we work, What we do, Resources로 되어 있으며,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Preserving Documentary Heritage in AlUla,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Our Stories, News, Publications 등이 배너, 게시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이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곳은 Register 2023와 Memory

만 1%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https://www.metacity9.com> 2024. 9. 30. 검색 이하 동일)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https://www.unesco.org/en/memory-world>)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이하 세계기록유산 등재)이다. 세계기록유산등재에서는 국가, 유형, 신청자, 관련위원회, 지역 그룹, 국가 그룹, 날짜 등으로 등재된 기록유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기록유산등재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기본 소개와 등재연도, 신청연도, 신청국가, 위치 지도(Collection loc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omination form을 원본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본 소개 항목은 신청서 내 개요 부분으로 이후 국제기록유산센터나 국가유산청에 있는 기록물 소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등재를 신청한 유산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건의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리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설립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변영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청일전쟁을 촉발시켰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즉,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된 중국군과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을 대신해 이 지역의 지배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전진시켜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저장소이다.³⁾

2.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이하 ICDH)는 2020년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Registration Year: 2023
Submission Year: 2021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form](#)

Collection locations



〈그림 2〉 유네스코 누리집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

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0쪽.

의해 설립된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이다. ICDH에서는 기록유산 보존 및 보호지원, 정보 허브 구축을 통한 기록유산 접근성 향상,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ICDH는 한국어와 영어로 기록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과 달리 ICDH에서는 기록물 이미지를 여러 장 소개하고 있다. 기록물별 안내는 지역/국가, 소장기관, 등재연도, 관리기관, 외국어표기, 개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의 내용은 등재 신청서 내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국가유산 종합 누리집으로 국가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국가유산청 사진관, 국가유산 디지털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이나 시도 문화유산자료로 등록된 유산은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유산은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동학사'(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등 3점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3점은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된 것이지만 외국어 소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가유산포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 디렉토리에서는 기록유산의 개요와 등재된 기록물 4점(동학농민군 임명장,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순교약력, 전봉준 공초)이 소개되어 있다. 영문 개요는 등재 신청서의 개요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 내용이 다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한국이 변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 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国家遺産庁 ムサイトマップ 言語

国家遺産庁紹介	国家遺産の紹介	UNESCO 登録遺産
庁長の挨拶	国家遺産の種類	世界遺産
設立目的・役割	朝鮮王宮	無形文化遺産
文化遺産守り	朝鮮王陵	世界の記憶
沿革	宗廟	
アクセス		

無形文化遺産

世界の記憶

東学農民革命記録物(2023)

<写真の出所: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
「東学農民革命記録物」とは、1894年～1895年に朝鮮で勃発した東学農民革命に関する記録物である。東学農民革命とは、庶民化した指導層や外国勢力の侵略に抵抗し、平等で公正な社会を築くために民衆が録した事件のことである。

これにより、韓国が繁栄した民主主義へと進むための土台が整ったほか、外国の類似した反帝国主義、民族主義、近代主義運動に影響を与えた。またその過程で、東学農民軍は、全羅道の各村の首領(役所)に治安と行政を担当する官民協力(ガバナンス)機構である「執綱所」を設置するという成果を挙げている。

東学農民革命記録物は、東学農民軍が作成した文書や政府の報告書、個人の日記や文書、さまざまな任命状などが含まれている。これらの資料により、農民運動の進行過程やその意味を多角的な視点から浮かびあがることができる。特に、時間と場所を超え、入籍の権利と平等、植民主義に対する反対の考え方や多様な視点から総合的に示す記録として非常に貴重である。

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ことで、「東学農民革命記録物」は、朝鮮の百姓(民衆)が主体となって自由・平等・人権という普遍的価値を目指した記憶の遺産として、世界的な重要性を認められた。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1
(Letter written in Hangeul by Han Dal-mun to his mother back home)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8
(Letter from the 8th month of 1894 appointing Cheon Il-gwon to be a jirang, or local administrative coordinator)

〈그림 3〉 국가유산포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 (일본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농민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희귀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조선 백성

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⁴⁾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및 소장기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설립된 뒤,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기념재단은 기반사업, 기념사업, 연구사업, 기념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제출기관으로 등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차 사료 208권, 연구논저 5,093권, 증언록 98건, 일지 1,757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념재단 누리집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디렉토리 구성은 없으며, 등재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등재신청과 결



〈그림 4〉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누리집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한국의 세계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기록물(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Mem_Heritage/MemHeritage_18.jsp&pageNo=5_4_2_0)

과, 등재 목록, 기념학술대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념재단의 누리집은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소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외국어 소개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념재단 이외에 등재된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은 10개 기관⁵⁾이다.

〈표 1〉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

연번	소장기관	건수(건)	비율(%)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58	31.4
9	연세대 학술문화처	3	1.6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누리집에도 별도의 소개는 없으며, 유네스코 등재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올려놓은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포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주요 기관의 기록물 소개는 간단하다. 특히 국가유산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

5)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은 수준으로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기에 부족하다.

II. 온라인 백과사전 내 동학농민혁명 기술 현황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 내에서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과 “Donghak Peasant Revolution”을 검색하면 위에서 소개한 기관이 가장 먼저 도출되고 있다. 이외에 등재 뉴스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의 영문 뉴스, 소장기관의 영문 소식지 등이 검색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한국 홍보사이트인 VISIT KOREA, Korea net 등이 제공된다. 유튜브에서는 KoreaWonder 채널⁶⁾에서 유일하게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2분 32초)이 소개되고 있으나 조회수는 30회에 불과하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사이트인 구글과 유튜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와 내용은 주요 기관 사이트를 제외하면 제공되는 곳이 없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웹사이트 중 2024년 8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백과사전 등이 검색되지 않은 것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표제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1. 위키피디아 소개 현황

영어 위키피디아에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Memory of the World Program’ 항목 내에 상위 10위 내 한국(5위)이 표시되어 있고, 유네스코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이 소개되어 있다.⁷⁾

6) 유튜브, 코리아월드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cyTKwEF3To> &t=40s)

한국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역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항목은 없으며, 세계기록유산 항목 내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등재된 18건의 한국 세계기록유산 중 등재된 유산 목록이 항목으로 작성된 것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등 8건이다.⁸⁾ 이 중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소개는 없다. 이를 제외하면 한국 위키백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소개된 기록은 7건이다. 이들 7건은 모두 단일 기록물로 등재된 것이다. 2023년에 등재된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경우 소장기관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들 두 기록물은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표제어로 정리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위키피디아 내 22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항목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어(영어, 일어) 위키피디아 동학농민혁명 목차 비교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배경	Background	第一次蜂起
개요	Gyojo Shinwon movement	日清戦争
고부 봉기 배경	Gobu Revolt	第二次蜂起
동학의 분열	First revolt	戦後
동학 농민군의 파벌	Summer of 1894	戦後サブセクションを切り替えます
구호와 거사 목적	Second revolt	世界の記憶
봉기 직전	Battles outside the main front	脚注

7) 영문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emory_of_the_World_Programme

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세계기록유산'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결과와 전개 과정	Fall	参考文献
주요 전투	Legacy	関連項目
조선군의 전쟁 범죄	Controversies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승려	In popular culture	
진압 이후	Further reading	
기타 활동	See also	
평가		
관련 인물		
실패 원인		
《전봉준공초》		

영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에 각주로 “Also known as the Donghak Peasant Movement”(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donghak nongmin undong), the “Donghak Rebellion”, the “Peasant Revolt of 1894”, and the “Gabo Peasant Revolution”라 하여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1894년 농민반란, 고부농민혁명 등의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어는 항목 명칭이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戦争)’이며, 도입 설명에 한국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고 부기하였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스페인어의 목차 구성은 배경(동학, 국제상황), 반란(1차, 2차)이며, 프랑스는 기원(동학의 탄생, 국제 상황), 반란(1차, 2차, 결과), 기념 장소로 스페인과 달리 기념장소로 전봉준 고택, 만석보 기념비, 황토현 전투 기념비, 농민반란 100주년 기념비, 우금치 전투 기념비 등을 표기하였다. 중국어는 배경, 경과(1차 봉기, 2차 봉기, 결과), 기념 등이다.

2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은 언어별로 항목 구성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술된 내용 중에는 백산을 백두산으로 표기하고 링크를 연결해 놓은 오류도 보이며 영어 위키에서는 논란(Controversies) 항목에서 동학과의 관계, 흥선대원군과의 관

계 이외에 일본 겐요사(玄洋社)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 비록 한국 역사에 의해 강력하게 반박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사이버 역사로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허구적인 내용을 세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⁹⁾

한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연결된 항목 중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항목은 Donghak, Jeon Bong-jun, Kim Gae-nam, Choe Je-u, Gobu revolt, Battle of Ugeumchi, First Sino-Japanese War, 19th-century peasant rebellions in Korea, Battle of Hwangtojaem, Battle of Hwangryong River, Siege of Jeonju Fortress, Retreat from Gongju, Battle of Pungdo 등이다.

2.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Britannica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은 가장 오래된 영어 백과사전으로 2012년 종이책 출판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¹⁰⁾ 브리태니커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표제어는 없으며 동학농민혁명은 ‘Donghak Uprising’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Donghak Uprising,(1894)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impoverished Koreans turned increasingly to Donghak (“Eastern Learning”; see Cheondogyo), a syncretic, nationalistic religion that opposed Western culture and espoused equality of all people. When demonstrations staged by Donghak

9) 영어 위키피디아 「Donghak Peasant Movement」 “Jeon gathered an army in Mount **Paektu** and recaptured Gobu in April.”

10) 『인터넷으로 죽었다... 인터넷으로 부활』, 『조선일보』, 2013.4.27(https://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6/20130_42601286.html)

followers calling for social reform met with a negative government response, the masses united with them in a rebellion that succeeded in defeating government troops in southern Korea. The government called on China for aid; Japan sent in troops without being asked, and China and Japan clashed. 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to defuse tensions; nevertheless, the Sino-Japanese War ensu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including Choe Si-hyeong, were executed.

브리테니커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 봉기(Donghak Uprising)’로 표기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매우 소략하다. 동학농민혁명을 제1차 청일전쟁을 촉발한 한국의 반란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천도교)과의 관계만을 서술하고, 지도자로 최시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동학’의 연계성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가지는 평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브리테니커 내 동학 관련 항목과 연결된다. 동학농민혁명에 연결된 항목은 천도교(Cheondogyo)와 제1차 청일전쟁, 최시형뿐이다. 천도교 항목에서는 최제우와 손병희가 최시형과 함께 링크되어 있다. 즉 브리테니커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개남조차도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Korea 표제어 내에 ‘동학봉기와 정부개혁(The Donghak Uprising and government reform)’ 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루고 있다.

Despite ruthless government persecution, Cheondogyo took deep root in the rural populace. Its followers staged large-scale demonstrations calling for an end to injustice. A negative official response precipitated the Donghak Uprising (1894), in

which the Cheondogyo followers and the rural communities formed a united front to demand reform.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천도교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천도교 신자와 농촌 공동체의 연합 전선을 구축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무기를 내려 놓았다.(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voluntarily to defuse the threat)”고만 기술하여 전주화약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아울러 2차 봉기가 가지는 의미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전략

세계화는 각기 다른 발전 과정을 거처온 국가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획일화하거나 보편화, 동질화하는 경향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혼용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동질화나 혼용화의 세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 소통의 방법이다. 어떠한 언어와 말로 세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력과 분리될 수 없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국력은 단순히 인구나 경제력,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과 같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문화 영역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을 해외에 홍보하고 관심있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원인 드라마 중심의 한류 1세대가 게임, 드라마 중심의 2세대를 거쳐 K-POP과 영화가 주도하는 한류 3세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한국 학습으

11) 김형민, 2011,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263쪽.

로 전환되었다. 한국에 대한 학습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문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ARMY(아미, BTS팬클럽)와 같이 세계 문제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¹²⁾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2년 132억 4천 만 달러로 가전 제품 수출액 80억 6천 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문화 역량은 해외 한류실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66.1%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57.9%는 한국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문화콘텐츠 소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¹³⁾

이와같이 한국의 문화 역량 강화는 한국문화, 한국학의 세계화에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의 세계화는 국가 경쟁력, 문화요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요소가 필요하다.¹⁴⁾ 국가 경쟁력은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역량이 다른 제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요소는 세계화의 내용으로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와 문화를 비롯하여 정책, 산업제품 등이다. 인구 요소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세계화는 일방적 전달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민족 정체성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예의범절과 세계화 과정의 저해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국제 문화교류를

12)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1825호, 20024.10.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70>) 아미는 정치, 환경, 차별의 문제에 'SPEAK MYSELF'를 실천하고 있다.

13)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3, 329쪽

14)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33쪽.

전담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¹⁵⁾

세계화 전략은 첫째, 세계화의 내용, 둘째, 세계화의 대상, 셋째, 세계화의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세계화의 내용은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 보편적 가치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할 것인가로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이 대상이다.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행 주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세계화 내용에 따른 전략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적 가치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on-off) 제작(다언어)과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세 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 제작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8건의 세계기록유산 모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제작 또는 확대: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곳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이다. 단순한 개요와 사진 제공을 벗어나 각 기록물별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가 설명하여 외국인들이 기록물의 가치를

15) 김형민, 위의 논문, 268~270쪽.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술자료의 인식 확대를 위한 대중화 작업: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다. 기록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 소장 국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록물 자체의 학문적 의미보다는 기록물이 가지는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기준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전례 없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조선 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¹⁶⁾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화, 평등, 인권 등의 가치이다.

둘째,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이다. 인터넷 검색은 이제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이용하는 필수 도구이다. 검색 결과 값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가에 따라 정보의 확산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위키피디아와 브리태니커 내의 관련 항목을 검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키피디아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항목을 만들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항목의 내용 유무와 정합성, 카테고리 구성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위키피디아 작업에는 한국어 기술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외국어의 경우 오류 수정 및 내용을 보완한다. 언어별 위키피디아 내용의 동질성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텍스트 기반의 웹 사이트 구축 이외에 동영상 콘텐츠를 구축한다. 유튜브 내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영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축한다.

16)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7~149쪽.

셋째,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이다. 학문적 특성이 강한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사적 가치 공유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의 지속적 개최하여 전문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학술회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외 연구 확산과 보편적 가치, 국제 비교 등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근현대민주주의 관련 혁명 주도 도시(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의 공유와 공감을 구축해 나간다.

2. 세계화 대상에 따른 전략

세계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국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증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연구자, 학습자나 홍보의 주체(기관)를 대상으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외 한국 연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현재 국외 대학 한국학 현황을 보면 2023년 107개국 1,408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하고 있다. 이 중 551개 대학이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857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양어학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¹⁷⁾ 교양교육의 경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도서를 제작 배포하며, 한국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강의를 위해 국외대학 한국학(역사) 교수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한국학과 개설 대학 학과와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551개 대학 도서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도서를 보급한다.

둘째,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대상이다. 재외 한국인을 위해

17)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다음으로 친한국 외국인을 위해 한국 소개 웹사이트 정보를 구축, 제공한다. 한국 홍보 사이트로 Koreanet, Study Korean, Visit Korea, 재외교육기관포털(OKEP) 등이 있다. 이들 누리집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알리는 카테고리를 구축한다. 끝으로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해당 프로그램에 기록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협력한다.

셋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기관 협력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에 자료를 보급한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30개국에서 35개 문화원이 운영 중이며, 세종학당은 85개국에 248개소가 있다¹⁸⁾. 또한 해외 박물관 내 한국관 운영 박물관 전시를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지원사업’으로 2024년 9개국 21개관을 지원하고 있다.¹⁹⁾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물을 포함 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해외특별전을 개최하거나 주요 기록물의 복본을 제작 한국관에서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세계화 주체에 따른 전략

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

18) 한국문화원(kccuk.org.uk) 「전 세계 한국문화원 현황」; 국제문화홍보정책실(www.kocis.go.kr)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세계 곳곳 세종학당」.

19)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2023.10.12.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진 계획(2024-2027)”을 발표²⁰⁾하였다.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전략

이 계획은 국민과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콘셉트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위키피디아,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외신·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한민국 홍보의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위키피디아 등 주요 웹사이트 내 한국 정보 유통 현황

20)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4.

을 조사하여 누락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 경로별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 관리하며, 소셜미디어의 한국홍보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홍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홍보 추진 계획은 한국 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중심과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웹사이트의 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 부처는 국가유산청이다.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등재 목록을 사전에 점검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와 활용에 관한 총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구축되어 있다. 각 유산별 신청절차, 개괄적인 내용과 유산별 소개가 제공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 2개 항목(외국어의 경우 한국세계기록유산만 소개) 각 기록유산 내 기록 개요와 4종의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기록유산별 소개는 신청서 내 개요 부분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등재신청서 전문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장 기관별 사이트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국가유산포털에서는 개요, 세계사적 가치, 소장기관, 열람 방법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확충한다.

또한 세계기록유산별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중 기록물 전체를 이미지와 번역문(한글)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지

만 외국어로 서비스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영문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기록성격, 수량 등을 고려 통합 제작)한다. 도록은 E-Book으로 국가유산포털에 탑재하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을 복본²¹⁾으로 제작하여 해외 박물관 등에 제공하여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세계기록유산 신청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및 활용 위원회'와 같은 기관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기관협의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관리와 국내외 확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의 관리 실태와 외국어 소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교육 및 연구 추진 계획, 홍보 등 대중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전국화, 세계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DB를 구축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사이트를 단계별로 구축 구축하며, 주요 동학농민혁명기록 외국어 번역 추진한다. 기록물 전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소개할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무장포고문, 폐정개혁안, 전봉준공초, 사발통문 등)을 선별하여 외국어로 번역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대중서

21) 복본은 전시를 위해 일부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기록유산 중 기록물 전체가 복본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왕조실록』뿐이다(홍성덕,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수호」, 『전라도천년사 19, 조선 후기 4 조선시대 전라도의 문학과 출판문화』,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2022.12.30. 285쪽).

를 제작(외국어)하고 위키피디아 항목 구축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현재 사료아카이브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사료 아카이브 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185건의 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DB구축은 한국어의 경우 역사적 전문성을 포함해야 하고, 외국어 내용은 한국어 설명의 번역이 아닌 외국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기술한다.

한편 기록물 이외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외국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과 설치된 기념물(기념비, 사당 등)등에 대한 현황 소개도 필요하며, 기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학, 예술작품과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설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세계화는 인식 확대와 가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계별 절차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확대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수반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정보의 소개 이외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소개는 유네스코(영어, 프랑스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영어), 국가유산청(영어, 중국어, 일어)에 불과하다. 구글 내 ‘Archives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의 검색 결과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외 한국 관련 홍보 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뉴스 기사만 도출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위키에서 22개 언어로 소개되고 있으나 언어별로 내용의 편차가 크고, 오류와 왜곡, 내용의

편향된 사례도 있다.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에서는 ‘Donghak Uprising’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서술 내용이 천도교 중심이며, 청일전쟁의 발발 요인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외국어로 제작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련 자료와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에 관한 학술 정보들에 대한 현황(JSTOR, Google Scholar 등) 및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 학술 정보의 세계화 전략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하며,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 추진은 먼저 국내에 알리는 일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없기 때문이다. 홍보책자, 도록 제작이나 DB구축 등이 온-오프 라인에서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화 내용(무엇을 세계화 할 것인가), 대상(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를 추진할 것인가), 주체(누가 실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투고일 : 2024. 10. 7.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단행본>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논문>

김형민, 2011,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59~275쪽.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17~337쪽.

홍성덕, 2022,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수호」, 『조선시대 전라도의 문학과 출판문화』 전라도천년사19, 조선후기4,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기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국제문화홍보정책실(<https://www.kocis.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s://www.1894.or.kr>)

세종학당재단(<https://www.ksif.or.kr>)

영문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https://www.unesco.org>)

코리아원도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cyTKwEF3To> &t=40s)

일본 위키피디아(<https://jp.wikipedia.org>)

한국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한국문화원(<https://kccuk.org.uk>)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1825호, 20024.10.5.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2023.10.12.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인터넷으로 죽었다… 인터넷으로 부활」, 『조선일보』, 2013.4.27.

〈Abstract〉

Strategies for Globalizing of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ng, Seongduk*

Unlike World Heritage Sites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inherently limited in terms of promoting and utilizing the heritage itself. Documentary Heritage is an independent programme from the World Heritage, which is not managed or utilized under the UNESCO 1972 Convention.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ources, such as books or websites introduc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discussing globalization strategies may be somewhat prem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a comprehensive plan on how to manage and util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as a World Heritage Site. Before advancing the development of this comprehensive plan, an initial step could involve building information on global platforms like Wikipedia. Unlike traditional books or websites, wikis allow for easy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an offer multilingual versions through transla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correct any errors and distortions regar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in the wiki.

There should be efforts to build information for globalization based

* Jeonju University, Professor

on its content, target, and stakeholder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o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Korean Studies researchers. Collaboration with initiative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sough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Key word : Memory of World,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kipedia, Globalization

▣ 자료소개 ▣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

이병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김희태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

이병규*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은 풍암 이병춘(李炳春)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 말미에 포덕(布德) 56년(1915)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 작업을 시작해서 1915년 완성했다고 보여진다. 이 자료는 이병춘이 구술하고 그의 문하생인 김재홍이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고 있다. 자료명을 이풍암공신행록이라고 붙인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료는 총 1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인 이길호(천도교 전주교구장)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공하여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병춘은 1864년 2월 전라도 임실 상동면 효촌(왕방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1888년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2년 12월에 대정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1894년에는 접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894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어렵게 탈출하여 피신활동을 이어 나갔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는 천도교에서 천도교 전주 대교구장, 성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고, 1919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이후에는 종법사, 법정 등 주로 천도교의 고위 직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3년 6월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천도교 중앙 교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전국에서 조문이 이어져 만장행렬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이풍암공실행록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불과 17년이 지난 후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이병춘이 구술하고 문하생인 김재홍이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불분명했던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다. 1893년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전봉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분명하였다. 이에 대해 ‘四月에 更會于忠淸道報恩郡帳內하야 始設倡義所하니 其時에 古阜郡全瑋準은 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 고 하여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했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조신원운동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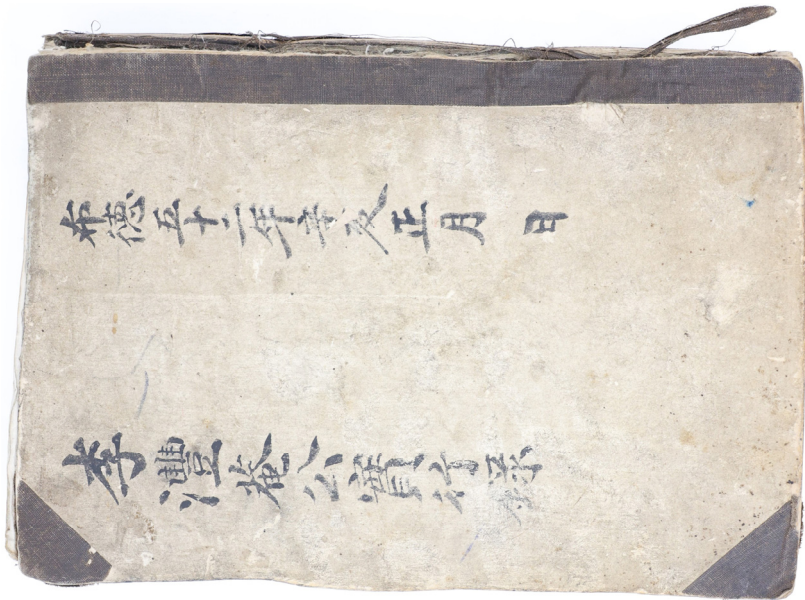
둘째, 동학교도가 입도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접주로 임명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병춘이 어떻게 동학을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접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춘은 최시형을 만나러 올라가던 중 1894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었다가 겨우 탈출하여 피신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 나갔는지 매우 상세하게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농민군이 어떤 처지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넷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894년 최시형의 활동 일자와 장소를 알 수 있다. 1894년 10월 ‘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라고 하여 최시형이 이곳에서 머물렀음이 확인된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시형의 이동에 직간접으로 이병춘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병춘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도 최시형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풍암공신행록의 가장 큰 사료적 가치는 동학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참여한 이병춘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주력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이 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影印本]



春職帖年月日記

壬辰二月日大正
 二月日中正 魚教授
 十月日接回
 癸巳三月日接王
 甲午七月日 女接王
 又 大接王
 丁酉三月日 別部 執
 二月日 首接王
 庚子七月日 大接王
 壬寅三月日 金龜道大接王

李燧卷公賢行錄

李炳春字明運字立本 全州人 諱敬華之
 孫 諱戰 洪之第四子也 外號 天安 全氏曰天性
 端莊 貞一 慈仁 恭儉 亦有慈德 外寓居于 賢
 郡上東面 旺方里 聖列五鳳山 引峰出 外自落子
 蒙中而 萃出 引飛 抱於懷中 引曰 遂感而生 賜名
 布德 五年甲子二月二日申時也 外幼而岐嶷 非如老
 成人 辛丑 天稟 引孝友 辛丑 氣宇 外豁達 亦有 泣愛 容
 貌之德 引家勢 外饒 足者 門闈 外繁昌矣 引年甫
 五歲 引父親 引下世 引其後 諸兄 引亦皆 早大而 產

甲子

策引亦裹耗予外困甚莫甚言以此所謂天引將降大
 任於斯人也引必先窮餓其心志言引勞苦其筋骨言
 引拂亂其耶為言引動心忍性言引增益其耶不能
 然後引降之福耶外
 己巳八月的母親令氏引偶然得病言引呻吟數月的引
 蘇引無效故互性問于醫官師言引曰最利者鱉當引云
 引然引以時方隆冬引壘積山頭言引引堅水腹言引不
 可救得而病勢引沉重言引水難以回轉言引筋天之痛引
 極地之來引何以漸弛乎外上有一兒言引引下有一兒言
 水朝夕引相慰而已引外

庚午年正月引母親引命之曰省引靈宗引靈中引得箇言
 外以療親濟引外吾引得死病言引引求醫不得言引吾
 死亡不是悲也互引汝之幼穉言引乘而歸于黃泉引引當能
 顧目耶外言引引涕流如水引引聞而悲不自勝言引母子
 相扶而痛哭互引穿胸龍是引最幼故互不知其言言引悲言
 引飲乳而已引於是日引又往醫家言引問其方藥言引曰
 葦葉木引引引是藥而用之言引或可有效矣言引引手執
 短鎌言引入于村後山登言引引靈運水屋引莫知耶向外行
 立者天引吾親引悲候引使得靈藥言引期於回春言引引存言
 引得數葉引絕引潤之下引有葦葉木引引是綠葉伐之外引是

引潛跌者即墜于水醒中言曰亦來之群引如雷許驚焉
 中州呼天大哭言曰有一長魚亦自水孔出來時是鑽空
 揮而跡之引外投諸岸上言曰其大如椽引外遂喜而憤
 於柳條引外棄其蓍草不引外持魚而求引外獻于母親
 言曰吾甚幸由引外母親引亦喜曰吾之平生引外不食魚肉
 引外然引外感何有利於病也引外勿烹之引外爨之引外引
 引外爨而進之引外自後引外病勢引外漸引外有瘳而村中長老之
 人引外語曰汝之善心引外真王祥之衛也引外豈真美於古耶
 引外言曰稱賞不已引外引外

丙子

春德十七年丙子二月晦日引外以敎誥次引外移居于長水郡天

川高博谷里瓦引外皇天引外降災言曰早既不甚言曰耶農引
 全空引外僅引外者與生矣引外翌年三月四日引外仲兄引外又早
 世引外母親引外哀痛之中引外心火成疾引外飲食引外專廢
 而以犯為限引外引外言萬般慰勞引外引外終引外不聽引外引外漸引外有
 疾去席引外不省人事引外引外然引外引外四顧無親引外引外又無
 儲蓄引外引外將何引外以奉母救病乎引外京燭龍引外年纔十一歲
 引外不知世情引外引外母親引外七年老無病引外引外其息引外登引外引外
 引外因涯之痛引外無慈窮引外之恨引外對誰而引外言之引外向誰乞憐引外引外
 引外恩之引外引外至誠引外感神引外引外引外以誠禱天引外引外豈無感應
 之理哉引外村後引外有一靈泉引外引外每年天旱則耶好引外未

而刺橋之處也外即日州與岸觸龍之互回往言水修泉而
 築冊立奉清水而白拜祝願曰皇天主活我母親壽
 永終天壽刊言士何予五祝畢外又汲清水一器而歸
 言水直于園中言五至誠皆失外謂以如是者數十日
 與弟互同姓泉修言水奉水祝天望外非夢間則有
 一停鶴髮老人外未謂曰汝之親患外勿藥自效
 矣外勿憂焉外言五因忽不見外以是即起言水石
 拜謝之言五穿穿而歸後言以夜已深矣外引
 翌日州村人外未言曰來野性予惟何作米飲言水用之
 則有款矣外引言五遂傾囊視之言以只有錢十八葉

而已外告于母親言五買住次互至半月里村前言以時
 天外大雨雲言水溪水漲溢而沈溢于野言水幾不能渡
 外冒死入水言水艱辛甚涉而問于村中人言以路曰無
 從外言以遂致聲呼哭言以隣里之人外聞之互
 憐而悲之言水手持控丁火針而未言水鐵而受之則
 以錢互報償言以皆不獲曰吾哀汝之情仗而授之互
 望償于外歸養母親言以言以遂致謝百拜言五還
 至溪邊言水裸體而入水言以波濤甚大言五涉石甚
 滑外未至中流言水足一蹶而沒於水中言以於其生
 言國不同如此外時沉時浮言水至數武而艱幸登

虎子衣裳之重付於馮康之信言且耶持挂簾且猶在
 於手中之言心遂孝焉孝非赤身而歸孝第婦龍司
 侍子對前外外見而涕泣曰何以脫衣字外字可也對
 曰為來耶嗚呼外歲至持死於然外之所孝為野莊之義
 外在手月外字且同外歸家而省親外有奉齋之志司
 外子號而萬頃外司終無應答外以心遂惶惻外水抱
 外而無數哀痛外食頃外自喉中有聲曰吾甚飢
 如此外字外遂即磨莊作粥外納于口中外引漸
 有回甦之象也外奉母治病至誠為事外其年
 四月二十八日外村中長老外列坐外呼集村中小兒十

餘人而言之汝輩且孝於其親言如李其言外李其言
 母親病患外至誠禱天外使之外春刑外其孝子也
 外外特以飲食之豆賞賜外言持而歸外外獻于母
 親外其後二日外母親外召而語之曰汝之祖父外世居
 于公州榆城市內書院洞後東岳洞外外而外有五外司
 外外不孝以問疾外祖父下世後外一日之內外傳其
 二子故外祖母慶州金氏外自發行外外盡棄外產外且
 平二子而居于塢山影檝山里外其後外又移于淳昌郡
 阿東面某地外其外祖母金氏棄世後外又移于任賢外
 郡上東面孝子村前新基外此地古名外云可洛萬人

之地也故予遂定居焉予外生涇之先序矣記曰其後
 移于長水郡西面東谷側倉村外即外族門不幸予外
 汝之父親引棄世後則伯父與予父繼而終世予又
 移本郡天川面憐室里予外庭新基成造而與居外外
 汝之仲兄引早夭而又逢文流之年予外生涇亡自然滿
 身也外不可不累于東高地舊居之廢予以此語謂外詳
 身也外予引恨嘆不已予引外
 其年五月二日別生涇下末由五母病室初予引難以
 保存故引棄其家產存立死食改引負母推外存立不
 日登程予外于長水邑外引時值農隙留外水後引外殷

引外路邊農夫數十人引鑿于南引外三月歸各引徑而左
 其私情引引農軍引聞而憐之各引及銀飯引外引進于慈
 親予引又登程予外至龍頭打水外夕飯外不得買進外
 又不得價屋引外一夜引徑過於空幕各引翌日引到尺風酒
 店外引訪張玉開外引其人之則舊日舍音也引欲以黃居
 滿引外引事多不合外引母親甚外引又重外引不可接外
 故引一夜引總經外引翌日引又發行引外引請飯於此村
 而三母子餓引後則親猶尚未快蘇外引其隊引竟驟故引
 或負或扶而行外引望見尺風外引山勢引岿然如天外
 終日登程引不過數里而引又暮矣外引西顧引無村陰引可

寄病之廢予山山地地高高而而夜夜甚甚深深予予難難以以尋尋路路引引依
 於於路路傍傍巨巨巖巖之之下下予予外外三三母母予予相相扶扶而而徑徑夜夜誓誓引引初初月
 名名掛掛峯峯予予山山鳥鳥啼啼血血予予悲悲恻恻亦亦自自煎煎而而生生予予外外不不可
 禁禁止止引引然然引引心心恐恐傷傷母母親親之之心心拜拜飲飲泣泣引引誰誰與
 論論收收引引足足艱艱予予徑徑夕夕矣矣引引親親假假予予本本不不平平中中別別學學行
 露露予予外外身身有有浮浮氣氣而而足足重重予予寸寸步步引引極極難難引引故
 引引負負母母率率予予引引進進至至南南大大聖聖里里予予引引即即發發行行之之第第四四日
 引引外外問問於於村村人人引引外外請請溫溫室室引引指指導導一一室室舍舍引引毛毛可可登
 山山拾拾荆荆薪薪而而來來引引外外煮煮其其房房而而發發馮馮予予引引借借飯飯於於村村人
 而而經經一一夜夜引引外外親親候候予予火火手手後後引引外外明日明日又又行行引引外外至至西

庚辰

面面東東萬萬地地引引外外比比處處引引外外即即前前日日所所居居之之地地引引外外去去年年引引外外移
 為為時時即即在在家家坐坐引引外外毀毀破破無無銜銜予予引引外外經經高高村村謀謀志志蕭蕭條條引引外
 無無如如前前日日矣矣引引外外請請張張簾簾掃掃地地引引外外即即甚甚日日隣隣居居相相善善之之婦
 人人也也引引外外請請以以前前席席予予引引外外安安如如吾吾欲欲引引外外奉奉安安其其母母親親引引外
 晝晝則則與與弟弟引引外外勤勤勞勞幹幹事事引引外外夜夜則則捆捆屨屨為為業業引引外外以以養
 母母親親引引外外如如子子路路之之負負米米引引外外有有叔叔水水之之歡歡引引外外
 德德二十二十年年庚庚辰辰引引外外即即十七十七歲歲時時也也引引外外三月三月三日三日引引外外本本面面鄉鄉約
 觀觀堂堂修修於於東東高高地地引引外外元元來來鄉鄉約約者者引引外外立立紀紀綱綱正正風風俗俗
 引引外外立立彰彰善善懲懲惡惡之之所所也也引引外外高高尚尚長長老老引引外外亦亦齊齊會會引引外外立立請請之之所所之
 遂遂往往拜拜號號引引外外父父老老引引外外進進果果食食丹丹珍珍弟弟引引外外外外大大卓卓而而授授之之曰

以進薄卷兮彰汝孝誠也以受而食之兮吾廿三而拜
 辭讓差引長老下勸之不已故吾歸遺母親為言吾引
 滿座諸人外尤贊之曰性哉外若也以勝於古人懷襦兮
 引吾立又以珍羞盛饌立吾獻于汝之母親吾引汝嘗勿
 慮而談之吾引吾立即起拜吾奉其飲食于長老之前
 吾引各下勸進一盃而後則歸飲已其後則使人兮送
 飲食兮言進之于母親兮外

六月七日本郡守繼謀下訪次于本里陸座吾有欲兮外建
 人請來外即往拜見兮引本傳曰汝之事親至誠外
 予聞而欽羨吾外欲彰汝之孝吾外以教百姓外

吾以手立撫首而贊之不已引又以珍羞茶果吾負
 之吾立又出袖中扇于一柄吾外賜之引起拜而跪曰如
 吾無孝之人吾引贊之賞之吾引還自不安吾外引本
 傳曰嘉乃汝吾外吾立顧謂陸座首曰此兒吾立大聖引
 善為手談焉吾外吾立不得已吾外受賜而歸吾外獻于
 天吾立吾立再引本傳之言吾立吾立告之吾引母親曰引還思汝
 之父親吾引尤極悲感也吾引外

癸未

布德于四年癸未二月二十歲時也引正月二十四日聘于
 南寧郡迴果坊義村引居呂琪成之第三女吾引年甫十
 四歲則儀貌端莊吾立德性純淨吾外性養老母吾外甘

丙辰

旨言必誠字以鄉里亦稱之字以可
 乙酉年十月例移居于江寧郡上東面旺方里字水治產全勸
 廣字以旅勢饒是字以可
 丙戌年十月二十二日例母親以偶然有不平之氣字數日
 坐麥席引引下天孝立立勿慙而愈字以可
 布德字八年丁亥正月一日夜例母親病患引身發字六
 百般救藥治之至引一無欲差引引至初六日夜字水靈
 至預命故引驚惶中所以刀引引刺左手無名指字水注血
 于母親口中引引無效引引又以推引引殿右手無名指字
 水注血于口中引引數食頃引引回甦字六竟然如前日晏然

戊子

之時引引皆三日後引引未為終天字引引因極之痛引引天欲
 簡而地欲裂也引引哭泣之哀外毀瘠之極引引至投過度
 引引然引引不即隨死字引引以成禮為念字水猶于家中引引
 下三月後例權坐于本郡上東面朝時引引右膝跪字工時引引
 辰至則號哭于墓下字引引草亦不生字拜跪之廣引引
 戊子年二月十日巳卯先考之忌辰也引引其時引引連戚之
 人引引來字引引言曰吾里亡有異常之道字引引今不聞古
 不聞之事字引引今不比古不比之法也引引男女引引齋戒字引引
 晝夜引引奉井華水而求福引引字引引之間而啟善字引引
 是引引引直往質玉田面烏項里字引引問其道之禮引引許

意初則講之則是以實情之互請之意可以互知
 止歇二篇互示之公是潛心玩味字口乃無抑三遍也
 外史請之志言教之道言口不得已者外許之則
 錢文春云兩三友是出外使人互達于為潭市
 字非買茶而歸字口即二月十二日也即是夜則沐
 浴齋戒字口致誠入教于年句于嚴禁內有諸話之
 道言互外有接靈之象也引錄發後則不意於尋去亡
 地與明堂之事字口專以作煉性之互為真工可引
 且以布德之意互遍行別邑雖句以仙符召治病則石
 無不中字口三四期內則布教亦至於二十餘邑字口

甲申

人口互至數千餘人引其後則歸家者亦漸然以
 道通為意理引此行陰德之最上引字口互書則折筆
 字亦暗飛于窮不能勤農者之當不問早則灌漑他
 人之畜而不灌於自己之求字口飛則擁護字口給其
 行路既足者字口其他為人謀慮之心叫交人之信言通
 且衆人之所不及也引如此數月則隣里之人可悉以孝
 屬之為號矣引其後則恍然有覺道之意字口撰
 脫世間紛擾之事字口互克念致誠之端字口外與妻白氏
 外家獨龍互約曰從今以後三吾永不為言字口家
 事字口此字口字口互入字後圖別堂字口甚重夜祝天

告御聖外三年言不火食言曰三年言不卧挑言曰三年
言不言語言且煉修來道言下其後別始與村人對言
言下人外言云啞者能言矣言下言下言

辛卯

言卯八月別海月先生主刊何以巡接次言行次于恭仁
別洞谷外外言拜謁言立問道之真理言司教以守心
正象外天人相~~合~~之際外言銘珮而歸言下

壬辰

布德言三年壬辰名即二十九歲時也言二月別設齋
耶言立四十九日致誠之命令言自法衙下來故立界內
後園別設位言早言言如命行之言其後別又設齋
耶言言百日言致誠言引心成不妄故言危則至于言災

谷草彌遊言外言試驗而破其疑惑言言又畫則至于
水市場郊會之地言外收斂其散亂之心言言百日言
了畢焉言言又其後別祈禱于近處名山淨樂之處
言外長水郡八公山上峰言三七日言過言言其後別本
郡五鳳山上峰言言清水器言水二枚言得言出六七
寸言言金患言外東見之稱贊不已言言又其後別
登鎮安郡仙覺山土窟言言羅柏春言承言言因
行言外三七日祈禱言言言言任贊郡聖壽山別與言全
良言言三七日言致誠言言以屬濟蒼生布德天下之
意言刻於桃顯言言始終言如一言言其言十二年

癸巳

列又承大正之位帖云即先生至親命之教也引
 癸巳年二月十日所以大神御王仲覽之意臣全國教人
 引一齋奉會于京城寺外齊摩沐云五百員大典與撤嗣而
 百拜上照于北關下北門外望外痛哭六七日引不承
 柳俞之旨云王使司請其言遂出教臣即為解救矣臣
 引四月引更會于忠清道報恩郡帳內云亦始設信義
 耶云引其時引古阜郡金璠準云亦會于金羅道金華
 郡院坪外引未應者殆近數萬人引王法令引嚴正云
 一心成團矣引其時引御史魚允中引奉詔命來曰汝
 等之耶類云量量彼之引即為解救云云引之終不

聽云漸之成團云引魚允中引遷入京城云非以教徒趨
 旨云上達于北關京司聖上何侍階綸音曰此亦此吾之
 赤方也引見其入水火而胡忍不救遂于外朕引當行
 開牙各道別邑云外使之保護云外安堵樂禁刊引司
 引各為解救云引云允九音云獻送于玉華亭云引此是
 朕之所乘車也引汝等引如見朕顏而勿慮歸歎云引
 引引是歸家之時引海自先生引引親下辟明之詔曰
 明年引必有紛亂之非矣引引汝須深刻云水慎之可也引
 引引引云銘心而未云外入于住宮郡上東面上耳後後
 石門洞云外三七日云致識云引又於八月二十日引家內

後園別墅別設池而七：日臺神欄聖勺與紫烟龍立三
 約曰片善致識則若不通通則吾當不出世矣凡以雖死
 亦立不朽則不埋焉予計其以一甕飯一鍾子油居之序
 鎖之吾不卧不寐而惟煉其以一鍾油外遠七：夜而
 有餘一甕飯引過二七日而不飢引其丁畢之日引忽
 然頓忘肉身之有燕其五獨行數十里許其水入山谷三
 中予引有一飢人引偃卧如死引其哀而憐之其水買餅
 二箇而與之其引又行數里其引其別有世與也引朱樓閣
 閣引櫛比其引鐵網引蔽而網孔引多懸釣其引鈎
 有罪之人其引牙地引有鐵道其引門下引有僧其引水

見我虞之引有罪宜犯之人其引當解赦之其引亦罪也引
 其引無數額雖引亦僅以得免其引入門內其引樓上引金
 冠老人引濟之引坐其引請命引其引以人事之善
 恩引福喜禍淫之天道之正理也引雖一分錢引引非
 理取之引厥罪其信引汝即銘念焉其引其引拜謝
 其引歸路引母親引待我于門外引賜以一杯酒引其引
 拜而後之引盃中引有一香子其引飲而歸其引身在空
 堂其引如養禪之人也引翌日引夜引大神斷引何抱二鳳
 而來其引授之引放于場中其引其引知其詔放之其引
 須臾間引數之萬鳳雛下盪于場中引大神斷觀執余

甲午

予而崇仁序曰解以序之義者非以為平生之符者乎予
 曰是意心驚者乎非夢似夢也曰予
 布德二十五年中于正月州主事郭居者亡全珍非司以民
 獲領者起起關以是恐與其亂者水三南道人之名符簡之
 修整者外名曰三義錄曰予以從其昨午海月先生主
 分付內州有德包法包之設故且更修之二卷者水一卷之上
 予法所立一卷之踏法師三圖亭者水豈直于吾家之意
 也其簡則接冠之任惟自法樹下來的言百拜謝恩者外
 三月二十九日州與大神師之從孫崔聖明司姜一會二人
 是日同行者至全州府者以京軍數千名代官軍民亂次

五城內州何錄習曰是四月日列縣具昌格而把體級數千
 張而王本郡備崇者水處者互曉頭則興來訪具昌根則無
 矣介故是即時發程者水向齊見別添月先生至宛至外路
 上州行非夢問則全軍納龍以鈞立揮而遮路曰勿去予
 曰予且其後外伏兵數千名司散野而來則呼姜崔兩
 人而言其後事者欲避者言曰兩人曰春漫是邪受司
 多可盡信者外言且勸同行者外言不得已隨之者水至二十
 里許於酒庭外見以店主人曰勿去者司者則三問其理
 許者司答曰數日則州都山都頭司殺無罪道人四名故
 是昨日來是道人數千名公會集者水燒負商人之家予

呂來下瑞山邑言水潤馬言錦山龍潭兩邑軍卒數萬
 人外接戰以呂設軍號言五逐來言以賴生向至其言勿
 去言已經一夜則可知其真偽勝負矣言以待其乾淨
 後州去言外言印姜推兩人外不聽言且固請去言心內
 州有不平之氣言不得獨隨去言非隨言亦至瑞山邑言以
 果然道人數言名外會集外外入于會所言外合舟道
 人柳在馬外言其能知面之人言不可勝紀也外一
 夜同宿言外翌日曉顯州三人外發行言水至瑞山郡富財
 歲酒店言外時天言亦大雨外朝飯後州至國只外言錦山
 龍潭兩郡外言外合勢言外討伐瑞山邑耶會道人外言行

軍外外路上外見言三人言外一時外使李言捕擄言水搜
 探行裝言外念珠一件外言戒錄名簿二卷外華錢五千
 絲兩外在馬外外乃曰此是東學觀首也外言外無數毆打
 言外拘束兩暨于酒廳前樹林言外使村人外言奪之曰此人
 外破瑞山後歸路外殺之言外外言外一齊去矣言外會外
 瑞山邑外外飛聲外大起言外撤天動地言外山崩海沸外言
 耶暨三人外言天相歎曰無罪道人言外貪官活吏之輩外
 如是殺之言外其誰怨在外言外外以火馬外外外言外
 外又生捕六人外來曰今番外殺道人外一千七百八十六人
 外外言外出三人外外坐于陣前外外號軍外四面環攻外

外法第跪殺引弓引龍軍引花披秀柳卷引外立於陣前
 引弓以跪互屬于胸臆誰引時引火繩引自落於流水引
 外自滅引又挂火引引火又不起引如此燈師之時引何
 人外大呼曰中軍將引引此罪人之姑為勿殺引引問其某
 生在處然後殺之引引引引入錦山也引引引引龍軍引一
 時引馳去引引五里十里許引一二次或坐于陣中引引引引
 手引擊鏡付曾而如致殺之假引外使之傷者引引引引罪曰
 汝等之造化引無窮引引引引何不用造化耶引外或為或戰引
 引外而拍之引外至于五里亭引引龍潭引引引引引引引引
 而未迎引引引陣引引合勢引外鼓用之聲引引震動天地引

引軍令之嚴引如朝堂引引使軍人引引以推符之望引引李
 炳春引引頸破股折引引外引引如注引引全身引引引紅引外
 如衣錦懷引引引縛九人引引九死求生引引引引又以絞索引
 引係頸引引引引引引如運水破之木柱引引之石也引引
 至急危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暗之中引引心苦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打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勸其精神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環立互以椎互拍其面是乎山折脚之辭引如蛇聲引
 獨者炳春名初破顯骨字外全身引統赤引視之虎惻
 引外故言相不及身而戲之曰徹獨正長外引明日則當一員委引
 字立處引豈更為制精字且生天生師引非高向所有
 傳友外未字外負布于於背而上而撫之曰勿慮三引
 字立處引望視之乎山引何續未六人外吾三人外先在
 獄中四人合十三人外路馬絕引獨炳春引備有精神引
 時心告引引皇天引震怒引雷殷電翻引風雨大作
 字水不可斂神矣引火馬引西齊風息引晴夜將半
 外一隊羅乎引恐鳴而未字權之杖三引又不及登

身引豈遠心祝無數道人全救而生活引字何字外
 翌日自四月三日引外眩頭引四面砲聲引如雷引半字
 數十人引未字外購鎖腔核字又以紅唐縞引編之字引
 如柳枝魚貫引計十三人引與出市場字互軍卒數萬名引
 白旗引設白布帳字如雲之蔽天引上壓引驕令
 引如霜引左右羅乎引數匝別立字且使令引出來字外
 道人言次投上字外擗問教罪引雀聖明引在共曳
 中引問招後引選查道人引邊字引炮聲四起字外一
 齊放砲引火起焚衣字外為火中孤魂引引遂守心正
 集字外無教苦天而已引其次引養聖瑞引投去字外

人心之憂邊何其如是之速哉至既抵之後三人皆欲殺
 為心外仆乘在川邊則人皆憐而悲之幸無刀天之所
 感而然歎外包有四五人引員而渡水幸其時軍令教
 萬引見而悲恨幸水擁衛四面引如我之親戚也引計恐
 上腰折不起幸耳吳傷不其幸水匍匐而行幸水如小兒之
 賤行幸引有一人引哀其殘命幸水呼孫輩主人曰此人
 幸直于溫室幸水以酒食治癒則費用名雖養許引且我
 當養矣引幸銀五十兩幸出後幸引主人引許之所是肉心
 引此地之凶地引不可須臾在也引幸水以言幸百千謝
 之幸引賤行幸引恰如病蚊引有一老引米飲一引引勸

之引此人活歸之幸天之感引可幸引扶而悲泣不已引之引致續
 幸引又行至下市場幸引三女老人引扶而階渡引人命引在
 天引計幸引以此陣中活者之真天佑神助也引幸引米飲一引
 幸勸而飲之引累日飢餓引如彼亂傷引不忍引餽引幸引
 哀之不已引幸百之謝恩引幸引又賤行至川邊幸引有一人引員
 而渡水引曰若度幸處引必死引幸引至水站幸引以此飲之
 幸軍報之廢也引眾人引見而悲之幸水或以飯饋之幸引
 或以火燻之幸引或以草覆之引而己引有一老引來見
 曰此人引脫於陣中引幸若不差治癒引命當必死幸引引
 汝幸引員來于吾家幸引幸引人引員而至于老引之飲

各房則卑地立又有新行于婦許然句以觀之如親戚
 亦水謀向居住與姓在名且憐之哀之句云安過其夜句云
 夫可且勸之曰不謀月日句云待其食蘇亦水歸去亦句
 口云心厭鄰山之地亦不問主人之姓名字而發亦水
 腹行亦句老人外呼養為二人亦水員送數里許亦句云之曰
 錦山是使五兄弟亦水東學司司以四兄弟昨日州地報
 亦五季弟一人七能去龍潭故云蛇犀五十餘名司捕投亦
 亦而不認亦句以腹去披踏亦司亦句仔細指示而亦句云亦
 謝之亦句壁之膝坐亦行亦水至于一村前亦句有一軍亦
 外枝大鎗亦句且見而責之曰昨日必死之人句又回邑中亦句

亦亦以鎗云刺拋之是哀乞而問踏亦句曰汝若生則向
 彼路而去亦句亦句云至天危之下依崖理風亦龍潭
 亦亦一齊過亦句呈並藏身亦亦下亦亦依之記亦須皮
 則亦亦天亦自念心中何似若認入村中亦亦見鎗亦而
 匿障亦亦天助也亦亦直來回必逢大軍亦亦不免斷殺
 亦亦亦亦之腹行亦句道路行人亦無不驚惶亦亦無不
 哀憐矣亦句或以飯饗之亦句或以醫水飲之亦句天師感
 化之地州人就不慈善哉亦句亦亦天亦師亦亦誦吧不已亦
 亦集力漸之回生亦句其後亦句聞之亦句錦山民色大將亦
 持亦善錄二卷亦句亦至金州觀察府亦亦餘之日此亦亦

名簿以筒之投而殺之字字付其時觀察金文鑑引曰若
 畫殺比中人所吃金羅道三字字外字五遊殺其蘇蘇著
 言似不似可
 思自是村之食字五至任德貞即 旺秀望本家字以其詩
 引指目引亦大起之小員商頭目鄧其高引其集數十
 名者外畫夜是獲亂村中而弟炳龍引先被投於園商字
 外傷敗至於死境而卧引亦見我之形像五立心神引无驚
 惻引亦傷毒引大發字以不可救矣外遂行天驚息曰君
 家之禍厄外如是其酷耶外兄是幾死於錦山邑字五宗
 之見傷於本邑負商字外死生字未判字以悲悼之懷三

何何形字外然引各處頭領引多會引亦見我之
 形俗之立大擄引外之甚夜州入于深谷字亦畫十餘札
 引水暗勝村中婦人字外稱以女商字五通字可于各處字
 以其時未會之入亡孝亦最金良之金良元全忠實籍相
 春其語外引僅之隨身于山中卒外夜行甚隱引引其
 月十五日引弟炳龍引承終于世外之痛哭呼天字引日月
 引無光字五山水嗚咽引即欲隨死之然引幼穉佳兒
 引托于何人引四不返兵之能言誰能報之耶外曰恩德想
 字引不知生在外亦遂見恩道之日引外字五收斂心神外
 如棄性之人引引

村中人林永澤嚴成三言外往舊潭市者小時州天外天
 兩巫引外着他莊而去引外數萬名軍人見兩人言立
 頑頑無數者引兩人引惶惴言外以直言告之言引傷
 有非鳥大將一負引更問其真偽言立遂分付曰軍人
 言皆送之于北軍面著地言外留歸馬言外言與探知
 者兩人言互同行言外至鳥須里言外乃善養養係其莊
 也外海月先生引見而喜之言外和自相喜言外其莊
 善養莊先生言海月先生言外互同行到北軍言外言言
 城道人數萬言外即回養莊著地言外言言引
 二十日別拜海月神師言外歸家言外曉願創起壁而念天

念師言外誦呪而壁記引忽然軍人數百言外圍村邊言外
 鼓喊引外三極起言外出門視之引日暮然南谷都只沙真
 田西面民色朴細中之子進士者外言言歸人言外環立山上
 而送燈籠言外直入村中引外問甚至村前洪仁淑酒店言
 外與推獲人言外然同坐言外念天念師引外尾包數人引
 開問而問何人也言外答曰此酒店別道弄來酒次未矣言外
 居在何處也言外在莊孝子村言外引外言外民色朴開門而去
 言外主人引心惴言外請饌言外言外答曰吾將宴之有罪則
 免言外無罪則生引外言外無慮而坐引外自後地軍引數
 未來到言外或飲順吸烟言外樓探順店四方言外一無開

門下小身雖喜然外下民色亦笑入吾家言外言曰若投寺
 炳春引和法軒在處引執德軒引吃順天府復之
 打手可得外引其妻子與村中道人羅稻春金世德等
 數十人等法縛面雲計下中談引牧單言其欲產七去頭
 奮而去河之其夜則德權糾鄧自瑞諸人合烹登鳳山中
 水經過數日引其間飢寒之聲收之不何盡焉也引
 遂與同往諸人云作別曰吾則曾逢陰難引非至再三引
 小無憂慮引外分年七不然引水無三危危之擾引恐不
 堪耐引不如早歸引又有一效引其引歸後引見村
 人引其引曰吾母引常被孝駒春之物道立非吾之本志也

傷母親之心引春辭

引春當四之標之引水差捕孝駒春引吃順于民色所引引
 愛其順引君奇之賴也引引又以此意立唐去引其處
 通街引引可底可底爾矣引如此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曰吾亦從此拋矣引引他日風西霜雪過引引引引引引引引
 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相與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則條於歲下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葉木榮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之心引水無懈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引

一百念之曰鳥久則蓬發創外言引不如易廢所引言二十六
 日例在于下東面北谷里後麓言水陸僻引說引民包去歸
 左引圍山四面言五放水搜覓言引完然如籠中鳥也引
 不得從天而上從地而出故立徑在天者師言引謂此不絕言引
 火不絕犯言引民包言亦從撤去引言僅避言亦又往於者存村
 嘉山引說引下東民包下二十日例又會集言外圍山搜覓
 言引如肩鷹而搜雜之樣也引末末引又禁其山言引火烈
 風猛言水烟雲漲天言引萬生引無許引自嘆身世之窮困
 而念天念師外謂既言不息言立一塊肉身言付之於天運引已
 以須臾引火熄人散散互更更以神言引察視形卷言引鳥頭

額外慶如萬頭也引外詩言非鵠非鷲引引引飛戾于天下
 非鵠非鷲引引借進于湖外昔則孔子圍於陳蔡誰引引火
 日言不火食言引死生引相隣引引乃引詩言匪兕匪虎引引
 率彼曠野引引言非師外在焉為何控引引立引引言引
 曰夫子適至天言外天下引莫能答引引言引額引引不處
 引引病引引立然後引引見君子引引引引此直言言道之謂也
 引引甚哉外民包華也何人非引引子推引引言何以箕山而訪之
 引引言引言于天師言引敢謝其大德而已引引自此以後言
 行隱言外艱苦自甚引引然引引引引而論懷引引
 十二月晦日別心神引引散亂言非悲感之心引引自生引引以此凶險

之運言歲學得錢各立新年引東未言吃拜掃于先靈墳墓
各立高謁于海月先生言外問其安候言問各處顯顯之消息
言次弟信聞則死無餘恨外言只是夕則幕天席地言抱
膝而坐言以香燈七徹文而下言外萬理外人啼引本絕字
高鑿風之自谷而射言外破人肌骨言以五千丸木食徒
人外生死豈未可知也外

乙未

乙未正月一日州早起言外視其坐處言外便是山嶽削削之
地也外然引下煙未終日言外及於牛目而欲移他處立引
恐人跡之線露言外更堅信信而起言引於西三四日也外
古人云東方則有一士言引三旬九飽食引外言以此其五信

也言月湖南之人已禮重拜掃北堂故豆歲時別省墓之
人歸於山野言外人之踪跡引不以言引外言正月初六日
夜外向朝崎里村石鄭奇錫塚言引即幽僻之處也
引至人引欣然迎接言外待以盞飯言外同席而曉起日
村人引之立可民念外茲更到之非擾亂村中引外鄭奇
錫之必此知孝炳春之來往踪跡矣引引連而問之引可
知而述之外言引願公之勿言去歲而隨之引外事若不
幸言外刑吾而捕問引引不勝其刑言外以貨生言之三言安
知字外然引引亂則下美言外不嫌而鏡引外言何出門
作別之時引主人引白無不風公之去處言引外言十重更又

於山中說句靈上足痕全難隱跡區後於村後松林間
 字句曝色外特至引心學亦不平字外自然落下如注
 世上則孰無夫婦引空如賓如友何有誰字外
 至此境且無數嘆息引引又徑一夜者五至初八日
 亦不自念道蹤引來去之人引不絕字引跡跡之無慮
 燕意引必此登山字引不如更深入引外字引登五鳳山
 上摩字引徑實角兒兩邑山川引若在眼下引石鉤之橫者
 而立五川神之抱白而苦字引此間驚之悲慘是欲忘而
 難忘引外世之健身字引當此之時字外見人言如瘋虎引
 孔子師謂若改引德於虎引字引信不虛說也引不如此調

名數數月則或十字日不食字引或二十日不食字引徑摘
 拾葉木質算根字外啖之字引夜則依於巖穴之間字
 外與風同宿焉則行於溪澗之中字外與獸為友字外自
 民色起後引不知飢寒之切肥字引學符靈篇引於馬關六
 十餘日字引其所謂有巢氏之民歟外盤古氏之民歟外非
 非獸之形態豈不可成之也引

二十八日則始歸塚字引村之人外或有未見者引三與之
 返如猶獸也引然引日夕月深字外人心外稍安字引指月
 外漸解字外步顯自之人引次之末語故是暗問海先
 生之消息字引不知之引引時之立或思惻惻則錦山之生

累叶民色之不投_音其_音天師感化之力_音呂_音光靈蔭履_音之德
 以當入山修道_音外_音報_音天師之恩_音進_音先祖之考_音外_音蓮步
 而也_音其_音人子之道也_音其_音吾_音方_音欲_音入_音山_音禱_音禱_音之時_音則_音隣_音居_音全
 忠_音實_音此_音來_音言_音曰_音指_音目_音尚_音方_音快_音未_音全_音消_音其_音不如_音以_音商_音賈_音求_音至
 徑_音于_音海_音濱_音浦_音曰_音呼_音遊_音覽_音而_音歸_音外_音無_音灼_音外_音其_音吾_音且_音以_音錢_音十_音兩_音
 已_音撥_音之_音且_音受_音之_音且_音與_音妻_音相_音約_音曰_音吾_音欲_音入_音山_音可_音若_音無_音故_音而
 去_音則_音村_音外_音必_音此_音又_音為_音東_音學_音去_音矣_音即_音吾_音引_音不如_音去_音妻_音相_音閱_音後
 出_音走_音則_音無_音報_音吾_音引_音何_音如_音妻_音妻_音曰_音諾_音外_音吾_音且_音遂_音大_音齊_音性_音怒
 吾_音外_音與_音妻_音相_音拍_音吾_音叫_音蹴_音擲_音以_音不_音救_音之_音罪_音外_音如_音狂_音人_音之_音擲_音
 以_音此_音隣_音婦_音人_音未_音吾_音外_音固_音止_音之_音且_音遂_音理_音行_音裝_音吾_音且_音為_音言_音曰_音吾

第三_音二_音死_音於_音負_音崗_音之_音亂_音且_音塚_音屋_音上_音盡_音奈_音於_音此_音之_音葬_音吾_音
 夫_音婦_音相_音和_音合_音而_音安_音心_音以_音滿_音然_音引_音其_音是_音吾_音乃_音不_音安_音吾_音心_音吾_音引_音不
 如_音出_音走_音外_音吾_音且_音即_音日_音發_音行_音吾_音且_音未_音年_音三_音月_音初_音九_音日_音也_音許
 三_音月_音初_音十_音日_音別_音入_音于_音鎮_音安_音鄆_音學_音天_音峰_音聖_音外_音先_音約_音與_音嶽_音皇_音居
 舍_音余_音祿_音吾_音引_音之_音嶽_音引_音曰_音公_音山_音左_音替_音農_音別_音有_音學_音天_音峰_音吾_音引_音大_音德_音山
 之_音上_音引_音仙_音觀_音山_音之_音右_音外_音學_音上_音別_音有_音名_音泉_音吾_音且_音泉_音管_音別_音有_音祿
 而_音冊_音吾_音且_音壇_音邊_音別_音有_音康_音父_音引_音從_音念_音臨_音僻_音引_音無_音如_音此_音處_音引_音吾
 引_音且_音與_音名_音嶽_音吾_音且_音俗_音從_音見_音之_音引_音禮_音禮_音之_音祭_音外_音上_音出_音重_音當_音吾_音亦
 揣_音雪_音引_音常_音起_音吾_音且_音清_音淑_音之_音處_音引_音嚴_音鎮_音群_音峯_音吾_音外_音仙_音風_音外_音自
 來_音吾_音引_音其_音別_音天_音地_音也_音吾_音非_音世_音間_音之_音別_音罕_音有_音處_音也_音可_音登_音巖_音巖_音上

寺外俯視虎窟寺一則無數辰寺一則亦有殺獸之
 師寺外流引萬里引外是顧謂金名淑曰君以公心云利
 天寺水廣濟養生布德天下是為念引師顧是引成就也
 引外若有(虎)私心引時亦如此獸之血寺外灑於草樹矣
 引寺五遊天告師寺引允淑引希贊成不已引即是日劉慈華
 成登於巖下寺五院階其泉而錄石為壇寺引允淑引請
 去曰至誠祈禱寺水得天師之靈化馬寺計十日十五日間
 州一次式來見寺引引寺馬下去引其真夜引春清水寺引致誠
 寺引即三月十二日也引是時州天象三過和寺五事七州
 變外山空之靜如木也草木已鬱如待人寺引我亦禱清

湖開寺五其安心尊引計昏既之疾引散家之病引自然不生
 引日夜立跪空壇下引第七日夜引又春清水寺五坐如
 泥望外引引松肪引蘭徵引寺更敘桃火引外顧觀寺引
 有一大虎寺外踏坐於左側引外欲問其來意寺引更思
 之準雖大地寺亦獸也引問而何答引寺言曾聞入山致誠引
 引天引遣大鹿寺試人之誠不誠引外寺引此果然也引
 寺小不動心寺五發夜者坐寺引更無畏憚之心引引引暗
 色引漸明引遂巡而去引引平明引舍之取引劉慈華春卿引
 引同來寺外見鹿跡之文寺五驚曰與虎併坐寺引倘無與
 心哉外對曰天引遣虎而護我寺引有何畏哉引寺二人引稱

道而去計外自此之後足憂心自曰吾外誠之又誠曰曰岸
 二七日辰例跪坐於清水壇下記曰忽然而曰首二老人分未
 亦水坐度於壇上言問曰有何野願言外至於此也王師
 願為金銀于外對曰非也是外之陰曰穀粟斗酌願于外
 或有先祖數萬石言曰汝倘收之耶外對曰非也是外又
 問曰然則求明堂于外求官爵于外又對曰非也是外曰
 然則信汝之師懷言外言曰是心中則設火神師之行治言
 外更起拜而跪言外告曰布德天下廣濟貧生外其所願也
 至外曰然則求經筆墨墨以末言外言曰是跪而辭曰紙
 三張曰以此而已是外外二老人外敬之言外三折而進幅言

執筆言曰一老人外呼名言以繩字足隔幅書之言外呼而授
 之曰此一名備也汝當急之教訓言外日後州更有相逢
 之期言曰汝須銘心焉言外言曰將筆老人外更呼曰求
 之歷山峯也外彼老人之言言銘念不忘言外言曰兩老人
 外起而將去外握手而托曰俄者訓戒之辭言外再三將符
 言外使之不忘言外言曰分手而去外外不圖數其別兩老
 人外亦相分而各言外外起而百拜謝之外外驚而視之
 壇上所有然言外言學分明而非世人之為也外心神
 快樂言外言稱引獲收外其後例七日言又極致誠而下山
 望外傾其塵言外入山時即將一升米外猶餘數握言外東

張之時則金名徽孝春柳兩人引道末言水言曰村人云至引
 大虎竹常在於學天峰故屋山人引不得從末言曰果然
 目見則山君台晝夜互巡行致誠竹言味甚其雜人引公之
 今當致誠之真大神機也此言互應作伴至金名徽敬言水
 病一夜而歸敬言即四月四日也引下
 四月九日晝在朝崎里村前機林下言水休懋笑曰午
 後忽見山外四里許班方里引橫路而歸人新往驪子
 外下人九名引道末言又有馬上各引至言水相慶而云引下
 路伏所致互轎朝馬相觀言水轎子下轉落於山下言互遂笑
 笑言引座中諸人引問曰有何可樂之真事乎外言引又笑而

不認言引諸人引同請其事由外言以山外轎轎言引言互
 言在傍人解態新孝春柳金善甲鄭丁丑言言歸人引
 皆曰山遠路遠言何以見知耶外此是龍談引言引下
 諸人引往而視之言果然引自此之後互村中之人引路
 嘆服其神異焉引下
 自經甲子年風霜之後互海月先生王之尊俎互無虛閣之
 故互心常鬱引外下學天峰致誠之後則推天恩賜令
 番引不見海月先生引問不獲歸家引言互五月初三日引發程
 言水無遠慮而方之卷之互行之又行引此是蘭丈門人納
 此亦原日後引歸歸引下

春歲 陰曆月日記

訪之則下數日後則見相和面人談談亦問之則先生王
 例什方在拈掃郡榆亭里^音崔靈瑞之宅氏^音韓龍
 之欲予^音氣體安身言引以此處指目又其^音亦出入句
 極難予^音不如遊去^音予^音之^音金^音靈^音鍾^音之^音回^音程^音亦^音至
 汝川郡地^音靈^音頭^音應^音水^音則^音金^音孝^音鍾^音歸^音休^音言^音五^音更^音思^音之^音予^音
 當初獲天語師之時則不見則不歸予^音且^音想^音心^音之^音言^音品^音回
 在^音水^音有^音如^音鼓^音日^音鼓^音五^音更^音向^音拈^音掃^音郡^音崔^音靈^音瑞^音欲^音予^音先生
 三例^音畏^音其^音指^音目^音予^音外^音移^音他^音處^音矣^音予^音故^音予^音不^音得^音拜^音謁^音予^音遂
 至^音原^音州^音外^音訪^音之^音外^音至^音忠^音州^音外^音西^音村^音李^音學^音孔^音家^音外^音問^音之^音則
 先生三例^音在^音於^音此^音處^音外^音又^音移^音他^音所^音故^音予^音不^音得^音拜^音見^音予^音且^音訪

報恩帳內海月先生^音燕^音宅^音予^音顏^音垣^音廢^音址^音則^音東^音涼^音景^音色^音予^音不
 忍^音言^音也^音引^音引^音又^音見^音泰^音邑^音年^音節^音會^音之^音廢^音予^音且^音悲^音感^音之^音心^音油^音其^音自
 生^音予^音水^音傍^音徑^音行^音予^音引^音引^音下^音還^音向^音帳^音內^音陳^音闕^音舍^音予^音水^音至^音萬^音州^音清
 陰^音寺^音之^音事^音村^音廢^音予^音水^音當^音晨^音一^音夜^音間^音予^音非^音夢^音間^音則^音海^音月^音先^音生^音引
 未^音引^音予^音臺^音而^音問^音候^音予^音且^音發^音行^音引^音引^音予^音且^音拜^音問^音曰^音向^音指^音何^音處
 予^音引^音予^音答^音曰^音向^音遊^音廢^音予^音且^音數^音日^音後^音則^音相^音逢^音予^音不^音予^音且^音遂^音行
 予^音引^音其^音時^音則^音在^音予^音之^音人^音證^音講^音予^音齊^音引^音有^音予^音水^音驚^音起^音予^音乃
 南^音柯^音一^音場^音也^音外^音心^音甚^音怪^音訝^音予^音水^音待^音曉^音發^音行^音曰^音村^音之^音訪^音之^音予^音且^音人^音之^音相
 對^音予^音引^音予^音清^音涼^音寺^音後^音舍^音予^音水^音沐^音陰^音予^音潤^音水^音且^音行^音天^音心^音悟^音予^音水
 入^音予^音山^音路^音律^音予^音不^音知^音方^音向^音予^音且^音有^音歧^音路^音則^音行^音且^音思^音之^音予^音水^音向^音其^音心^音在

此人引飛上天云云引其外他教誨之說云維以筆
 記也引石梁後列三人引進其飲食故互相歡而談
 以王人孝八鴻之父親引問全羅道形便故三營以大綱立
 未時則又聞音以俗人言內列大神師之墳墓量該郡民邑
 不毀燬之說引狼籍故互不信引以然引以殿閣何事手引不
 先生引曰不然音若毀燬大神師之墳墓則必有分明之證
 據立吾道之昌運引大開音引在令觀之曰運數未回
 引音引又曰吾道亡無為而化矣引日後列天下之人外諸問
 禮法龍潭引音引又曰汝等引皆極誠信道馬音引日後列
 必有今日之道而明日為上才者音引其時不及之嘆是日

惜奈何云音引其夜則留宿于孝八鴻殿音立翌日則拜
 別而歸地引先生引又分付曰人道中五常則信引為三張
 引引能心行之音引不久則有德數萬之音引以數之相逢引
 為好引音引是定期而下來引其後則不失其期音吾每
 朔一衣式性拜焉音引
 甲子年癸丑之後閩南道人引其路音亦莫知師向之際
 引獨李銅春引以識力云吾訪師音水開淵際之路音吾
 道之擴張引自此而於矣引音
 十月十九日與金學鐘引音僅行至孝八鴻殿音伴拜謁音
 引經大神師之拜禮音後則歸鄉引音數月後則又復

尚尚高基處八鳩豚引先序例以指目言程于他處故
 三數日各遠過外引又往尚州陰府崔仁善族之外見先
 生主而問安候亭工回程外外引又其後州往見則先生引
 暫留外外引又移于他例者州之次引前進者亦自尚州兩
 福嗣後五日則至京畿陰竹水通里善哉菴先生處亦
 外見滋月先生言以山景夜則分付曰存權困眼外引若人
 引未若吾傷而言所標則去後則吾知其人之姓外其
 事之未歷吾知之非獨吾然外引他人亦應然如是可
 若舟心正參則皆無不如三事亦以事使人之三渠之手是之
 不得住處活動則自不活動可也又收其卷遺則如泥塑之

人亦無可屈伸之力引以昭善巨於市井及富人之中則守
 其心正其學亦試驗則何知之矣引外自古聖賢引心做
 工夫歸世亦為微之學外吾能通達引引引不行而不知志
 七志為邪道故是不開者但以仁義禮智五行之故吾稱以
 聖賢外外引外又曰甲午年則吾道中規模亦不度故吾亦亂
 引引差矣規模引非但毛羽未成之輩住引不得長成外引有
 不得措手足之慮故引不矣規模引引引又曰壁語語產產現
 引引父母在時外學不在時外外相懸殊引引長兄下陰歷引信
 有嚴畏者七何若子父母七志學外外則至敬故也引引引
 又曰舉世之人引於天時引有不合自己之怨則怨引外陰天引引

天則無偏無私故吾行其四時之運而己以世上萬物之誰
 不服從於天聖命令之下乎外子又曰山之水亦流于海
 若之無他即海於天地間則為物之最鉅而在於下故吾如此
 其際也若人之體天行道亦皆信之如水之流而不息則為
 大人矣外子又曰甲午之事亡路天數豈非人力乎惟有父母
 之德外子不報則最好外子又曰汝等之信不愚而為之亡何
 也今吾則三年後事亡三年前則思而宜之也外子甚時而云
 之字外子外數日後外子退而歸家外子又其後數月外
 往汝所外子拜謁後外子以金銀學鐘身故之字外子分付
 已金羅遺事亡都付於汝外子勤與貧者之計外子又曰吾聞

金羅遺米之祥外子藉托字號錢立數十兩收而將來外子
 至清州洗脚嶺藏酒店外子與主人朴公互伴外子以詢春暮
 得芝事互昨夜外子其村外子為村中人野縛而無數見傷者
 外子錢立意在於酒店而至於死境外子外子其往修之人曰
 此清州卅二百里早也其路艱險外子其昨夜之事何知
 之乎外子謂其裝之人外子不得其美音以何處聞之乎外子
 先生王伯美曰樵者聞之外子外子其甚設訝外子使人至
 往清州而探問外子果然矣外子又分付曰汝今去路則直回
 長水金學鐘外子非尋取信檢圖書而藏之亦外子月是奉
 命而來外子其昌寧則其婦人曰其時其葬事亦盡葬之

即立不與以言遂歸于家卒叶其後數月則又往拜會先生
 外問曰信菴高章名聲之耶外言叶言對以未詳之事立
 告以其時主事言叶先生叶又分付曰聖訓有仁義禮智之
 言叶叶大抵信之一字叶最重言叶夫若失信叶則豈有四時
 之成功乎外若亦信之人之相逢之時間言一定叶以若失其期
 則事之復復言叶叶小童為信人乎叶古聖人之言叶曰無信叶
 不立外言叶汝須銘念焉叶自聞此教以後立親先生至互
 期日叶叶不違期而此子遠程則每月必式往拜言立不
 其期言叶叶其後則又往拜馬言叶先生叶又教曰人總行天
 理以天必認驗其信實然後則許之叶言叶立曰葉掩卷

畢卷三人念心則天下之人叶屈之不得叶言葉之不得叶叶故
 若六甲則又有二三張叶叶叶可也叶言叶立又曰自今以後立
 立吾不欺之言叶叶不有天命叶叶叶葉不復言言叶言叶立又
 曰人師天師至天師人叶若怒人則是立怒天也立打飽則打天也
 外言叶立曰雖昆虫微物叶叶皆天地理象中化生之物叶愛
 之豈如愛吾身叶可叶言叶叶留數日後則拜辭而退叶其
 後叶又往訪之言叶叶將州人心叶不古言叶指自來甚故立
 先生立叶每年三三次搬移者外不知去處叶有是學之心而訪
 之豈自自然相建言叶不違期言叶先生叶亦愛言叶叶外
 戊戌年四月四日叶行紀念立至原州石渠洞先生處言叶

先生引命之曰自今以後吾欲有遊隨天下之思乎且又
 命之曰吾者記忘之有獨行之思乎以汝者之益其
 近厥乎外禮武而歸去乎引引其時則其卷先
 先生先奉分付而去故不拜見乎至尾卷歎乎水為偶
 引得慶乎天柱崩地籍折乎海水沸騰乎四風而泰至
 引引大水懷襄乎水民不知耶向者非常至於是死之際
 又有一大塵作亂引引數食頃則天地胡胡乎風雨
 止息而有文皇乎自海灣出而登于陸危引是與衆人
 引復視之引引吾者引有日月乎洞徹明胡乎腹中有五
 引引乎水克然者思之引引忽然統之乎此是文師受

遺自此引上年四時引禮武乎說夢中之事乎令人當歎
 去引獨遠卷引以此是文檄也外乎引外即日發程乎數
 日而至沃川尾底乎水關之引引京兵丁三子名引空引于生
 宅乎水遂獲海月先生而京城外乎引是聖靈源世乎果哉
 矣引遂心戰而身悸乎視飛而與數乎不知耶向乎引窮天極
 地之傾乎何可量乎引吾已為乎心正筆乎外無數者
 天吾師乎魂引錄錄乎引判其餘書而上京乎外探其先
 生乎消息引引之在於國其之中故吾不得拜見乎引行歸
 未引亦後三月引引又與許嘉春日長西引外伴者乎引志
 南靈城郡掌酒持地引引枝安居金汝引引適下未引引相見乎

問從何處來乎外汝仲曰自京來矣外若然則知海光
 中云消能乎外汝仲曰厥令隨之安在也汝居乎且東學
 之人名畢境蓋程子曰勿問而即非去乎計其力又問其
 事實宜則對曰去六月二日刑處絞刑而三日是懸于南門
 之五幕其曰其言非布于市井上乎又下令飭言呼左道
 列邑則道人是勸賊子曰為許子曰更無餘理之道言石
 還其原之伴隨身為上策外亦五遊傳之而去則其後則
 三人同歸草間酒店往外暴而驟至者味淡米飯過而此
 遊於人窮故不得一眠予至白外許善外謂李曰若曰予則
 更無餘理外不如回程外若登款歸去時如此指目其難

以避身者引李于所持之錢外為行商之操外無妨者外暫
 時取貨吃吾性論山水買魚物而下去曰庶可免禍外引
 召善善何之李引李曰吾曰善外亦遊外同行而去引相出
 作別五乃誓心曰雖後月幾年外亦不見義善先生引吃
 亦不歸鄉引外亦五遊發程外野水隄端本水不得行路
 外故云自營浦村後是柴山樵而登馬外亦曾城邑前水渡
 大外外為水所隔外水亭去石數里許外幸顧天師之息
 外自至于危而得生外側壁水邊而心者兒引忽有一童子
 外其在長廊之後外水呼而謂之曰此水難渡予以登彼山腰
 而外外亦因忽不見外心遊與之水從其言而三街里

落而幽僻引遂心定曰猶看其家之戶而隱問其人
之箇之矣外者直入村中者外語王人宮曰靜菴丈引君場
 中林耕引外下還入房中引心協疑之吾外自離際
 立互觀規引引忽有李炳耆來訪之辭引心定宛然無疑
 故立待而在外引引菴菴先生引出門迎之者外喜而問之
 曰何以尋來耶引外遂推而入房引外引是問候後引海月
 先生仙化之後引大師丹尾引布安慶引以此後兼事古當
 何以指慶乎引外先生曰海月神師歟夫之後引何以知道
 之理而誘我量如此其勝哉耶外者引外是答曰大神師亡以
 天皇氏自比引外引是大神師之為天皇氏引外引海月神師

之為天皇氏亡自然之理也引天地亡化生萬物者外而證
 中長養而使人互為萬物之主人者外佳意用之刑引外引
 而神師為天地皇者道之主人之非先生而誰也引外引之
 意引以菴菴先生引外引為人皇氏也外者外遂起而拜跪引
 先生引遂出其天地人所言之文乎外據之曰臣自是所託
 之當也外者有言此等之人引外引必以帳布為意引外引今李
 卿春引先表言之引此則天皇之頭指示也外引外引是又起
 而拜禮引外引與李自君辭義互同行上未引外引中路引開金
 汝仲之言而路還者引外引小子是獨有彭遺之心乎外引外引
 引外引是以大師引外引德立得風吹生乎此乎引外引感無吐立

外遂亦以未時即經歷三車至日先往外分行曰某日說
 外起亦北海月神師卜為國師僧之說引遺籍故至甲午年
 尼大將之輩卜裝幀恐上京亦以公教于先住之意至
 臺城外開仙化之臣至馬營散去言此文字是授之甚難
 司其司以幸勿輕布也言司其司又曰彼後尼輩卜知其仙
 化而告之也也指司其起言司其須勿在隊至謹以隨
 之三月言即言其是更以十月二十三日^此相違至受約而下
 未亦言指揮甚急願自言至浮宮別島此聖後山仙卷奇
 亦言金仁權中錫兩鄧身雀豐音諸氏隨跡數月記
 其時寺中之人五六十名引卷入遠而崔監言已還去羅州至李

炳君立殿齋賜而發行亦水至于京畿繼平靜卷其言
 靜卷又外亦船投于地廢故互不知耶向之驗言其性之際
 則有一處人司傳馬州其後而視之乃路程記也亦遂即
 發行亦水四五日後外水鄉郡董守開津頭言其風雨大作亦水
 襤褸稍推言亦水不能渡外舟舟人之亦水晨乞津津言其舟
 人亦使水而濟之外其多高則至水原大江津言其顯顯之間言
 卷發而離言其其時風驟雨驟亦水不得往來之際則忽然
 大風外從北起亦水捲杖而落松山之內故其守心在卷言其
 更思之言其日暮矣外者路外又卷其而不可發行故互
 還來于山內酒店亦水一度量受賜言其五人言其白令後頭則

海濶予非人民引多傷予非引昨日春生負王舉乘之而登
 非天擊乎外予正在修諸人引觀水次至皆云何名亦隨之予
 牛見甚昨日為風那投之廢予引燕數舟惟引或破或覆予非
 樹在山巔者引江邊人勢甚為濤水野吞引承無形也予引
 其間死溺之人引不知其數十萬人引引置予昨履野廟之志予
 外更第一日予翌日下午七時別登艦者引風浪尚不甚引引
 惟艦引前敵引小艇程自進予引一夜量程過在船中予翌日
 別登陸者引于酒店而後引予發行數日後別至履津效洞
 但予處中予引訪先生處引松菴外予與先生互互同在其外
 問候引松菴支外言曰有弟李炳春引丁學耳不違其信而未

予引許其自字引分明是海濶之時也引若當其時
 引未免其禍故引慶之引無事未比引引真天幸也引外然
 引其海濶之時引何以避身乎引外曰偶然耳引予引理歷
 引事引予引言之引先生引聞之引引謂引松菴曰有連
 之人也引失信則不知引引外不失其信則雖在水火之中引引
 引不焚不溺而生矣引外引予引松菴引引以待後日觀之引
 同也引予弟海濶州人民引多傷引引生陸引不可謂也引外引
 引先生曰今日未嘗之前引李炳春引引必未引引予引引引
 談論之際引引入觀引引先生引與松菴引引亦亦甚之而笑曰信
 一引予豈非大且重乎引外引引無數稱讚引引引引

數日侍先生之側引記先生曰海月神師履天之後則
 我若二最北則李炳香引以躬前奉言其次二朴禹浩春菴
 引亦使人訪之引可謂信人也引然引吾當懸旌於外
 國引以朝鮮之事七全付於朴寅陸李炳香引工引汝等
 西人引相議者事引事引工引其後別使檢校引吾若法我
 李炳香引自南大授主之是定引作踏義菴先生面而撥
 之引引惶悚拜受引五日數日引又命之曰汝歸家時引訪
 春菴朴寅陸而傳我書信引吾不違前日之托而行之引外引
 引引臨發時引又曰大事委任之地引如此踈忽引非禮也
 引不知吾躬往引亦見而付托引外引吾引工引發引行引引不陪而

同行引引成成十二月二十日也引侍先生各引至生清道德
 山殿五江上山谷引引壘上引有樓台覽引引以杖互逐
 去引引一則飛言引引如病弱者引引艱辛翔引引之引水坐於不
 遠他處引引一則不能飛去引引先生引引顧謂曰汝挫敗之言
 引引引引如其命而往逐引引之引引亦艱辛飛去引引外如召飛者
 也引引坐於先飛者之側引引先生引引顧笑引引故覽引引獨脚
 引引落定而不能振引引而飛者引引非陰國若引引引汝等引引天邊臺
 篤實信引引外引引引是對引引謹奉教引引引外數日後引引至公州
 內廣引引輔鄉引引外見三人問朴寅陸安否引引主人
 引引曰朴寅陸三出他教引引又留過數日而不見引引吾發行引引

拜見先生宗司又曰前日所托之言甚慎勿忘傳言予宗司行
 差謝恩宗司是日宗司至公升監營宗司外知馬宗司且聖旨宗司至
 令升府宗司者非嘉馬宗司且又聖旨宗司歸宗司而自此以後宗司數
 往拜宗司先生宗司三見宗司一不違約失信而行宗司呼
 己亥年二月宗司往參海月神師宗司小祥宗司予宗司念宗司願宗司願宗司外
 未至宗司獨宗司獨宗司卷宗司外不美外故互先生宗司外有不樂之憂宗司外
 其後十二月宗司大師宗司母宗司主宗司張宗司事宗司外亦不祭故互先生宗司外獨宗司
 孝烟宗司卷宗司外奉宗司行宗司驗宗司擊宗司而裝宗司之宗司予宗司拜別先生而歸宗司外
 庚子年三月念間宗司又往先生宗司外是宗司卷宗司招宗司卷宗司仁宗司卷宗司諸宗司文
 外宗司來宗司外宗司先生宗司外對宗司馬宗司卷宗司言宗司俗宗司談宗司外三年不中則必

阻宗司面宗司外宗司予宗司在他宗司願宗司目宗司計宗司且宗司尚宗司不然宗司外宗司三宗司見宗司卷宗司外宗司海宗司月
 神師宗司仙宗司化宗司後宗司外三年不宗司予宗司外於心宗司外安宗司外於禮宗司外靈宗司外
 外國宗司本宗司貢宗司之宗司外是宗司卷宗司外宗司默宗司外無宗司言宗司外宗司外又曰丁酉十二月宗司
 海月神師宗司召宗司我宗司等宗司三人而語宗司之宗司曰汝等宗司外合宗司心宗司看宗司事宗司外宗司其中
 外有三張宗司外宗司外不可也外宗司外只宗司外丁宗司寧宗司辟宗司明宗司之宗司詔宗司外
 尚宗司在宗司外外合宗司三人外各宗司自宗司為宗司心宗司外相宗司相宗司彼宗司淵宗司源宗司此宗司淵宗司源宗司
 而各宗司出宗司受宗司外外以宗司布宗司之宗司外此則非宗司外師宗司門宗司之宗司罪宗司人也外
 吾等宗司外推宗司海宗司月宗司先生宗司外外數宗司十年外是宗司能宗司食宗司之宗司風宗司外三月
 之外即宗司不宗司死宗司天宗司罰宗司外外以後宗司外是宗司卷宗司外於道宗司外為宗司三張宗司外
 外其後宗司外拾宗司卷宗司外為宗司三張宗司外外其次宗司外吾宗司亦宗司為宗司三張宗司外外

許善言偕行至鶴山會其亭朴公鑑^{仍名水窟}拜外朴公
 鑑許善兩人請更入之禮外言其夜則行禮式外許善
 曰曰豐基則未衆設法之說以此地更入之言言幸勿出外
 外言再三付托外言答曰諾外言歸歛後則終許善之
 身三年不出口外其後外巡接于臺廢確外各頭目外額
 行更入之禮外言使之更入外言其後則得一厚名外義
 生可乘其本宅外言外山谷外言外集在澤井之中外外
 見外言先生外言檢卷定外食水外無外言將奈何外言外
 憂色外外言驚焉而視之外言乃奉園翹歸之化因也外
 程外言性見之外言豐基設法之後外指目外大起外外

生可避身于他處外言檢卷外歸於本處外外外外
 被外外死於京城故外隱身而歸外計外又十月外至唐津後
 園春卷定外外見之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歸家外其後外其生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相從於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外德學外存甲辰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日之運外不如開明發達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金知鍊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外

○ 則以剃髮為事蓋言引不不同往徒客處者外相約引
 可也引言至北郊三畝園言日適有吳丁數十人引傳教
 教教區罷而歸未引下即翌日引又往母岳山後堂金言外
 相議之席州大設酒看言以此無他引外面已宴暨蔡
 果禽也引內臺之即相議剃髮之事也引同會數十人引
 如出一口引言以此禮皇上皇帝于先生至前引既以回答引列至
 引今年八月晦日引州十三部教人引齊會集言外以進集會
 引為名言五議剃髮之教引有言引又曰金羅道忠清道之
 教人之使李炳春引互指揮主之計言引是逆軌通于各
 教領袖曰忠清南道外金羅北道之人引會于岳山後堂

○ 言言其歸亡諸會于便利之地言外如此引行之言計
 言五李炳春引八月三十日引州臨于躡山郡彰雲里言引趙
 錫孫張南善李亦真朴北生具昌根閔泳金顯文等諸
 人引會美會引是次剃髮莊五人金顯文依而往于岳山後堂
 里會所言外即日下午四時引設演說場言五臨時會長引
 以張南善引五選定言外出席視務言引會人引數萬餘
 引外使因參引胡讓開會題言一通告五李炳春引說明
 曰老人外童子外成人之勿為剃髮引五其無志之人引雖年
 次引亦勿剃髮引五此會中引有志之人引是剃髮應言引引
 即將州乎先剃髮引外不可勝數引不利而去篇五亦多矣引

引此時則朴若德金鳳得金奉年節瑤根諸人亡會于金時
 耶隆呼才外如右斬髮者翌日引發程者外未會于昌津
 耶莫浦者工許善朴準承林秉圭諸人亡會于任賢郡五田
 面者外斬髮外計為崔吏之助執者外無數見敗者引
 外數日差聞于昌登里計十九月名日別發程者外至江界浦
 者外斬髮會負外至一萬五千餘人外各是處所後列李
 炳春金鳳得李祥字三人外訪警營軍器者外說明其事
 李貞立引路長引無數致賀者外計九月七日則至論山浦
 外演說後列是處所而為馬引引翌日則礪山節并朴
 鶴來外率炮軍四五十名者外至會所者外左衛右衛者外

聲引震動天地引定人心雜者外一連蒸取財物者外
 一連捕縛遺人故會負引一齊來集者外大聲呼曰君
 百姓不勝崔吏非軍之負也者外棄發軍捐助者外立
 以開明目的外立先輔 皇上安寧刊者外安百姓於塗
 炭者外如外國之文明為王也外三有何罪引引如此
 虐待郵外今吾會負數萬人金善為勸麻者外朴鶴來
 外此亡御命引引落解散匪者外者外之會負者外曰
 俄者捕者之會負者外送之前引引雖盡殺之者外不得
 辭職引引外引鶴來曰囚人亡然當放出者外引濟者外不
 違御命而散者外者外工使炮軍者外無數頓難故者外李炳

春申周日兩人外即時發程至水上市而總官城會員
 守餘人互往于內都大臣等 旅事水質問曰吾國
 疆土亦獨政府人之產土乎外又民者三國之本也何奈何
 已吾之疆土是政府人之產土乎百姓是吾民之耶
 外唯吾食會員可以開明三言互輔國安民乎立刑無他
 意外大臨外發令於各道列邑外水飲盡發會員于
 廳而心腸乎外即時發文于十三部外盡致捕提之會員
 各各守其時大臣引初不聽之句至十三日三言互相讀
 之句至是列大臣引總計之句是電報于各道外水放出會員
 亦亦品獨礪山郡會員七十餘人電報桂井鶴未記其後

外放出之回書外上未外是歸而視務於京城事務外其
 後列羅福春外字意是妻姜氏外上未外是源氣外于
 空院外
 十月外江京浦會員數人入于全州府外視務外
 府中吏錫革鄭昌權外符國其時外權直相外觀宗
 使李勝外外泰領白啓信外外作亂而諸區會員外以
 杖以石外三撫數外打外其外丁外與巡查外以其罪外督故
 外府中會員外皆為逐出外外更集于江京浦外其項外上未
 外是如仁善決事外氏外同行至江京浦外外事會員外其
 入于全州府外借款于外國人外水救償其會員之負債數

奉獻 附 年月日 記

萬員以上三種解各水留嘉美記曰孝啓九丹甲寅俞鳳基
累在聖俞創時周等十餘人司率日本臣惡兵三十餘名自
京下未即擢會負中決死隊五六百人來外先處行于五耳楯
會負之聞其後者曰世子四十餘軍司京未會負曰先于觀祭
府亦價問事曰孝勝字亦許之曰是謂其支府事務即廳言
引又許以御廳故曰定事務焉于御廳言也
布德宮孝年四辰正月創義島大領任帳引下業故曰拜殿也
其年十月則上京規務院曰政府之人曰發庫於樞江等地度氏
有名者數千人來在京內道其會負言一時過藏之意言為計
曰是會負等引皆驚動者水甚哀且悲哭於鍾路士曰政府之

人引欲殺我等而二千萬人且言亦盡殺馬引曰六曰曰政府之
人引使軍人引討滅京城事務所為為言故曰會負引一齊
來集為數千人引直向新大閣門外引四方軍兵引時降
起水燈于屋上引水以尾名引投而行之引會負引死焉
傷者不可勝數引數年盡死之中引英國牧師亦來而救之
救者幸而得免其死引其間因仗是河何堪言耶引其後何
會負等引又送總代數十人于政府引亦與問之引不得已
引京外政府之人引許之曰盡從其會負之即謂引引引引
其後則為毋飛故曰會負引外安安心引亦遣其會引亦引陸
盛焉引引引

在德王元年己十月日例先生奉信自外國來曰其
 之人可來于日本吾亦喜於其孝炳春其思根者祥字
 詩善張應權五人可獲證言外至日本而拜見先生于五箇之
 月籍例遊覽日本名勝之處于五翌于本國故也
 十二月晦日例義養先生可選國者例乘輪船于五翌到于
 東萊郡釜山港者例其歡興來至釜山者外拜謁先生于
 寺山各處教人外其美觀聖者不知其數觀人外自釜山二
 五至京城外處之停車場例歡迎教人外顯于道路者其
 作慕之誠可無如此時之盛也外
 丙午在月例先生立國定于京城恭園西居馬者例其奉炳

春例亦唐于生民間外當得例其記其後例先生王例信教
 例會皇分林曰天道教者例其設中央總部于恭園者例
 其時例奉那其官員之任外其都教之帖外記其二月二十八
 例發于金州郡九二面元淵里教人朴基准之第二女者例
 本二齋陽外其年級十八外其儀範外端正者外有婦德外
 三月三日例奉那教領之職帖外其大教區之長之任者例
 四月八日例時婦人姜氏外生一男者外名之在外外其在母胎
 二月而生者外其非大師之廣化者外
 九月八日例大教區長之任外其二十五日例都教之職外奉那
 其德王元年一月二十三日例戴仁德臨時識事員奉那者外

丁未年五月十八日別庭駐巡督之任叶二考考廉章字春厚字
 子月四日教授職 附 奉 命 辛 丑 十 月 子 存 伯 例 又 亦 賜 號
 字 曰 澧 卷 司 計 十 月 子 日 例 承 庭 駐 教 師 而 章 妻 姜 氏
 外 子 在 後 叶 廷 兒 登 文 而 任 子 三 禮 亦 永 長 成 子 立 巡 授 子
 南 道 各 郡 而 歸 亦 亦 定 住 子 九 身 高 渡 基 臣 字 叶
 戊申年四月 日例聖師王以巡授次五章權貞鎮崇世邑宗
 葉 默 諸 人 之 戶 乘 輪 船 亦 到 泊 子 群 山 港 引 叶 汪 李 炳 春 司
 率 教 人 數 十 餘 員 亦 至 群 山 港 亦 水 陸 聖 師 王 而 入 子 全 州 教
 區 亦 引 其 時 歡 迎 教 人 之 車 馬 亦 盈 路 亦 亦 回 六 十 里 矣 亦
 錫 周 日 而 上 香 亦 皇 月 教 人 亦 亦 隱 行 子 群 港 亦 亦 錢 送 亦 亦

四月十三日例又上京亦拜聖師王引以全羅南道定駐教
 師之位互授之引是奉命而歸亦
 七月百例嚴仁院議事員互兼教黨韓安貞亦
 己酉年五月六日例奉命教訓職 附 奉 命 辛 丑 八 月 十 日 例 又 亦 命 仲
 本 處 巡 長 之 任 辛 丑 九 月 七 日 例 又 亦 巡 諭 委 員 之 任 辛 丑 十 一
 月 二 日 例 奉 命 王 權 尊 亦 亦 十 二 月 二 十 八 日 例 又 亦 承 遺 訓 之
 職 附 奉 命 辛 丑 是 年 五 月 二 十 四 日 例 婦 人 姜 氏 亦 舉 元 亦 亦
 庚戌年一月三日例奉命誠遠師之職 附 奉 命 辛 丑
 壬子年四月 日例以聖師王分付臣致誠控鳳凰閣社亦子
 一人引同奉命而李師春具昌根朴淳敬三人外國唐馬亦亦

癸亥年十月四日州尊妻丁宮丑授居于金州縣金州街多住町

一百六十六番地 丁中

春德 壬午年申歲四月二日下午五時二十五分例聖師王仙付

奉命 天命言六使之假布卦是外其言曰汝以天為天者豈燕

靈性故靈必靈為靈者天在何方汝在何方求則比也忘

則此也常存不二字查引外處之言水授一回再回致誠人

七十二人故李孝炳春引拜謝馬言中

自甲午年前後是年之司出教人名帳于澄月神師是年水帳

布于道中引外引下庚字身乃月例春查支引奉命而來言六月

五例乘輪澄言引至務安郡木浦以呈與張南堂李善堂

同行至木浦言中三日後例建春卷支而并行至南寧郡水昌

里言水踏名帳數萬張言水布之于三南教人多問查當年

三月例仁卷支引奉命言至任發質郡德峙面言水踏教人

名帳數萬支言水布于教中引李炳春引左右周旋引已

以其後甲辰年例李炳春引奉命言至灑山郡彰雷里庚辰

言水踏名帳言水布于教中言引辰間勤勞于教中之功也

皇天神師外聖師道主之所共知也且其以後生末學言

何敢贅說哉外嗚呼感哉中

甲午風波以來言道人四十餘萬人引能破此屋後例敬

亡隱匿之教人引不知澄月神師之耶在言水踏脈引永絕引

春歲 庚午月日巳

以言獨李炳春引奮起字以該節之心按天字日數月周
行而見生在于僻鄉即字五開歸其之路字曰
或成年遊月先生嶺天之後別道人淵原之脈又絕事水無所
向之際別獨李炳春引以慨然求道之志互周遊八方引外下
以誠力耶致互偶至靜養室字水見其養聖師而湖三南教
人師門之路字曰豈非天運之回春耶外自此之後長湖南
教人引鬱興字水敬之至如集之日字五聖之至如早之聖
靈也曰外

古德五壬年乙卯十月 日別門下信生金在弘謹拜撰

新定四禮

婚禮式 舉行順序

一 清水亭 三行禮室 三壁前 別設宮

一 禮亭 三清水亭前 別設宮

一 執事 清水亭 亭上 別奉設宮

一 報禮 念天 念師 三祭禮員 一團 別設宮

一 執禮 什禮 三設宮

一 男女執事 新郎 新婦 三導外 禮堂 亭上 同 外 別 設 宮 男 左 女 右

一 男女執事 新郎 新婦 三導外 別 設 宮

一 報禮 念天 念師 三新郎 新婦 別 設 宮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起立 刊吉

一執禮 念天 念師 呈誦讀 吉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火退相向 刊吉

禮 尊 左 右 別 席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拜式 呈行 吉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後位 刊吉

一女執事 禮物 呈新婦 刊致 吉

一新婦 禮物 呈受尊外 女執事 刊致 吉

一女執事 禮物 呈禮尊上 刊致 吉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退 刊吉

一男女執事 清水 呈酌 之 水 新郎新婦 刊致 吉

一男女執事 酌 呈燕 所 刊致 吉

一執禮 念天 念師 呈新郎新婦 刊吉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起立 刊吉

一男女執事 新郎新婦 呈導尊外 元所 後 刊吉

新 郎 新 婦 休 憩 室

一執禮 念天 念師 呈參禮員 同 刊吉

一執禮 開式 呈 吉

結 銜 禮 式 文

節 德 年 年 月 日

葦貫某氏

葦子姓名

同 同

葦貫某氏

葦女姓名

同 同

天^外兩位神師^引恩德^是引^外今日^燔禮式^是行^音고
永^遠引^夫婦^引誼^是結^音고
고^아아

第一心^是引^音고 各二枚

은^을引^의가^부부^의의^를引^고 혼^례引^을引^음은^은 아^려引^외引^외引^외
신^의引^무引^음로^하引^는아

第二心^是引^音고 各二枚

은^의引^과引^를引^고 아^의引^부부^의의^를引^고 아^의引^부부^의의^를引^고
아^의引^부부^의의^를引^고 아^의引^부부^의의^를引^고

喪禮

- 一 禮禮_三身_外父母_外妻_外祖_外父母_外祖_外父母_外妻_外父母_外
 - 兄弟_外叔_外侄_外相_外報_外引_外義_外有_外嘉
- 二 父母_外引_外喪_外葬_外服_外立_外白_外日_外立_外至_外嘉
- 三 喪_外衣_外是_外布_外一_外寸_外是_外左_外臂_外上_外引_外表_外是_外喪_外衣_外七_外年_外引_外葬_外嘉
- 四 喪_外時_外引_外倒_外與_外背_外引_外至_外至_外嘉
- 五 送_外終_外衣_外衣_外棺_外槨_外立_外左_外如_外嘉
- 一_外尸_外飲_外衣_外食_外立_外生_外明_外服_外引_外同_外引_外嘉
- 一_外棺_外槨_外立_外高_外廣_外引_外至_外至_外嘉
- 一_外萬_外飲_外際_外末_外立_外至_外至_外嘉_外立_外時_外引_外如_外引_外喪_外是_外若_外至_外至_外嘉_外入_外棺_外引_外葬_外嘉

刑嘉

- 一_外名_外施_外立_外之_外人_外姓_外名_外是_外揭_外至_外嘉
- 六 葬_外日_外是_外三_外日_外或_外五_外日_外至_外至_外嘉
- 七 出_外喪_外時_外親_外親_外故_外舊_外外_外大_外喪_外禮_外式_外是_外行_外至_外嘉
- 大_外喪_外式_外是_外清_外水_外壇_外是_外設_外至_外至_外嘉_外立_外衆_外人_外引_外禮_外引_外前_外引_外至_外至_外嘉_外外_外天_外至_外至_外嘉_外外_外神_外御_外
- 引_外至_外至_外嘉_外引_外白_外來_外世_外引_外東_外引_外人_外引_外界_外引_外降_外立_外至_外至_外嘉_外外_外禮_外樂_外是_外同_外親_外引_外至_外至_外嘉
- 外_外行_外未_外饋_外引_外式_外或_外大_外喪_外式_外引_外相_外似_外至_外至_外嘉
- 八 埋_外葬_外地_外立_外地_外勢_外引_外平_外圓_外引_外立_外引_外保_外剛_外引_外至_外至_外嘉
- 九 喪_外輿_外立_外擊_外鼓_外是_外至_外至_外嘉_外立_外引_外隨_外勢_外傳_外傳_外至_外至_外嘉
- 引_外制_外立_外至_外至_外嘉

一 夫妻外子女七百五日忌名

一 祖父母外祖父母外妻父母外兄弟叔侄七百九日忌名

祭禮

一 祭禮 上父母忌辰外妻事忌辰外兄弟忌辰外子女忌辰

則紀念式可有名

二 祭禮 上當日土年七時可行名

三 禮 桌上每向東或北列設位名

四 祭人之類 先齊休名

五 禮 桌上則隨水一匙奉奠名

六 祭人一同則禮桌前則奠名

七 天至外神御則忌辰紀念式上應奉奠名

八 祭人一同은 亡人를 主 念 名

九 行祭時間은 一 時 十 五 分 子 亡 人 床 邊 擲 名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 (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김희태*

『포살 동도 수효 급 소획 즙물 병록 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은 나주목사가 겸임하던 호남초토영의 호남초토사가 동학농민혁명군을 포살¹⁾한 수효와 노획한 군수품에 대해 기록한 보고문서이다. 1894년 11월에 작성된 문서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²⁾ 국립중앙박물관측에 따르면 2001년 개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 한다.³⁾

*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 1) 동학농민혁명군의 입장에서 보면, ‘포살[총살]당하여 순국(殉國)’하였다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서 작성자의 표기에 따라 서술한다.
- 2)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크기 세로 37.2cm, 가로 21.5cm, 구 630)
- 3) 이 문서는 소장품 열람허가(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4028, 2020.10.19)를 받아 열람(2020.10.23.), 촬영하였다.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주제 발표(2020.10.28)에서 PPT로 개략 소개하였고, 나주학총서에도 분석한 자료를 실었다. <표>는 이 글에 실린 자료를 인용하였다. 김희태, 2020.10.28.,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 -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김희태, 2022,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 문서의 보고자는 초토사[招討使 署押]이지만 관인은 ‘나주목사지인(羅州牧使之印)’이다. 나주 목사가 겸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10월 28일에 나주목사 민중렬을 호남초토사로 차하하여 우도(右道) 연안의 각 고을을 지휘해서 비적을 소탕하는 데 전심하게 하자고 하니 윤허를 내린다.⁴⁾ 호남초토사 관할 영역은 전라우영의 관할권인 전라우도 지역이지만 나주목사가 호남초토사를 겸임하게 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호남초토사가 1894년 해 4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포살한 동학도의 숫자와 노획물의 현황, 포살에 참여한 호남초토영의 장령의 명단 등을 정리해 놓은 문서이다. <표 1>은 이 문서 기록을 토대로 나주 지역 동학 전투지 일자별 장소와 포살 등 순국자 현황이다.

<표 1>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전투지 일자별 장소와 처형 순국 현황⁵⁾

일자	접전지	거리	右鎮營 梟警	砲殺	踐踏死	落水死	自邑結果	계
4. 6	무안계	서30리	3				27	30
7. 5	西門			109				109
10.21	광주 砧山, 社倉	동 30리		23				23
11.11	赤良 簞珍山	북 40리		21				21
11.17	水多面 虎藏村	서 30리		86	43			129
	古幕浦橋邊					數百		100 이상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북 10리		353				353
계			3	592	43	數百	27	765 이상

명』-나주학총서 2집, 나주시.

4)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28일 신미.

5)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6쪽 수정 인용.

지금까지 나주 관내에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과의 접전에 대한 기록은 있었으나⁶⁾ 포살당하여 순국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를 통해서 800여명⁷⁾의 동학농민혁명군이 포살[총살]당하여 순국했고, 그 장소와 일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1894년 4월 26일에는 나주 서쪽 30리 무안 경계에 나아가 토벌할 때 동학농민혁명군[적당]을 생포한 인원이 30명인데, 3명은 전라우진영에서 효수하여 경계토록[梟警] 했으며, 27명은 해당 고을에서 조치[自邑結果] 하도록 했다. 같은 날에 동학농민혁명군이 소지했던 군수물품[즉물]은 염주 5건, 발우(鉢盂) 7개, 통문축 상자 1, 책자 5권 등이었다. 호남초토영군 문서에는 노획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7월 5일 서문에서는 포살당한 동학농민혁명군이 109명, 10월 21일 광주 침산(砦山)과 사창(社倉)에서는 포살 23명, 11월 11일 적량(赤良) 용진산(聳珍山)에서는 포살 21명, 11월 17일 수다면(水多面) 호장촌(虎藏村)에서는 포살 86명, 천답사(踐踏死) 43명, 고막포교변(古幕浦橋邊) 낙수사(落水死) 수백명, 11월 24일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 이로면(伊老面) 하촌(下村) 포살 353명⁸⁾ 등이다.

6) 배항섭, 2005,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58~83쪽; 김봉곤, 2020,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 79, 61~96쪽 참조.

7) 이 문서에는 “又有被逮至古幕浦橋邊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而因潮漲未的其數”라 하여 고막포전투 순국자는 ‘數百’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수치라 할 100명으로 설정하여 합산한 수치로 765명으로 표기한 바 있다(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6쪽). ‘자읍결과(自邑結果)’로 조치한 농민군은 27명임으로 포살당하여 순국한 동학농민군은 최소 738명인 셈이다.

8) 353명 포살로 희생된 금안면 남산촌, 이로면 하촌 전투의 경우 기존 알려진 기록에는 다음 내용처럼 포살 현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나천수, 2019,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중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 기록 등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발췌 인용).

“11월 23일 적의 무리 수만 명이 금안면 남산촌에 주둔, 염담군이 함박산(咸林山)까

동학농민혁명군의 군수품이라 할 즈물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소지한 군수물 현황⁹⁾

구분	종별	4.6. 무안계	7.5. 西門	10.21. 砧山, 社倉	11.11. 赤良 聳珍山	11.17. 水多面 虎藏村	11.17. 古幕浦 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교리	渠所謂東經大全			1				
	염주	5권			1	2		
	詩傳							2
	將鑑							1
책자	책자	5권						
	발우	7						
문서류	각항문축상자				1			
	負擔箱子							1
	문서축							1
	명목성책			2				
	賊魁名牌							1
	各項揆文通軸			2				
	통문축상자	1						
	印櫃				1	2		
의류	白紙							49속
	草綠明袖衾							1
	紅苧兒小周衣							1
휴대 용구	靑木衾							1
	帛連							1
	皮紙匣					1		
휴대 용구	鉢囊					3		2

지 몰래 음”(『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용진산에서 패배한 농민군 수만명이 금안면 남산촌 진주, 밤에 함박산에 올라가 염탐”(『난파유고(蘭坡遺稿)』). “11월 24일 도통장 정석진, 도위장 손상문, 초관 박성로, 별장 전학권, 포를 쏘며 남산촌으로 전진하여 격퇴”(『금성정의록』), “포군을 3로(路)로 나누어 진격, 금안면 남산촌 전투”(『난파유고』)”
9)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8쪽 수정 인용.

구분	종별	4.6. 무안계	7.5. 西門	10.21. 砧山, 社倉	11.11. 赤良 嶺珍山	11.17. 水多面 虎藏村	11.17. 古幕浦 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무기류	衫丁							1
	총			11柄				
	조총		1		3	5		30
	친보총				1	1		
	창			2	2			
	화약			9근	1封			3봉
	연환			380개				300
	片箭			660개				
	木丸砲							3
	環刀			2				1
	朱錫三枝槍							2
	木弓			2				
鐵鞭				1				
형별구	棍杖				2			1
운송구	馬							16필
	馬鞍							1
군례류	各色旗							11
	大旗		1					
	令旗		1		1	2		
	肅靜牌			1	2			3
	軍令板				1			1
	稚長毛							5
농악기	鞭橙			1				
	鼓				2			2
	鉦			1				3
	喇叭			1				6
	錚			3				
농기구	推鎌							1
	斧子							1

이 문서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초토군으로 나선 출전 장령 성명질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나주목의 수성군과 호남초토영

군, 호장 등 이서집단, 면 의거소 영수 등 직임과 함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표 3>은 이 문서에 기록된 출전장령의 직임을 전투지별로 정리한 것이다.¹⁰⁾

<표 3> 1894년 4월~11월 나주 지역 동학접전지 출전 장령 직임 현황¹¹⁾

일자	접전지	戶長	吏房	戶房	中軍	退校	座首	千總	攔後別將	首校	討捕首校	將校	下吏
4. 6	무안계												
7. 5	西門	1	1		1	1		1	1	1			7
10.21	광주 砧山, 社倉	1	1		1	1			1				2
11.11	赤良 簞珍山	1	1	1	1		1	1					7
11.17	水多面 虎藏村	1	1	1	1	1		1					4
11.17	古幕浦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1	1		1			1	1	1	1	1	12
		5	5	2	5	3	1	4	3	2	1	1	32

일자	접전지	執事	公務軍官	좌별장	우별장	남문별장	哨官下吏	山砲手	千步隊長	別軍官	軍官	面義舉所領首	계
4. 6	무안계												
7. 5	西門	1	1	1	1	1	18						37
10.21	광주 砧山, 社倉							1					8
11.11	赤良 簞珍山							1	2			7	23
11.17	水多面 虎藏村							1				15	26
11.17	古幕浦橋邊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1							2	1	1	3	28
		2	1	1	1	1	18	3	4	1	1	25	122

10) 이 문서에는 직임과 함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태, 『나주동학 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출전장령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총서 2집-, 앞책, 369~381쪽 참조.

11)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40쪽 수정 인용.

출전 장령의 직임은 23종에 이르고 연인원 122인이다. 중복된 인명을 간추리면 실제 참여한 장령 등은 71인이다. 호남초토사가 보고한 이 문서는 기존에 1894년 12월 문서¹²⁾와 1895년 1월 문서¹³⁾ 2종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들 문서는 전라우도 각 군현 등의 동학농민혁명군 포살에 관련된 내용이다. 반면에 이번에 소개한 1894년 11월 문서는 나주목 관내 7개소에서 동학농민전쟁 관련 전투접전지 장소와 일자, 포살 당해 순국한 동학농민혁명군의 수, 동학군이 소지했던 군수물품,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했던 초토군 장령 등의 직임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보고문서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2)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89). 이 문서에는 전라도 14개소 군현과 순창소모관, 우진영[전라우영], 망운목장 등 17개관에서 모두 486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포착당한 내용이 있다. 동북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나주 41명, 함평 35명, 무안 26명, 능주 26명, 무장 23명, 능주 23명, 영광 23명, 담양 22명, 광주 17명 순이다.(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3~137쪽 참조.)

13)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並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90) 이 문서에는 전라도 13개소 군현, 법성진과 임자진 등 수군진, 벽사역과 경양역 등 찰방역 등 16개관에서 모두 188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포착당한 내용이 있다. 남평, 능주, 동북, 무장, 함평 5개 군현은 위의 1894년 12월 문서에 함께 나타난다. 장흥 벽사역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광양 49명, 부안 18명, 능주 15명, 함평 12명 순이다. 나주권은 나주 우영 압송은 7명, 남평 3명이다(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앞 논문, 137~140쪽 참조.)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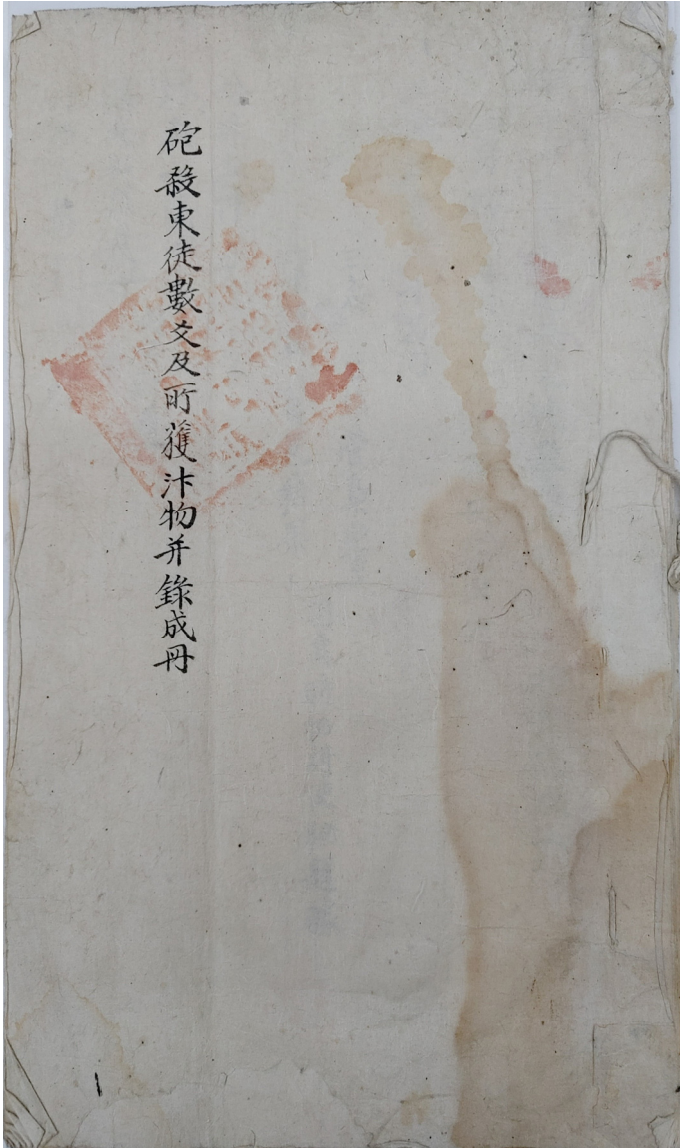
<자료>

- 『고종실록』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난파유고(蘭坡遺稿)』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89).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명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並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90)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文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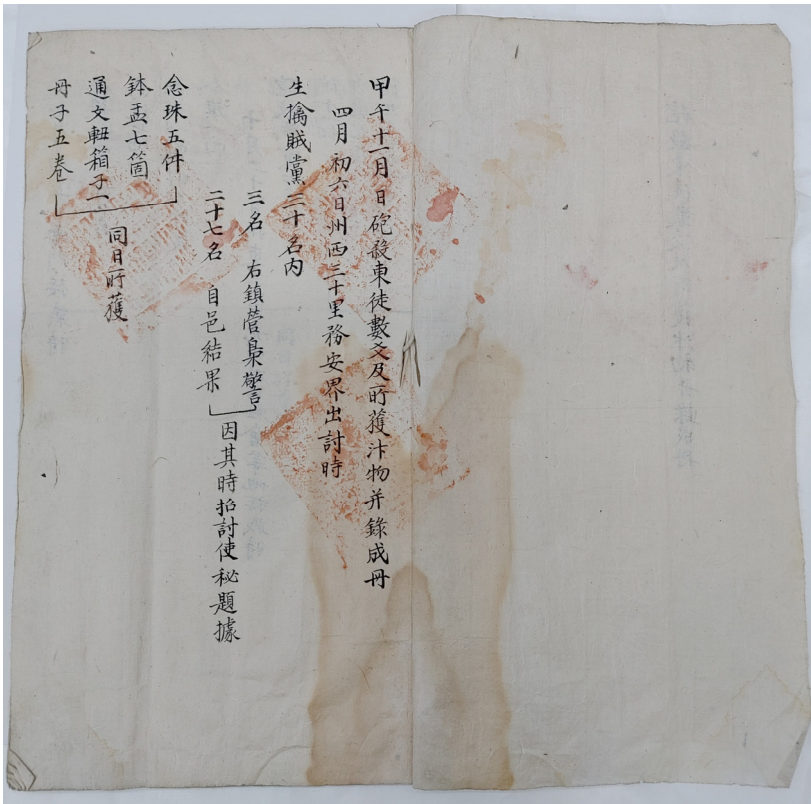
<논문>

- 김봉곤, 2020,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 79, 호남사학회, 61~95쪽.
- 김희태, 2020.10.28,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 -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105~119쪽.
- _____, 2022, 「나주동학농민혁명군 관련 연표와 참여 인명록」,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총서 2집), 나주시, 341~361쪽.
- _____, 2022, 「나주동학농민혁명기 호남초토영군출장명성명질(出戰將領姓名秩)」,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총서 2집), 나주시, 362~380쪽.
- _____, 2022, 「동학농민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나주학총서 2집), 나주시, 121~150쪽.
- 나천수, 2019, 「동학농민군의 나주지역 공략과 민종열 초토사의 방어를 다시보다 -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 기록 등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317~354쪽.
- 박용규, 2023.7.7., 「나주 북동부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혁명군(침산·사창 전투, 용진산 전투, 남산촌 전투를 중심으로)」, 『2023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술대회』 -광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보존-, 전남대평화통일외교센터·동학농민혁명광주유족회·기념사업회, 21~46쪽.
- 배항섭, 2005, 「나주지역 동학농민혁명과 향리층의 동향」,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59~83쪽.

[影印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甲午十一月日砲殺東徒數文及貯獲汴物并錄成冊

四月初六日州西三十里務安界出討時

生擒賊黨三十名內

三名 右鎮營泉營

二十七名 自邑結果

因其時拍討使秘題據

念珠五件

鉢盂七箇

通文輜箱子一

冊子五卷

同日貯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七月初五日西門接戰時
砲殺賊黨一百九名
鳥銃七柄
大旗一面 同日所獲
令旗一面

十月二十一日州東三十里光州砧山社倉等地接戰時
砲殺賊黨二十三名
銃十柄
火藥九斤
鉛丸三百八十介
柳葉箭三百七十箇
斤筈六百五十箇
鎗三柄
環刀三柄
錘三坐
鉦一坐
囉吹箇
木弓二張
鞭橙一箇
渠所謂東經大典一卷

同日所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名錄成冊二卷

各項撥文通輒二

肅靜解一哇

十月十七日州北早里赤良聲孤山接戰時

砲殺賊黨二十一名

千步銃一柄

鳥銃二柄

火藥一封

肅靜解二哇

軍令板一哇

令旗一面

棍杖二箇

鼓二哇

鐵鞭一哇

鎗二柄

各項文韉箱子一

念珠一件

印橫一哇

十月十七日州西三里水多面虎威村接戰時

砲殺賊黨二百二十九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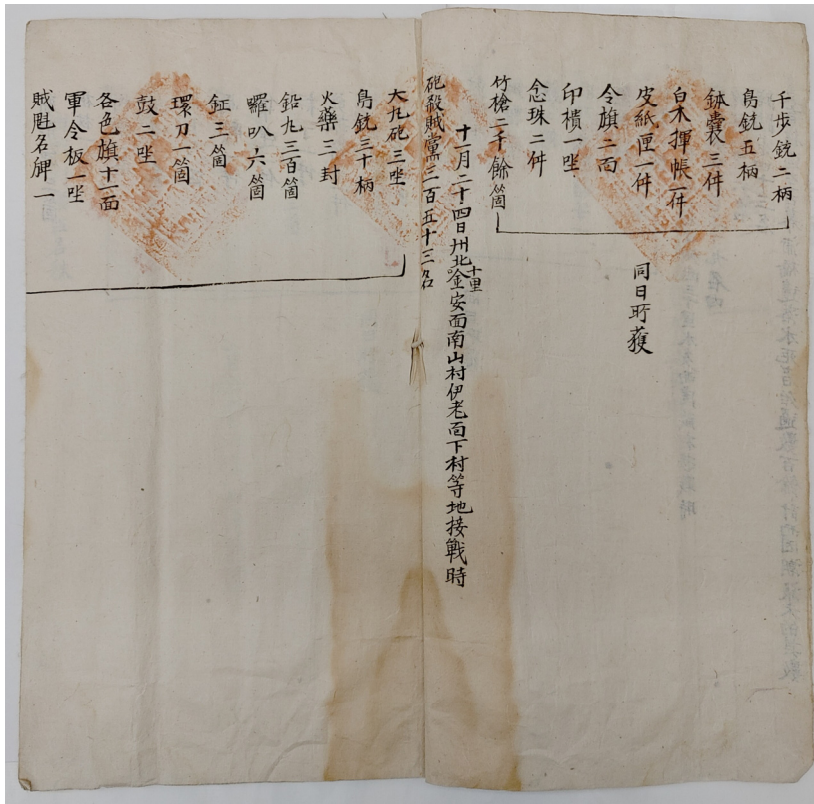
砲殺六十六名

踐踏死四十三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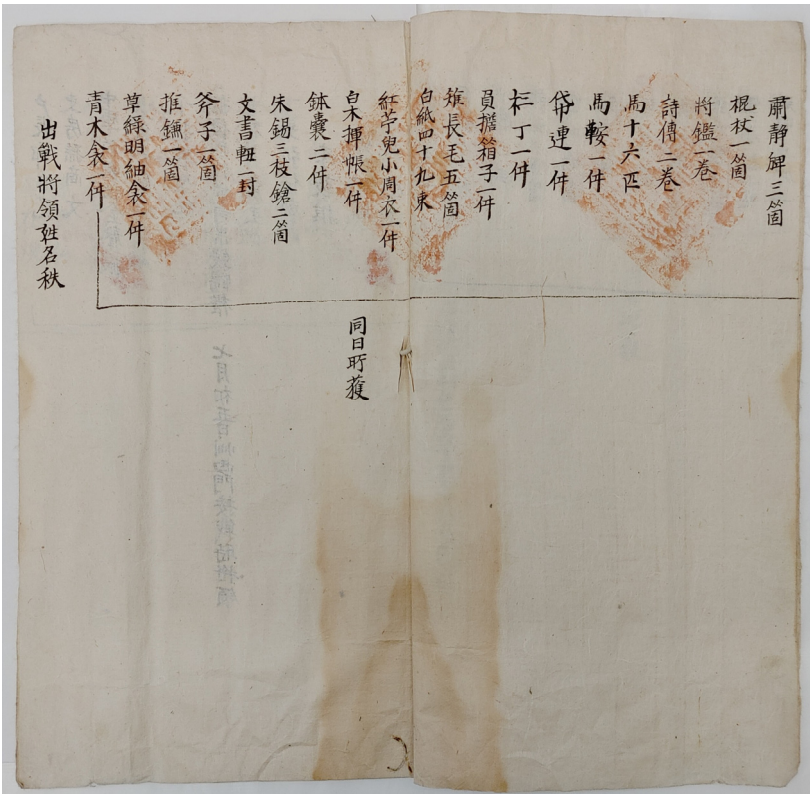
又有被逐至古幕浦橋邊落水死者殆過數百餘計而因潮漲未的其數

同日所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肅靜解三箇

視杖一箇

將鑑一卷

詩傳二卷

馬十六匹

馬鞍一件

袋連一件

柁丁一件

員擔箱子一件

旌長毛五箇

白紙四十九束

紅苧兒小周衣一件

皂木揮帳一件

鉢囊二件

朱錫三枝鎗二箇

文書紐一封

斧子一箇

推鏹一箇

草綠明袖袋一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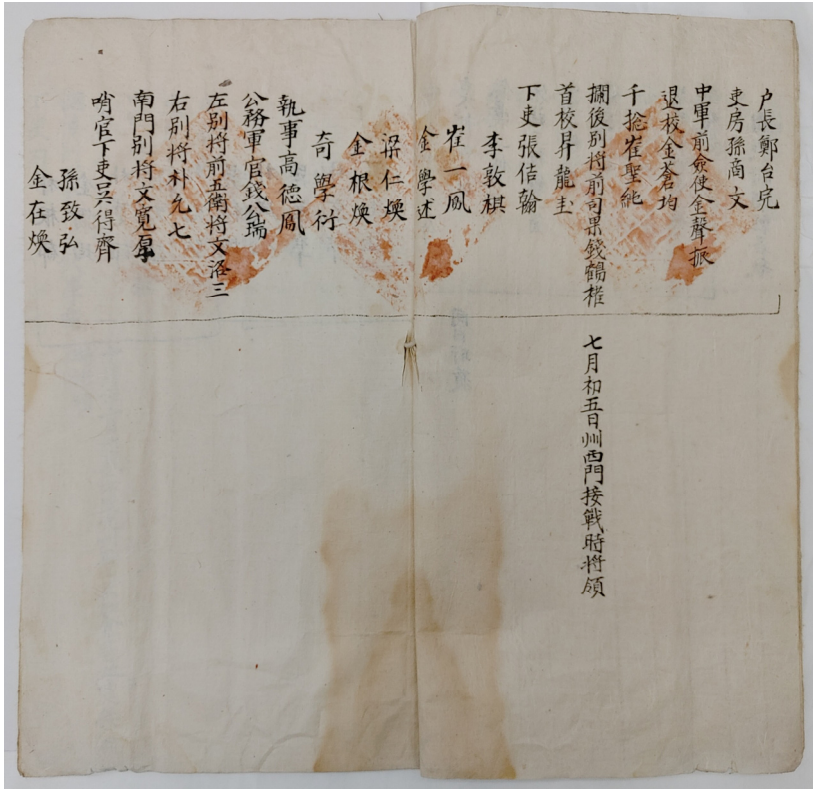
青木傘一件

出戰將領姓名秋

同日野獲

大員等五百餘名... (faint vertical text)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朴根郁
 全錫均
 朴寬郁
 崔允龍
 朴允弘
 吳得煥
 朴成老
 吳華準
 朴京郁
 朴年珪
 朴尚郁
 梁南中
 朴斗瑛
 崔鏐煥
 徐然權
 戶長鄭台完
 史房孫商文
 中軍前僉使金聲振
 退校金蒼均
 攔後別將前司果錢學權
 下吏朴時弘

十月二十日州東手重光州砲出及杜倉等地_二處接戰
 時將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李敦祺
 山砲手姜春三
 戶長鄭台完
 戶房色金在煥
 中軍前僉使金聲振
 吏房孫商文
 座首朴祥壽
 千摠崔聖純
 下吏朴根郁
 朴時弘

崔允龍
 具有述
 金學述
 梁仁煥
 崔文燮

山砲手姜春三
 千步隊長錢公瑞
 金基王

官洞面義舉領首幼學金高煥
 平里面義舉領首幼學金大奎
 脰膾面義舉領首幼學林曾源

十月十日卅北四千里赤良面僻孫山出戰時將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崔信煥

島山面義舉領首幼學梁相善

三加面義舉領首幼學柳東根

赤良面義舉領首幼學李廡孝鎮

戶長鄭台完

吏房孫商文

戶房色金在煥

中軍前僉使金聲振

退校金蒼均

千摠崔聖純

下吏朴根柳

朴時弘

崔文燮

具南述

山砲手姜春三

新村面義舉領首幼學廡有鎮

知良面義舉領首幼學李奎寅

金磨面義舉領首幼學羅薰植

安老面義舉領首幼學金龍鉉

枝竹面義舉領首幼學李信晉

東五面義舉領首幼學柳紀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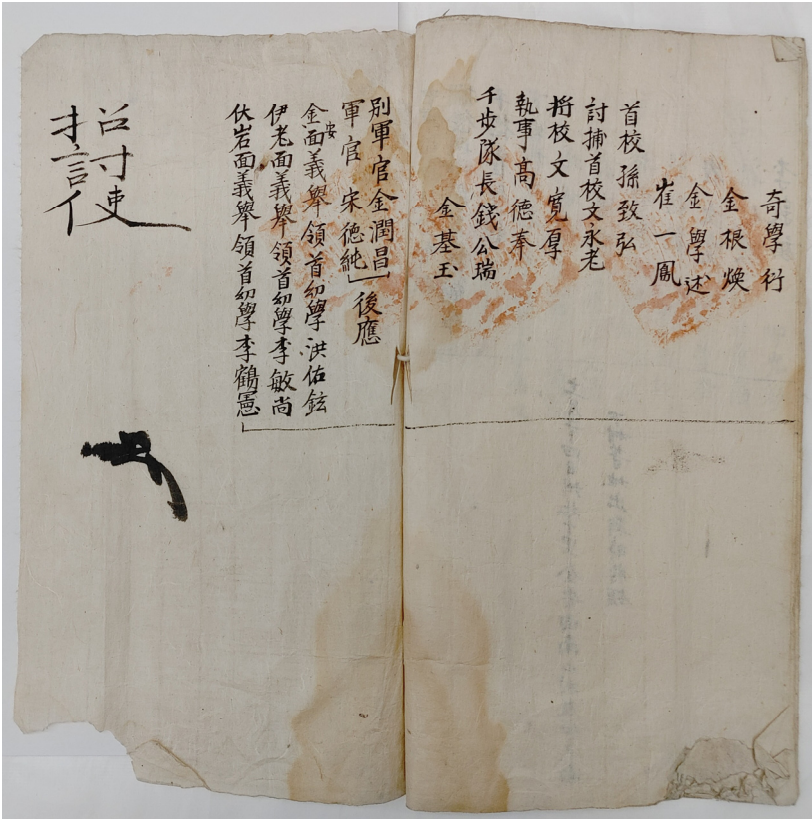
閔益華

十月十七日西三千里求多面弗巖村燈出
戰時掛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上谷面義舉領首幼學 朴熏陽 柳光彩
 林魯奎
 李丙棟
 郁谷面義舉領首幼學 柳澤根
 田旺面義舉領首幼學 朴文湯
 水多面義舉領首幼學 李文蘭 愿
 侍即面義舉領首幼學 李希文
 戶長 鄭台完
 史房 孫商文
 中軍前僉使 金聲振
 攔後別將 前司果 錢鶴權
 千搃 崔聖純
 下吏 朴成老
 朴根郁
 具 有述
 朴時弘
 張 信翰
 崔 文燮
 梁 仁煥
 李敦祺
 土月十四日州北十里 金安 面南山村及伊老面
 下村等地出戰時將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 부 록 ▣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 2023. 4. 1.
 - 연구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 2023. 5. 24.
 - 등재대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3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0:30 ~ 12: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 내용 :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 참석 :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4:3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 발간일자 : 2023. 8. 30.
-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0. 26.(목) 11:00 ~ 18:00
-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흥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3.(금)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15.(수) 14:00~18:00
-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11. 23.(목)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6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5.(토) 14:00 ~ 17:30
-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제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 장흥군
 - 주제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발간
 - 제호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 2023. 11. 30.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23. 12. 15.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 30.(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장)
 - 기부액 : 2,000만원(정읍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4. 5. 11.(토) 17:3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 발간일 : 2024. 5. 31.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4. 6. 27.(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2024 정읍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7. 11.(목)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과 서훈 학술대회(국회토론회)

- 일시 : 2024. 8. 13.(화) 14:00 ~ 18:00
- 장소 : 국회 제3세미나실
- 주제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 후원 :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8. 19.(월) 13:50~18:00
-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주최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워크숍

- 일시 : 2024. 8. 29.(목) 16: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전북 정읍)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방안 모색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6 발간

- 발간일자 : 2024. 8. 30.
- 수록자료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祕書類纂 朝鮮交涉資料)
 -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日淸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節部隊ノ行動)
 - 내란실기 조선 사건(內亂實記朝鮮事件)
 - 조선폭동실기(朝鮮暴動實記)
 - 동아시아각지사기전(東亞先覺志士記傳)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9. 11.(수) ~ 9. 12.(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24. 10. 15.(화) ~ 10. 16.(수)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23.(수) 14:00~18:00
- 장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관 : 남원문화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후원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대동세상을 꿈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

□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30.(수) 14:00~18:00
- 장소 :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2층 공연장)
- 주최 : 완주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 고창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1. 15.(금) 11:00~17:00
-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 주최 : 고창군
- 주관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1. 22.(금)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24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5년 주요 사업 논의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발간

○ 발간일 : 2024. 11. 30.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중(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편집간사 _임현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김양식(청주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윤리간사 _임현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결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정 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회(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 나.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

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 부제 -」, 『책명 - 부제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십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십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채수록 <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

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 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 논문 및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게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심사 희망 전공 분야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 지원기관		
	지원연도/과제명		
<p>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5호 관련)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 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p>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협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 필자 성명 : (인)</p>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 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와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윤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騰錄)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도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顛末)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양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蒼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學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시문기(時聞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홍성 금석문(洪城 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고문서(鄭雲慶家 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즙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所捉什物并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竝錄成冊)

▶ 8권(2010)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 명모지명(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증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木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음작동구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等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臚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 본교역사(本敎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명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俊溶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騰),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敎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教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증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립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증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희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술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본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등오면 의거소 좌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희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겹산집, 고당집, 고현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현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현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인 쇄 _2024년 11월 25일

발 행 _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pISSN 3022-2435 / eISSN 3022-3873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 3, November 2024

Articles

Observations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in the U.S.
– Focusing on the New York Press's Coverage of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

Chang, Kyoung Ho

German Diplomat's Perception for the Donghak Peasant Army

Yoo Bada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rench Diplomats and Missionaries in Chosŏ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Kim, Tae Woong

Russia'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Triple Intervention

Han donghoon

British Perce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hange of Anglo-Japanese Relations

Kwon Euy Suk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Data

– Focusing on the Paper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rchive* –

Team Nok-du · Park, Jung Min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Memorial Facilities in the Place of Publication of DongKyoungDaeJeon

Eom Chanho

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Recognition for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Nam Kyoung-kook

Strategies for Globalizing of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ng, Seongduk
